

조사통계 2025-02

간행물등록번호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연간-2025-008



승인번호
제 383005 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삶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EDI

연구진

- 이지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대리)
- 임예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연구위원)
- 김호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부장)
- 이윤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대리)
- 박서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과장)
- 조신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국 능력개발운영부 차장)
- 최종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

표본설계

- 한국통계학회
박민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

목 차

일러두기	1
요약	3
제1장 서론	69
제1절 조사개관	69
1. 조사배경	69
2. 조사목적	71
3. 조사대상	71
4. 조사구성	72
5. 조사내용	73
6. 조사방법	74
7. 조사기간	74
8. 조사결과	74
9. 조사기관	75
10. 조사경과	75
11. 결과공표	75
제2절 표본설계	76
1. 표본설계 주요 특징	76
2. 표본설계 세부 내용	76
제3절 조사표 설계	83
1. 조사표 설계 방향	83
2. 조사표 설계 과정	85
3. 조사표 설계	87
4. 조사표 체계 및 내용	111
5. TAPI 조사표 개발	116

제4절 조사 실시	120
1. 조사 실시 과정	120
2. 조사 실시 결과	130
제5절 응답 표본 분석 및 신뢰도 검토	131
1. 조사 참여 표본 특성	131
2. 본 보고서 분석 표본 특성(PL, ER 그룹)	135
3. 응답 신뢰도 검토	136
제2장 전체 조사 결과	140
제1절 인적사항 및 장애특성	140
1. 인적사항	140
2. 장애정보	141
3. 장애특성	144
4. 일상생활 수행능력	151
제2절 교육	156
1. 최종학력 및 학교 경험	156
2. 재학생(휴학/유예 포함)의 학교생활 및 진로·직업교육	159
3. 전공과 교육	164
4. 학교 이외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166
제3절 취업상태 확인	168
1. 취업 여부	168
2. 종사상 지위	168
제4절 취업자 특성	169
1. 취업자의 인적구성	169
2. 취업 동기	170
3. 현재 직장(사업체) 정보	172
4. 근속기간 및 취업과정	174
5. 주된 업무 특성	178
6. 근무조건 및 근로환경	181
7. 근무환경	185

8. 장애 관련 지원	190
9. 직업생활	193
10. 일자리 만족 및 지속 근무 의사	195
11.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의 일반고용 전환 의사 및 필요 지원	197
12. 이전 취업 경험	199
제5절 미취업자 특성	200
1. 미취업자의 인적구성	200
2. 취업 경험	202
3. 취업 희망	208
4. 구직활동 및 취업을 위한 준비	216
제6절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219
1. 직업적 능력	219
2. 정보기기 활용 능력	226
3. 고용서비스 이용	227
제7절 일상생활	233
1. 건강과 운동	233
2. 일상생활 도움	239
3. 하루 일과	241
4. 기관 이용 현황	245
5. 사회 참여	246
6. 부당한 경험	249
7. 안전	251
8. 일상생활 변화 및 만족	252
9. 장애 관련 서비스	257
제8절 자립 및 미래 계획	259
1. 자립의지	259
2. 자립준비	262
3. 미래 계획	264
제9절 가구 및 보호자	267
1. 가구 정보	267

2. 보호자 정보	270
제3장 발달장애인(PL, ER 그룹) 당사자 조사 결과	280
제1절 취업과 일자리	280
1. 취업자 조사 결과	280
2. 미취업자 조사 결과	293
제2절 공통조사 결과	300
1. 건강과 행복	300
2. 하고 싶은 활동	302
3. 사회생활	305
4. 경제생활	307
5. 학교생활	308
6. 장애에 대한 생각	309
7. 미래에 대한 생각	311
8. 자신에 대한 생각	312
9. 위급상황 대처	314
참고문헌	315
부록	319

표 목차

〈표 1-1〉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당사자 조사 구성	4
〈표 1-2〉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5
〈표 1-3〉 당사자 조사참여 가능수준 판별 결과, 조사 참여 표본 수 및 분석 표본 수	6
〈표 3-1〉 발달장애인의 인적구성	8
〈표 3-2〉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	9
〈표 3-3〉 의사소통 수준	10
〈표 3-4〉 의사소통 수준 - 이해와 표현하는 수준의 교차 구성비	10
〈표 3-5〉 인지능력 수준	11
〈표 3-6〉 유형별 도전적 행동 여부 - 가끔 하거나 자주 하는 경우	12
〈표 3-7〉 도전적 행동 여부	12
〈표 3-8〉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평균 점수	13
〈표 3-9〉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평균 점수	13
〈표 3-10〉 재학 경험이 있는 학교의 유형	14
〈표 3-11〉 고등학교 재학 이상 발달장애인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행 과정	15
〈표 3-12〉 초/중/고등학교 재학(휴학)생이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진로·직업교육(1순위)	15
〈표 3-13〉 초/중/고등학교 재학(휴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16
〈표 3-14〉 초/중/고등학교 재학(휴학)생의 졸업 이후 진로계획	16
〈표 3-15〉 성인 발달장애인이 향후 참여할 의향이 있는 교육프로그램 종류	17
〈표 3-16〉 취업 여부	17
〈표 3-17〉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18
〈표 3-18〉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계기	18
〈표 3-19〉 현재 직장(사업체) 정보	19
〈표 3-20〉 현재 직장(사업체) 취업 과정	20
〈표 3-21〉 현재 주로 수행하는 업무 특성	21
〈표 3-22〉 근로조건	22
〈표 3-23〉 근무환경	23
〈표 3-24〉 직업생활	24
〈표 3-25〉 일자리 만족 및 지속 근무 의사	25

〈표 3-26〉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일반 일자리 사업체 전환	25
〈표 3-27〉	취업 경험 및 일자리 개수	26
〈표 3-28〉	마지막으로 근무한 일자리 정보 및 미취업기간	27
〈표 3-29〉	향후 취업 의사	28
〈표 3-30〉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	29
〈표 3-31〉	취업 시 일자리에서 필요한 장애 관련 지원	30
〈표 3-32〉	구직활동 경험	31
〈표 3-33〉	직업에 대한 이해	31
〈표 3-34〉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평균적인 능력 수준(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	32
〈표 3-35〉	주관적 근로능력 수준	32
〈표 3-36〉	취업에 대한 지지	33
〈표 3-37〉	정보기기 활용 가능 정도	33
〈표 3-38〉	최근 3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및 필요 여부	34
〈표 3-39〉	최근 3년 이용한 고용서비스 및 필요한 고용서비스(중복응답)	34
〈표 3-40〉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	35
〈표 3-41〉	건강 및 운동,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36
〈표 3-42〉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37
〈표 3-43〉	일상생활 도움 필요 내역	37
〈표 3-44〉	하루 일과	38
〈표 3-45〉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	39
〈표 3-46〉	기관 이용의 주된 목적	39
〈표 3-47〉	사회 참여	40
〈표 3-48〉	일상생활 부당한 경험	40
〈표 3-49〉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 정도 - 할 수 있는 경우	41
〈표 3-50〉	작년(2023년 6월) 대비 일상생활 변화 평균 점수	41
〈표 3-51〉	작년(2023년 6월) 대비 당사자의 삶의 변화 정도	42
〈표 3-52〉	일상생활 만족	42
〈표 3-53〉	당사자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1+2순위)	43
〈표 3-54〉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1+2순위)	43
〈표 3-55〉	자립의지	44
〈표 3-56〉	의사표현 및 자기결정권	44

〈표 3-57〉 자립 준비	45
〈표 3-58〉 미래 계획	46
〈표 3-59〉 가구 정보	47
〈표 3-60〉 보호자 정보	48
〈표 3-61〉 주 보호자 정보	48
〈표 3-62〉 발달장애인 돌봄	49
〈표 4-1〉 취업자의 일자리 및 업무	50
〈표 4-2〉 취업자(PL 그룹)의 추가 조사 결과	51
〈표 4-3〉 미취업자의 취업 희망	51
〈표 4-4〉 미취업자의 희망하는 일자리	52
〈표 4-5〉 일상생활	53
〈표 4-6〉 미래에 대한 생각	54
〈표 4-7〉 자신에 대한 생각	54
〈표 5-1〉 취업 여부별, 미취업자의 취업 희망 여부별 주요 특성 : 보호자 조사	55
〈표 5-2〉 취업 여부별, 미취업자의 취업 희망 여부별 주요 특성 : 당사자(PL, ER 그룹) 조사	56
〈표 5-3〉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취업 및 취업희망 인원(보호자 판단 기준)	57
〈표 5-4〉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취업 및 취업희망 인원(보호자 판단 기준) - 주요 변수별	57
〈표 5-5〉 필요한 고용서비스(중복응답)	58
〈표 5-6〉 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	58
〈표 5-7〉 당사자(PL, ER 그룹 미취업자)와 보호자의 취업 희망 여부 교차(전체 중 비율)	59
〈표 5-8〉 장애유형별 주요 특성 : 보호자 조사	60
〈표 5-9〉 장애유형별 주요 특성 : 당사자(PL, ER 그룹) 조사	61
〈표 5-10〉 연령별 주요 특성 : 보호자 조사	62
〈표 5-11〉 연령별 주요 특성 : 당사자(PL, ER 그룹) 조사	63
〈표 6-1〉 보호자 조사 응답자와 주 보호자의 일치도	64
〈표 6-2〉 보호자 조사 응답자와 발달장애인 동거 여부	64
〈표 6-3〉 그룹별 장애등급 구성	65
〈표 6-4〉 그룹별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65
〈표 6-5〉 그룹별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	66
〈표 6-6〉 그룹별 비언어적 표현 이해 수준	66
〈표 6-7〉 그룹별 비언어적 표현 활용 수준	66

〈표 6-8〉 장애유형별×연령별 교차 구성비의 비교	68
〈표 6-9〉 장애등급별 구성비의 비교	68
〈표 1-1-1〉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당사자 조사 구성	72
〈표 1-1-2〉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73
〈표 1-1-3〉 당사자 조사참여 가능수준 판별 결과, 조사 참여 표본 수 및 분석 표본 수	74
〈표 1-2-1〉 표본추출틀 읍/면/동 수 및 1상 표본 읍/면/동 수	77
〈표 1-2-2〉 1상 표본과 2상 표본의 발달장애인 수	78
〈표 1-2-3〉 표본추출틀 분포와 표본 분포 비교 - 성별	78
〈표 1-2-4〉 표본추출틀 분포와 표본 분포 비교 - 연령	79
〈표 1-2-5〉 표본추출틀 분포와 표본 분포 비교 - 장애유형	79
〈표 1-2-6〉 표본추출틀 분포와 표본 분포 비교 - 지역별	79
〈표 1-2-7〉 변수별 벤치마킹 모집단 분포	81
〈표 1-2-8〉 장애유형별 가중치 분포	81
〈표 1-3-1〉 주요 장애인 조사의 조사영역 구성	87
〈표 1-3-2〉 발달장애인 장애특성 분류	88
〈표 1-3-3〉 주요 적응행동 지표 비교	89
〈표 1-3-4〉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당사자 그룹 구분	102
〈표 1-3-5〉 판별 매뉴얼 중 그림상징 판별지표 지시문(예시)	106
〈표 1-3-6〉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항목 - 보호자 조사	111
〈표 1-3-6〉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항목 - 보호자 조사(계속)	112
〈표 1-3-7〉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항목 - 당사자(PL, ER 그룹) 조사	113
〈표 1-3-8〉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항목 - 당사자(그림상징 그룹) 조사	114
〈표 1-3-9〉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표 세부 변경사항 - 보호자 조사	115
〈표 1-3-10〉 TAPI 논리설계서(예시)	118
〈표 1-4-1〉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실시 과정	120
〈표 1-4-2〉 권역별 조사원 교육 실시	124
〈표 1-4-3〉 조사원 교육 내용	124
〈표 1-4-4〉 사전조사 주요 조사항목	125
〈표 1-4-5〉 본 조사 진행 절차	126
〈표 1-4-6〉 검증 가이드(예시)	129
〈표 1-4-7〉 당사자 조사참여 가능수준 판별 결과, 조사 참여 표본 수	130

〈표 1-5-1〉 전체 발달장애인(3,000명)의 인적구성	131
〈표 1-5-2〉 당사자 조사 참여 발달장애인(2,081명)의 인적구성	132
〈표 1-5-3〉 현장평가 및 무응답 검증 결과(PL, ER 그룹)	134
〈표 1-5-4〉 본 보고서 분석 대상 발달장애인(1,788명)의 인적구성	135
〈표 1-5-5〉 보호자 조사 응답자와 주 보호자의 일치도	136
〈표 1-5-6〉 보호자 조사 응답자와 발달장애인 동거 여부	136
〈표 1-5-7〉 그룹별 장애등급 구성	137
〈표 1-5-8〉 그룹별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137
〈표 1-5-9〉 그룹별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	138
〈표 1-5-10〉 그룹별 비언어적 표현 이해 수준	138
〈표 1-5-11〉 그룹별 비언어적 표현 활용 수준	138
〈표 1-5-12〉 장애유형별×연령별 교차 구성비의 비교	139
〈표 1-5-13〉 장애등급별 구성비의 비교	139
〈표 2-1-1〉 발달장애인의 성별, 연령	140
〈표 2-1-2〉 발달장애인의 혼인상태, 지역	141
〈표 2-1-3〉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	141
〈표 2-1-4〉 발달장애인의 장애등급(2019년 6월 기준)	142
〈표 2-1-5〉 발달장애인의 중복장애 유무	142
〈표 2-1-6〉 중복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중복장애 유형	142
〈표 2-1-7〉 발달장애 의심 및 장애 등록 시기	143
〈표 2-1-8〉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144
〈표 2-1-9〉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	145
〈표 2-1-10〉 비언어적 표현 이해 수준	145
〈표 2-1-11〉 비언어적 표현 활용 수준	146
〈표 2-1-12〉 인지능력 수준	146
〈표 2-1-12〉 인지능력 수준(계속)	147
〈표 2-1-13〉 도전적 행동의 발생 정도	148
〈표 2-1-14〉 도전적 행동의 발생 정도 평균	150
〈표 2-1-15〉 현재 장애상태	150
〈표 2-1-16〉 일상생활 수행능력	151
〈표 2-1-17〉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평균 점수	152

〈표 2-1-18〉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153
〈표 2-1-18〉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계속)	154
〈표 2-1-19〉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평균 점수	155
〈표 2-2-1〉 최종학력	156
〈표 2-2-2〉 재학 경험이 있는 학교의 유형	157
〈표 2-2-3〉 학교 이행 과정	158
〈표 2-2-4〉 학교 교육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미친 도움 정도(졸업/중퇴)	158
〈표 2-2-5〉 현재 재학/휴학(유예) 중인 학교	159
〈표 2-2-6〉 학교생활 적응 정도	159
〈표 2-2-7〉 학교 교육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미치는 도움 정도(재학/휴학)	160
〈표 2-2-8〉 학교 생활의 어려운 점	160
〈표 2-2-9〉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진로·직업교육(1순위)	161
〈표 2-2-10〉 진로·직업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162
〈표 2-2-11〉 졸업 이후 진로계획	163
〈표 2-2-12〉 전공과 진학 의사	163
〈표 2-2-13〉 전공과 경험	164
〈표 2-2-14〉 전공과 교육이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164
〈표 2-2-15〉 전공과에서 더 강화해야 하는 사항	165
〈표 2-2-16〉 최근 3년 학교 이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166
〈표 2-2-17〉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교육프로그램 종류(중복응답)	166
〈표 2-2-18〉 향후 참여할 의향이 있는 교육프로그램 종류	167
〈표 2-3-1〉 발달장애인의 취업 여부	168
〈표 2-3-2〉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168
〈표 2-4-1〉 취업자의 인적구성	169
〈표 2-4-2〉 취업자의 인적구성 - 장애유형별	170
〈표 2-4-3〉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	171
〈표 2-4-4〉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171
〈표 2-4-5〉 현재 직장(사업체)의 산업	172
〈표 2-4-6〉 현재 직장(사업체)의 유형	173
〈표 2-4-7〉 현재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규모	173
〈표 2-4-8〉 현재 직장(사업체)의 다른 발달장애인 규모	174

〈표 2-4-9〉 현재 직장(사업체)에서의 근속기간	174
〈표 2-4-10〉 현재 직장(사업체)에서의 근속기간 - 연령별, 장애유형별	175
〈표 2-4-11〉 현재 직장(사업체) 선택 이유(임금근로자)	176
〈표 2-4-12〉 현재 직장(사업체) 취업경로(임금근로자)	176
〈표 2-4-13〉 현재 직장(사업체) 취업 시 어려움(임금근로자)	177
〈표 2-4-14〉 현재 직장(사업체) 선택 이유(비임금근로자)	177
〈표 2-4-15〉 주로 수행하는 업무 종류	178
〈표 2-4-16〉 직업 구분	179
〈표 2-4-17〉 업무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정도	179
〈표 2-4-18〉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든 정도	180
〈표 2-4-19〉 현재 업무 적응 여부	180
〈표 2-4-20〉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현재 업무를 좋아하는 정도	181
〈표 2-4-21〉 근로계약 상태(임금근로자)	182
〈표 2-4-22〉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182
〈표 2-4-23〉 하루 평균 근로시간	183
〈표 2-4-24〉 근로시간 조정 희망 여부	183
〈표 2-4-25〉 월평균 임금(순수입)	184
〈표 2-4-26〉 임금(순수입) 관리 주체	184
〈표 2-4-27〉 주로 일하는 장소	185
〈표 2-4-28〉 출퇴근 시 주로 이용하는 이동수단(1순위)	185
〈표 2-4-29〉 출퇴근 소요시간(편도 기준)	186
〈표 2-4-30〉 하루 평균 출퇴근 소요비용	186
〈표 2-4-31〉 혼자 출퇴근 가능 여부	187
〈표 2-4-32〉 근무장소의 안전 정도	187
〈표 2-4-33〉 직장(사업체)에서 다친 경험	188
〈표 2-4-34〉 직장(사업체) 사람(고용주, 직장동료)의 이해와 배려 정도	188
〈표 2-4-35〉 직장(사업체)에서 차별, 폭력, 학대 경험 유무	189
〈표 2-4-36〉 직장(사업체)에서 차별, 폭력, 학대 경험 시 보호자의 대처	189
〈표 2-4-37〉 일하기에 적절한 환경 여부	190
〈표 2-4-38〉 장애와 관련해서 받고 있는 지원	190
〈표 2-4-39〉 장애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	191

〈표 2-4-40〉 업무 수행을 도와줄 외부인(근로지원인 등) 이용 의향	192
〈표 2-4-41〉 근무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	193
〈표 2-4-42〉 직업생활 수행 시 보호자 또는 가족이 도와주는지 여부	194
〈표 2-4-43〉 보호자가 사업체(고용주, 인사담당자, 직장상사 등)와 소통하는 정도(임금근로자)	194
〈표 2-4-44〉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195
〈표 2-4-45〉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195
〈표 2-4-46〉 현재 직장(사업체)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	196
〈표 2-4-47〉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에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지 여부	196
〈표 2-4-48〉 당사자의 현재 직장(사업체) 지속 근무에 대한 보호자의 희망 여부	197
〈표 2-4-49〉 일반 사업체 일자리 전환 희망 여부(보호자) 및 가능 여부	197
〈표 2-4-50〉 일반 사업체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198
〈표 2-4-51〉 이전에 다른 직장(사업체)에서 일해 본 경험	199
〈표 2-5-1〉 미취업자의 인적구성	200
〈표 2-5-2〉 미취업자의 인적구성 - 장애유형별	201
〈표 2-5-3〉 취업 경험 및 일자리 개수	202
〈표 2-5-4〉 마지막 직장(일자리)의 산업	203
〈표 2-5-5〉 마지막 직장(일자리)에서 주로 수행한 업무 종류	203
〈표 2-5-6〉 마지막 직장(일자리) 사업체 유형	204
〈표 2-5-7〉 마지막 직장(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204
〈표 2-5-8〉 마지막 직장(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	205
〈표 2-5-9〉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이유	206
〈표 2-5-10〉 당사자가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어했는지 여부	206
〈표 2-5-11〉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의 미취업기간	207
〈표 2-5-12〉 보호자의 발달장애인 취업 희망 여부	208
〈표 2-5-13〉 보호자가 당사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208
〈표 2-5-14〉 보호자가 당사자의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209
〈표 2-5-15〉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	209
〈표 2-5-16〉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	210
〈표 2-5-17〉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져도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없는 주된 이유	210
〈표 2-5-18〉 희망하는 종사상 지위	211
〈표 2-5-19〉 희망하는 직장(일자리) 사업체 유형	211

〈표 2-5-20〉 희망하는 업무 종류	212
〈표 2-5-21〉 희망하는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212
〈표 2-5-22〉 희망하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	213
〈표 2-5-23〉 희망하는 최소 월평균 임금(순수입) 수준	213
〈표 2-5-24〉 희망하는 일자리	214
〈표 2-5-25〉 희망하는 취업 시기	214
〈표 2-5-26〉 취업 시 장애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215
〈표 2-5-27〉 취업 시 업무 수행을 도와줄 외부인(근로지원인 등) 이용 의향	215
〈표 2-5-28〉 최근 3년 내 일자리를 구해본 경험	216
〈표 2-5-29〉 최근 3년 내 이력서 제출 또는 면접 경험	216
〈표 2-5-30〉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	217
〈표 2-5-31〉 취업을 위한 준비 여부	217
〈표 2-5-32〉 취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1순위)	218
〈표 2-6-1〉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	219
〈표 2-6-2〉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수준(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	220
〈표 2-6-2〉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수준(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계속)	221
〈표 2-6-2〉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수준(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계속)	222
〈표 2-6-3〉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평균적인 능력 수준(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	222
〈표 2-6-4〉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기술이나 자격 보유 여부	223
〈표 2-6-5〉 주관적 근로능력 수준	223
〈표 2-6-6〉 최종증 발달장애인 취업 의사	224
〈표 2-6-7〉 발달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224
〈표 2-6-8〉 취업을 원할 경우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수(미취업자)	225
〈표 2-6-9〉 컴퓨터 활용 가능 정도	226
〈표 2-6-10〉 스마트폰 활용 가능 정도	226
〈표 2-6-11〉 최근 3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227
〈표 2-6-12〉 최근 3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중복응답)(전체 발달장애인)	227
〈표 2-6-13〉 이용한 고용서비스의 도움 정도	228
〈표 2-6-13〉 이용한 고용서비스의 도움 정도(계속)	229
〈표 2-6-14〉 필요한 고용서비스 유무(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 취업자)	229
〈표 2-6-15〉 필요한 고용서비스 유무(전체 발달장애인)	230

〈표 2-6-16〉 필요한 고용서비스(중복응답)(전체 발달장애인)	230
〈표 2-6-17〉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	231
〈표 2-6-18〉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 취업자)	232
〈표 2-7-1〉 전반적인 건강상태	233
〈표 2-7-2〉 작년 대비 건강상태 변화	233
〈표 2-7-3〉 현재 건강상태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수준	234
〈표 2-7-4〉 만성질병 유무	234
〈표 2-7-5〉 만성질병 종류(중복응답)	235
〈표 2-7-6〉 (조기)노화 여부	236
〈표 2-7-7〉 (조기)노화 여부 - 연령별	236
〈표 2-7-8〉 평소 운동 여부	237
〈표 2-7-9〉 하루 평균 운동시간	237
〈표 2-7-10〉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238
〈표 2-7-11〉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및 필요 수준	239
〈표 2-7-12〉 필요한 만큼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는지 정도	239
〈표 2-7-13〉 일상생활 주 도움 제공자(1순위)	240
〈표 2-7-14〉 주 도움 제공자 외에 다른 도움 제공자 유무	240
〈표 2-7-15〉 평일 주된 활동(1순위)	241
〈표 2-7-16〉 평일 주된 활동(1+2+3순위)	242
〈표 2-7-17〉 주말 주된 활동(1순위)	242
〈표 2-7-18〉 주말 주된 활동(1+2+3순위)	243
〈표 2-7-19〉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이렇게 일과를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244
〈표 2-7-20〉 당사자의 하루 일과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	244
〈표 2-7-21〉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	245
〈표 2-7-22〉 기관 이용의 주된 목적	245
〈표 2-7-23〉 기관의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및 하루 평균 이용 시간	246
〈표 2-7-24〉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기관 지속 이용 의사	246
〈표 2-7-25〉 여가시간에 집 밖에서의 활동을 좋아하는 정도	246
〈표 2-7-26〉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247
〈표 2-7-27〉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	247
〈표 2-7-28〉 최근 1년 동안의 활동과 참여 경험	248

〈표 2-7-29〉 거주지 주변 주요 시설 이용 여건	249
〈표 2-7-30〉 평소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정도	249
〈표 2-7-31〉 최근 1년 폭력, 학대, 방치 등 경험 여부	250
〈표 2-7-32〉 최근 1년 차별, 폭력, 학대, 방치 등 대처 방법	250
〈표 2-7-33〉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 정도	251
〈표 2-7-34〉 작년(2023년 6월) 대비 일상생활 변화 정도	252
〈표 2-7-34〉 작년(2023년 6월) 대비 일상생활 변화 정도(계속)	253
〈표 2-7-34〉 작년(2023년 6월) 대비 일상생활 변화 정도(계속)	254
〈표 2-7-35〉 작년(2023년 6월) 대비 일상생활 변화 정도 평균	255
〈표 2-7-36〉 작년(2023년 6월) 대비 당사자의 삶의 질 변화 정도	256
〈표 2-7-37〉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일상생활 만족 정도	256
〈표 2-7-38〉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	257
〈표 2-7-39〉 당사자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1+2순위)	258
〈표 2-7-40〉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1+2순위)	258
〈표 2-8-1〉 당사자의 향후 희망 거주 유형	259
〈표 2-8-2〉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가능 정도	260
〈표 2-8-3〉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의지	260
〈표 2-8-4〉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정도	261
〈표 2-8-5〉 당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주된 주체(결정권자)	261
〈표 2-8-6〉 자립을 위해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1순위)	262
〈표 2-8-7〉 자립을 위해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자립생활 능력(1순위)	263
〈표 2-8-8〉 당사자의 자립 준비 수준	263
〈표 2-8-9〉 자립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립을 시도할 의향	264
〈표 2-8-10〉 당사자의 미래 계획 수립 여부	265
〈표 2-8-11〉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1순위)	265
〈표 2-8-12〉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1+2순위)	266
〈표 2-8-13〉 사보험 가입 여부	266
〈표 2-9-1〉 가구원 수	267
〈표 2-9-2〉 가구 내 부모 거주 여부	267
〈표 2-9-3〉 당사자 출생 순위	268
〈표 2-9-4〉 가구의 가구주	268

〈표 2-9-5〉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 유무(당사자 제외)	269
〈표 2-9-6〉 가구원 중 발달장애인 유무(당사자 제외)	269
〈표 2-9-7〉 가구 월평균 소득	270
〈표 2-9-8〉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여부	270
〈표 2-9-9〉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	271
〈표 2-9-10〉 발달장애인의 부 보호자	271
〈표 2-9-11〉 주 보호자의 인구통계학 변수별 정보	272
〈표 2-9-12〉 부 보호자의 취업상태	273
〈표 2-9-13〉 주 보호자의 건강상태	273
〈표 2-9-14〉 주 보호자의 일주일 평균 돌봄 일수	274
〈표 2-9-15〉 주 보호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274
〈표 2-9-16〉 평일에 보호자나 돌봐주는 사람 없이 당사자가 혼자 있는 하루 평균 시간 ..	275
〈표 2-9-17〉 보호자 부재 시 돌봄 방법	275
〈표 2-9-18〉 돌봄 시 겪는 어려움(1순위)	276
〈표 2-9-19〉 주 보호자가 일을 하면서 예정에 없던 일로 인해 추가로 돌봄을 구해본 경험 여부 및 시간	276
〈표 2-9-2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인지 수준	277
〈표 2-9-21〉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유형	278
〈표 2-9-22〉 전반적인 돌봄 부담 정도	278
〈표 2-9-23〉 보호자의 삶의 만족 정도	279
〈표 3-1-1〉 일을 하는 이유	280
〈표 3-1-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281
〈표 3-1-3〉 일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부	282
〈표 3-1-4〉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지 여부	282
〈표 3-1-5〉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는지 여부	283
〈표 3-1-6〉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는지 여부(일의 종류별)	284
〈표 3-1-7〉 하는 일이 힘든지 여부	284
〈표 3-1-8〉 현재보다 더 길게 일하고 싶은지 여부(PL 그룹)	285
〈표 3-1-9〉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교육받고 싶은지 여부	285
〈표 3-1-10〉 일하고 받는 금액 인지 여부(PL 그룹)	286
〈표 3-1-11〉 일하고 받는 금액의 걱정 여부(PL 그룹)	286
〈표 3-1-12〉 일할 때 필요한 도움(중복응답)	287

〈표 3-1-13〉 하는 일 다칠 수 있는지 여부	287
〈표 3-1-14〉 일자리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288
〈표 3-1-15〉 일자리에서 불이 나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	288
〈표 3-1-16〉 불이 나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289
〈표 3-1-17〉 일할 때 사람들이 놀리거나, 때리거나, 아프게 한 경험 유무	290
〈표 3-1-18〉 일하다가 힘들거나 화날 때 하고 싶은 방법	290
〈표 3-1-19〉 일자리를 계속 다니고 싶은지 여부	291
〈표 3-1-20〉 일자리를 그만 다니고 싶은 이유(PL 그룹)	292
〈표 3-1-21〉 일하고 싶은지 여부	293
〈표 3-1-22〉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	293
〈표 3-1-23〉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	294
〈표 3-1-24〉 당장 내일부터 일할 의향	294
〈표 3-1-25〉 일하고 싶은 이유	295
〈표 3-1-26〉 희망하는 일의 종류	296
〈표 3-1-27〉 장애인들과 모여서 일하고 싶은지 여부	297
〈표 3-1-28〉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지 여부	298
〈표 3-1-29〉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	298
〈표 3-2-1〉 요즘 건강한지 여부	300
〈표 3-2-2〉 요즘 행복한지 여부	301
〈표 3-2-3〉 가족들과 잘 지내는지 여부(PL 그룹)	301
〈표 3-2-4〉 세 가지 중 제일 하고 싶은 활동(ER 그룹)	302
〈표 3-2-5〉 세 가지 중 제일 하고 싶은 활동(1순위)(PL 그룹)	302
〈표 3-2-6〉 여가시간에 하고 싶은 집 안 활동(2개 중복응답)	303
〈표 3-2-7〉 여가시간에 하고 싶은 집 밖 활동(2개 중복응답)	304
〈표 3-2-8〉 배우고 싶은 것	304
〈표 3-2-9〉 친구 유무	305
〈표 3-2-10〉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할 수 있는지 여부(ER 그룹)	305
〈표 3-2-11〉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는지 여부(PL 그룹)	306
〈표 3-2-12〉 화가 나면 화났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	307
〈표 3-2-13〉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카드) 유무	307
〈표 3-2-14〉 학교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부	308

〈표 3-2-15〉 졸업 이후 희망하는 활동	308
〈표 3-2-16〉 평소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여부	309
〈표 3-2-17〉 장애로 인해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이 있는지 여부(PL 그룹)	310
〈표 3-2-18〉 장애로 인해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은 경험 유무	310
〈표 3-2-19〉 다른 사람이 때리거나 아프게 한 경험 유무	311
〈표 3-2-20〉 나중예(또는 어른이 되면) 살고 싶은 방식	311
〈표 3-2-21〉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PL 그룹)	312
〈표 3-2-22〉 자신에 대한 생각(PL 그룹)	313
〈표 3-2-23〉 집에 불이 나면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는지 여부	314

그림 목차

[그림 1-3-1] 판별지표 중 그림상징 판별지표의 상징들(예시)	105
[그림 1-3-2] 판별 시연 동영상 제작, 교육	106
[그림 1-3-3] 읽기 쉬운 조사표(예시)	109
[그림 1-3-4] 그림상징 조사표(예시)	110
[그림 1-3-5]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표 기본 구조	114
[그림 1-3-6] TAPI Interviewer 화면(예시)	117
[그림 1-3-7] TAPI 설문 프로그램 화면(예시)	117
[그림 1-3-8] TAPI Manager 화면(예시)	119
[그림 1-4-1] 조사 안내 포스터 및 조사 실시 안내문	121
[그림 1-4-2]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생활정보 및 직업정보 안내서 제공	122
[그림 1-4-3]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조사 안내 및 팸플릿	123
[그림 1-4-4] 발달장애인 당사자 조사를 위한 전문가 교육 진행	125
[그림 1-4-5]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진행률 추이	130

부표 목차

〈부표 1-1-1〉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 변동계수(CV)	321
〈부표 1-1-2〉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 - 변동계수(CV)	321
〈부표 1-1-3〉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 변동계수(CV)	321
〈부표 1-2-1〉 발달장애인 취업 여부 - 변동계수(CV)	321
〈부표 2-1-1〉 발달장애인의 연령, 혼인상태, 지역 - 성별	322
〈부표 2-1-2〉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중복장애 유무 - 성별	322
〈부표 2-1-3〉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 성별	323
〈부표 2-1-4〉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 - 성별	323
〈부표 2-1-5〉 인지능력 수준 평균 - 성별	323
〈부표 2-1-6〉 도전적 행동의 발생 정도 평균 - 성별	324
〈부표 2-1-7〉 현재 장애상태 - 성별	324
〈부표 2-1-8〉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평균 점수 - 성별	324
〈부표 2-1-9〉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평균 점수 - 성별	325
〈부표 2-1-10〉 최종학력 - 성별	325
〈부표 2-1-11〉 학교 교육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미친 도움 정도(졸업/중퇴) - 성별 ..	325
〈부표 2-1-12〉 학교 이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 성별	326
〈부표 2-1-13〉 발달장애인의 취업 여부 - 성별	326
〈부표 2-1-14〉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 성별	326
〈부표 2-1-15〉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 - 성별	327
〈부표 2-1-16〉 현재 직장(사업체)의 유형 - 성별	327
〈부표 2-1-17〉 현재 직장(사업체)의 종사상 규모 - 성별	327
〈부표 2-1-18〉 현재 직장(사업체)의 다른 발달장애인 규모 - 성별	328
〈부표 2-1-19〉 현재 직장(사업체)에서의 근속기간 - 성별	328
〈부표 2-1-20〉 현재 직장(사업체) 선택 이유(임금근로자) - 성별	328
〈부표 2-1-21〉 주로 수행하는 업무 종류 - 성별	329
〈부표 2-1-22〉 현재 업무 적응 여부 - 성별	329
〈부표 2-1-23〉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현재 업무를 좋아하는 정도 - 성별 ..	329
〈부표 2-1-24〉 근로계약 상태(임금근로자) - 성별	329

〈부표 2-1-25〉 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 성별	330
〈부표 2-1-26〉 월평균 임금(순수입) - 성별	330
〈부표 2-1-27〉 혼자 출퇴근 가능 여부 - 성별	330
〈부표 2-1-28〉 직장(사업체)에서 다친 경험 - 성별	330
〈부표 2-1-29〉 직장(사업체) 사람(고용주, 직장동료)의 이해와 배려 정도 - 성별	331
〈부표 2-1-30〉 장애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 - 성별	331
〈부표 2-1-31〉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 성별	332
〈부표 2-1-32〉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을 좋아하는 정도 및 보호자의 만족 정도·성별	332
〈부표 2-1-33〉 취업 경험 및 일자리 개수 - 성별	332
〈부표 2-1-34〉 당사자가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어했는지 여부 - 성별	333
〈부표 2-1-35〉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의 미취업기간 - 성별	333
〈부표 2-1-36〉 보호자의 발달장애인 취업 희망 여부 - 성별	333
〈부표 2-1-37〉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 - 성별	333
〈부표 2-1-38〉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 - 성별	334
〈부표 2-1-39〉 희망하는 업무 종류 - 성별	334
〈부표 2-1-40〉 희망하는 일자리 - 성별	334
〈부표 2-1-41〉 희망하는 취업 시기 - 성별	335
〈부표 2-1-42〉 취업 시 장애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 성별	335
〈부표 2-1-43〉 최근 3년 내 일자리를 구해본 경험 - 성별	335
〈부표 2-1-44〉 취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1순위) - 성별	336
〈부표 2-1-45〉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 - 성별	336
〈부표 2-1-46〉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평균적인 능력 수준(사람들의 평균적 수준과 비교) - 성별	337
〈부표 2-1-47〉 주관적 근로능력 수준 - 성별	337
〈부표 2-1-48〉 컴퓨터 활용 가능 정도 - 성별	337
〈부표 2-1-49〉 스마트폰 활용 가능 정도 - 성별	338
〈부표 2-1-50〉 최근 3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성별	338
〈부표 2-1-51〉 필요한 고용서비스(중복응답)(전체 발달장애인) - 성별	338
〈부표 2-1-52〉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 - 성별	339
〈부표 2-1-53〉 전반적인 건강상태 - 성별	339
〈부표 2-1-54〉 만성질병 유무 - 성별	339
〈부표 2-1-55〉 (조기)노화 여부 - 성별	339

〈부표 2-1-56〉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 성별	340
〈부표 2-1-57〉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및 필요 수준 - 성별	340
〈부표 2-1-58〉 하루 일과에 대한 만족도 - 성별	341
〈부표 2-1-59〉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 - 성별	341
〈부표 2-1-60〉 여가시간에 집 밖에서의 활동을 좋아하는 정도 - 성별	341
〈부표 2-1-61〉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 성별	341
〈부표 2-1-62〉 거주지 주변 주요 시설 이용 여건 - 성별	342
〈부표 2-1-63〉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 정도 - 성별	342
〈부표 2-1-64〉 평소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정도 - 성별	342
〈부표 2-1-65〉 최근 1년 폭력, 학대, 방치 등 경험 여부 - 성별	342
〈부표 2-1-66〉 작년(2023년 6월) 대비 일상생활 변화 정도 평균 - 성별	343
〈부표 2-1-67〉 작년(2023년 6월) 대비 당사자의 삶의 질 변화 정도 - 성별	343
〈부표 2-1-68〉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와 보호자의 일상생활 만족 정도 - 성별	343
〈부표 2-1-69〉 당사자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1+2순위) - 성별	344
〈부표 2-1-70〉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1+2순위) - 성별	344
〈부표 2-1-71〉 당사자의 향후 희망 거주 유형 - 성별	345
〈부표 2-1-72〉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가능 정도 - 성별	345
〈부표 2-1-73〉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의지 - 성별	345
〈부표 2-1-74〉 자립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립을 시도할 의향 - 성별	345
〈부표 2-1-75〉 당사자의 미래 계획 수립 여부 - 성별	346
〈부표 2-1-76〉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1+2순위) - 성별	346
〈부표 2-1-77〉 가구원 수 - 성별	347
〈부표 2-1-78〉 가구의 가구주 - 성별	347
〈부표 2-1-79〉 가구원 중 장애인 유무(당사자 제외) - 성별	347
〈부표 2-1-80〉 가구 월평균 소득 - 성별	347
〈부표 2-1-81〉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여부 - 성별	348
〈부표 2-1-82〉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 - 성별	348
〈부표 2-1-83〉 발달장애인의 부 보호자 - 성별	348
〈부표 2-1-84〉 주 보호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 성별	348
〈부표 2-1-85〉 전반적인 돌봄 부담 정도 - 성별	349
〈부표 2-2-1〉 일을 하는 이유 - 성별	350

〈부표 2-2-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성별	350
〈부표 2-2-3〉 일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부 - 성별	350
〈부표 2-2-4〉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지 여부 - 성별	351
〈부표 2-2-5〉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는지 여부 - 성별	351
〈부표 2-2-6〉 하는 일 다칠 수 있는지 여부 - 성별	351
〈부표 2-2-7〉 일자리에선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 성별	351
〈부표 2-2-8〉 일자리에선 불이 나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 - 성별	352
〈부표 2-2-9〉 일자리를 계속 다니고 싶은지 여부 - 성별	352
〈부표 2-2-10〉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 - 성별	352
〈부표 2-2-11〉 당장 내일부터 일할 의향 - 성별	352
〈부표 2-2-12〉 일하고 싶은 이유 - 성별	353
〈부표 2-2-13〉 희망하는 일의 종류 - 성별	353
〈부표 2-2-14〉 장애인들과 모여서 일하고 싶은지 여부 - 성별	353
〈부표 2-2-15〉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 - 성별	354
〈부표 2-2-16〉 요즘 행복한지 여부 - 성별	354
〈부표 2-2-17〉 세 가지 중 제일 하고 싶은 활동(ER 그룹) - 성별	354
〈부표 2-2-18〉 세 가지 중 제일 하고 싶은 활동(1순위)(PL 그룹) - 성별	355
〈부표 2-2-19〉 배우고 싶은 것 - 성별	355
〈부표 2-2-20〉 친구 유무 - 성별	355
〈부표 2-2-21〉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카드) 유무 - 성별	355
〈부표 2-2-22〉 평소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여부 - 성별	356
〈부표 2-2-23〉 장애로 인해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 있는지 여부(PL 그룹) - 성별	356
〈부표 2-2-24〉 나중엔(또는 어른이 되면) 살고 싶은 방식 - 성별	356
〈부표 2-2-25〉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PL 그룹) - 성별	356
〈부표 2-2-26〉 자신에 대한 생각(PL 그룹) - 성별	357
〈부표 2-2-27〉 집에 불이 나면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는지 여부 - 성별	357
〈부표 3-1-1〉 발달장애인의 성별, 혼인상태, 지역 - 연령별	358
〈부표 3-1-2〉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중복장애 유무 - 연령별	358
〈부표 3-1-3〉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 연령별	359
〈부표 3-1-4〉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 - 연령별	359
〈부표 3-1-5〉 인지능력 수준 평균 - 연령별	359

〈부표 3-1-6〉 도전적 행동의 발생 정도 평균 - 연령별	360
〈부표 3-1-7〉 현재 장애상태 - 연령별	360
〈부표 3-1-8〉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평균 점수 - 연령별	360
〈부표 3-1-9〉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평균 점수 - 연령별	361
〈부표 3-1-10〉 최종학력 - 연령별	361
〈부표 3-1-11〉 학교 교육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미친 도움 정도(졸업/중퇴) - 연령별 ..	361
〈부표 3-1-12〉 학교 이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 연령별	362
〈부표 3-1-13〉 발달장애인의 취업 여부 - 연령별	362
〈부표 3-1-14〉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 연령별	362
〈부표 3-1-15〉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 - 연령별	363
〈부표 3-1-16〉 현재 직장(사업체)의 유형 - 연령별	363
〈부표 3-1-17〉 현재 직장(사업체)의 종사상 규모 - 연령별	363
〈부표 3-1-18〉 현재 직장(사업체)의 다른 발달장애인 규모 - 연령별	364
〈부표 3-1-19〉 현재 직장(사업체)에서의 근속기간 - 연령별	364
〈부표 3-1-20〉 현재 직장(사업체) 선택 이유(임금근로자) - 연령별	364
〈부표 3-1-21〉 주로 수행하는 업무 종류 - 연령별	365
〈부표 3-1-22〉 현재 업무 적응 여부 - 연령별	365
〈부표 3-1-23〉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현재 업무를 좋아하는 정도 - 연령별 ..	365
〈부표 3-1-24〉 근로계약 상태(임금근로자) - 연령별	365
〈부표 3-1-25〉 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 연령별	366
〈부표 3-1-26〉 월평균 임금(순수입) - 연령별	366
〈부표 3-1-27〉 혼자 출퇴근 가능 여부 - 연령별	366
〈부표 3-1-28〉 직장(사업체)에서 다친 경험 - 연령별	366
〈부표 3-1-29〉 직장(사업체) 사람(고용주, 직장동료)의 이해와 배려 정도 - 연령별	367
〈부표 3-1-30〉 장애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 - 연령별	367
〈부표 3-1-31〉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 연령별	368
〈부표 3-1-32〉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을 좋아하는 정도 및 보호자의 만족 정도- 연령별	368
〈부표 3-1-33〉 취업 경험 및 일자리 개수 - 연령별	368
〈부표 3-1-34〉 당사자가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어했는지 여부 - 연령별 ...	369
〈부표 3-1-35〉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의 미취업기간 - 연령별	369
〈부표 3-1-36〉 보호자의 발달장애인 취업 희망 여부 - 연령별	369

〈부표 3-1-37〉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 - 연령별	369
〈부표 3-1-38〉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 - 연령별	370
〈부표 3-1-39〉 희망하는 업무 종류 - 연령별	370
〈부표 3-1-40〉 희망하는 일자리 - 연령별	370
〈부표 3-1-41〉 희망하는 취업 시기 - 연령별	371
〈부표 3-1-42〉 취업 시 장애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 연령별	371
〈부표 3-1-43〉 최근 3년 내 일자리를 구해본 경험 - 연령별	371
〈부표 3-1-44〉 취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1순위) - 연령별	372
〈부표 3-1-45〉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 - 연령별	372
〈부표 3-1-46〉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평균적인 능력 수준(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 - 연령별	373
〈부표 3-1-47〉 주관적 근로능력 수준 - 연령별	373
〈부표 3-1-48〉 컴퓨터 활용 가능 정도 - 연령별	373
〈부표 3-1-49〉 스마트폰 활용 가능 정도 - 연령별	374
〈부표 3-1-50〉 최근 3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연령별	374
〈부표 3-1-51〉 필요한 고용서비스(중복응답)(전체 발달장애인) - 연령별	374
〈부표 3-1-52〉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 - 연령별	375
〈부표 3-1-53〉 전반적인 건강상태 - 연령별	375
〈부표 3-1-54〉 만성질병 여부 - 연령별	375
〈부표 3-1-55〉 (조기)노화 여부 - 연령별	375
〈부표 3-1-56〉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 연령별	376
〈부표 3-1-57〉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및 필요 수준 - 연령별	376
〈부표 3-1-58〉 하루 일과에 대한 만족도 - 연령별	377
〈부표 3-1-59〉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 - 연령별	377
〈부표 3-1-60〉 여가시간에 집 밖에서의 활동을 좋아하는 정도 - 연령별	377
〈부표 3-1-61〉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 연령별	377
〈부표 3-1-62〉 거주지 주변 주요 시설 이용 여건 - 연령별	378
〈부표 3-1-63〉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 정도 - 연령별	378
〈부표 3-1-64〉 평소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정도 - 연령별	378
〈부표 3-1-65〉 최근 1년 폭력, 학대, 방치 등 경험 여부 - 연령별	378
〈부표 3-1-66〉 작년(2023년 6월) 대비 일상생활 변화 정도 평균 - 연령별	379
〈부표 3-1-67〉 작년(2023년 6월) 대비 당사자의 삶의 질 변화 정도 - 연령별	379

〈부표 3-1-68〉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와 보호자의 일상생활 만족 정도 - 연령별	379
〈부표 3-1-69〉 당사자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1+2순위) - 연령별	380
〈부표 3-1-70〉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1+2순위) - 연령별	380
〈부표 3-1-71〉 당사자의 향후 희망 거주 유형 - 연령별	381
〈부표 3-1-72〉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가능 정도 - 연령별	381
〈부표 3-1-73〉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의지 - 연령별	381
〈부표 3-1-74〉 자립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립을 시도할 의향 - 연령별	381
〈부표 3-1-75〉 당사자의 미래 계획 수립 여부 - 연령별	382
〈부표 3-1-76〉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1+2순위) - 연령별	382
〈부표 3-1-77〉 가구원 수 - 연령별	383
〈부표 3-1-78〉 가구의 가구주 - 연령별	383
〈부표 3-1-79〉 가구원 중 장애인 유무(당사자 제외) - 연령별	383
〈부표 3-1-80〉 가구 월평균 소득 - 연령별	383
〈부표 3-1-81〉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여부 - 연령별	384
〈부표 3-1-82〉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 - 연령별	384
〈부표 3-1-83〉 발달장애인의 부 보호자 - 연령별	384
〈부표 3-1-84〉 주 보호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 연령별	384
〈부표 3-1-85〉 전반적인 돌봄 부담 정도 - 연령별	385
〈부표 3-2-1〉 일을 하는 이유 - 연령별	386
〈부표 3-2-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연령별	386
〈부표 3-2-3〉 일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부 - 연령별	386
〈부표 3-2-4〉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지 여부 - 연령별	387
〈부표 3-2-5〉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는지 여부 - 연령별	387
〈부표 3-2-6〉 하는 일 다칠 수 있는지 여부 - 연령별	387
〈부표 3-2-7〉 일자리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 연령별	387
〈부표 3-2-8〉 일자리에서 불이 나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 - 연령별	388
〈부표 3-2-9〉 일자리를 계속 다니고 싶은지 여부 - 연령별	388
〈부표 3-2-10〉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 - 연령별	388
〈부표 3-2-11〉 당장 내일부터 일할 의향 - 연령별	388
〈부표 3-2-12〉 일하고 싶은 이유 - 연령별	389
〈부표 3-2-13〉 희망하는 일의 종류 - 연령별	389

〈부표 3-2-14〉 장애인들과 모여서 일하고 싶은지 여부 - 연령별 389

〈부표 3-2-15〉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 - 연령별 390

〈부표 3-2-16〉 요즘 행복한지 여부 - 연령별 390

〈부표 3-2-17〉 세 가지 중 제일 하고 싶은 활동(ER 그룹) - 연령별 390

〈부표 3-2-18〉 세 가지 중 제일 하고 싶은 활동(1순위)(PL 그룹) - 연령별 391

〈부표 3-2-19〉 배우고 싶은 것 - 연령별 391

〈부표 3-2-20〉 친구 유무 - 연령별 391

〈부표 3-2-21〉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카드) 유무 - 연령별 391

〈부표 3-2-22〉 평소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여부 - 연령별 392

〈부표 3-2-23〉 장애로 인해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 있는지 여부(PL 그룹) - 연령별 392

〈부표 3-2-24〉 나중에(또는 어른이 되면) 살고 싶은 방식 - 연령별 392

〈부표 3-2-25〉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PL 그룹) - 연령별 392

〈부표 3-2-26〉 자신에 대한 생각(PL 그룹) - 연령별 393

〈부표 3-2-27〉 집에 불이 나면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는지 여부 - 연령별 393

일러두기

1.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을 의미합니다.
2. 본 조사는 발달장애인의 당사자 조사와 보호자 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조사에서는 발달장애인 본인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문항이 있고, 보호자 조사에서는 보호자의 의견과 보호자가 판단(추정)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구분하여 묻는 문항이 있으므로 해석과 비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보고서의 “전체 조사 결과”는 보호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4. 본 자료에 수록된 당사자 조사 결과는 조사참여 가능수준을 판별하여 응답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발달장애인의 응답 결과이므로 전체 발달장애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본 보고서의 통계 결과는 우리나라 15세 이상 전체 발달장애인에 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자 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6. 통계수치는 해당 단위에서 반올림되었기 때문에 세목의 합과 총계(또는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계표에 대한 해설 시에서도 두 개 이상 세목의 합으로 설명하는 경우 개별 세목의 수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문항마다 응답자(응답 베이스)가 다를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주석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유념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조사표 분기 또는 문항 분기로 인해 개별 문항별로 응답자 수가 적을 수 있으므로 실제 표본 수가 적은 영역의 통계표는 관측된 수가 적거나 비어있는 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석 시 유의바랍니다. 또한 표본 수가 적은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 해석과 활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비중을 구하는 분석에서는 '모름/응답거절'을 포함하였으며, 평균을 구하는 분석에서는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습니다.
10. 산업·직업별 분류는 제10차 산업(2018년), 제7차 직업(2018년) 분류 기준을 따랐습니다.
11. 통계표 중 사용된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0 : 단위미만
 - - : 해당숫자 없음
12.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추가적인 자료정리 과정을 거쳐 통계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1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에서 원시자료 및 관련 보고서 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4.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수치 및 원시자료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031-728-7143)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I.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개요

1. 도입배경

- 발달장애인의 규모와 비중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9세 이하 저연령대에서는 전체 장애인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 자립생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으로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이에 따라 정확한 실태와 욕구 파악이 중요
- 기존 통계조사는 발달장애인만의 특성과 제반 환경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찾아보기 어려움

2. 조사목적

-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복지정책 설계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3.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제383005호

4. 조사대상

- 2024년 5월 15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 자폐성장애에 해당하는 법정 등록장애인 기준
 - 표집틀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명부 사용
 - 지역, 장애유형(지적·자폐성) 등에 따라 층화 및 무작위 추출

5. 조사구성

-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를 모두 조사하는 쌍체조사로 구성
 - 발달장애인 보호자 조사 후 당사자 조사 진행
- 당사자 조사표 3종과 보호자 조사표 1종으로 구성
 -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조사참여 가능수준에 따라 네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 맞게 개발된 특수조사표로 조사
 - 조사참여 가능수준을 판별하고자 전문가에 의해 별도 개발된 ‘판별조사표’ 활용

〈표 1-1〉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당사자 조사 구성

그룹 구분	명명	조사표
① 보통 읽기 자료 그룹 (Plain Language Group) - 보통 읽기 조사표를 활용하여 상당 부분 직접 조사 참여가 가능한 그룹	PL 그룹	“보통 읽기 조사표” (“읽기 쉬운 조사표”에 보통 읽기 자료 그룹 수준용 문항 추가)
② 읽기 쉬운 자료 그룹 (Easy to Read Group) - 읽기 쉬운 조사표를 활용하여 일정 부분 직접 조사 참여가 가능한 그룹	ER 그룹	“읽기 쉬운 조사표”
③ 그림상징 그룹 (Graphic Symbols Group) - 그림상징 등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아 조사 참여가 가능한 그룹	그림상징 그룹	“그림상징 조사표”
④ 조사 참여 불가능 그룹	미참여 그룹	당사자 조사 제외

- 발달장애인 당사자 조사표는 QA. 취업과 일자리, QB. 공통조사로 구성
- 발달장애인 보호자 조사표는 장애당사자의 A. 인적사항 및 장애특성, B. 교육, C. 취업상태 확인, D. 취업자 특성, E. 미취업자 특성, F.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G. 일상생활, H. 자립 및 미래 계획, I. 가구 및 보호자로 구성

6. 조사내용

- 발달장애인의 삶 전반의 내용과 제반 환경을 포함하되, 취업과정과 욕구, 취업실태 및 유지, 취업 이후의 삶 등 일과 삶의 연계과정과 관련된 요인 및 결과 중심으로 조사
 - 이를 통해 고용 및 복지정책, 서비스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
-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주로 조사하고, 당사자의 경우 본인에게 직접 질문해야 하는 항목 위주로 조사함

〈표 1-2〉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대상	구분	주요 조사항목
보호자	A. 인적사항 및 장애특성	응답자 정보, 인적사항, 장애정보, 의사소통 수준, 인지능력 수준, 도전적 행동 수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B. 교육	교육 이수 내역, 재학생의 학교생활/진로·직업교육/진로계획, 전공과 경험/강화교육, 학교 이외 교육프로그램 참여·희망 등
	C. 취업상태 확인	취업 여부, 종사상 지위
	D. 취업자 특성	취업 동기, 일자리 정보, 취업과정, 업무특성, 근로조건 및 근무실태, 근무환경, 장애 관련 지원, 직업생활, 일자리 만족 및 지속 근무 의사, 직업재활시설 일반고용 전환, 이전 취업 경험 등
	E. 미취업자 특성	취업 경험, 취업 희망 여부 및 희망 일자리, 구직경험 및 취업준비 등
	F.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직업 가치관, 근로능력, 취업에 대한 지지, 정보기기 활용 가능 정도, 고용서비스 경험/욕구 등
	G. 일상생활	건강/(조기)노화, 운동/일상문제, 일상생활 도움, 하루 일과, 복지관·센터 등 기관 이용 현황, 사회 참여, 부당한 경험, 재난 안전, 일상생활 변화 및 만족, 장애 관련 서비스 욕구
	H. 자립 및 미래 계획	향후 희망 거주 유형, 자립 가능 정도, 자립 의지, 자립 준비 사항, 자립 시도 의향, 미래 계획 수립 여부,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
	I. 가구 및 보호자	가구 정보, 보호자 정보, 돌봄 시간 및 부담, 보호자 삶의 만족 등
대상	구분	주요 조사항목
당사자 (PL/ER)	QA. 취업과 일자리	(취업자 조사) 취업 동기, 업무 정보 및 만족, 일자리 안전 및 환경, 필요한 도움, 근무시간 연장 희망 여부, 지속 근무 의사 등 (미취업자 조사) 취업 희망 여부, 희망 일자리, 교육 희망 여부, 일하고 싶은 이유/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 등
	QB. 공통조사	건강과 행복, 하고 싶은 활동, 사회생활, 경제생활, 학교생활, 장애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자신에 대한 생각, 위급상황 대처 등
당사자 (그림상징)	그림상징조사	일상생활 수행, 희망하는 활동 등 16개 그림상징문항 (응답 일관성 테스트 1문항 포함)

주: 그림상징 그룹 조사 결과는 본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음

7. 조사방법

- 태블릿 PC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8. 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 조사기간: 2024. 6. 17.(월) ~ 2024. 9. 30.(월) (약 3.5개월)
- 조사기준시점: 2024. 6. 15.

9. 조사결과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3천가구 조사 완료
 - 발달장애인 당사자 2,149명, 발달장애인 보호자 3,000명 조사 완료
 - * PL, ER 그룹 응답 신뢰도 검증을 통해 부적합 응답을 제외한 최종 1,788명 분석

〈표 1-3〉 당사자 조사참여 가능수준 판별 결과, 조사 참여 표본 수 및 분석 표본 수

그룹 구분	판별 표본 수	조사 참여 표본 수	분석 표본 수
① 보통 읽기 자료 그룹 (PL 그룹)	1,039명 (34.6%)	1,038명	1,036명
② 읽기 쉬운 자료 그룹 (ER 그룹)	797명 (26.6%)	762명	752명
③ 그림상징 그룹	313명 (10.4%)	281명	-
④ 조사 참여 불가능 그룹	851명 (28.4%)	-	-

10. 조사기관

-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주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 종합 기획, 조사표 및 지침 개발, TAPI 프로그램 논리구성, 심사관리, 데이터 검증,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결과 공표
 - (주)한국리서치: TAPI 프로그램 개발, 조사원 채용 및 관리, 실사 진행 등

11. 결과공표

- 조사 실시 익년 상반기 간행물 또는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II.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의의

1.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조사설계

-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유형과는 구분되는 장애적 특성으로 기존 통계조사 방식으로는 정확한 실태와 욕구 파악이 어려움
- 이에 조사설계의 전 과정에서 차별화된 고려와 안배를 적용함
 - 조사대상: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당사자와 보호자가 짝을 이뤄 조사
 - 표본설계: 자폐성장장애인의 표본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대할당 적용
 - 조사내용: 장애적 특성, 특수교육 및 진로·직업교육, 일자리와 일상생활에서의 지원과 돌봄, 고용 및 장애 관련 서비스 이용 등 발달장애인만의 특성이 반영된 문항 개발
 - 조사방법: 장애인조사 경험이 오래된 조사원으로 100% 구성하여 대면면접방법으로 조사

2.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발달장애인 친화적, 전문적 조사

- 기존 통계조사들은 보호자만 조사하거나, 보호자의 대리응답과 당사자의 응답이 혼재
 - 삶의 의사결정과 정책수립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지속 배제
-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자 당사자의 조사참여 가능수준을 판별하기 위한 판별조사표와 판별 결과에 따라 최대한 많은 당사자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읽기 쉬운 조사표, 그림상징 조사표 등을 개발하여 적용함
 - 관련 전문가에 의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으로 개발
- 발달장애인 친화적 조사 수행을 위해 읽기 쉬운 조사안내, 직업정보 서적 제공 등 당사자, 보호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적용
- 당사자와 보호자, 정책입안자, 연구자, 시설/단체 현장 전문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 조사의 전문성 제고

3. 국가승인통계(제383005호)로 정책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나, 통계의 생산과정부터 결과까지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적용함
 - 국가승인통계(제383005호)로 등재되어 발달장애인 정부정책 수립, 국가 의사결정 과정, 발달장애인 고용 정책 설계 등 관련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Ⅲ. 주요 결과 1 - 전체 조사 결과

1. 인적사항 및 장애 특성

- 2024년 6월 현재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223,772명 중 남성은 138,787명(62.0%), 여성은 84,985명(38.0%)임
- 연령별로는 15~19세 10.5%, 20대 27.5%, 30대 20.7%, 40대 16.1%, 50대 13.3%, 60세 이상은 11.8%로 평균 연령은 37.9세임
- 최종학력은 '무학' 13.6%, '초등학교 졸업' 11.6%, '중학교 졸업' 13.9%, '고등학교 졸업' 55.2%, '대학교 이상 졸업' 5.7%임
- 현재 거주지역은 서울 13.1%, 경기 21.6%, 광역시도 23.9%, 기타시도 41.4%임

〈표 3-1〉 발달장애인의 인적구성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별	남성	138,787	62.0
	여성	84,985	38.0
연령	15~19세	23,460	10.5
	20~29세	61,579	27.5
	30~39세	46,376	20.7
	40~49세	36,117	16.1
	50~59세	29,811	13.3
	60세 이상	26,429	11.8
	평균 연령		37.9세
학력	무학	30,411	13.6
	초등학교 졸업	25,890	11.6
	중학교 졸업	31,161	13.9
	고등학교 졸업	123,527	55.2
	대학교 이상 졸업	12,782	5.7
지역	서울	29,419	13.1
	경기	48,366	21.6
	광역시도	53,391	23.9
	기타시도	92,596	41.4
전 체		223,772	100.0

주: "지역"에서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함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223,772명 중 지적장애인은 202,265명으로 90.4%, 자폐성장애인은 21,507명으로 9.6%임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응답받은 결과, 1급 23.4%, 2급 37.5%, 3급 36.4%임
- 중복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발달장애인의 9.3%인 20,771명임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장애 유형으로는 뇌병변장애가 2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체장애(20.1%), 뇌전증장애(17.3%), 청각장애(9.8%), 언어장애(7.1%) 등의 순임

〈표 3-2〉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장애	202,265	90.4
	자폐성장애	21,507	9.6
2019년 6월 시점 장애등급	1급	52,340	23.4
	2급	83,986	37.5
	3급	81,346	36.4
	2019년 7월 이후 등록	6,100	2.7
중복장애 유무	중복장애 있음	20,771	9.3
	중복장애 없음	203,001	90.7
전 체		223,772	100.0

주: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부터 폐지됐지만 통계적 활용을 위한 질문임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함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말을 두 문장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하는 경우는 52.1%,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하는 경우는 28.1%임
-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과 관련해서는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함' 56.2%,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21.4%, '불명료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10.7%,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함' 7.4%, '소리 등으로도 전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음' 4.3%임
-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이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이상이면서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이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이상인 경우는 전체 발달장애인 223,772명 중 74.4%인 166,463명임

〈표 3-3〉 의사소통 수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두 문장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함	116,582	52.1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62,917	28.1
	단어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28,492	12.7
	다른 사람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함	15,781	7.1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함	125,826	56.2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47,943	21.4
	불명료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23,963	10.7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함	16,506	7.4
	소리 등으로도 전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음	9,534	4.3
전 체		223,772	100.0

〈표 3-4〉 의사소통 수준 - 이해와 표현하는 수준의 교차 구성비

(단위: %)

구 분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전 체
		두 문장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함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단어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다른 사람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함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함	48.6	7.3	0.4	0.0	56.2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2.6	15.9	2.6	0.3	21.4
	불명료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0.6	3.7	6.1	0.3	10.7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함	0.3	0.6	3.2	3.2	7.4
	소리 등으로도 전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음	0.0	0.5	0.5	3.2	4.3
전 체		52.1	28.1	12.7	7.1	100.0

- 주 1) 전체 셀 중의 비율임
 2)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 문자(한글)에 대한 인지능력 수준과 관련해서 한글 읽기가 가능한 비율은 제한적으로 가능한 수준을 포함하여 70.4%, 한글 쓰기가 가능한 비율은 69.1%임
-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가능한 수준을 포함하면 숫자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비율은 65.7%, 날짜, 요일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비율은 66.8%, 위치, 장소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비율은 73.5%, 주위 사람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비율은 78.8%, 안전, 위생 등 상황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비율은 73.3%임

〈표 3-5〉 인지능력 수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문자에 대한 인지 - 한글 읽기	불가능	66,072	29.5
	제한적으로 가능	60,551	27.1
	가능	96,911	43.3
문자에 대한 인지 - 한글 쓰기	불가능	68,767	30.7
	제한적으로 가능	66,789	29.8
	가능	87,876	39.3
숫자에 대한 인지 (수 개념)	불가능	76,439	34.2
	제한적으로 가능	75,404	33.7
	가능	71,589	32.0
날짜, 요일에 대한 인지	불가능	73,897	33.0
	제한적으로 가능	62,201	27.8
	가능	87,334	39.0
위치, 장소에 대한 인지	불가능	59,003	26.4
	제한적으로 가능	76,012	34.0
	가능	88,389	39.5
주위 사람에 대한 인지	불가능	46,905	21.0
	제한적으로 가능	82,432	36.8
	가능	93,986	42.0
상황에 대한 인지	불가능	59,458	26.6
	제한적으로 가능	80,237	35.9
	가능	83,680	37.4
전 체		223,772	100.0

주: 항목별 모름/응답거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발달장애인이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하는 비율은 21.7%, '타인을 해치는 행동'은 14.0%,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은 17.3%, '방해하는 행동'은 17.3%, '특이한 반복적인 습관'은 26.4%,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은 17.9%, '위축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은 24.4%, '비협조적인 행동'은 24.0%임
- 8가지 유형의 도전적 행동을 모두 하지 않는 경우는 54.5%, 최소 한 가지 이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하는 경우는 45.2%임

〈표 3-6〉 유형별 도전적 행동 여부 - 가끔 하거나 자주 하는 경우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전체 중 비율
자신을 해치는 행동	48,607	21.7
타인을 해치는 행동	31,283	14.0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	38,636	17.3
방해하는 행동	38,748	17.3
특이한 반복적인 습관	59,085	26.4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39,985	17.9
위축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	54,583	24.4
비협조적인 행동	53,614	24.0
전 체	223,772	100.0

주: 항목별 '가끔 함', '자주 함' 인원과 비율임(항목별 합산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음)

〈표 3-7〉 도전적 행동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전체 중 비율
8가지 유형의 도전적 행동 모두 전혀 하지 않음	121,953	54.5
8가지 유형의 도전적 행동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함	101,256	45.2
전 체	223,772	100.0

주: 모름/응답거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관련해서 '걷기', '차려놓으면 식사하기', '배변 및 배뇨'에 비해 '목욕하기', '세수나 양치, 머리 감기', '옷 갈아입기'가 상대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함
-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항목별 평균 점수들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점수들보다 낮음
 - '돈 관리하기', '빨래하기', '식사 준비하기'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3-8〉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평균 점수

(단위: 4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옷 갈아입기	3.39	223,772
세수나 양치, 머리 감기	3.33	223,772
목욕하기	3.22	223,772
차려놓으면 식사하기	3.48	223,585
걷기	3.57	223,453
배변 및 배뇨	3.44	223,749

- 주 1)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1,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2,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3,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4의 평균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없이 혼자 할 수 있음을 의미
 2)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 3-9〉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평균 점수

(단위: 4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머리 빗기, 손·발톱 깎기, 화장(여자) 또는 면도(남자)	3.05	223,772
청소하기	2.75	222,668
식사 준비하기	2.51	222,763
빨래하기	2.50	221,962
가까운 곳 외출하기	2.84	223,505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2.63	223,304
물건 구입하기	2.61	223,604
돈 관리하기	2.31	223,599
전화 사용하기	2.81	223,256
약 챙겨먹기	2.82	222,438

- 주 1)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1,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2,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3,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4의 평균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없이 혼자 할 수 있음을 의미
 2)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2. 교육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학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을 다니는 비율은 초, 중, 고에 걸쳐 점차 줄어들고, 특수학교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표 3-10〉 재학 경험이 있는 학교의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초등학교	특수학교	40,421	19.3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57,176	27.4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111,296	53.2
	대안학교 등 기타	151	0.1
	전 체	209,045	100.0
중학교	특수학교	50,875	28.6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57,044	32.1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69,553	39.1
	대안학교 등 기타	404	0.2
	전 체	177,876	100.0
고등학교	특수학교	52,520	34.1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53,347	34.6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47,937	31.1
	대안학교 등 기타	187	0.1
	전 체	153,992	100.0

주: 초/중/고등학교별로 재학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 고등학교 재학 경험이 있는 경우 초/중/고등학교 유형별로 이행 과정을 살펴보면
 -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계속 유지한 경우가 53.6%,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을 계속 다닌 경우는 29.2%임
 - 초등학교는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이었으나 중학교부터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으로 이동하여 고등학교까지 이수한 경우는 9.4%임
 - 5.5%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을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으로 이동

〈표 3-11〉 고등학교 재학 이상 발달장애인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행 과정

구 분	추정 수	비율 (단위: 명, %)
(초)특수학교/학급→(중)특수학교/학급→(고)특수학교/학급	82,481	53.6
(초)특수학교/학급→(중)특수학교/학급→(고)일반학급	1,153	0.7
(초)특수학교/학급→(중)일반학급→(고)특수학교/학급	320	0.2
(초)특수학교/학급→(중)일반학급→(고)일반학급	1,189	0.8
(초)일반학급→(중)특수학교/학급→(고)특수학교/학급	14,441	9.4
(초)일반학급→(중)특수학교/학급→(고)일반학급	619	0.4
(초)일반학급→(중)일반학급→(고)특수학교/학급	8,459	5.5
(초)일반학급→(중)일반학급→(고)일반학급	44,955	29.2
기타	376	0.2
전 체	153,992	100.0

- 주 1) 고등학교 재학(휴학), 중퇴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은 동일 범주로 분석하였으며, 한 번이라도 ‘대안학교 등 기타’로 간 경우는 ‘기타’에 포함
 3) 응답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18,267명의 보호자는 학교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37.3%), ‘진로설계’(16.7%), ‘직업훈련’(16.5%), ‘직업탐색’(12.6%), ‘현장실습 및 지원고용’(6.7%)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받기를 희망하고 있음

〈표 3-12〉 초/중/고등학교 재학(휴학)생이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진로·직업교육(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진로설계	3,043	16.7
직업탐색	2,295	12.6
직업평가	21	0.1
직업훈련	3,007	16.5
현장실습 및 지원고용	1,224	6.7
취업준비훈련	565	3.1
취업지원	868	4.8
취업 후 사후 관리	199	1.1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6,821	37.3
기타	224	1.2
전 체	18,267	100.0

주: 현재 초/중/고등학교 재학/휴학(유예) 중인 경우에 질문함

- 진로·직업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의 장애상태, 특성 등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 및 코칭'(37.1%)이 가장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관련 교육과정 확대'(17.3%), '발달장애인 교육 전문인력 확보'(10.2%)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3-13〉 초/중/고등학교 재학(휴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충분한 진로·직업 상담과 평가	1,628	8.9
개인의 장애상태, 특성 등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 및 코칭	6,773	37.1
발달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관련 교육과정 확대	3,155	17.3
진로·직업교육 시간 확대	808	4.4
발달장애인 교육 전문인력 확보	1,856	10.2
기자재, 보조기기, 편의시설 등 지원 필요	828	4.5
현장실습, 인턴 등 일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1,453	8.0
장애인 취업알선기관, 사업체 등과의 연계프로그램 확대	1,251	6.8
기타	515	2.8
전 체	18,267	100.0

주: 현재 초/중/고등학교 재학/휴학(유예) 중인 경우에 질문함

-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18,267명의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해서 '상급학교 진학(전공과 포함)'(46.2%),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음'(21.0%), '취업'(13.3%), '취업 관련 훈련 또는 교육 참여'(9.9%) 등의 순으로 응답
-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전공과 진학에 대해 보호자의 50.4%가 진학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표 3-14〉 초/중/고등학교 재학(휴학)생의 졸업 이후 진로계획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졸업 이후 진로계획	상급학교 진학(전공과 포함)	8,438	46.2
	취업	2,434	13.3
	취업 관련 훈련 또는 교육 참여	1,812	9.9
	취업 이외 훈련 또는 교육 참여	478	2.6
	가정 내 생활	698	3.8
	보호시설 입소	492	2.7
	기타	77	0.4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3,839	21.0
전공과 진학 의사	진학할 의사가 있음	9,204	50.4
	진학할 의사가 없음	4,177	22.9
	아직 모르겠음	4,886	26.7
전 체	18,267	100.0	

주: 현재 초/중/고등학교 재학/휴학(유예) 중인 경우에 질문함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4.9%는 향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15.0%는 생활기술교육, 11.6%는 직업능력교육을, 9.8%는 문화예술교육을 희망함

〈표 3-15〉 성인 발달장애인이 향후 참여할 의향이 있는 교육프로그램 종류

구 분	추정 수	(단위: 명, %)
		비율
생활기술교육	30,759	15.0
기초문해교육	9,630	4.7
학력보완교육	497	0.2
직업능력교육	23,871	11.6
문화예술교육	20,172	9.8
인문교양교육	5,295	2.6
시민참여교육	1,833	0.9
특별히 없음	112,911	55.0
전 체	205,179	100.0

주 1)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질문함

2) 모름/응답거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취업자 특성

- 2024년 6월 15일 주간을 기준으로 하여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임금, 비임금의 형태로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68,230명으로 비율은 30.5%임

〈표 3-16〉 취업 여부

구 분	추정 수	(단위: 명, %)
		비율
취업하여 일하고 있음	68,230	30.5
일하고 있지 않음	155,542	69.5
전 체	223,772	100.0

주: 취업 여부에 대한 판단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의 기준을 준용함

-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94.6%인 64,524명은 임금 근로자이며, 2.1%는 자영업자, 3.3%는 무급가족종사자임

〈표 3-17〉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구 분	추정 수	(단위: 명, %)
		비율
임금근로자	64,524	94.6
자영업자	1,427	2.1
무급가족종사자	2,279	3.3
취업자 전체	68,230	100.0

주: “취업 여부”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음’을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는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려고’가 3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33.0%)’,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17.0%) 등의 순임
-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부모 및 가족’이 4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 당사자’(28.9%), ‘복지관, 시설 등 종사자’(10.9%), ‘학교 교사’(4.6%) 등의 순임

〈표 3-18〉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계기

구 분	추정 수	(단위: 명, %)	
		비율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려고	24,599	36.1
	돈을 벌기 위해서(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22,529	33.0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11,630	17.0
	낮 시간을 보내려고(돌봄의 일환)	5,254	7.7
	장애인 본인이 일하고 싶어해서	3,408	5.0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부모 및 가족	33,628	49.3
	장애인 당사자	19,727	28.9
	복지관, 시설 등 종사자	7,467	10.9
	학교 교사	3,169	4.6
취업자 전체	68,230	100.0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사업체)의 산업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46.3%로 가장 많고, ‘제조업’ 30.2%, ‘도소매, 음식 숙박업’ 14.2% 등의 순으로 많음
- 직장(사업체)의 유형은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가 40.1%로 가장 많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22.6%),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13.5%) 등의 순임
-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규모(사업장 기준)는 ‘10~49인’이 43.9%로 가장 많고, ‘1~4인’(16.1%), ‘5~9인’(15.9%) 등의 순임
- 현재 다른 발달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비율이 74.7%임

〈표 3-19〉 현재 직장(사업체) 정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산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31,599	46.3
	제조업	20,608	30.2
	도소매, 음식 숙박업	9,710	14.2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3,183	4.7
사업체 유형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7,335	40.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15,400	22.6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9,179	13.5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	9,130	13.4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자리	3,873	5.7
종사자 규모	1~4인	10,972	16.1
	5~9인	10,845	15.9
	10~49인	29,934	43.9
	50~99인	5,800	8.5
	100인 이상	9,352	13.7
다른 발달장애인 종사자 유무	있음	50,948	74.7
	1~4명	19,752	28.9
	5명 이상	31,196	45.7
	없음	15,793	23.1
취업자 전체		68,230	100.0

- 주 1)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 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현재 직장(사업체) 근속기간은 '3~10년 미만'이 34.7%로 가장 많고, 평균 근속기간은 5년임
- 발달장애인 임금근로자가 현재 직장(사업체) 취업을 선택한 이유로 '업무가 장애인의 능력 수준에 맞아서'가 36.1%,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잘되어 있어서'(18.5%), '근로조건이 좋아서(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근로환경 등)'(14.0%)의 응답이 많음
-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단체/협회 등의 소개, 알선'이 4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족, 친구, 선후배, 일자리 동료 등 주변 지인의 소개 및 추천'(25.4%) 등의 순임
- 현재 직장(사업체)에 취업하기까지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특별히 없었음'이 34.3%로 가장 많은 가운데,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체 자체가 없거나 부족했음'(27.3%), '발달장애인 채용정보나 사업체의 특성 정보를 알기 어려웠음'(13.8%) 등의 순임

〈표 3-20〉 현재 직장(사업체) 취업 과정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근속기간	1년 미만	18,065	26.5
	1~3년 미만	15,901	23.3
	3~10년 미만	23,649	34.7
	10년 이상	10,616	15.6
	취업자 전체		68,230
평균 근속기간		5년	
현 직장(사업체) 선택 이유 (임금근로자)	업무가 장애인의 능력 수준에 맞아서	23,282	36.1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잘되어 있어서	11,918	18.5
	근로조건이 좋아서(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근로환경 등)	9,050	14.0
	직장(사업체)에서 채용해줘서(일자리 말고 대안이 없어서)	8,895	13.8
	발달장애인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	5,528	8.6
임금근로자 전체		64,524	100.0
현 직장(사업체) 취업경로 (임금근로자)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단체/협회 등의 소개, 알선	27,713	43.0
	가족, 친구, 선후배, 일자리 동료 등 주변 지인의 소개 및 추천	16,377	25.4
	공공, 민간 취업알선기관, 직업훈련기관의 소개, 알선	9,581	14.8
	학교, 전공과 등의 소개 및 추천	7,310	11.3
	직접 채용 관련 정보를 습득하여 지원	3,246	5.0
임금근로자 전체		64,524	100.0
현 직장(사업체) 취업 애로사항 (임금근로자)	특별히 없었음	22,138	34.3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체 자체가 없거나 부족했음	17,638	27.3
	발달장애인 채용정보나 사업체의 특성 정보를 알기 어려웠음	8,914	13.8
	장애인 당사자의 취업의지가 적음	4,870	7.5
임금근로자 전체		64,524	100.0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 종류는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가 32.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소·세탁(실내·외 청소, 세차, 세탁 등)'(19.8%),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17.2%) 등의 순임
-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을 분류해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67.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16.0%), '사무 종사자'(4.7%) 등의 순임
- 발달장애인 취업자 중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완전히 적응한 경우는 69.7%이며, 29.7%는 일부 적응하였고, 0.6%는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고 응답함
-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좋아하는 비율은 63.7%이며, 싫어하는 비율은 2.6%임

〈표 3-21〉 현재 주로 수행하는 업무 특성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업무 종류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	22,337	32.7
	청소·세탁(실내·외 청소, 세차, 세탁 등)	13,536	19.8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	11,704	17.2
	사무(사무지원, 사서, 우체국 등)	5,661	8.3
	예술스포츠(음악, 미술, 스포츠 등)	5,372	7.9
	음식(바리스타, 제빵, 재료 준비, 설거지 등)	5,199	7.6
	농림어업(채소·화초 재배, 모종 심기, 버섯 재배, 물고기 잡기 등)	2,436	3.6
직업 구분	단순노무 종사자	46,048	67.5
	서비스 종사자	10,951	16.0
	사무 종사자	3,190	4.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811	4.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698	2.5
업무 적응 여부	완전히 적응했음	47,555	69.7
	일부 적응했음	20,235	29.7
	전혀 적응하지 못했음	440	0.6
당사자가 현재 업무를 좋아하는 정도 (보호자 판단)	싫어한다	1,772	2.6
	그저 그렇다	23,019	33.7
	좋아한다	43,439	63.7
취업자 전체		68,230	100.0

주 1)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당사자가 현재 업무를 좋아하는 정도"에서 '싫어한다'는 '매우 싫어한다'와 '싫어하는 편이다'의 합산이며, '좋아한다'는 '좋아하는 편이다'와 '매우 좋아한다'의 합산임

-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일 근로시간은 '4시간 미만' 12.5%, '4시간' 34.3%, '4시간 초과 8시간 미만' 25.5%, '8시간' 23.2%, '8시간 초과' 4.3%임
-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보호자는 당사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처럼 일하면 좋음' 85.1%, '현재보다 더 긴 시간 일하면 좋겠음' 12.7%, '현재보다 더 짧은 시간 일하면 좋겠음' 2.2%로 응답함
- 발달장애인 취업자(무급가족종사자 제외)의 월평균 임금(자영업자의 경우는 순수입)은 평균 108.7만원임
- 임금(순수입)은 부모 등 가족이 관리하는 경우가 72.2%, 장애인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27.2%임

〈표 3-22〉 근로조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근로시간	4시간 미만	8,562	12.5
	4시간	23,386	34.3
	4시간 초과 8시간 미만	17,410	25.5
	8시간	15,843	23.2
	8시간 초과	2,935	4.3
	취업자 전체		68,230
근로시간 조정 희망 여부	현재보다 더 긴 시간 일하면 좋겠음	8,681	12.7
	현재처럼 일하면 좋음	58,030	85.1
	현재보다 더 짧은 시간 일하면 좋겠음	1,518	2.2
취업자 전체		68,230	100.0
월평균 임금(순수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50만원 미만	8,227	12.5
	50~100만원 미만	23,423	35.5
	100~150만원 미만	17,742	26.9
	150~200만원 미만	8,008	12.1
	200만원 이상	8,551	13.0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65,951
평균 임금(순수입)		108.7만원	
응답 추정 수		65,345	
임금(순수입) 관리주체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장애인 본인이 직접 관리	17,921	27.2
	부모 등 가족이 관리	47,644	72.2
	제3자가 관리	386	0.6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65,951

주: 모름/응답거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평균 32.3분(편도)이며, 66.9%는 30분 이내임
 - 출퇴근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56.7%이며, 그 중 49.7%가 하루 평균 5천원 미만임
 - 출퇴근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32.2%임
- 주로 일하는 근무장소가 안전한 경우는 77.3%이며, 위험한 경우는 3.0%임
- 현재 직장(사업체)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다친 경우는 전체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8.5%임
- 일자리의 동료 또는 고용주가 발달장애인 취업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많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75.1%인 반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2.9%임
- 현재 직장(사업체)에서 차별, 폭력, 학대 등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 취업자의 6.4%임
-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보호자는 현재 일자리가 일하기에 적절한 환경인지 여부에 대해 90.5%가 적절하다고 평가함

〈표 3-23〉 근무환경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출퇴근 소요시간	평균 소요시간(편도 기준)	32.3분	
하루 평균 출퇴근 소요비용	5천원 미만	33,879	49.7
	5천원 이상	4,775	7.0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9,551	43.3
혼자 출퇴근 가능 여부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있음	17,321	25.4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혼자서 하고 있음	4,677	6.9
	혼자서 할 수 있으며 혼자서 하고 있음	46,085	67.5
근무장소 안전 정도	위험하다	2,015	3.0
	보통이다	13,498	19.8
	안전하다	52,717	77.3
다친 경험 유무	직장(사업체)에서 다친 경험 있음	5,796	8.5
직장(사업체) 사람들의 이해와 배려 정도	부족하다	1,966	2.9
	보통이다	13,992	20.5
	많다	51,257	75.1
부당한 경험 유무	차별, 폭력, 학대 경험 있음	4,357	6.4
근무환경 적절성 여부	당사자가 일하기에 적절한 환경임	61,730	90.5
취업자 전체		68,230	100.0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발달장애인 취업자에게 장애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은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81.5%, '업무시간 조정(단축)' 74.4%,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72.8%,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65.7%,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56.5%임
 -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시 53.3%는 외부인 이용을 희망하고 있음(기 이용 포함)
- 근무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특별히 없는 경우가 57.0%인 가운데 '대인관계의 어려움(의사소통 포함)' 10.0%, '출퇴근의 어려움' 8.2% 등을 응답함
- 가족이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서 도와주고 있는 경우는 31.5%,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4.8%임
- 당사자의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15.6%),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함'(15.1%) 등임

〈표 3-24〉 직업생활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장애 관련 필요한 지원 -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한 경우 (중복응답)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55,578	81.5
	업무시간 조정(단축)	50,745	74.4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49,662	72.8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44,837	65.7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38,569	56.5
업무 수행을 도와줄 외부인 이용 의향	무료라면 이용하겠음	17,193	34.6
	유료라도 이용하겠음	1,740	3.5
	이용하고 싶지만 일자리 또는 업무 특성상 이용 불가	3,747	7.5
	이용하지 않겠음	23,037	46.4
	이미 외부인을 이용하고 있음	3,846	7.7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		49,662	100.0
근무 시 어려움	특별히 없음	38,889	57.0
	대인관계의 어려움(의사소통 포함)	6,800	10.0
	출퇴근의 어려움	5,616	8.2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	3,658	5.4
직업생활 수행 시 가족의 도움 여부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도와주고 있음	21,517	31.5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나 도와주지 못하고 있음	3,301	4.8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하고 있어 도와줄 필요 없음	43,412	63.6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항	특별히 없음	19,694	28.9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	10,626	15.6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10,287	15.1
	근로능력, 기술을 키워야 함	9,419	13.8
	일을 하려는 의지를 높여야 함	6,104	8.9
취업자 전체		68,230	100.0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75.1%는 현재 직장(사업체)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2.5%는 싫어함
- 보호자의 76.7%는 현재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다니는 직장(사업체)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88.2%는 현재 직장(사업체)에 계속 다니고 싶어함

〈표 3-25〉 일자리 만족 및 지속 근무 의사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현재 일자리를	싫어한다	1,723	2.5
당사자가 좋아하는	그저 그렇다	15,273	22.4
정도(보호자 판단)	좋아한다	51,235	75.1
현재 일자리에	불만족한다	948	1.4
대한 보호자의	그저 그렇다	14,976	21.9
만족정도	만족한다	52,306	76.7
당사자의	이 직장(사업체)에 계속 다니고 싶어한다	60,165	88.2
지속 근무 의사	다른 직장(사업체)에 다니고 싶어한다	5,926	8.7
(보호자 판단)	일 자체를 그만하고 싶어한다	2,114	3.1
취업자 전체		68,230	100.0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에 근로하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의 11.7%는 일반 사업체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며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일반 일자리 사업체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반 사업체 직업영역 개발·확대'(35.1%)이며,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역량강화 지원'(22.3%), '전환코디네이터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 지원'(12.4%) 등의 순임

〈표 3-26〉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일반 일자리 사업체 전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일반 사업체	전환을 희망하며, 향후 가능하다고 생각함	1,804	11.7
일자리 전환 희망	전환을 희망하나,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함	2,775	18.0
여부(보호자) 및	전환을 희망하지 않음	5,670	36.8
가능 여부	생각해본 적 없음	5,151	33.4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근로 장애인 전체		15,400	100.0
일반 사업체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반 사업체 직업영역 개발·확대	1,609	35.1
일자리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역량강화 지원	1,020	22.3
전환하기 위해	전환코디네이터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 지원	569	12.4
가장 필요한 지원	일반 사업체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일자리의 중간 단계 일자리 개발	540	11.8
전환을 희망하는 장애인 전체		4,579	100.0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미취업자 특성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미취업자가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0%임
 - 일해 본 경험이 있을 때 경험한 일자리 개수가 1개인 경우는 69.2%, 2개는 13.0%, 3개는 11.5%, 4개 이상은 6.3%임

〈표 3-27〉 취업 경험 및 일자리 개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있음		31,142	20.0
	1개	21,563	69.2
	2개	4,038	13.0
	3개	3,578	11.5
	4개 이상	1,964	6.3
	소 계	31,142	100.0
없음		124,400	80.0
	전 체	155,542	100.0

- 취업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31,142명)가 마지막으로 일한 직장(일자리)의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가 47.7%로 가장 많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14.7%),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14.6%),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9.1%) 등의 순임
- 마지막 일자리에서 주로 수행한 업무 종류는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가 38.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21.5%) '청소·세탁(실내·외 청소, 세차, 세탁 등)'(13.5%) 등의 순임
- 마지막 일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2개월임
- 마지막 일자를 그만 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가 17.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13.7%), '장애상태, 건강 등의 악화'(12.0%),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10.3%) 등의 순으로 많음
- 마지막 일자를 그만둘 당시 당사자가 계속 다니기를 원하는 비율은 32.2%임
- 마지막으로 일한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이후의 미취업기간은 평균 9년 6개월임

〈표 3-28〉 마지막으로 근무한 일자리 정보 및 미취업기간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사업체 유형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14,849	47.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4,592	14.7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4,555	14.6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	2,844	9.1
주로 수행한 업무 종류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	11,870	38.1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	6,698	21.5
	청소·세탁(실내·외 청소, 세차, 세탁 등)	4,210	13.5
	농림어업(채소·화초 재배, 모종 심기, 버섯 재배, 물고기 잡기 등)	3,377	10.8
	음식(바리스타, 제빵, 재료 준비, 설거지 등)	2,026	6.5
근속기간	1년 미만	11,060	35.5
	1~3년 미만	8,472	27.2
	3~10년 미만	5,962	19.1
	10년 이상	5,648	18.1
평균 근속기간		5년 2개월	
그만둔 이유	계약기간 만료	5,517	17.7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	4,264	13.7
	장애상태, 건강 등의 악화	3,731	12.0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	3,199	10.3
당사자의 지속 근무 희망 여부	그만둔 당시 당사자는 계속 다니기를 원함	10,021	32.2
미취업기간 (2024년 6월 기준)	6개월 미만	3,115	10.0
	1년 미만(누적)	5,994	19.2
	3년 미만(누적)	11,341	36.4
	5년 미만(누적)	14,870	47.7
	10년 미만(누적)	19,975	64.1
	10년 이상	11,167	35.9
	평균 미취업기간		9년 6개월
취업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 전체		31,142	100.0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이 지금 당장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4.9%,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27.6%, 보호자의 발달장애인 취업 희망 비율은 32.6%임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길 원해서'가 39.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28.5%)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가 46.1%, '장애인 본인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24.4%)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24.1%임
-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34.5%임
-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지면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인 17,907명임

〈표 3-29〉 향후 취업 의사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보호자의 발달장애인 취업 희망 여부	지금 당장 일하기를 원함	7,694	4.9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일하기를 원함	43,007	27.6
	일하기를 원하지 않음	104,840	67.4
미취업자 전체		155,542	100.0
보호자의 당사자 취업 희망 이유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길 원해서	20,185	39.8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14,472	28.5
	돈을 벌었으면 해서(생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9,571	18.9
	낮시간을 보내게 하려고(돌봄의 일환)	3,910	7.7
보호자가 당사자의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전체		50,701	100.0
보호자의 당사자 취업 비희망 이유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48,369	46.1
	장애인 본인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25,607	24.4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문제 등 개인적 이유로	14,664	14.0
	발달장애인이 일할 만한 일자리(업무)가 없어서	8,027	7.7
보호자가 당사자의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미취업자 전체		104,840	100.0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 (보호자 판단)	희망함(희망하는 것 같음)	37,541	24.1
	희망하지 않음(희망하지 않는 것 같음)	118,001	75.9
미취업자 전체		155,542	100.0
취업 희망 여부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함	53,716	34.5
	미취업자 전체	155,542	100.0
즉시 취업 가능 여부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지면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음	17,907	33.3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전체	53,716	100.0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취업을 희망하는 사업체 유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이 32.2%로 가장 많고,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20.7%) 등이며, 업무 종류는 제조(36.1%), 사무(16.5%), 서비스(15.9%) 등의 순임
- 주 5일(83.4%), 하루 평균 5.1시간 근로를 희망하며, 임금(순수입)은 119.3만원을 희망함
- 희망하는 일자리는 '장애인 당사자의 적성, 취향에 맞는 일자리'(23.3%), '장애인 당사자의 능력수준에 적합한 일자리'(21.6%) 등이며, 즉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17.7%임

〈표 3-30〉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희망하는 사업체 유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17,288	32.2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	11,102	20.7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9,340	17.4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7,322	13.6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자리	5,949	11.1	
희망하는 업무 종류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	19,414	36.1	
	사무(사무지원, 사서, 우체국 등)	8,883	16.5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	8,525	15.9	
	음식(바리스타, 제빵, 재료 준비, 설거지 등)	6,872	12.8	
	청소·세탁(실내·외 청소, 세차, 세탁 등)	4,643	8.6	
희망하는 일주일 근로일수	주 5일	44,825	83.4	
	주 3~4일	7,976	14.8	
희망하는 하루 근로시간	4시간	21,482	40.0	
	4시간 초과 8시간 미만	15,886	29.6	
	8시간	10,756	20.0	
	희망 근로시간 평균		5.1시간	
	응답 추정 수		53,716	
희망하는 임금(순수입)	희망 임금(순수입) 평균	119.3만원		
	응답 추정 수	52,625		
희망하는 일자리	장애인 당사자의 적성, 취향에 맞는 일자리	12,512	23.3	
	장애인 당사자의 능력수준에 적합한 일자리	11,612	21.6	
	안정적인 일자리(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10,547	19.6	
	일이 쉽고, 힘들지 않은 일자리	9,628	17.9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잘 되어 있는 일자리	5,642	10.5	
희망하는 취업 시기	지금 즉시	9,492	17.7	
	6개월 내	10,106	18.8	
	1년 내	9,711	18.1	
	3년 내	9,968	18.6	
	3년 이후	14,241	26.5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전체		53,716	100.0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가 취업할 경우 장애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은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73.6%, '업무시간 조정(단축)' 43.6%,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38.5%,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32.2%,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10.0% 순임
- 취업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84.0%는 외부인 이용을 희망하고 있음

〈표 3-31〉 취업 시 일자리에서 필요한 장애 관련 지원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장애 관련 필요한 지원 (중복응답)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39,539	73.6
	업무시간 조정(단축)	23,421	43.6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20,692	38.5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17,289	32.2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5,391	10.0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전체		53,716	-
업무 수행을 도와줄 외부인 이용 의향	무료라면 이용하겠음	14,914	72.1
	유료라도 이용하겠음	2,465	11.9
	이용하지 않겠음	3,313	16.0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		20,692	100.0

- 주 1)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장애 관련 필요한 지원"은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최근 3년 내 일자리를 구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9.8%임
- 구직활동 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74.3%임
- 구직활동 시 겪은 애로사항으로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일자리(사업체) 자체가 없거나 부족함'이 39.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능력, 기술, 경력 등이 부족함' 13.2%, '발달장애인 취업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움' 12.4% 등의 순임

<표 3-32> 구직활동 경험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최근 3년 내 구직활동 경험 유무	있음	5,278	9.8
	없음	48,438	90.2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전체	53,716	100.0
이력서 제출 또는 면접 경험 유무	이력서 제출 또는 면접 경험 있음	3,924	74.3
	이력서 제출 또는 면접 경험 없음	1,355	25.7
	최근 3년 내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 전체	5,278	100.0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일자리(사업체) 자체가 없거나 부족함	2,079	39.4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능력, 기술, 경력 등이 부족함	699	13.2
	발달장애인 취업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움	655	12.4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과정에서 자주 탈락함	652	12.4
	최근 3년 내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 전체	5,278	100.0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비율은 52.9%, 그렇지 않은 비율은 47.1%임

<표 3-33> 직업에 대한 이해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잘 이해하고 있음	63,586	28.4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편임	54,712	24.4
조금은 이해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편임	44,167	19.7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함	61,307	27.4
전체	223,772	100.0

-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점이 유사한 성별, 연령대 사람들의 평균적인 능력 수준이라고 할 때 발달장애인은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1.79점, '동료나 상사와 협력, 의사소통하기' 1.86점, '새로운 상황과 장소에 적응하기' 1.86점, '높은 집중력과 주의 유지하기' 1.87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기' 1.88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3-34〉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평균적인 능력 수준(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추정 수
힘(근력), 체력	2.54	223,772
이동, 빠르게 움직이기	2.34	223,772
서있기, 불편한 자세 유지하기	2.38	223,647
미세한 손동작으로 작업하기	2.13	223,423
주어진 지시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2.04	223,772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기	1.88	223,658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작업 후 정리하기	1.95	223,658
높은 집중력과 주의 유지하기	1.87	223,750
동일한 일을 일정시간 이상(2시간) 반복하기	1.99	223,664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1.94	223,772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1.97	223,772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1.79	223,772
동료나 상사와 협력, 의사소통하기	1.86	223,572
새로운 상황과 장소에 적응하기	1.86	223,772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적인 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

-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통상적인 수준의 근로가 가능한 발달장애인은 31천명(13.6%), 단 시간 또는 단순한 수준의 근로가 가능한 경우는 85천명(38.2%), 집안일 수행 정도만 가능한 경우는 46천명(20.4%), 집안일 자체도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62천명(27.7%)임

〈표 3-35〉 주관적 근로능력 수준

구 분	추정 수	비율
통상적인 수준의 근로가 가능	30,526	13.6
단시간 또는 단순한 수준의 근로가 가능	85,466	38.2
집안일 수행 정도만 가능(돈을 벌 수 있는 수준이 아님)	45,693	20.4
집안일 자체도 수행 불가능	62,086	27.7
전 체	223,772	100.0

- 가족이 발달장애인 취업을 지지하는 비율은 53.1%이며,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30.7%임
- 발달장애인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5명 미만인 경우가 87.1%이고, 전혀 없는 경우도 10.2%임

〈표 3-36〉 취업에 대한 지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가족의 지지	지지하지 않는다	68,657	30.7
	그저 그렇다	36,049	16.1
	지지한다	118,736	53.1
	전 체	223,772	100.0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수 (미취업자)	10명 이상	582	0.4
	5~9명	3,478	2.2
	1~4명	135,517	87.1
	전혀 없음	15,843	10.2
미취업자 전체		155,542	100.0

주: 모름/응답거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컴퓨터 활용과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 게임 등 두루 활용이 가능한 비율은 18.2%이며, 일부 기능만 활용 가능한 비율은 32.5%, 활용할 수 없는 비율은 49.3%임
- 발달장애인의 스마트폰 활용과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은 41.7%이며, 사용이 가능한 비율은 35.2%임

〈표 3-37〉 정보기기 활용 가능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컴퓨터 활용 가능 정도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 게임 등 두루 활용 가능	40,714	18.2
	일부 기능만 활용 가능	72,823	32.5
	활용할 수 없음	110,236	49.3
스마트폰 활용 가능 정도	사용하지 못한다	93,245	41.7
	보통이다	51,832	23.2
	사용한다	78,696	35.2
전 체		223,772	100.0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최근 3년 동안 일자리를 갖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복지관, 시설·협회·단체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15.8%인 35,381명이며, 취업을 유지하거나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1%로 나타남

〈표 3-38〉 최근 3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및 필요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최근 3년 이용 경험	고용서비스 이용경험 있음	35,381	15.8
	고용서비스 이용경험 없음	188,391	84.2
필요 여부	필요한 고용서비스 있음	85,276	38.1
	필요한 고용서비스 없음	138,496	61.9
전 체		223,772	100.0

주: “필요 여부”는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와 현재 취업자에게 질문하였고,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한 고용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표 3-39〉 최근 3년 이용한 고용서비스 및 필요한 고용서비스(중복응답)

(단위: 명, %)

구 분	이용한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진로상담, 설계(진로설계 컨설팅)	7,175	3.2	19,589	8.8
직업탐색, 직업정보 제공	10,857	4.9	28,212	12.6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7,662	3.4	27,643	12.4
직업능력평가	2,802	1.3	9,817	4.4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역량 강화	4,439	2.0	7,838	3.5
직업기술 교육, 훈련	8,868	4.0	28,075	12.5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	10,470	4.7	30,303	13.5
현장실습(훈련)(지원고용 등)	4,739	2.1	22,328	10.0
취업알선(구직상담, 동행면접 등)	9,555	4.3	27,188	12.1
취업 전후 인력 지원(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	2,067	0.9	14,153	6.3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	396	0.2	3,477	1.6
출퇴근 지원(차량, 비용, 인력 등)	2,125	0.9	16,825	7.5
직업생활 상담 및 고충 처리(인권 보호)	1,709	0.8	16,363	7.3
발달장애인 취업 관련 부모(보호자) 교육	1,537	0.7	5,532	2.5
전 체	223,772	-	223,772	-

- 주 1) ‘이용한 서비스’는 최근 3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하였으나, 전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비율을 산출함
- 2) “필요한 서비스”는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와 현재 취업자에게 질문하였고,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한 고용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3)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 고용서비스별로 실제 이용한 비율과 필요로 하는 비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최근 3년 만 15세 이상 전체 발달장애인의 4.9%가 '직업탐색, 직업정보 제공'을 이용하였고,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4.7%), '취업알선(구직상담, 동행면접 등)'(4.3%), '직업기술 교육, 훈련' (4.0%),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3.4%) 등의 순으로 많이 이용함
- 취업을 유지하거나 취업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이 13.5%로 가장 필요하였으며, '직업탐색, 직업정보 제공'(12.6%), '직업기술 교육, 훈련'(12.5%),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12.4%), '취업알선(구직상담, 동행면접 등)'(12.1%) 등의 순임
- 전체 발달장애인 보호자(223,772명)의 23.5%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가 있으며, 18.6%는 이용 여부를 추후 고려해보겠다고 응답함
 -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와 취업자(121,947명) 대상으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를 분석한 결과, 38.1%가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2%가 이용 여부를 추후에 고려해보겠다고 응답

〈표 3-40〉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

구 분	추정 수	(단위: 명, %)
		비율
현재 이용할 의사가 있음	15,522	6.9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음	37,034	16.5
이용 여부를 추후 고려해보겠음	41,596	18.6
이용하지 않을 것임	129,595	57.9
전 체	223,772	100.0

주. 모름/응답거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일상생활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는 36.9%, 나쁜 경우는 27.4%임
- 현재 장애 이외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은 39.3%임
- (조기)노화가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15.5%임
-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64.8%임
-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소 있다'와 '매우 많다'를 합산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로 할 경우 전체 발달장애인 중 '흡연 문제'는 3.9%, '음주 문제'는 2.4%, '약물 중독'은 0.6%, '스마트폰, 게임 중독 문제'는 8.6%, '과체중(비만) 문제'는 19.4%, '성적(性的) 문제'는 3.4%,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는 21.9%임

〈표 3-41〉 건강 및 운동,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건강상태	나쁘다	61,292	27.4
	보통이다	79,844	35.7
	좋다	82,636	36.9
만성질환 유무	있음	88,005	39.3
(조기)노화 여부	(조기)노화가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음	34,676	15.5
	노화가 시작되지 않음(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189,096	84.5
평소 운동 여부	하고 있음	78,747	35.2
	하고 있지 않음	145,025	64.8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흡연' 문제	8,822	3.9
	'음주' 문제	5,444	2.4
	'약물 중독' 문제	1,278	0.6
	'스마트폰, 게임 중독' 문제	19,214	8.6
	'과체중(비만)' 문제	43,338	19.4
- 다소 있거나 매우 많은 경우	'성적(性的)' 문제	7,677	3.4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	49,064	21.9
전 체		223,772	100.0

- 주 1)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항목별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인원과 비율임(항목별 합산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음)
- 2) 모름/응답거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69.1%임

〈표 3-42〉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구 분	추정 수	(단위: 명, %)
		비율
필요함	154,609	69.1
필요하지 않음	69,163	30.9
전 체	223,772	100.0

-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과시간의 대부분 필요한 비율은 28.5%,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필요한 비율은 22.2%,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 필요한 비율은 29.1%, 2시간 미만으로 필요한 비율은 20.2%임
-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10.4%이며, 어느 정도 또는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는 65.6%임
-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1순위)은 부모가 71.0%가 가장 많고, '배우자 및 자녀'(9.2%), '형제자매'(7.5%)의 순임
- 일상생활에서 주 도움 제공자 외에 다른 도움 제공자가 없는 경우는 33.4%임

〈표 3-43〉 일상생활 도움 필요 내역

구 분	추정 수	(단위: 명, %)	
		비율	
도움 필요 수준	일과시간의 대부분 필요함(12시간 이상)	44,055	28.5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34,383	22.2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4,988	29.1
	2시간 미만	31,184	20.2
도움 충분 정도	전혀/별로 못 받고 있다	16,093	10.4
	보통이다	37,048	24.0
	어느 정도/충분히 받고 있다	101,441	65.6
주된 도움자	부모	109,744	71.0
	배우자 및 자녀	14,281	9.2
	형제자매	11,552	7.5
	활동지원사	9,519	6.2
다른 도움 제공자 유무	있음	102,984	66.6
	없음	51,626	33.4
전 체	154,609	100.0	

주 1)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2)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평일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활동(1순위)은 ‘근로’(28.4%), ‘휴식하기(그냥 쉬기)’(21.1%), ‘TV 보기’(16.8%), ‘기관의 돌봄,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12.3%) 등의 순임
- 주말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활동(1순위)은 ‘휴식하기(그냥 쉬기)’가 3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TV 보기’(23.4%),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하기’(10.1%) 등의 순임
-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57.8%는 현재 이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있으며, 싫어하는 비율은 4.0%로 낮은 편임
- 보호자의 45.4%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이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하는 비율은 12.1%임
 - 하루 일과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는 당사자(보호자 판단)보다 낮음

〈표 3-44〉 하루 일과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평일 주된 활동 (1순위)	근로	63,631	28.4
	휴식하기(그냥 쉬기)	47,186	21.1
	TV 보기	37,567	16.8
	기관의 돌봄,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27,634	12.3
주말 주된 활동 (1순위)	휴식하기(그냥 쉬기)	86,243	38.5
	TV 보기	52,382	23.4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하기	22,647	10.1
당사자가 하루 일과에 대해 좋아하는 정도 (보호자 판단)	종교활동	16,154	7.2
	싫어한다	8,877	4.0
	그저 그렇다	85,328	38.1
당사자의 하루 일과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	좋아한다	129,235	57.8
	불만족한다	27,163	12.1
	그저 그렇다	94,925	42.4
	만족한다	101,684	45.4
전 체		223,772	100.0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학교, 일자리를 제외하고 이용하는 기관이 있는 비율은 26.8%이며, '관련 시설, 센터, 협회'(12.5%), '(장애인)복지관'(11.8%) 등임

〈표 3-45〉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

구 분	추정 수	(단위: 명, %)
		비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장애인)복지관	3,529	1.6
관련 시설, 센터, 협회	26,403	11.8
기타	27,995	12.5
특별히 없음	2,105	0.9
	163,741	73.2
전 체	223,772	100.0

- 기관 이용의 주된 목적은 '단기보호(주간, 야간 돌봄 등)'가 36.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재활, 치료'(29.8%), '취미, 여가활동'(17.9%), '직업재활 훈련, 취업'(14.0%) 등의 순임
- '거주, 생활'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본 조사의 대상이 재가장애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표 3-46〉 기관 이용의 주된 목적

구 분	추정 수	(단위: 명, %)
		비율
단기보호(주간, 야간 돌봄 등)	21,735	36.2
거주, 생활	1,227	2.0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재활, 치료	17,890	29.8
직업재활 훈련, 취업	8,431	14.0
취미, 여가활동	10,749	17.9
전 체	60,031	100.0

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 응답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여가시간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비율은 59.3%이며, 집 밖 활동을 좋아하는 경우는 40.4%임
-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아하는 비율은 23.3%이고, 싫어하는 비율은 38.7%임
- 최근 1년 동안 참여 경험이 있었던 활동 비율은 '영화관, 음악회, 미술관, 테마파크 관람'이 38.9%로 가장 많았고, '여행(1박 이상)'(33.8%), '종교 활동'(23.2%) 등의 순임

〈표 3-47〉 사회 참여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여가시간 집 밖 활동을 좋아하는지 여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임	132,762	59.3
	집 밖 활동을 좋아하는 편임	90,379	40.4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싫어한다	86,490	38.7
	그저 그렇다	84,961	38.0
	좋아한다	52,065	23.3
	영화관, 음악회, 미술관, 테마파크 관람	86,989	38.9
	여행(1박 이상)	75,690	33.8
	등산, 낚시, 자전거 타기	28,735	12.8
	운동경기 관람 및 참여	21,464	9.6
	동호회 활동	7,413	3.3
최근 1년 참여 경험이 있는 활동 (중복응답)	자조모임 참여	8,638	3.9
	종교 활동	52,001	23.2
	봉사활동	8,169	3.7
발달장애인 전체		223,772	100.0
투표경험		87,912	41.9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전체		209,779	100.0

주: 모름/응답거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일자리에서의 경험을 제외하고 평소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42.8%임
- 최근 1년 동안 폭력, 학대, 방치 등을 경험한 경우는 7.2%인 16,077명임

〈표 3-48〉 일상생활 부당한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정도	경험한 적 없음	127,689	57.1
	경험한 적 있음	95,758	42.8
최근 1년 폭력, 학대, 방치 등 경험 유무	경험한 적 없음	207,540	92.7
	경험한 적 있음	16,077	7.2
전 체		223,772	100.0

주: 모름/응답거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한 정도를 응답받은 결과, '재난이나 위급상황 인지' 55.7%,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 43.6%, '스스로 대피' 53.5%,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은 46.5%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9〉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 정도 - 할 수 있는 경우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재난이나 위급상황 인지	124,676	55.7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	97,461	43.6
스스로 대피	119,620	53.5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	104,031	46.5
전 체	223,772	100.0

주: 항목별 '할 수 있는 편이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인원과 비율임(항목별 합산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음)

- 작년(2023년 6월) 대비 일상생활 변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디지털 기기(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 '그냥 집에서 보낸 시간(특히 한 것 없이)', '식사량' 등이 증가한 반면, '친지, 친구 등 모임 참석 활동', '학업 및 자기 개발 활동' 등이 감소함

〈표 3-50〉 작년(2023년 6월) 대비 일상생활 변화 평균 점수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디지털 기기(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	3.08	220,326
그냥 집에서 보낸 시간(특히 한 것 없이)	3.04	221,640
식사량	3.03	223,009
도전적(문제) 행동의 발생 빈도	3.01	212,129
복지관 등 기관, 시설 이용 시간	3.01	178,481
일상생활 수행능력	3.00	223,009
보호자(가족)의 돌봄(보호) 시간	3.00	219,463
취미활동(집 밖)	3.00	203,599
취업활동(일 관련 활동 전반 - 구직 활동 포함)	3.00	181,194
건강관리 활동(운동, 치료, 재활 등)	2.99	215,920
학업 및 자기 개발 활동	2.99	174,105
친지, 친구 등 모임 참석 활동	2.99	190,212

주 1) '크게 줄어들었다'=1, '다소 줄어들었다'=2, '변화 없다'=3, '다소 늘어났다'=4, '크게 늘어났다'=5의 평균으로 3점(변화없음)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감소함을, 점수가 높을수록 증가했음을 의미

2) 원래 하지 않았다고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 작년(2023년 6월)과 비교했을 때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삶의 질은 변화 없음이 80.7%로 가장 많은 가운데, 나빠진 경우는 6.8%, 좋아진 경우는 12.5%임

〈표 3-51〉 작년(2023년 6월) 대비 당사자의 삶의 변화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매우 나빠졌다	1,072	0.5
나빠진 편이다	14,212	6.4
변화 없다	180,627	80.7
좋아진 편이다	26,551	11.9
매우 좋아졌다	1,311	0.6
전 체	223,772	100.0

-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46.2%이며, 불만족하는 비율은 12.4%임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보호자가 만족하는 비율은 37.9%이며, 불만족하는 비율은 19.0%임

〈표 3-52〉 일상생활 만족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당사자의 일상생활 만족 정도 (보호자 판단)		
불만족한다	27,793	12.4
그저 그렇다	92,272	41.2
만족한다	103,479	46.2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		
불만족한다	42,436	19.0
그저 그렇다	96,563	43.2
만족한다	84,745	37.9
전 체	223,772	100.0

주: 모름/응답거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당사자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를 응답 받은 결과, '경제적, 소득지원'이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 재활, 건강 지원'(34.6%), '돌봄, 보호, 휴식 지원'(30.0%), '취업 및 취업 유지 지원'(26.6%) 등의 순임

〈표 3-53〉 당사자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1+2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경제적, 소득 지원	134,410	60.1
의료, 재활, 건강 지원	77,425	34.6
취업 및 취업 유지 지원	59,438	26.6
돌봄, 보호, 휴식 지원	67,164	30.0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40,169	18.0
심리, 사회, 정서적 지원	31,872	14.2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18,006	8.0
기타	45	0.0
특별히 없음	17,464	7.8
전 체	223,772	-

주 1) 비율은 전체 발달장애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함
 2)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를 응답 받은 결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소득지원’이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 재활, 건강 지원’(39.4%), ‘취업 및 취업 유지 지원’(18.7%), ‘휴식 지원’(18.7%) 등의 순임

〈표 3-54〉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1+2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경제적, 소득 지원	148,301	66.3
의료, 재활, 건강 지원	88,157	39.4
취업 및 취업 유지 지원	41,917	18.7
휴식 지원	41,759	18.7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35,284	15.8
심리, 사회, 정서적 지원	39,199	17.5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27,995	12.5
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4,838	2.2
기타	313	0.1
특별히 없음	19,170	8.8
전 체	223,772	-

주 1) 비율은 전체 발달장애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함
 2)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7. 자립 및 미래계획

- 보호자는 당사자가 향후에 살기 바라는 거주 유형으로 '보호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살기'가 56.8%, '자립(독립)하여 살기'(28.1%), '장기거주형 시설에서 살기'(6.3%) 등의 순임
-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70.2%임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립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4.3%임
-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31.6%임
- 일상생활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주된 주체(결정권자)는 보호자가 76.7%, 장애인 본인이 22.4%임

〈표 3-55〉 자립의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당사자의 향후 희망 거주 유형	보호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살기	127,101	56.8
	자립(독립)하여 살기	62,953	28.1
	장기거주형 시설에서 살기	14,209	6.3
	발달장애인 공동체 마을(캠프힐 등)에서 살기	11,744	5.2
	단기거주형 시설(그룹홈, 단기보호 등)에서 살기	7,765	3.5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가능 정도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52,345	23.4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157,118	70.2
	이미 혼자 힘으로 살고 있음	14,309	6.4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의지	약하다	133,984	59.9
	보통이다	57,533	25.7
	강하다	32,040	14.3
전 체		223,772	100.0

주: 모름/응답거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3-56〉 의사표현 및 자기결정권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당사자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정도	표현하지 않는다	87,991	39.3
	보통이다	64,813	29.0
	표현한다	70,789	31.6
당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주된 주체(결정권자)	장애인 본인	50,149	22.4
	보호자	171,644	76.7
	그 외 사람	1,979	0.9
전 체		223,772	100.0

주: 모름/응답거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당사자가 자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응답 받은 결과, ‘자립했을 때 도와줄 사람’(30.5%),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직장’(18.4%), ‘본인에게 맞는 자립 계획 수립’(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당사자가 자립하기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자립생활 능력은 ‘자립하려는 의지와 태도’(33.7%), ‘일상생활 수행능력(식사 준비, 빨래, 청소, 금전 관리 등)’(22.9%), ‘자기관리 능력(개인위생 관리, 계절에 맞는 옷 입기 등)’(13.9%) 등의 순임

〈표 3-57〉 자립 준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당사자가 자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1순위)	자립했을 때 도와줄 사람	68,303	30.5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직장	41,211	18.4
	본인에게 맞는 자립 계획 수립	37,428	16.7
	자립 관련 정보 습득	31,870	14.2
	자립해서 살 집	26,433	11.8
	자립생활 체험(다양한 주거 체험 활동 참여 등)	16,509	7.4
당사자가 자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자립생활 능력 (1순위)	자립하려는 의지와 태도	75,512	33.7
	일상생활 수행능력(식사 준비, 빨래, 청소, 금전 관리 등)	51,295	22.9
	자기관리 능력(개인위생 관리, 계절에 맞는 옷 입기 등)	31,002	13.9
	대인관계 능력(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 등)	19,901	8.9
	위험 상황 대처 능력(화재 대피, 사고 대처 등)	19,602	8.8
	건강관리 능력(약 챙겨먹기, 질환(병) 관리, 운동 등)	16,556	7.4
자기결정 능력	8,730	3.9	
전 체		223,772	100.0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당사자가 향후 가구원 등 주된 보호자로부터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미래 계획 수립 여부를 살펴보면, 재정적 계획은 30.4%, 주거 계획은 29.6%, 후견인 지명 등 법적 계획은 28.3%만 일부만(대략적으로만) 또는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음
- 당사자가 자립하거나, 가족이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지원은 ‘가족이 없더라도 보호자처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함’이 54.1%,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쥐야 함’(30.5%),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30.4%),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필요함’(2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전용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 등의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은 33.5%임

〈표 3-58〉 미래 계획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미래 계획 수립 여부 - 일부 또는 구체적으로 세움	재정적 계획	67,973	30.4
	주거 계획	66,292	29.6
	법적 계획	63,376	28.3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1+2순위)	가족이 없더라도 보호자처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함	121,022	54.1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쥐야 함	68,331	30.5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	68,095	30.4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필요함	53,384	23.9
사보험 가입 여부	일을 하거나 낮에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줘야 함	38,550	17.2
	가입	74,935	33.5
	미가입	148,837	66.5
전 체		223,772	100.0

주 1) '미래 계획 수립 여부'는 항목별 '일부만(대략적으로만) 세워져 있음'과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음'의 인원과 비율임(항목별 합산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음)

2)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8. 가구 및 보호자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가구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은 평균 3.0명임
- 발달장애인이 부모 모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47.1%이며, 부모 중 한 사람만 같이 거주하는 비율은 25.5%,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비율은 27.3%임
- 가구의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가구주는 아버지가 45.9%로 가장 많고, 어머니 21.9%, 장애인 당사자가 가구주인 경우도 15.2%임
-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제외하고 가구원 중에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15.4%, 다른 발달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9.7%임
- 발달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95만원임
- 발달장애인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인 경우는 40.3%임

〈표 3-59〉 가구 정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가구 규모	평균 가구원 수	3.0명	
가구 내 부모 거주 여부	부모 모두 같이 거주	105,454	47.1
	한 사람만 같이 거주	57,161	25.5
	부모 모두 같이 거주하지 않음	61,157	27.3
가구주	아버지	102,732	45.9
	어머니	48,909	21.9
	장애인 당사자	33,939	15.2
	그 외	38,191	17.1
장애인 유무 (당사자 제외)	가구원 중 다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	34,354	15.4
	가구원 중 다른 발달장애인(등록)이 있는 경우	21,704	9.7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1,570	9.6
	100~200만원 미만	62,367	27.9
	200~300만원 미만	37,427	16.7
	300~400만원 미만	35,362	15.8
	400~500만원 미만	20,138	9.0
	500만원 이상	46,229	20.7
월평균 가구소득		295만원	
응답 추정 수		215,149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여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임	90,213	40.3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 아님	133,559	59.7
전 체		223,772	100.0

주: 모름/응답거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는 어머니가 56.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버지’(15.0%), ‘형제자매’(9.4%), ‘배우자’(8.1%) 등의 순임
- 주 보호자 이외에 부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78.1%임

〈표 3-60〉 보호자 정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주 보호자	어머니	127,099	56.8
	아버지	33,581	15.0
	형제자매	21,035	9.4
	배우자	18,020	8.1
	자녀	7,352	3.3
부 보호자	있음	174,835	78.1
	없음	48,937	21.9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는 남성이 27.8%, 여성이 72.2%이며, 평균 연령은 60.2세임
 - 학력은 고졸 미만이 36.6%, 고졸 이상이 63.4%, 취업자는 51.1%, 미취업자는 48.9%임
 - 건강이 좋은 비율은 27.8%, 나쁜 경우는 29.5%임

〈표 3-61〉 주 보호자 정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별	남성	62,281	27.8
	여성	161,491	72.2
연령	40세 미만	8,504	3.8
	40~50세 미만	25,886	11.6
	50~60세 미만	74,373	33.2
	60~70세 미만	69,856	31.2
	70세 이상	45,154	20.2
평균 연령		60.2세	
학력	고졸 미만	81,865	36.6
	고졸 이상	141,907	63.4
취업상태	취업	114,290	51.1
	미취업	109,482	48.9
건강상태	나쁘다	66,100	29.5
	보통이다	95,524	42.7
	좋다	62,148	27.8
전 체		223,772	100.0

- 주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시간은 일주일 평균 5.9일, 하루 평균 5.1시간임
- 보호자가 부재 시 당사자의 돌봄 방법은 '충분히 혼자 있을 수 있어 특별히 조치하지 않음'이 55.1%, '도움이 필요하나 별다른 방법이 없어 혼자 있게 함'이 17.5%, '활동지원사, 긴급돌봄서비스, 센터 등 기관의 도움을 받음' 16.3%, '친척이나 이웃 등 지인의 도움을 받음' 11.1% 순임
- 발달장애인을 돌볼 때 겪는 어려움(1순위)은 '장애인 당사자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28.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호자(또는 가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16.4%), '보호자(또는 가족)의 육체적인 피로, 건강 악화'(15.1%), '보호자(또는 가족)의 일(직업활동) 지장'(10.0%) 순임
-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을 돌보거나 보호하는 것의 부담 정도에 대해 '부담된다'가 51.5%, '부담되지 않는다'가 15.9%로 나타남
- 보호자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경우는 23.5%인데 반해 불만족하는 비율은 27.0%임

〈표 3-62〉 발달장애인 돌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일주일 평균 돌봄 일수	5.9일
하루 평균 돌봄 시간	5.1시간	
주 보호자의 돌봄 시간	충분히 혼자 있을 수 있어 특별히 조치하지 않음	55.1
	도움이 필요하나 별다른 방법이 없어 혼자 있게 함	17.5
	활동지원사, 긴급돌봄서비스, 센터 등 기관의 도움을 받음	16.3
	친척이나 이웃 등 지인의 도움을 받음	11.1
돌봄 시 겪는 어려움(1순위)	장애인 당사자의 미래에 대한 걱정	28.6
	보호자(또는 가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16.4
	특별히 없음	15.7
	보호자(또는 가족)의 육체적인 피로, 건강 악화	15.1
전반적 돌봄 부담 정도	보호자(또는 가족)의 일(직업활동) 지장	10.0
	부담된다	51.5
	그저 그렇다	32.6
	부담되지 않는다	15.9
보호자의 삶의 만족	매우 불만족한다	6.5
	불만족하는 편이다	20.5
	그저 그렇다	49.6
	만족하는 편이다	22.0
	매우 만족한다	1.5
전 체	223,772	100.0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IV. 주요 결과 2 - 발달장애인(PL, ER 그룹) 당사자 조사 결과*

1. 취업자 조사

○ 발달장애인 취업자(PL, ER 그룹)의 일자리와 업무 관련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1〉 취업자의 일자리 및 업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일을 하는 이유	나는 돈을 벌고 싶다	41,740	73.7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	7,190	12.7
	나는 일을 배우고 싶다	4,110	7.3
	다른 사람이(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일하라고 한다	1,964	3.5
일자리에 가는 것이 좋은지 여부	나는 일 다니는 것이 좋다	43,473	76.8
	그냥 그렇다	12,319	21.8
	나는 일 다니는 것이 싫다	815	1.4
하는 일이 재미있는지 여부	나는 하는 일이 재미있다	36,882	65.2
	그냥 그렇다	17,447	30.8
	나는 하는 일이 재미없다	2,278	4.0
하는 일이 힘든지 여부	나는 하는 일이 힘들다	13,026	23.0
	그냥 그렇다	20,339	35.9
	나는 하는 일이 힘들지 않다	23,243	41.1
업무 교육 희망 여부	나는 교육을 받고 싶다	27,707	48.9
	나는 교육을 받기 싫다	28,900	51.1
일할 때 필요한 도움 (중복응답)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34,130	60.3
	나는 다른 사람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12,361	21.8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8,544	15.1
	나는 일하러 갈 때와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갈 때 도움이 필요하다	5,390	9.5
하는 일 다칠 수 있는지 여부	내가 하는 일은 다칠 수 없다	39,494	69.8
	내가 하는 일은 다칠 수 있다	17,113	30.2
놀리거나 아프게 한 경험 유무	장애인이라고 놀리거나 아프게 한 적이 있다	6,713	11.9
	장애인이라고 놀리거나 아프게 한 적이 없다	49,894	88.1
일자리에 계속 다니고 싶은지 여부	나는 계속 다니고 싶다	48,320	85.4
	나는 다른 일자리에 가고 싶다	5,869	10.4
	나는 일하기 싫다	2,418	4.3
취업자(PL, ER 그룹) 전체		56,607	100.0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당사자(PL, ER 그룹)의 취업자/미취업자/공동조사의 응답 신뢰도 검증을 통해 총 1,800명의 응답자 중 부적합 응답으로 판단된 12명을 제외하여 1,788명으로 분석함(요약 VI장의 3. 참조)

○ PL 그룹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취업자에 질의한 항목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 취업자(PL 그룹)의 추가 조사 결과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현재보다 더 길게 일하고 싶은지 여부	지금보다 더 길게 일하고 싶다	9,165	24.2
	지금보다 더 짧게 일하고 싶다	1,977	5.2
	취업자(PL 그룹) 전체	37,854	100.0
일하고 받는 금액 인지 여부	나는 내가 얼마 받는지 알고 있다	29,476	77.9
	나는 내가 얼마 받는지 모른다	8,378	22.1
	취업자(PL 그룹) 전체	37,854	100.0
일하고 받는 금액 적정 여부	적당하다	19,829	67.3
	돈이 적다	9,647	32.7
	일하고 받는 금액을 알고 있는 취업자(PL 그룹) 전체	29,476	100.0

2. 미취업자 조사

○ 발달장애인(PL, ER 그룹) 미취업자의 취업 희망 여부 관련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3〉 미취업자의 취업 희망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취업 희망 여부	취업 희망	40,571	50.7
	취업 비희망	38,374	47.9
미취업자(PL, ER 그룹) 전체		80,042	100.0
당장 내일부터 일할 의향	네, 일할래요	18,458	45.5
	아니요, 안할래요	22,113	54.5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PL, ER 그룹) 전체		40,571	50.7
일하고 싶은 이유	나는 돈을 벌고 싶다	23,968	59.1
	나는 일을 배우고 싶다	6,658	16.4
	집에만 있기 싫다	4,338	10.7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	3,392	8.4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PL, ER 그룹) 전체		40,571	100.0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	나는 일하는 것이 싫다	13,173	34.3
	나는 몸이 아파서(장애 때문에) 일하기 싫다	11,368	29.6
	나는 일이 힘들어서 일하기 싫다	6,503	16.9
	나는 일해본 적이 없어서 일하기 싫다	3,007	7.8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		2,357	6.1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미취업자(PL, ER 그룹) 전체		38,374	100.0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발달장애인(PL, ER 그룹)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일의 종류 등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4〉 미취업자의 희망하는 일자리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희망하는 일의 종류	나는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일하고 싶다	14,374	35.4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	10,312	25.4
	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	7,917	19.5
	나는 다른 일 하고 싶다	4,331	10.7
	나는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키우고 싶다	1,988	4.9
	나는 배달을 하고 싶다	1,649	4.1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지 여부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16,625
나는 장애인이 모여서 일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12,481	30.8
나는 혼자서 일하고 싶다		11,465	28.3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지 여부	나는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36,868	90.9
	나는 일하는 방법을 배우기 싫다	3,703	9.1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PL, ER 그룹) 전체		40,571	100.0

주: 모름/응답거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공통 조사

○ 발달장애인(PL, ER 그룹)의 일상생활 관련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5〉 일상생활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건강 여부	나는 건강하다	77,633	56.8
	그냥 그렇다	38,120	27.9
	나는 건강하지 않다	20,799	15.2
요즘 행복한지 여부	매우 그렇다	71,443	52.3
	그냥 그렇다	55,402	40.5
	전혀 아니다	9,362	6.9
제시된 세 가지 중 가장 하고 싶은 활동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	27,015	45.4
	나는 일해서 돈 벌고 싶다	20,926	35.1
	나는 복지관이나 센터에 가고 싶다	10,746	18.0
여가시간에 하고 싶은 집 안 활동 (중복응답)	TV 보기	84,167	61.6
	자거나 그냥 쉬기	60,349	44.2
	인터넷, 게임하기	51,348	37.6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23,545	17.2
여가시간에 하고 싶은 집 밖 활동 (중복응답)	맛있는 것 먹으러 가기	61,819	45.2
	쇼핑하기(마트, 백화점 등)	56,877	41.6
	운동하기	41,817	30.6
	친구나 다른 사람 만나기	33,705	24.7
배우고 싶은 것	요리, 운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즐기는 활동을 배우고 싶다	40,820	29.9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20,932	15.3
	돈 관리, 지하철 타기 등 사는데 필요한 방법을 배우고 싶다	10,988	8.0
	글 읽고 쓰기, 숫자 계산을 배우고 싶다	8,381	6.1
친구 유무	나는 친구가 있다	67,159	49.1
	나는 친구가 없다	69,356	50.8
직접 쓸 수 있는 돈(카드) 유무	나는 돈이나 카드가 있다	102,181	74.8
	나는 돈이나 카드가 없다	34,325	25.1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여부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26,832	19.6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	69,769	51.1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없다	39,686	29.0
장애로 인해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경험 (PL 그룹)	나는 장애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이 있다	42,175	54.7
	나는 장애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이 없다	34,716	45.0
부당한 경험 유무	장애로 인해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있음	77,109	100.0
	다른 사람이 때리거나 아프게 한 경험이 있음	45,771	33.5
	PL, ER 그룹 전체	25,495	18.7
PL, ER 그룹 전체		136,649	100.0

주: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발달장애인(PL, ER 그룹)의 미래에 대한 생각 관련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6〉 미래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나중에 살고 싶은 방식	나는 가족(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	71,205	52.1
	나는 결혼해서 아내(남편)와 살고 싶다	32,490	23.8
	나는 혼자서 살고 싶다	28,453	20.8
	나는 친구와 살고 싶다	3,489	2.6
PL, ER 그룹 전체		136,649	100.0

주: 모름/응답거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L 그룹 해당 발달장애인의 자신에 대한 생각 관련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7〉 자신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PL 그룹)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40,758	52.9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없다	36,279	47.0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 평균 점수	20,568 1.90	26.7
자신에 대한 생각 (PL 그룹)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 평균 점수	14,117 2.09	18.3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 평균 점수	27,150 1.78	35.2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 평균 점수	33,164 1.63	43.0
PL 그룹 전체		77,109	100.0

주 1) “자신에 대한 생각”에서의 척도는 ‘매우 그렇다’=1, ‘그냥 그렇다’=2, ‘전혀 아니다’=3로 구성되어 있음

2) 모름/응답거절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 점수는 모름/응답거절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

V. 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 취업의 원인과 결과

〈표 5-1〉 취업 여부별, 미취업자의 취업 희망 여부별 주요 특성 : 보호자 조사

(단위: %)

구 분	항 목	취업자	미취업자	
			취업희망	취업비희망
성별	남성 비율	70.6	65.1	54.6
	15~29세 비율	47.1	63.5	18.5
연령	30~49세 비율	43.0	26.9	38.0
	50세 이상 비율	9.9	9.6	43.5
최종학력	고졸 이상 비율	87.9	58.9	43.9
	장애유형	지적장애 비율	89.7	85.0
장애등급	자폐성장애 비율	10.3	15.0	6.3
	1급 비율	10.1	17.7	35.3
중복장애	3급 비율	51.1	38.0	25.6
	중복장애 있는 비율	4.8	9.3	12.3
의사소통	두 문장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하는 비율	71.6	62.3	33.7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표현 비율	75.8	65.7	38.1
인지능력	한글 읽고 쓰기가 둘 다 가능한 비율(‘제한적으로 가능’ 제외)	61.9	49.6	17.5
	숫자 인지가 가능한 비율(‘제한적으로 가능’ 제외)	51.5	40.8	14.3
도전적 행동	도전적 행동(8가지 유형)을 하나도 하지 않는 비율	62.3	45.4	54.0
취업 경험	미취업자가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비율	-	28.2	15.7
근로 의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비율	54.3	31.8	9.3
전문 기술 자격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 기술이나 자격 보유 여부	19.8	13.1	1.3
근로 가능 수준	근로 가능 비율(통상적인 수준 또는 단시간/단순한 수준)	93.9	73.6	12.2
가족의 지지	당사자의 취업에 대해 가족이 지지하는 비율	91.8	84.1	10.7
고용서비스	최근 3년 고용서비스 이용 비율	29.8	21.5	3.5
	필요한 고용서비스가 있는 비율	59.1	83.7	-
건강	건강이 나쁜 비율	7.9	19.3	44.7
도움	일상생활 도움 필요 비율	50.1	68.8	81.9
사회참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비율	31.6	30.0	14.1
차별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비율(드물게 경험+자주 경험)	33.2	50.5	45.2
일상생활 만족	당사자가 일상생활에 만족(보호자 판단)하는 비율	69.1	48.7	29.6
	보호자가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비율	61.8	37.8	21.9
자립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미 혼자 사는 경우 포함)	46.5	29.3	18.8
	의사결정의 주된 주체가 장애인 본인인 비율	35.3	24.3	12.8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비율	20.1	30.6	59.0
돌봄	당사자를 돌보거나 보호하는 것이 부담되는 비율	34.5	52.3	62.4
보호자 만족	보호자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비율	35.5	24.2	15.0

주 1) 미취업자의 ‘취업희망’은 보호자 조사에서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임

2)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 취업 희망에서 모두 모름/응답거절로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표 5-2〉 취업 여부별, 미취업자의 취업 희망 여부별 주요 특성 : 당사자(PL, ER 그룹) 조사
(단위: %)

구 분	항 목	취업자	미취업자	
			취업희망	취업비희망
건강	건강한 비율	73.1	60.5	28.5
행복	행복한 비율('매우 그렇다'에 응답)	59.2	56.2	38.0
세 가지 중 가장 하고 싶은 것	집에서 쉬는 것을 제일 하고 싶은 비율	19.2	26.6	79.4
	복지관에서 센터에 가는 것을 제일 하고 싶은 비율	7.2	22.3	18.9
	일해서 돈 버는 것을 제일 하고 싶은 비율	73.4	50.9	0.9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비율	9.1	21.5	32.5
	다른 사람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비율	50.3	55.0	49.0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비율	40.5	23.5	18.2
장애 제약 (PL 그룹)	장애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이 있는 비율	44.8	58.4	74.9
의사결정 (PL 그룹)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비율	60.2	50.4	37.6
자신에 대한 생각 (PL 그룹)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에 '매우 그렇다'인 비율	37.0	22.7	7.3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에 '매우 그렇다'인 비율	22.8	17.7	8.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에 '매우 그렇다'인 비율	44.3	34.7	13.1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매우 그렇다'인 비율	51.0	43.9	20.7

주 1) 미취업자의 '취업희망'은 당사자 조사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PL, ER 그룹)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임
2) 당사자 취업 희망에서 모름/응답거절로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함

주요 시사점

◆ 취업과 취업에 대한 희망은 발달장애인의 삶과 영향을 주고받는 매우 밀접한 요인

- 취업자는 사회참여 희망,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 발달장애인의 취업은 장애인 보호자(가족)의 삶과 삶의 만족에도 큰 영향
- 한편, 취업자도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
 - 고용서비스 이용 비율도 높으나,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용서비스가 있다고 느낌
- 취업 희망 미취업자는 직업적 능력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취업자쪽에 가깝게 위치
 - 상대적으로 저연령, 자폐성장애인의 비율이 높고, 고용서비스 욕구가 높음
 - 다만, 취업자에 비해 차별경험과 장애로 인한 제약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
-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미취업자는 복지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50세 이상이 43.5%일 정도로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연령이 높고, 장애정도가 중하며, 직업적 능력이나 당사자 및 보호자의 취업 욕구가 현저히 낮음

2. 발달장애인 취업 및 취업희망 인원의 규모와 특성

〈표 5-3〉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취업 및 취업희망 인원(보호자 판단 기준)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취업	68,230	30.5
미취업-취업희망	53,716	24.0
미취업-취업비희망	101,825	45.5
전체	223,772	100.0

주: 미취업자의 '취업희망'은 보호자 조사에서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임

〈표 5-4〉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취업 및 취업희망 인원(보호자 판단 기준) - 주요 변수별
(단위: 명, %)

구분	항목	취업		미취업-취업희망		미취업-취업비희망		전체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성별	남성	48,186	34.7	34,966	25.2	55,635	40.1	138,787	100.0
	여성	20,044	23.6	18,750	22.1	46,190	54.4	84,985	100.0
연령	15~19세	2,177	9.3	16,828	71.7	4,455	19.0	23,460	100.0
	20~29세	29,940	48.6	17,266	28.0	14,373	23.3	61,579	100.0
	30~39세	19,470	42.0	8,201	17.7	18,705	40.3	46,376	100.0
	40~49세	9,887	27.4	6,262	17.3	19,969	55.3	36,117	100.0
	50세 이상	6,756	12.0	5,160	9.2	44,323	78.8	56,240	100.0
학력	초졸 이하	4,671	8.3	7,543	13.4	44,088	78.3	56,301	100.0
	중졸	3,582	11.5	14,554	46.7	13,025	41.8	31,161	100.0
	고졸 이상	59,977	44.0	31,620	23.2	44,712	32.8	136,309	100.0
장애유형	지적	61,217	30.3	45,660	22.6	95,388	47.2	202,265	100.0
	자폐성	7,014	32.6	8,056	37.5	6,438	29.9	21,507	100.0
장애등급 (2019.6.기준)	1급	6,890	13.2	9,519	18.2	35,932	68.7	52,340	100.0
	2급	24,739	29.5	21,031	25.0	38,216	45.5	83,986	100.0
	3급	34,852	42.8	20,393	25.1	26,102	32.1	81,346	100.0
중복장애 유무	있음	3,245	15.6	5,003	24.1	12,523	60.3	20,771	100.0
	없음	64,985	32.0	48,714	24.0	89,302	44.0	203,001	100.0

- 주 1)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항목별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 취업 희망에서 모두 모름/응답거절로 응답한 경우는 제시하지 않음

주요 시사점

- ◆ 현재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53,716명)는 취업자(68,230명)에 상당히 근접한 규모
 - 특히 15~19세의 71.7%, 자폐성장장애인의 37.5%를 차지함
 -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 미취업자 취업 희망 비율(14.8%)보다 많음
 - 보호자가 희망하거나 또는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당사자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모두 포함

3. 발달장애인 고용정책 수요

〈표 5-5〉 필요한 고용서비스(중복응답)

(단위: 명, %)

구 분	취업		미취업-취업희망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진로상담, 설계(진로설계 컨설팅)	7,334	10.7	12,255	22.8
직업탐색, 직업정보 제공	12,652	18.5	15,559	29.0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11,278	16.5	16,364	30.5
직업능력평가	4,027	5.9	5,790	10.8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역량 강화	3,916	5.7	3,922	7.3
직업기술 교육, 훈련	12,254	18.0	15,822	29.5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	12,661	18.6	17,642	32.8
현장실습(훈련)(지원고용 등)	8,445	12.4	13,883	25.8
취업알선(구직상담, 동행면접 등)	12,317	18.1	14,871	27.7
취업 전후 인력 지원(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	5,735	8.4	8,418	15.7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	1,241	1.8	2,236	4.2
출퇴근 지원(차량, 비용, 인력 등)	7,418	10.9	9,407	17.5
직업생활 상담 및 고충 처리(인권 보호)	9,263	13.6	7,101	13.2
발달장애인 취업 관련 부모(보호자) 교육	1,833	2.7	3,699	6.9
필요한 고용서비스 없음	27,902	40.9	8,769	16.3
전 체	68,230	-	53,716	-

주: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표 5-6〉 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

(단위: 명, %)

구 분	취업		미취업-취업희망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현재 이용할 의사가 있음	5,497	8.1	7,449	13.9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음	15,505	22.7	18,046	33.6
이용 여부를 추후 고려해보겠음	15,142	22.2	15,594	29.0
이용하지 않을 것임	32,086	47.0	12,627	23.5
전 체	68,230	100.0	53,716	100.0

주요 시사점

◆ 현재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뿐만 아니라 취업자 또한 고용서비스 욕구가 높음

- 취업자는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 '직업탐색, 직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욕구가 높음
- 미취업자는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고,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직업기술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욕구가 큼
- 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이용에 대한 욕구도 높으며,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는 23.5%만이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함

4. 당사자(PL, ER 그룹)와 보호자의 취업 희망 여부의 차이

〈표 5-7〉 당사자(PL, ER 그룹 미취업자)와 보호자의 취업 희망 여부 교차(전체 중 비율)
(단위: %, 명)

구 분	① 보호자의 당사자 취업 희망 여부			②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		
	희망	비희망	전체	희망	비희망	전체
	본인 취업 희망	36.6	14.1	50.7	34.4	16.3
본인 취업 비희망	7.0	41.0	47.9	1.9	46.0	47.9
모름/응답거절	0.4	1.0	1.4	0.2	1.2	1.4
전 체	43.9	56.1	100.0 (80,042)	36.5	63.5	100.0 (80,042)

주: 당사자(PL, ER 그룹)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와 매칭된 보호자의 응답 결과를 교차하여 분석함

주요 시사점

◆ 취업 희망 여부에 있어 당사자와 보호자의 응답 결과에 차이가 있음

- ①에서 보호자는 당사자의 취업을 희망하지만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 PL, ER 그룹의 7.0%(5,568명)이며, 보호자는 희망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는 14.1%(11,311명)임
 - 마찬가지로 ②에서 보호자는 당사자가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는 전체 PL, ER 그룹의 16.3%(13,015명)이며, 이는 당사자가 취업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는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인원(1.9%)보다 많음
- ⇒ 앞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에 보호자가 미치는 영향이 크며, 발달장애인의 취업은 본인의 삶과 함께 보호자(가족)의 삶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
- ⇒ 따라서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모두를 주요 고용정책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이 때, (PL, ER 그룹에 한정하기는 하지만) 보호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취업을 더 원할 수 있음을 확인함

5.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 장애유형별 주요 특성

〈표 5-8〉 장애유형별 주요 특성 : 보호자 조사

(단위: %)

구 분	항 목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성별	남성 비율	59.4	86.8
	15~29세 비율	34.4	72.3
연령	30~49세 비율	37.9	27.2
	50세 이상 비율	27.8	0.5
최종학력	고졸 이상 비율	59.2	77.0
장애등급	1급 비율	21.4	42.1
	3급 비율	38.3	18.5
의사소통	두 문장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하는 비율	53.5	39.2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표현 비율	57.7	42.4
인지능력	한글 읽고 쓰기가 둘 다 가능한 비율(‘제한적으로 가능’ 제외)	37.6	49.4
	숫자 인지가 가능한 비율(‘제한적으로 가능’ 제외)	31.3	38.5
도전적 행동	도전적 행동(8가지 유형)을 하나도 하지 않는 비율	57.7	24.2
학교이행과정	초등 일반학교 일반학급 ⇒ 고등 일반학교 일반학급 비율	32.1	12.9
	초등 특수학교, 특수학급 ⇒ 고등 특수학교, 특수학급 비율	50.7	74.3
취업 동기	취업자의 취업 동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 비율	35.2	14.0
	취업자의 취업 동기가 사회에 참여하거나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비율	51.2	69.2
취업한 사업체 유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및 표준사업장 일자리 비율	35.2	43.4
취업 경험	일반 민간사업체 일자리 비율	40.5	35.9
취업 희망	미취업자가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비율	20.9	11.2
미취업자 희망 일자리	미취업자 중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	32.4	55.6
희망 일자리	일이 쉽고 힘들지 않은 일자리 희망 비율	18.4	15.5
근로 의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잘되어 있는 일자리 희망 비율	9.6	15.5
근로 가능 수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비율	29.4	19.5
가족의 지지	근로 가능 비율(통상적인 수준 또는 단시간/단순한 수준)	51.5	55.3
고용서비스	당사자의 취업에 대해 가족이 지지하는 비율	51.5	67.9
	최근 3년 고용서비스 이용 비율	15.2	21.6
건강	필요한 고용서비스가 있는 비율	69.0	76.2
도움	건강이 나쁜 비율	29.0	11.9
차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 비율	67.7	81.8
일상생활 만족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비율(드물게 경험+자주 경험)	41.7	52.9
	당사자가 일상생활에 만족(보호자 판단)하는 비율	45.8	50.2
자립	보호자가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비율	37.5	41.8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미 혼자 사는 경우 포함)	30.7	21.5
가구	의사결정의 주된 주체가 장애인 본인인 비율	23.2	14.7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비율	43.1	14.4
돌봄	당사자를 돌보거나 보호하는 것이 부담되는 비율	50.3	62.6

〈표 5-9〉 장애유형별 주요 특성 : 당사자(PL, ER 그룹) 조사

(단위: %)

구 분	항 목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취업자 도움 필요	일할 때 도움이 필요한 비율	39.3	44.2
취업자 일자리 만족	일 다니는 것이 좋은 비율	76.4	81.4
미취업자 하고 싶은 일	취업희망자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은 비율	24.5	33.2
미취업자	취업희망자가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 비율	20.1	14.8
취업 비희망 사유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기 싫은 비율	6.2	5.2
건강	몸이 아파서(장애 때문에) 일하기 싫은 비율	30.3	11.8
건강	건강한 비율	55.2	75.1
행복	행복한 비율(‘매우 그렇다’에 응답)	51.6	60.1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비율	18.9	28.6
자신에 대한 생각 (PL 그룹)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에 ‘매우 그렇다’인 비율	25.3	41.2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에 ‘매우 그렇다’인 비율	17.1	30.7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에 ‘매우 그렇다’인 비율	34.5	42.9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매우 그렇다’인 비율	42.3	50.0

주: 미취업자의 ‘취업희망’은 당사자 조사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PL, ER 그룹)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임

주요 시사점

◆ 자폐성장애인은 규모는 작지만 취업과 관련 서비스 욕구가 높음

- 자폐성장애인(22천명)은 지적장애인(200천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 남성, 저연령, 고학력 비율이 높으며, 장애정도는 중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함
 -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어렵지만, 글이나 숫자에 대한 인지능력이 좋은 비율이 높음
 - 도전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수교육을 계속해서 받은 비율이 높음
 - 미취업자 중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음(보호자가 더 희망)
 - 취업자는 사회참여나 자립 준비를 위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또는 표준사업장과 같은 장애인 다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음
 - 미취업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좋은 일자리를 희망하며, 당사자는 그 중에서도 사무실에서 일하기를 희망함
 - 취업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당사자의 근로 가능 비율도 높은 편이지만 일할 때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높음
 -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 자아존중감은 높지만, 보호자는 자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6.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 연령별 주요 특성

〈표 5-10〉 연령별 주요 특성 : 보호자 조사

(단위: %)

구분	항목	연령		
		15~29세	30~49세	50세 이상
성별	남성 비율	68.2	60.5	54.9
최종학력	고졸 이상 비율	75.7	75.3	17.5
장애유형	지적장애 비율	81.7	92.9	99.8
	자폐성장애 비율	18.3	7.1	0.2
장애등급	1급 비율	24.0	26.9	17.4
	3급 비율	36.5	32.9	41.1
중복장애	중복장애 있는 비율	9.0	8.3	11.2
의사소통	두 문장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하는 비율	57.4	49.4	48.1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표현 비율	59.5	53.6	55.2
인지능력	한글 읽고 쓰기가 둘 다 가능한 비율(‘제한적으로 가능’ 제외)	53.4	38.2	17.3
	숫자 인지가 가능한 비율(‘제한적으로 가능’ 제외)	43.5	31.0	16.1
도전적 행동	도전적 행동(8가지 유형)을 하나도 하지 않는 비율	48.2	50.9	69.4
학교이행과정	초등 일반학교 일반학급 ⇒ 고등 일반학교 일반학급 비율	17.5	38.1	68.2
	초등 특수학교, 특수학급 ⇒ 고등 특수학교, 특수학급 비율	65.2	44.7	24.2
취업 동기	취업자의 취업 동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 비율	24.3	33.6	72.0
	취업자의 취업 동기가 사회에 참여하거나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비율	66.0	46.9	18.5
취업자 현재 하는 업무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인 비율	18.7	17.1	10.1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인 비율	26.0	42.8	21.2
	청소, 세탁(실내의 청소, 세차, 세탁 등)인 비율	20.5	15.4	35.8
	농림어업(채소 및 화초 재배, 모종 심기, 물고기 잡기 등)인 비율	0.3	2.8	22.4
취업 경험	미취업자가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비율	13.5	20.3	26.7
취업 희망	미취업자 중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	64.4	27.2	10.4
근로 의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비율	35.6	26.7	20.1
근로 가능 수준	근로 가능 비율(통상적인 수준 또는 단시간/단순한 수준)	66.3	53.5	27.5
가족의 지지	당사자의 취업에 대해 가족이 지지하는 비율	73.1	54.2	21.1
	최근 3년 고용서비스 이용 비율	27.2	13.1	2.5
고용서비스	필요한 고용서비스가 있는 비율	77.5	65.6	43.9
	건강	건강이 나쁜 비율	15.6	25.1
도움	일상생활 도움 필요 비율	67.9	70.9	68.3
차별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비율(드물게 경험+자주 경험)	43.4	43.8	40.5
일상생활 만족	당사자가 일상생활에 만족(보호자 판단)하는 비율	55.5	45.4	33.5
	보호자가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비율	47.0	34.7	28.8
자립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미 혼자 사는 경우 포함)	31.3	26.5	32.3
	의사결정의 주된 주체가 장애인 본인인 비율	24.3	19.9	23.3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비율	18.1	44.2	68.2
돌봄	당사자를 돌보거나 보호하는 것이 부담되는 비율	50.7	55.2	47.2

〈표 5-11〉 연령별 주요 특성 : 당사자(PL, ER 그룹) 조사

(단위: %)

구 분	항 목	연령		
		15~29세	30~49세	50세 이상
취업자 도움 필요	일할 때 도움이 필요한 비율	42.9	39.8	23.5
취업자 일자리 만족	일 다니는 것이 좋은 비율	74.6	77.8	83.4
취업자 부당한 경험	장애인이라고 놀리거나 아프게 한 경험이 있는 비율	10.9	12.5	14.1
미취업자 하고 싶은 일	취업희망자가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일하고 싶은 비율	41.2	34.5	16.6
	취업희망자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은 비율	28.6	21.9	20.6
	취업희망자가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 비율	14.6	23.5	29.4
	취업희망자가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키우고 싶은 비율	2.7	5.1	12.4
건강	건강한 비율	69.1	59.4	31.2
행복	행복한 비율('매우 그렇다'에 응답)	57.5	53.5	41.3
도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비율	18.2	18.6	23.7
자신에 대한 생각 (PL 그룹)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에 '매우 그렇다'인 비율	31.3	25.8	15.6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에 '매우 그렇다'인 비율	23.5	15.0	11.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에 '매우 그렇다'인 비율	42.5	32.4	21.2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매우 그렇다'인 비율	46.7	44.4	29.4

주: 미취업자의 '취업희망'은 당사자 조사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PL, ER 그룹)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임

주요 시사점

◆ 15~29세 발달장애인은 취업과 관련 서비스 욕구, 가족의 취업 지지 등이 높은 반면, 50세 이상은 해당 비율이 현저히 낮고, 30~49세 장애인은 중간적 특징을 갖고 있음

- 15~29세(85천명)는 상대적으로 자폐성장애의 비율이 높고,
 - 학력 수준이나 의사소통, 인지능력 수준이 높으며, 취업에 대한 의지와 관련 서비스 욕구가 높음
 - 취업자는 사회참여 또는 자립을 위해 일을 시작하였으며 서비스 업무를 많이 하고,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당사자는 음식점, 마트 또는 사무실에서 일하기를 희망함
- 30~49세(82천명)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타 연령대의 중간지점에 있는 경향이 높음
 - 1급이 많고, 15~29세와 유사하게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며, 보호자가 당사자를 돌보거나 보호하는 것이 부담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0세 이상(56천명)은 지적장애인이 대부분이고, 학력 수준이나 의사소통, 인지능력 수준이 낮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근로 의지도 낮으며 기초생활수급 대상 비율이 높음

VI.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응답 신뢰도 검토

1. 보호자 조사 응답의 신뢰도

- 보호자 조사 응답자와 주 보호자의 일치도(대각요소의 비율)는 94.9%로 대부분 주 보호자가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부모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가 교차된 경우도 일치한 것으로 인정할 때 해당 비율은 97.9%까지 상승

〈표 6-1〉 보호자 조사 응답자와 주 보호자의 일치도

(단위: 명)

구 분	응답자							기타	소 계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	자녀	그 외 가족 및 친인척		
아버지	378	54	2	2	0	0	1	1	438
어머니	36	1,853	7	1	0	0	2	8	1,907
형제자매	0	3	207	1	0	1	8	5	225
조부모	0	0	0	51	0	0	0	0	51
배우자	1	1	0	0	167	1	1	2	173
자녀	0	1	0	0	1	66	0	2	70
그 외 가족 및 친인척	3	0	2	0	0	0	58	3	66
기타	0	1	1	0	0	0	0	68	70
전 체	418	1,913	219	55	168	68	70	89	3,000

- 보호자 조사 응답자의 89.7%는 조사대상 발달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음

〈표 6-2〉 보호자 조사 응답자와 발달장애인 동거 여부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같이 살고 있음	2,690	89.7
같이 살고 있지 않음	310	10.3
전 체	3,000	100.0

⇒ 보호자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대부분 같이 살고 있는 주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음

2. 당사자 조사참여 가능수준 판별의 신뢰도

조사참여 가능수준 판별 개요

◆ 판별조사표 개발

- 목적: 발달장애인이 본 조사에 참여하여 응답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의사소통 수준,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능력, 어휘 능력, 구문 읽기 능력, 문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를 개발
- 목표: 조사원이 낭독 또는 설명하는 문항의 내용을 듣고 질문의 요점과 취지를 이해해서 구두 상으로 응답하거나 보기(그림상징 보기카드 등)를 보고 발달장애인 본인의 근거 있는 판단 결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준과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
- 개발방식: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리빙랩 방식으로 개발
- 구성: 그림상징 판별지표, '예, 아니오' 답하기, 문장 완성하기, 문장 배열하기, 글 이해하기

◆ 판별 결과(총 3,000명)

- 조사 참여 불가능 그룹은 조사 거절자도 포함
- ① 보통 읽기 자료 그룹(PL 그룹) - 1,039명(34.6%) ② 읽기 쉬운 자료 그룹(ER 그룹) - 797명(26.6%)
- ③ 그림상징 그룹 - 313명(10.4%) ④ 조사 참여 불가능 그룹 - 851명(28.4%)

〈표 6-3〉 그룹별 장애등급 구성

(단위: %, 명)

구 분	조사참여 가능수준			
	PL 그룹	ER 그룹	그림상징 그룹	미참여 그룹
1급	7.7	19.4	43.1	55.2
2급	36.9	46.0	43.5	30.1
3급	51.5	32.0	12.5	13.4
2019년 7월 이후 등록	3.9	2.5	1.0	1.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인원)	(1,039)	(797)	(313)	(851)

〈표 6-4〉 그룹별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단위: %, 명)

구 분	조사참여 가능수준			
	PL 그룹	ER 그룹	그림상징 그룹	미참여 그룹
두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함	80.6	55.8	20.8	17.3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16.3	34.3	44.7	32.5
단어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2.5	7.9	31.9	27.1
다른 사람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함	0.7	2.0	2.6	23.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인원)	(1,039)	(797)	(313)	(851)

〈표 6-5〉 그룹별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

(단위: %, 명)

구 분	조사참여 가능수준			
	PL 그룹	ER 그룹	그림상징 그룹	미참여 그룹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함	84.1	62.1	23.0	18.1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12.1	25.2	38.0	24.6
불명료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2.4	8.4	28.4	19.4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함	0.9	3.0	7.3	24.2
소리 등으로도 전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음	0.5	1.3	3.2	13.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인원)	(1,039)	(797)	(313)	(851)

〈표 6-6〉 그룹별 비언어적 표현 이해 수준

(단위: %, 명)

구 분	조사참여 가능수준			
	PL 그룹	ER 그룹	그림상징 그룹	미참여 그룹
이해할 수 있음	60.9	34.9	15.7	12.2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37.0	55.7	67.1	47.2
이해할 수 없음	2.1	9.4	17.3	40.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인원)	(1,039)	(797)	(313)	(851)

〈표 6-7〉 그룹별 비언어적 표현 활용 수준

(단위: %, 명)

구 분	조사참여 가능수준			
	PL 그룹	ER 그룹	그림상징 그룹	미참여 그룹
활용할 수 있음	55.6	30.4	10.5	9.8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9.8	56.0	62.9	44.4
활용할 수 없음	4.5	13.7	26.5	45.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인원)	(1,039)	(797)	(313)	(851)

⇒ 판별 전 조사된 보호자 조사에서의 장애등급, 의사소통 수준의 그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그룹별로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3. 당사자(PL, ER 그룹) 응답 신뢰도 검증을 통한 부적합 응답 분석 제외

응답 신뢰도 검증 개요

- ◆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현장평가 실시
 - 1단계: 뒷말만 따라하거나 의미없는 말/단어 반복, 무반응, 조사거부, 조사 중 이탈, 조사 방해 등의 발생 여부 점검
 - 2단계: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와 응답의 신뢰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제대로 된 응답을 전혀 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한 편이다', '보통이다', '제대로 된 응답을 한 편이다', '제대로 된 응답을 잘 하였다'로 평가
- ◆ 무응답 검증
 - 모든 문항 무응답, 대부분 문항 무응답, 일부 무응답(4~6개), 일부 무응답(1~3개), 무응답 없음으로 구분하여 검증

- QA, QB 파트 응답 대상자인 PL, ER 판별 결과는 총 1,836명으로 확인
 - 이 중 모든 문항 무응답(36명)을 제외한 사람이 조사 참여 표본 수(1,800명)임
- QA, QB 파트 조사 참여 표본(1,800명) 중 부적합 응답으로 판단된 12명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 표본 수는 총 1,788명임
 - QA, QB 파트에 응답하게 되는 문항은 최소 25개, 최대 37개이며, 무응답이 7개 이상(최소 문항 수 기준 무응답 40%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나, 2024년에는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특별히 제외된 사람은 없음
 - 현장평가에 의해 '제대로 된 응답을 전혀 하지 못했다'로 평가된 12명 제외

4. 행정통계 ‘등록장애인 현황’과의 비교

- 장애유형별×연령별 교차 구성비의 비교 결과, 개별 셀들의 수치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가중치 설계 시 사후층화에 의해 장애유형의 부분합은 동일함

〈표 6-8〉 장애유형별×연령별 교차 구성비의 비교

(단위: %, 명)

구 분	본 조사 추정치			등록장애인 현황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15~19세	10.5	9.0	24.5	10.5	9.1	23.9
20~29세	27.5	25.4	47.8	27.5	25.1	50.1
30~39세	20.7	20.3	24.3	20.7	20.5	22.7
40~49세	16.1	17.5	3.0	16.1	17.6	2.8
50~59세	13.3	14.7	0.4	13.3	14.7	0.4
60세 이상	11.8	13.1	0.1	11.8	13.0	0.1
전 체 (추정 수)	100.0 (223,772)	100.0 (223,772)	100.0 (21,507)	100.0 (223,499)	100.0 (202,001)	100.0 (21,498)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2023년 12월 말)」, 2024(정정된 자료, 정정일: 2024.12.28.)

- 표본추출 모집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애등급별 구성비(조사결과)를 2018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현황에서의 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1급 3.2%p, 2급 3.7%p, 3급 0.5%p 차이로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등급)의 분포가 유사하게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6-9〉 장애등급별 구성비의 비교

(단위: %, 명)

구 분	본 조사 추정치			등록장애인 현황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1급	24.0	22.0	42.7	27.2	25.2	49.4
2급	38.6	38.6	38.6	34.9	35.1	32.4
3급	37.4	39.4	18.8	37.9	39.6	18.3
전 체 (추정 수)	100.0 (217,673)	100.0 (196,481)	100.0 (21,192)	100.0 (199,214)	100.0 (183,132)	100.0 (16,082)

주 1) 본 조사 추정치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고 산출함

2) 등록장애인 현황의 장애등급 정보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자료(2018년 12월 말)를 사용함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2018년 12월 말)」, 2019(정정된 자료, 정정일: 2024.12.28.)

제 1 장 서 론

제1절 조사개관

1. 조사배경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아인*)은 2023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 기준 272,243명으로 2012년(196,999명) 대비 38.2%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체 등록장애인(5.3% 증가)보다 증가폭이 훨씬 크다. 그에 따라 전체 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9%에서 10.3%로 상승하였다. 또한 구직·입직 연령대인 15~29세 발달장애인은 2013년 대비 19.5% 증가하여(전체 등록장애인은 2.8% 감소) 해당 연령대 전체 장애인에서의 비중이 55.1%에서 67.7%로 크게 상승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자기관리 및 의사결정, 사회참여, 자립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수행능력이 현저히 제한되어 타인의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데도 제약이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특성은 대표적인 사회참여의 일환인 노동시장 참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4%로 전체 장애인 평균(35.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발달장애인은 인구 규모 면에서의 증가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당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만의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특화된 정책을 마련하고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4년에 제정하였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과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2018)」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2022년에는 최

*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며, ‘자폐성장아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 돌봄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2023년에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 2024년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 제공 및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2020)’ 등에서 세분화된 고용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고,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 취업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맞춤 근로지원인 서비스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실태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달장애인 정책의 수요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통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삶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등과 같은 장애인 대상 통계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통계는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발달장애인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세부 통계를 생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한 충분한 수의 발달장애인 표본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대리 응답을 통해 보호자에게 조사가 이뤄지는 비율이 높아 당사자와 보호자의 응답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통계조사도 다수 있으나 대부분 보호자 위주의 조사에 그치고 있고,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 위주로만 조사하여 전반적인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으나, 일회성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재 구축·공표되고 있는 통계자료만으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한 통계를 생산하고, 특히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도입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국가승인통계로 등재되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일과 삶 전반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발달장애인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의 모토는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의 파악이다.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판별할 수 있는 핵심 지표 중 하나는 일을 하는지의 여부로, 장애인은 일을 통해 개인의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구직부터 취업 이후까지의 과정을 조사하여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특히 장애적 특성, 교육, 일상생활, 돌봄·보호·지원 등 다른 삶의 영역이 취업, 일의 영역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계정보도 풍부하게 생산하고자 하였다.

표본설계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등의 특성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특히 모집단 수가 현저히 적은 자폐성장애인의 표본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과대할당을 실시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최대한 정확하게 조사하고자 조사참여 가능수준을 판별하고, 판별 결과에 따라 읽기 쉬운 조사표, 그림상징 조사표 등을 개발·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발달장애인 관련 타 조사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당사자의 의견과 욕구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가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 조사목적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정책 욕구를 당사자와 보호자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고용 및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관련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3. 조사대상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2024년 5월 15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이다.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당사자와 보호자가 쌍을 이룬 형태의 조사 형태로 주된 정보는 보호자를 통해 확보하기에 보호자(비가구원 포함)가 없는 경우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표본 규모는 3,000가구이며, 본 조사에 사용한 표집틀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명부이다. 표본추출은 표본설계 전문가가 지역, 장애유형(지적·자폐성),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할당하였고, 추출 읍면동 수를 조절함과 더불어 적절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이상추출(two phase sampling) 방법을 통해 추출하였다.

4. 조사구성

본 조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를 짝을 지어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먼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주 보호자에게 상세한 사항을 질문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본인의 생각과 의사를 질의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당사자 조사표 3종과 보호자 조사표 1종을 개발하였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조사표는 조사참여 가능수준에 따른 그룹별 특수조사표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조사참여 가능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별도로 개발한 판별조사표를 통해 총 네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보통 읽기 조사표를 활용하여 상당 부분 직접 조사 참여가 가능한 ‘보통 읽기 자료 그룹(PL 그룹)’, 읽기 쉬운 조사표를 활용하여 일정 부분 직접 조사 참여가 가능한 ‘읽기 쉬운 자료 그룹(ER 그룹)’, 그림상징 등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아 조사 참여가 가능한 ‘그림상징 그룹’, 마지막으로 판별 결과 상 조사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참여를 거절한 사람은 ‘미참여 그룹’이며, 처음 세 그룹은 각 수준에 맞는 조사표를 활용하여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1-1-1〉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당사자 조사 구성

그룹 구분	명명	조사표
① 보통 읽기 자료 그룹 (Plain Language Group) - 보통 읽기 조사표를 활용하여 상당 부분 직접 조사 참여가 가능한 그룹	PL 그룹	“보통 읽기 조사표” (“읽기 쉬운 조사표”에 보통 읽기 자료 그룹 수준용 문항 추가)
② 읽기 쉬운 자료 그룹 (Easy to Read Group) - 읽기 쉬운 조사표를 활용하여 일정 부분 직접 조사 참여가 가능한 그룹	ER 그룹	“읽기 쉬운 조사표”
③ 그림상징 그룹 (Graphic Symbols Group) - 그림상징 등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아 조사 참여가 가능한 그룹	그림상징 그룹	“그림상징 조사표”
④ 조사 참여 불가능 그룹	미참여 그룹	당사자 조사 제외

발달장애인 보호자 조사표는 A. 인적사항 및 장애특성, B. 교육, C. 취업상태 확인, D. 취업자 특성, E. 미취업자 특성, F.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G. 일상생활, H. 자립 및 미래 계획, I. 가구 및 보호자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5. 조사내용

발달장애인의 삶 전반의 내용과 제반 환경을 포함하되, 취업과정과 욕구, 취업실태 및 유지, 취업 이후의 삶 등 일과 삶의 연계과정과 관련된 요인 및 결과를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때 기존 통계조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만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응답의 정확성을 위해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주로 조사하고, 당사자의 경우 본인에게 직접 질문해야 하는 항목 위주로 조사하였다.

〈표 1-1-2〉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대상	구분	주요 조사항목
보호자	A. 인적사항 및 장애특성	응답자 정보, 인적사항, 장애정보, 의사소통 수준, 인지능력 수준, 도전적 행동 수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B. 교육	교육 이수 내역, 재학생의 학교생활/진로·직업교육/진로계획, 전공과 경험/강화교육, 학교 이외 교육프로그램 참여·희망 등
	C. 취업상태 확인	취업 여부, 종사상 지위
	D. 취업자 특성	취업 동기, 일자리 정보, 취업과정, 업무특성, 근로조건 및 근무실태, 근무환경, 장애 관련 지원, 직업생활, 일자리 만족 및 지속 근무 의사, 직업재활시설 일반고용 전환, 이전 취업 경험 등
	E. 미취업자 특성	취업 경험, 취업 희망 여부 및 희망 일자리, 구직경험 및 취업준비 등
	F.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직업 가치관, 근로능력, 취업에 대한 지지, 정보기기 활용 가능 정도, 고용서비스 경험/욕구 등
	G. 일상생활	건강/(조기)노화, 운동/일상문제, 일상생활 도움, 하루 일과, 복지관·센터 등 기관 이용 현황, 사회 참여, 부당한 경험, 재난 안전, 일상생활 변화 및 만족, 장애 관련 서비스 욕구
	H. 자립 및 미래 계획	향후 희망 거주 유형, 자립 가능 정도, 자립 의지, 자립 준비 사항, 자립 시도 의향, 미래 계획 수립 여부,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
	I. 가구 및 보호자	가구 정보, 보호자 정보, 돌봄 시간 및 부담, 보호자 삶의 만족 등

대상	구분	주요 조사항목
당사자 (PL/ER)	QA. 취업과 일자리	(취업자 조사) 취업 동기, 업무 정보 및 만족, 일자리 안전 및 환경, 필요한 도움, 근무시간 연장 희망 여부, 지속 근무 의사 등 (미취업자 조사) 취업 희망 여부, 희망 일자리, 교육 희망 여부, 일하고 싶은 이유/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 등
	QB. 공동조사	건강과 행복, 하고 싶은 활동, 사회생활, 경제생활, 학교생활, 장애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자신에 대한 생각, 위급상황 대처 등
당사자 (그림상징)	그림상징조사	일상생활 수행, 희망하는 활동 등 16개 그림상징문항 (응답 일관성 테스트 1문항 포함)

주: 그림상징 그룹 조사 결과는 본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음

6. 조사방법

본 조사는 태블릿 PC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로 실시되었다. 조사원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자를 방문한 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에 따라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7. 조사기간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는 2024. 6. 17(월)부터 9. 30(월)까지 약 3.5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8.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발달장애인 3천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2,081명,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3,000명을 조사하였다.

3,000명 대상 발달장애인의 조사참여 가능수준을 판별한 결과, PL 그룹 1,039명, ER 그룹 797명, 그림상징 그룹 313명, 조사 참여 불가능 그룹 851명으로 판별되었고, 그 중 PL 그룹은 1,038명, ER 그룹은 762명, 그림상징 그룹은 281명이 당사자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응답 신뢰도 검증을 통해 부적합 응답을 제외한 PL, ER 그룹 1,788명의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표 1-1-3〉 당사자 조사참여 가능수준 판별 결과, 조사 참여 표본 수 및 분석 표본 수

그룹 구분	판별 표본 수	조사 참여 표본 수	본 보고서 분석 표본 수
① 보통 읽기 자료 그룹 (PL 그룹)	1,039명 (34.6%)	1,038명	1,036명
② 읽기 쉬운 자료 그룹 (ER 그룹)	797명 (26.6%)	762명	752명
③ 그림상징 그룹	313명 (10.4%)	281명	-
④ 조사 참여 불가능 그룹 (미참여 그룹)	851명 (28.4%)	-	-

9. 조사기관

본 조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였다. 조사기획, 조사표 개발, 조사지침서 작성, TAPI 프로그램 논리구성, 실사 관리, 데이터 검증, 보고서 작성 및 공표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전담하였고, 실사는 (주)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표본설계와 발달장애인 읽기 쉬운 조사표 개발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10. 조사경과

-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 업무 협의 진행(2024. 1~4)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명부 요청·인수(2024. 1~4)
-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사업 본격 추진
 -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사업계획 수립(2024. 1)
 - 조사표 개발 추진 및 변환(2024. 1~4)
 - 조사업체 계약 체결 및 사업수행계획서 승인(2024. 4)
 - 통계청 통계작성승인 신청(2024. 5.) 및 승인(승인번호: 제383005호, 2024.6.8)
 - 사전조사(2024. 5~6) 및 본 조사(2024. 6.19~10.6) 실시
 - 가중치 설계, 데이터 검증 및 분석(2024. 11~2025. 3)
 - 보고서 발간 및 공표(2025. 4)

11. 결과공표

본 조사의 결과는 조사 실시 익년 상반기에 간행물 또는 전자 파일 등의 형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표본설계

1. 표본설계 주요 특징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그간 구축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며,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의 응답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 발달장애인 표본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 할당된 발달장애인 표본은 약 1,400여명으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대상 표본(중복표본)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만을 위한 표본(독립표본)을 별도로 추출하였다. 이 때 두 조사 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사방법과 절차 등에서 안배를 하였고 또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내에서도 중복표본과 독립표본간 통계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본추출과 가중치 산출,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였다.

2. 표본설계 세부 내용

가. 개요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표본설계의 기본적인 구조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나. 읍/면/동 및 발달장애인 표본추출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표본추출법으로는 이상추출법(double sampling, two phase sampling)이 사용되었다. 일상에서는 읍면동이 추출되었고, 이상에서는 발달장애인 유형을 층으로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을 직접 추출하였다. 실제 추출의 과정에서는 1차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응하는 발달장애인(중복표본)이 표본으로 구성되었고, 이후 추가로 발달장애인(독립표본)이 추출되어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위한 최종 표본이 구성되었다. 비록 표본추출이 두 번 이루어졌으나 독립적으로 두

*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 모집단 분석, 표본설계, 가중치 산출 및 추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보고서(<http://edi.kead.or.kr>)를 참조

과정이 이루어졌고, 사용된 층과 표본추출법이 같으므로 한 번의 이상추출법을 통해 표본추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1-2-1〉은 읍면동 추출을 위하여 사용된 읍/면/동 모집단과 실제 추출된 읍/면/동을 나타낸다. 추출틀 구성을 위해 도서 지역 등을 제외하였으며, 지역을 층으로 고려하여 읍/면/동을 추출하였다. 1상 표본 읍면동은 총 3,442개의 읍면동 중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표본이 추출되었던 읍면동이 속한 시군구(총 187개 시군구)에 속해 있는 모든 읍면동이 추출되었으며, 층별 추출률은 61.1%~100.0%이다.

〈표 1-2-1〉 표본추출틀 읍/면/동 수 및 1상 표본 읍/면/동 수

(단위: 개)

지역	추출틀	1상 표본	지역	추출틀	1상 표본
서울	424	424	강원	189	129
부산	203	195	충북	149	138
대구	151	143	충남	203	180
인천	145	145	전북	230	180
광주	95	95	전남	252	154
대전	82	70	경북	318	251
울산	55	55	경남	289	255
세종	24	24	제주	38	38
경기	595	589	전국	3,442	3,065

1상에서 추출된 읍/면/동 내 모든 발달장애인을 2상 추출을 위한 추출틀로 구성하고, 지역과 장애유형(자폐성장애, 지적장애)을 기준으로 층화 후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 1-2-2〉는 1상에서 추출된 읍/면/동 내 발달장애인과 추출된 최종 표본 내 발달장애인의 층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본배분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제공근 배분이 사용되었으며,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수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과대표집하여 자폐성의 경우는 모집단의 10%, 지적장애의 경우는 5%를 배분하였다. 전체적으로 1상 표본으로부터 1.8%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이 추출되었다.

〈표 1-2-2〉 1상 표본과 2상 표본의 발달장애인 수

(단위: 명)

지역	장애유형	자폐성		지적	
		1상 표본	2상 표본	1상 표본	2상 표본
	서울	4,281	195	22,327	268
	부산	1,171	61	9,473	122
	대구	826	44	7,751	99
	인천	1,025	69	8,820	125
	광주	489	29	5,285	91
	대전	512	45	3,971	77
	울산	301	36	3,079	59
	세종	105	19	727	19
	경기	4,836	236	33,718	308
	강원	352	33	4,323	88
	충북	447	36	7,018	90
	충남	582	46	8,790	118
	전북	509	35	8,208	115
	전남	338	26	5,599	77
	경북	646	37	10,576	113
	경남	1,080	76	10,778	129
	제주	258	25	2,151	54
	전체	17,758	1,048	152,594	1,952

〈표 1-2-3〉 부터 〈표 1-2-6〉 은 전체 발달장애인 모집단과 최종 표본의 성, 연령, 장애유형, 그리고 지역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 기준 표본과 모집단의 분포에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의 경우에는 자폐성장애의 모집단 비중이 매우 작은 관계로 제공된 배분의 효과가 직접 나타났으며, 두 장애유형별로 작성되는 통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표본이 배분되었다. 표본 발달장애인 수는 예산의 제한 하에서 최대한 수용 가능한 3,000명이다.

〈표 1-2-3〉 표본추출틀 분포와 표본 분포 비교 - 성별

(단위: 명, %)

성별	구분	표본추출틀		표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남성	113,950	62.4	2,058	68.6
	여성	68,560	37.6	942	31.4
	전체	182,510	100.0	3,000	100.0

〈표 1-2-4〉 표본추출틀 분포와 표본 분포 비교 - 연령

(단위: 명, %)

연령	구분	표본추출틀		표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5~19세		21,688	11.9	494	16.5
20~29세		51,561	28.3	999	33.3
30~39세		36,480	20.0	601	20.0
40~49세		27,763	15.2	338	11.3
50~59세		23,823	13.1	294	9.8
60~69세		16,038	8.8	223	7.4
70세이상		5,157	2.8	51	1.7
전체		182,510	100.0	3,000	100.0

〈표 1-2-5〉 표본추출틀 분포와 표본 분포 비교 - 장애유형

(단위: 명, %)

지역	구분	표본추출틀		표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폐성		18,308	10.0	1,048	34.9
지적		164,202	90.0	1,952	65.1
전체		182,510	100.0	3,000	100.0

〈표 1-2-6〉 표본추출틀 분포와 표본 분포 비교 - 지역별

(단위: 명, %)

지역	구분	표본추출틀		표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서울		26,608	14.6	463	15.4
부산		10,956	6.0	183	6.1
대구		8,745	4.8	143	4.8
인천		9,845	5.4	194	6.5
광주		5,774	3.2	120	4.0
대전		5,325	2.9	122	4.1
울산		3,380	1.9	95	3.2
세종		832	0.5	38	1.3
경기		38,843	21.3	544	18.1
강원		6,526	3.6	121	4.0
충북		8,248	4.5	126	4.2
충남		10,133	5.6	164	5.5
전북		9,984	5.5	150	5.0
전남		9,192	5.0	103	3.4
경북		12,793	7.0	150	5.0
경남		12,917	7.1	205	6.8
제주		2,409	1.3	79	2.6
전체		182,510	100.0	3,000	100.0

다. 가중치 산출 및 추정

모수 추정량의 계산을 위해서는 가중치의 산출이 필수적이다.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자료의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2단계에 걸쳐 작성된다. 일단계에서는 발달장애인 표본추출을 위하여 사용된 표본설계에 근거한 표본가중치가 작성되고, 이단계에서는 레이킹 비(raking ratio)를 통한 벤치마킹(benchmarking)이 이루어진다.

위에서 설명한 표본설계에 근거하여 읍면동 i 에 거주하는 j 번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표본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ij} = w_{aij}w_{ijs_a} = \left[\sum_h \pi_{aij}^{-1} I_{aij}(h) \right] \left[\sum_{a_h} \pi_{ijs_a}^{-1} I_{ijs_a}(a_h) \right], \quad I_{aij} = \begin{cases} 1, & (ij) \in U_h \\ 0, & (ij) \notin U_h \end{cases}$$

$$I_{ijs_a} = \begin{cases} 1, & (ij) \in s_{a_h} \\ 0, & (ij) \notin s_{a_h} \end{cases}, \quad \pi_{aij} = \begin{cases} \left(1 - \left(1 - \frac{\nu_i}{N_h} \right)^{n_h} \right)^{-1}, & (i,j) \in S_0 \\ 1, & (i,j) \in S_1 \end{cases}, \quad \pi_{ijs_a} = \frac{m_{a_h}}{M_{a_h}}$$

여기서 h 는 1상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모집단에서 정의된 h 번째 층을 나타내며, a_h 는 2상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1상 표본에서 정의된 a_h 번째 층을 나타낸다. U_h 와 s_{a_h} 는 h 번째 발달장애인 모집단 층과 a_h 번째 발달장애인 1상 표본 층을 나타내며, N_h 는 h 번째 모집단 층의 전체 표본층 읍면동 수, ν_i 는 읍면동 i 가 속해있는 시군구 내의 표본층 읍면동 수, n_h 는 h 번째 모집단 층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1상 표본추출을 통해 추출된 표본층 읍면동 수를 나타낸다. S_0 는 전수층 읍면동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시군구에 속한 읍면동을 나타내며, S_1 는 전수층 읍면동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시군구에 속한 읍면동을 나타낸다. M_{a_h} 와 m_{a_h} 는 a_h 번째 1상 표본 층의 발달장애인 수와 a_h 번째 1상 표본 층으로부터 2상 표본추출을 통해 추출된 표본 발달장애인 수를 나타낸다.

작성된 표본가중치는 레이킹 비 기법을 이용하여 조정된다. 레이킹 비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벤치마킹 변수는 발달장애인의 성, 연령, 지역 그리고 장애유형 변수로 결정하였다. <표 1-2-7>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각 변수의 모집단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레이킹 비 기법을 이용하여 보정된 가중치는 $w_{ij}^{rak} = w_{ij} \exp(\lambda' \underline{x}_{ij})$ 이다. 여기서 \underline{x}_{ij} 는 벤치마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들을 나타내는 지시변수 벡터이며 λ 는 $\sum w_{ij}^{rak} \underline{x}_{ij} = t_x$ 의 해를 나타

내며, t_x 는 각 레이킹 비에 사용된 벤치마킹 변수들의 범주에 해당하는 모집단 장애인 분포를 나타낸다.

〈표 1-2-7〉 변수별 벤치마킹 모집단 분포

(단위: 명)

성별	빈도	연령	빈도	지역	빈도	장애유형	빈도
남자	138,787	15~19세	23,460	서울	29,419	자폐성	202,265
여자	84,985	20~29세	61,579	부산	12,643	지적	21,507
계	223,772	30~39세	46,376	대구	10,634	계	223,772
		40~49세	36,117	인천	11,239		
		50~59세	29,811	광주	7,257		
		60~69세	19,448	대전	7,007		
		70세 이상	6,981	울산	4,611		
		계	223,772	세종	1,154		
				경기	48,366		
				강원	8,359		
				충북	10,612		
				충남	12,190		
				전북	12,308		
				전남	12,019		
				경북	16,135		
				경남	16,243		
				제주	3,576		
				계	223,772		

〈표 1-2-8〉은 산출된 가중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제공된 비례배분 방안이 적용되어 표본의 자폐성장장애인의 비율은 모집단보다 크며, 지적장애인의 표본 비중은 작다. 이러한 현상이 표본가중치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종 벤치마킹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표본 규모가 작은 지적장애인에게 부여된 가중치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2-8〉 장애유형별 가중치 분포

장애 유형	가중치	총합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Q1	중위수	Q3	최대값
자폐성	설계	18,742.04	1,048	17.88	4.80	5.53	14.21	19.40	21.12	46.32
	레이킹	21,507.00	1,048	20.52	5.14	6.47	17.05	21.31	24.46	50.90
지적	설계	166,068.17	1,952	85.08	22.83	38.26	72.71	83.31	100.62	272.74
	레이킹	202,265.00	1,952	103.62	31.03	44.55	81.54	98.47	121.23	283.83

라. 모수 추정

제공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정의되는 모집단의 총합에 대한 추정량과 분산추정량은 각각 다음과 같다.

$$\hat{t}_y = \sum_i \sum_j w_{ij} y_{ij}$$

$$\hat{V} = \sum_i \sum_j \sum_{i'} \sum_{j'} \frac{\Delta_{a(ij)(i'j')}}{\pi_{a(ij)(i'j')} \pi_{(ij)(i'j')|s_a}} \frac{y_{ij}}{\pi_{aij}} \frac{y_{i'j'}}{\pi_{ai'j'}} + \sum_i \sum_j \sum_{i'} \sum_{j'} \frac{\Delta_{(ij)(i'j')|s_a}}{\pi_{(ij)(i'j')|s_a}} \frac{y_{ij}}{\pi_{aij} \pi_{ij|s_a}} \frac{y_{i'j'}}{\pi_{ai'j'} \pi_{i'j'|s_a}}.$$

여기서,

$$\pi_{a(ij)(i'j')} = \begin{cases} \frac{n_h}{N_h} & , i = i' \\ \frac{n_h(n_h - 1)}{N_h(N_h - 1)} & , i \neq i', j \neq j', (ij) \in U_h, (i'j') \in U_h \\ \frac{n_h n_{h'}}{N_h N_{h'}} & , i \neq i', j \neq j', (ij) \in U_h, (i'j') \in U_{h'}, h \neq h' \end{cases}$$

이고 $\Delta_{a(ij)(i'j')} = \pi_{a(ij)(i'j')} - \pi_{aij} \pi_{ai'j'}$ 이다. 그리고

$$\pi_{(ij)(i'j')|s_a} = \begin{cases} \frac{m_{a_h}}{M_{a_h}} & , i = i', j = j', (ij) \in s_{a_h}, (i'j') \in s_{a_h} \\ \frac{m_{a_h}(m_{a_h} - 1)}{M_{a_h}(M_{a_h} - 1)} & , (ij) \neq (i'j'), (ij) \in s_{a_h}, (i'j') \in s_{a_h} \\ \frac{m_{a_h} m_{a_h'}}{M_{a_h} M_{a_h'}} & , (ij) \in s_{a_h}, (i'j') \in s_{a_h'}, a_h \neq a_h' \end{cases}$$

이고 $\Delta_{(ij)(i'j')|s_a} = \pi_{(ij)(i'j')|s_a} - \pi_{ij|s_a} \pi_{i'j'|s_a}$ 이다.

제3절 조사표 설계

1. 조사표 설계 방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통합주의적 복지이념이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이 기본적인 시민 권리를 실현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삶의 전 과정과 영역에서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이면서도 특화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이 장애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발달장애인 본인의 욕구와 선택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또한 보호자(가족)의 돌봄과 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광범위하며 밀접하기에 보호자(가족)의 판단과 의견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 요소이다.

또한 기 실시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성공적인 수행 이후 조사 전반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과 맥락에서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표 설계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삶 전반의 내용과 제반 환경을 포함하되, 취업과정과 욕구, 취업실태 및 유지, 취업 이후의 삶 등 일과 삶의 연계과정과 관련된 요인 및 결과 중심으로 조사하며,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고용 및 복지정책·서비스와 지원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일을 통해 개인의 자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므로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취업상태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장애적 특성, 교육, 일상생활, 돌봄·보호·지원 등 다른 삶의 영역이 취업, 일의 영역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계정보를 풍부하게 확보하고자 한다. 이 때 기존 조사와 차별화하여 발달장애인만의 특성과 관련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과 관련된 전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생애주기(Life cycle)란 한 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일생 전체를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각 생애주기 단계별로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이 이뤄내야 하는 발달과업도 달라지며 가족 역시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Bennett, DeLuca & Allen, 1996). 생애주기의 구분이나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유사한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본 조사가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에 먼저 학령기 발달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의 내용과 욕구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여기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교육을 포함하며, 개인별 발달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된 특수교육에 대한 욕구 등을 조사한다. 청년기와 관련해서는 자립의지, 직업적 능력, 취업 욕구, 취업준비와 과정, 고용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며, 장년기는 직업생활 참여·유지·지원, 자립지원, 거주지원 등의 실태와 욕구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발달장애인을 고려하여 조기노화 등을 감안한 건강지원, 여가생활, 노후보장 등을 다룬다. 장애적 특성, 일상생활 수행능력, 보호와 돌봄, 주간활동, 장애 관련 서비스 이용과 욕구, 권익옹호, 가구환경 및 소득보장, 가족지원 등은 모든 생애주기에서 두루 영향을 주고받는 공통의 요인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사적 측면에서 단절 없이 긴밀하게 연계된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를 개별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조사한다.

먼저, 발달장애인 관련 타 조사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당사자의 의견과 욕구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가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정책·서비스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를 최대한 정확하게 조사하고자 조사참여 가능수준을 판별하고, 판별 결과에 따라 최대한 많은 발달장애인이 큰 부담 없이 용이하게 응답할 수 있는 수준별 조사표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발달장애인과 삶의 많은 영역을 같이 하는 주 보호자 역시 핵심 조사대상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을 조사한다. 이 때 사실관계와 보호자의 의견, 보호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의견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조사함으로써 조사 진행과 결과 활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통계의 쓰임을 풍부히 하고자 한다. 또한 당사자와 보호자의 응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견과 욕구의 일치 정도 등 기존에는 없었던 분석정보를 창출한다.

셋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조사표를 설계한다.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 설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보편적이면서도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통계정보를 생산하고자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표준화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은 척도나 지표를 활용하되,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의 응답 용이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검토한다.

넷째, 재난·안전상황 대응, 긴급돌봄 등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안 이슈와 고용 관련 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즉각 반영한다.

2. 조사표 설계 과정

가. 문헌연구 및 관련 조사 검토

조사표를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교육, 고용, 문화, 일상생활 등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가족)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주요 특징과 이슈 등을 살펴보았다.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전반의 조사를 위해서는 교육, 고용 복지 등의 영역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관련된 대표적인 조사들인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삶패널조사’, ‘특수교육 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등의 조사표 구성과 문항, 조사지침을 검토하였다. 또한 2011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와 2013년 경북행복재단에서 실시한 ‘경상북도 장애인 패널조사’를 통해 당사자 조사표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호자 중심으로 실시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내용과 결과를 확인하여 본 조사표 설계 시 참조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 및 수요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통계조사는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 통계조사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특수한 형태의 조사이며, 그간 시도된 적이 많지 않다. 따라서 학계, 현장 등 다수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는 정책입안가와 관련 학계 전문가(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직업재활학, 노동경제학, 통계학 등), 발달장애인 교육, 직업재활, 복지 등의 현장 전문가(특수학교, 복지관, 관련 시설/협회 등) 등으로 전문 자문위원단을 통합 구성하였고, 조사 및 조사표 설계의 각 단계로 자문위원회를 실시하였다. 먼저 본 조사의 목적과 방향성을 정립하였고, 그에 따른 조사방안 및 대상범위 등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조사지표(안)에 대해 항목별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조사표(안)에 대해 영역의 구성과 개별 문항과 보기, 조사 시 기술적 고려사항 등을 자문하였다.

전문가 자문과 함께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연구 현장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조사지표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수 실시하여 반영하였다.

다. 발달장애인 읽기 쉬운 조사표 개발

여타 장애인 조사와는 달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담는 것이 본 조사의 중요한 화두이자 과제이다. 이를 위해 읽기 쉬운 자료 제작 전문가팀(前 부산장신대학교 김경양 교수팀)이 참여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조사참여 가능수준을 판별하기 위한 판별조사표와 판별된 그룹별로 적용할 특수조사표를 개발하였다.

공단에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조사항목(PL, ER 그룹)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읽기 쉬운 조사표 형태로 변환·개발하였다. 행동, 치료, 교육, 직업재활 등의 전문 연구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하였으며, 다수의 발달장애인에게 테스트를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림상징 그룹을 위한 그림상징 조사표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라. 시범조사 실시

조사표의 신뢰도와 타당도, 현장 적용가능성 등을 점검하고자 발달장애인 가구의 협조를 통해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조사표에 응답하는 전반의 과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조사 후에는 당사자, 보호자와 함께 본 조사의 난이도와 응답의 용이성, 내용의 타당성과 명료성 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표의 수정·보완, 조사방법과 절차의 개선 등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반영하였다.

마. TAPI 조사표 개발 및 조사지침서 작성

본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한 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에 따라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 전송하는 조사방법(TAPI: 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을 도입하였다. 조사표 초안이 완료되면서 문항 분기, 사전검증 등의 논리설계를 실시하였으며, 설계에 따라 TAPI용 조사표를 개발하였고, 다수의 테스트와 시범조사 등을 거쳐 보완하였다.

또한 실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지침서를 작성하였다.

3. 조사표 설계

가. 보호자 조사표 설계

먼저 조사의 목적과 조사표 설계 방향 등을 정립한 후 그에 따라 요구되는 하위 주제들을 조사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제들을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서사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 후 기존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조사들의 조사영역을 정리하여 비교·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정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본 조사의 보호자 조사표 영역은 ‘인적사항 및 장애특성’, ‘교육’, ‘취업상태 확인’, ‘취업자 특성’, ‘미취업자 특성’,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일상생활’, ‘자립 및 미래 계획’, ‘가구 및 보호자’로 구성되며, 참조한 주요 조사별 영역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3-1〉 주요 장애인 조사의 조사영역 구성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1)	경북행복재단 (2013)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23)	장애인 실태조사 (2020)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2024)
(보호자)	(보호자)	A. 패널 기본 정보	1. 장애특성	(보호자)
A.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기진단 및 장애 특성, 일상생활 지원, 보호자 특성	1. 발달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B. 경제활동상태 판별	2. 보건의료·건강	A. 인적사항 및 장애특성
B. 보건 및 치료	2. 조기진단, 의료 및 보건	Ca. 임금근로자	3. 일상생활 지원	B. 교육
C. 보육 및 교육	3. 일상생활 지원	Cb. 비임금근로자	4. 장애인 보조기기	C. 취업상태 확인
D. 고용	4. 서비스 및 제도	Cc. 미취업자	5. 교육	D. 취업자 특성
E. 소득보장	5. 보육 및 교육	D. 취업지원서비스	6. 취업 및 직업생활	E. 미취업자 특성
F. 복지서비스	6. 고용	E. 직업적 능력	7.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F.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G. 권익 보장	7. 구직현황· 직업재활서비스	F. 취업 태도 및 환경	8. 결혼생활/여성장애인	G. 일상생활
	8. 복지서비스	G. 일상생활과 삶의 질	9.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H. 자립 및 미래 계획
	9. 권익보장	H. 가구 일반사항	10. 주거 및 재난 안전	I. 가구 및 보호자
	10. 주양육자의 일반적 사항	I. 코로나19	11. 복지서비스	
			12. 경제상태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 - PL/ER 그룹)
A. 일상생활 능력	1. 일상생활 능력			QA. 취업과 일자리
B. 여가생활 및 결혼	2. 여가생활 및 결혼			QB. 공통조사
C. 대인관계	3. 대인관계			
D. 삶 만족도	4. 삶 만족도			
E. 고용 및 직장생활	5. 고용 및 직장생활			(당사자 - 그림상징 그룹)
F. 복지서비스	6. 복지서비스			그림상징조사

1) 인적사항 및 장애특성

먼저 응답자 정보 확인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관계와 동거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후 성별, 연령, 결혼여부와 같은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 장애특성에서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 당사자와 가족의 복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장애등록시기에 따라 장애 예후와 장애수용도 등도 달라지므로 장애의심시기 및 장애등록시기를 질의하였다. 장애 등급제가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폐지되었으나, 발달장애의 장애정도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 이전 시점의 장애등급을 포함하였다. 또한 최종중 중복발달장애인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복장애 유형을 조사하였다. 다만 중복장애의 등급과 장애진단 원인 및 세부질병 명칭, 장애 재심사 여부, 지능지수 등도 검토하였으나 응답의 난이도가 높고 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았다.

본 조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재구성하였는데, 먼저 ‘인지, 의사소통 및 학업기술 측면’은 문자, 숫자, 시간 등에 대한 인지와 언어 이해 및 표현 수준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때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도구인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의 활용도 의사소통의 범주에 포함되나(국립특수교육원, 2018), 의사소통과 관련된 지표를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 응답 부담 경감을 고려하여 조사표에서는 제외하였다. ‘사회적 이해, 통찰, 판단 및 의사소통 측면’은 상대방의 제스처나 표정, 억양 등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정도를, ‘자기관리기술, 감각운동기술, 안전기술 측면’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상황에 대한 인지 항목 등을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표 1-3-2〉 발달장애인 장애특성 분류

인지, 의사소통 및 학업기술	사회적 이해, 통찰, 판단 및 의사소통	자기관리기술, 감각운동기술, 안전기술 측면
1. 인지 및 학업기술 - 문자에 대한 인지 (한글 읽기/한글 쓰기) - 숫자에 대한 인지(수 개념) - 날짜, 요일에 대한 인지 - 위치, 장소에 대한 인지 2. 의사소통 -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	1. 사회적 이해, 통찰, 판단 - 주위 사람에 대한 인지 2. 의사소통 - 비언어적 표현 이해 수준 - 비언어적 표현 활용 수준	1. 자기관리기술 및 감각운동기술 - 일상생활 수행능력 -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2. 안전기술 - 상황에 대한 인지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검토한 지표는 한국형 일상생활 측정도구(ADL, IADL), 국립 특수교육원 적응행동검사(KISE-SAB), 기능적 적응행동조사(SFAB), 한국판 적응행동검사(K-SIB-R), 지역사회적응검사(CISA-2), 정서·행동특성검사(CPSQ), 사회성속도(SMS), 사회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 등이며, 통계조사에 적용하기 위해 적절하게 변용하였다.

〈표 1-3-3〉 주요 적응행동 지표 비교

KISE-SAB	SFAB	K-SIB-R	CISA-2
1. 개념적 적응행동 검사 -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기, 쓰기, 돈 개념, 자기지시	1. 주거생활 기술 - 개인적 관리(신변처리), 집안관리, 집안일 하기	1. 대근육 운동 2. 소근육 운동 3. 사회적 상호작용	1. 개념적 적응행동 - 기초개념, 기능적 기호와 표지, 시간과 측정
2. 사회적 적응행동검사 - 사회적 일반, 놀이활동, 대인관계, 책임감, 자기 존중, 자기보호, 규칙과 법	2. 일상생활 기술 - 기능적인 기술, 지역 사회자원, 이동기술	4. 언어이해 5. 언어표현 6. 식사와 음식 준비	2. 사회적 적응행동 - 대인관계와 예절
3. 실제적 적응행동검사 - 화장실 이용, 먹기, 옷 입기, 식사 준비, 집안 정리, 진료 받기, 금전 관리, 통신수단 이용, 작업기술, 안전과 건강 관리	3. 학습 기술 - 수리적 추리와 산수하기, 기능적인 언어 읽기 쓰기	7. 신변처리 8. 옷입기 9. 개인위생 10. 가사/적응	3. 실제적 적응행동 - 가정관리,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서비스, 금전관리, 통신서비스, 직업기능
	4. 직업 기술 - 신체적인 능력, 직업행동	11. 시간이해 및 시간엄수 12. 경제생활 13. 작업기술 14. 이동기술	

발달장애인에게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도전적 행동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행동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등을 모두 포함한다(김미옥, 김고은, 2017). 도전적 행동의 측정을 위해 경기복지재단(2017), 국립정신건강센터(201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1),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최미지 외(2017)의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 도전적 행동의 여부와 유형, 강도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애인단과 판정에만 집중하여 장애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 수준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웠다. 또한 의학 및 행동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척도로 전문용어가 많다는 제한점이 존재했다. 한국형 문제행동 평가도구(BPI-01), 자폐 선별검사(M-CHAT), 자폐증 평정척도(K-CARS) 등의 원칙도와 문항 예시를 참고하여 도전적 행동 관련 문항을 8가지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최종적으로 재구성한 후, 도전적 행동의 발생 정도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다양한 원칙도 및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전적 행동이 8가지 항목으로 모두 집약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려하였다.

2) 교육

교육 영역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이수한 교육 내역, 학교에서의 진로·직업교육 경험, 성인기 이후 희망 교육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진로·직업교육 등 전환교육과 관련한 정책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발달장애인의 교육 이수 내역을 살펴봄으로써 이수한 과정별 교육 효과와 결과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최종학력을 질문하고, 이전 단계의 교육 상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였다. 교육의 종류는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였으며, 일반학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 다양한 형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학교생활 적응 정도와 만족도, 학교교육을 통한 일상생활과 사회적응능력의 향상 정도를 확인하여 발달장애인 교육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특수교육서비스 세부 이용 경험 및 이용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으나, 본 조사에서의 중요도와 응답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서는 전환교육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환교육이란 학교에서 사회로의 적절한 전환(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아울러서 일컫는 개념이다(Kohler & Rusch, 1995). 성인기 이후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통합된 취업활동, 주거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의 기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 중 고용이 가장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성과로 간주됨에 따라 고용을 목표로 직업재활훈련과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이미숙 외, 2019). 본 조사도 해당 분야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전공과 진학 의사, 강화해야 하는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졸업 전 진로·직업교육 훈련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하였다.

학령기 이후의 교육은 평생교육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발달장애인은 대학교 등의 고등교육 과정 진학이 어려워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적절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인기에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특수교육실태조사와 장애인 실태조사 등의 문항을 참조하여 현재 받고 있는 교육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도 참여하고 싶은 교육이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통합된 사회구성원으로서 상호의존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3) 취업상태 확인

일자리를 가지면 단순히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통해 개인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통계조사들에서 제한적으로만 다뤄지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취업과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취업상태를 먼저 확인하였다. 취업상태는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 기준을 준용하였다.

4) 취업자 특성

발달장애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과정, 취업 이후의 실태와 상황, 향후 계획까지 순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발달장애인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일반적인 장애인 고용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대상이다. 발달장애인의 취업이 타 장애유형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신빛나, 이준우, 2014; 최민식, 신현기, 2018; 최선영, 김화수, 2018)를 고려하여 발달장애인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일자리 특성 중 직장(사업체) 유형에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 4개 범주(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공공기관 일자리, 그 외 일반 사업체)를 보다 세분화하여 발달장애인이 많이 근로하는 표준사업장 등을 추가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종사자 규모 파악 시 같이 일하는 발달장애인 동료 유무를 확인하여 발달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여부 등의 정보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된 업무 특성은 발달장애인이 다수 종사하는 업무 분야 위주로 재구성하였다. 업무 종류를 구성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림직업흥미검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와 발달장애인용 직업흥미검사(국립특수교육원, 2019)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림직업흥미검사의 검사 구성은 직업영역, 활동영역, 개인-집단 및 실내-실외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직업영역은 서비스, 제조, 음식, 세탁, 청소, 임농으로 나뉘며 활동영역은 운반, 정리, 조작이다. 개인-집단에서는 개인이 수행하는지와 다수가 수행하는지로, 실내-실외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국립특수교육원 직업흥미검사는 7개 직군과 21개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군은 제조, 청소, 음식, 농수산업, 사무지원, 대인서비스, 예술스포츠로 구분되며, 직종은 조립, 생산, 운송판매, 실내외 청소, 세차, 세탁, 패스트푸드, 조리, 음

료, 재배, 사육, 수산업,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체국보조, 유아보조, 노인장애인보조, 미용, 음악, 미술, 스포츠로 세분화하고 있다. 두 자료에서 제시한 범주를 참고하여 본 조사에서는 총 7가지 범주(서비스, 제조, 사무, 음식, 청소·세탁, 농림어업, 예술스포츠)로 구분하였으며, 타 업무는 기타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주된 업무의 난이도를 기술적 측면과 체력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상으로 포토토티스 연구를 진행한 김태건, 임경원(2018)이 당사자가 어렵다고 느끼거나 많은 양의 업무가 주어질 때,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적으로 힘들어한다고 보고한 내용과 경북행복재단(2013)이 당사자에게 일하면서 힘든 사항을 질의한 내용 중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등의 항목을 참고하여 설계하였다.

최민식, 신현기(2018)와 신빛나, 이준우(2014)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 및 고용주는 발달장애인의 느린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오랜 습득시간이 요구되지만 체득을 통해 익힌 작업 기술은 일정한 생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정지희 등(2018)의 연구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업무적응 수준에 따라 고용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현재 발달장애인이 실제 업무에 얼마나 적응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계획수립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발달장애인이 해당 업무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일을 통해 번 소득을 실제로 본인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성인기에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배내운, 2013; 채성현, 강태인, 김미영, 권영지, 박형빈, 2017; 최민식, 신현기, 2018).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월급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좋으나, 가족이 월급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용돈 정도 수준만 받는다고 한 내용을 참조하여(김태건, 임경원, 2018), 임금(순수입)의 관리 주체를 질문하였다.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출퇴근 시 주된 이동수단, 소요시간 및 소요비용 등을 확인하였다. 고용주는 발달장애인의 독립적인 출퇴근 능력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으며(김지수, 박승희, 2015; 최민식, 신현기, 2018), 장애인 근로자는 스스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거리가 멀지 않은 직장을 선호하고 있다(박승희, 박현숙, 박지연, 이숙향, 2012). 이를 반영하여 출퇴근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일자리의 안전 수준에 대해서 보장하였다. 기존 문항에서도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곳의 안전 정도와 사고 경험이 있는지를 질의하였었는데 2022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에서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어려움과 자기 의사표현 등이 제한되어 자기 보호가 힘든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와 차별이 심각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최복천 외(2016)의 연구 결과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1)의 문항을 참조하여 직장 내의 차별, 폭력, 학대 등의 경험을 질의하였다.

일자리(사업체)에서 근무 시 장애와 관련해서 받고 있거나 필요한 지원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관련 문항을 참조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하게 재구성하였다. 업무조정, 업무시간 조정(단축),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편의시설 등 설치,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 이용 의향을 추가로 질문하여 근로지원인 지원 등 인적지원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근무 시 애로사항은 발달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출퇴근, 근태관리, 자기관리,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으로 재구성하였다(박은영, 강석구, 김삼섭, 2007; 박승희 외, 2012; 김태건, 임경원, 2018). 또한 직업생활을 위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였는데, 일상생활에서의 돌봄과 구분할 수 있도록 직업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인 출근 전 준비, 출퇴근 동행, 직업생활 상담 및 금전관리 등을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고용주의 적극적인 협력이 발달장애인의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민식, 신현기(2018)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자와 사업체(고용주, 인사담당자, 직장상사 등)와의 소통 횟수를 파악하였다. 또한 성공적으로 고용유지를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한 선행연구(박은영, 2015; 김경열, 2019a)를 참고하여 개인이 직장생활에서 갖춰야 하는 태도 또는 능력 등을 질문하였으며, 이는 발달장애인의 취업준비와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일자리 만족도는 발달장애인이 현재 직장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에 보호자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등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발달장애인은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표현하며, 일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어려움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으므로(김태건, 임경원, 2018)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만족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다고 간주했다. 보호자 조사에서는 보호자가 판단한 발달장애인의 만족도이며, 당사자 조사 시 발달장애인 본인의 만족도도 질문하였다.

직업재활시설 등에 근로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일반고용 전환 희망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일반고용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일하는 일반 사업체 일자리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호고용을 거쳐 일반고용으로 진입

하도록 지원하는 다수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남용현, 김기룡, 송남영, 2017). 추가적으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직업경험이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환희, 이영선, 2012) 등에 따라 현재 일자리에 취업하기 이전의 취업경험을 간단하게 확인했다.

5) 미취업자 특성

발달장애인 미취업자에게는 취업 또는 구직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먼저 취업 경험은 미취업자의 취업 희망 여부나 취업 가능성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취업요인을 다룬 다수의 연구들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신감 향상, 직업생활기술 함양 등으로 한 번이라도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보다 재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취업을 하더라도 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하기 어려워 입·퇴사를 반복하므로 타 장애에 비해 짧은 근속기간을 보인다고 한 연구 결과(신빛나, 이준우, 2014)와 함께 대인관계, 직장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퇴사가 많다는 의견 등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마지막 일자리의 일자리 현황, 그만둔 이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마지막 일자리를 계속 다니고 싶어했는지 등을 자세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미취업자에게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향후 취업 희망 여부이다. 이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 중 고용정책대상 집단의 규모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이고, 그에 따라 각종 정책과 서비스 등의 수요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취업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희망 여부와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희망 여부를 구분하여 모두 질문하였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직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일자리를 갖고 자립하길 원하는 보호자의 의지가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하는 기반이 되며, 당사자의 의향 역시 취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호자 조사표에서는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를 담고 있으며, 당사자 조사에서 발달장애인 미취업자 본인의 취업 희망 여부를 별도로 질문하게 된다.

취업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의 보호자에게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 희망하는 일자리 특성, 희망 업무, 희망 근로조건, 일자리에서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질의하였다. 이를 통해 취업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구직활동 경험과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경험,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여 취업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함께 취업 어려움 정도를 동시에 파악하였다.

6)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본 영역에서는 먼저 직업에 대한 이해와 취업 의지,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 능력 수준, 자격과 기술의 보유, 가족과 주변의 취업 지지 수준 등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능력과 지원 환경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경험과 서비스가 도움이 된 정도, 향후 필요한 고용서비스 등을 파악하여 발달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유지에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발달장애인 개인이 가지는 능력과 태도이다(신준옥, 2016). 성공적으로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 근로자는 목표의식, 목표설정 및 계획, 권리의식, 도전의식, 자기옹호기술 등의 자기결정 관련 기술과 자신감 및 책임감, 자기관리기술을 갖춘 사람이었다. 김정일(2015)도 직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직업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업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총집합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즉, 취업에 있어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확립하는 것 자체가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직업의 의미를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 태도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14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수준을 확인하였다. 직업준비검사(ESR-2)의 사회기술, 직업관련기술, 작업기술 영역, 직업준비도 검사(VALPAR 17)의 직업관련기술 영역, 적응행동 평가도구(SIB-R)의 작업기술 영역, 기능적 적응행동(SFAB)의 직업기술 영역들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장애인고용패널조사와 청년패널조사의 직업적 능력 측정 문항도 참조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문항을 설계하고자 관련 선행연구들(박승희 외, 2012; 박은영, 2015; 백종남, 김종미, 김삼섭, 2015; 최민식, 신현기, 2018; 김경열, 2019b)에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어진 지시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기’,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작업 후 정리하기’, ‘동일한 일을 일정시간 이상 반복하기’와 같은 작업적 요인과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동료나 상사와 협력, 의사소통하기’ 등 14개 지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발달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술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으로 특정화된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고혜정(2016)의 주장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취업을 위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획득한 전문적인 기술 유무 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의 근로 수준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한 후 응답하도록 하였다. 해당 문항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참조한 문항으로 향후 취업 의향 또는 고용서비스 이용 의향과도 긴밀하게 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였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개발되는 경우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고용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따라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취업 욕구와 규모를 파악하고, 고용 지원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하였다.

가족의 지지는 발달장애인이 취업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가족 간의 유대와 수용적인 분위기, 취업과 관련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될수록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한다. 특히 고용주 또는 인사담당자는 발달장애인이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가족과의 연계와 지지가 강할수록 위기를 수월하게 극복한다고 보고한다(최민식, 신현기, 2018; 김경열, 2019b). 따라서 가족과 지인의 취업에 대한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반영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통하는 기술을 배우며, 이를 기반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박상희, 2020).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도 발달장애인 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 경험 여부와 함께 취업 도움 정도를 조사하였다. 고용서비스 항목은 취업 과정별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취업 준비 단계에서는 진로상담, 직업탐색·직업정보의 제공, 직업능력평가 등이 포함되며, 구직 단계에는 구인정보 제공, 지원고용과 같은 현장실습 경험, 취업알선 등이 반영되어 있다. 취업 이후 단계에는 인력지원,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항목 구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취업자 또는 취업 희망자에게 현재 취업을 유지하거나 향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물어보았다. 취업자는 고용유지의 측면으로, 취업희망자에게는 고용 진입 이후의 수요 측면으로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센터 이용 의사를 질의하였다.

7)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삶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건강,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일상생활 도움, 하루 일과, 기관 이용 현황, 정보통신기기 활용 능력, 사회 활동과 참여 정도, 차별 등 부당한 경험, 일상생활 만족, 자립 및 의사결정 참여, 고용서비스 이외 장애 관련 서비스 이용 등을 반영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수행능력, 자기표현 등의 한계로 건강관리의 어려움이 크며, 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활용도가 매우 낮고, 조기노화 등의 장애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평균 수명이 상당히 짧다(최복천 외, 2016). 장애인의 건강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2024년에는 건강상태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일상생활에 건강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발달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이소영(2013)은 신경계 발작, 행동 및 정신문제, 골절, 피부상태, 호흡기질환, 감각기관 이상, 심혈관 장애, 구강문제, 비만 또는 과체중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20배 이상의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유무, (조기)노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박수경 등(2019)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은 조기노화로 인해 합병증과 중복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노화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한다고 밝힌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도 조기노화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와 직결되는 흡연, 음주, 약물 문제 또는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 성적(性的) 문제, 우울증 등이 있는지도 질문하여 발달장애인의 전반적 건강 수준과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돌봄이 필수적인데, 장애정도나 장애로 인한 기능수준은 돌봄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생활기능상의 제약이 심할수록 돌봄이 필요한 시간과 돌봄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이경림, 박주홍, 2013; 전해숙, 강상경, 2020). 돌봄 수준의 필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시간, 도움 충분 정도, 주된 도움 제공자를 파악하는 문항을 삽입하였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하루 일과를 살펴본 김태건, 임경원(2018)의 연구에서는 학교나 복지관을 다닐 때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편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에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우연히 친구를 만나더라도 이야기만 하거나 PC방을 가는 등 제한적이고 단조로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화, 김미옥(2015)의 연구 결과에 따

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루 일과를 확인하였다. 보기 문항은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문항을 기반으로 하되, 발달장애인이 주로 하는 활동 위주로 재구성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재활, 교육, 훈련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관, 센터 등의 다양한 기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 내 기관을 다니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소통을 이어간다(전경화, 김신호, 김혜경, 이형주, 임병우, 2019). 이처럼 발달장애인에게는 기관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므로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주된 이용 기관, 이용 목적, 이용 시간, 지속 이용 의향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기술은 지역사회와의 제한적 연결 상태를 극복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이며(김태진, 임경원, 2018),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는 발달장애인은 사회성이 높아 친구 또는 주변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박승희 외, 2012).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북행복재단(2013)에서도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대인관계의 원만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삽입하였으며, 본 조사에서도 해당 문항을 참고하여 반영하였다. 집 밖 활동을 좋아하는 정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교류하고 있는 친구 유무 등이 포함되었다.

발달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9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질의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문항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 기본적인 시설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반경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생활편의시설,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적극적인 욕구를 표현하거나 지원서비스를 요구하기가 어려우므로 학대, 폭력, 방치에 쉽게 노출되며 인권침해나 차별 사건이 발생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조한진 외, 2017). 이와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폭력, 학대, 방치 경험 유무, 보호자의 대처 방법을 확인하였다. 다만 취업자 영역에서 직장 내의 경험을 별도로 질문하고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심으로 질의하였다.

발달장애인이 재난 또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의 위기 대처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송호준(2018)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위기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 안전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적인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안전 문항을 취업자 외에도 일상생활 영역에도 반영하였다.

장애 관련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안내 등 정부 시책(보건복지부, 2024)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를 고려하여 7개의 범주로 축약하였다. 기존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가족)의 의견을 통합하여 질문하였으나, 장애인이 가지는 고유한 서비스 욕구의 파악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가족) 욕구를 분리하여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삶의 질에 생긴 변화에 대해 질의하였다. 기존에 본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발달장애인의 삶이 변화했다면 어떤 부분인지,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변화’를 2021년부터 신설하여 조사했으나,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해당 문항의 활용도가 저하되어 관련 문항을 축소하였다. 다만, 개인의 입장에서 작년 대비의 변화 사항을 각 영역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코로나19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일상생활 변화 정도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상생활의 변화는 총 12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국립재활연구소(2023), 경기복지재단(2020),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2021), Courtenay & Perera(2020) 등의 연구 및 조사를 참조하여 개발한 문항이다. 이를 통해 작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삶의 변화상황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8) 자립 및 미래 계획

최근 정부의 장애인 정책 추진 방향(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의 기초는 장애인의 자립·주거 지원 강화,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이다. 시의성 있는 정책 통계 생산에 기여하고자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자립 및 미래 계획 영역”을 신설하고 기존 문항을 정비하고, 신규 문항을 추가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상대적 자립(relative independence)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둔 자립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자립을 일컫는 용어로 개인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완전한 자립은 불가능할지라도 이전의 생활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자립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김영란, 김소영, 김고은, 이재경, 2014). 본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개념을 참조하여 자립 관련 문항을 설계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혼자 살아가야 하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본인과 가족의 의지 부재, 현실적 어려움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채성현 외, 2017).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보호자가

생각하는 자립 가능 수준과 발달장애인 자립 의지를 각각 살펴보았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원조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자립생활에 필수적인데(방명애, 2001),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의사결정을 위한 자신의 의견 표현 수준, 주된 의사결정권자를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설문지 등을 참고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환경적 요인 중심의 문항과 환경적 지원 외에도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 의지 및 자립 가능 수준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자립 준비 정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립 준비 정도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판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함께 다차원적인 분석 수행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자립 준비는 곧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자립 예상 규모 파악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자립체험형 지원주택 제공 등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자립할 기회가 주어진 경우 자립 시도 의향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독립)에 대한 구체적 욕구 수준과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의 미래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자립과 미래 계획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매년 문항을 강화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일차적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Smith & Tobin, 1990; Botsford & Rule, 2004). 본 조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주거, 재정, 법률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돌봐주는 가족 사후에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도 추가하였다. 동일한 맥락으로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적보험을 제외한 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9) 가구 및 보호자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전반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전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상호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 가구 특성을 살펴보고자, 가구원 수, 가구 구성, 출생순위, 가구주, 장애가구원 유무, 가구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주택 소유 형태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비장애 형제자매가 발달장애인보다 출생순위가 높으면 관대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장미희, 최영, 2011; 전경화 외, 2019), 발달장애인의 출생순위에 대한 질문도 추가하였다.

덧붙여 보호자에 대한 정보와 돌봄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신체적인 돌봄, 정서적 활동, 대리자 및 관리자로서의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돌봄 시간이 증가할수록 보호자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김영란 외, 2014),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도출을 위해 돌봄시간과 돌봄의 어려움, 부담 정도 등을 확인하였다. 돌봄의 어려움으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1)과 경북행복재단(2013), 2018년 한국아동패널조사와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문항을 참조하여 항목을 구성하였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가구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책을 개발·시행 중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통합돌봄이 명시된 개정(안)이 2024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24년 6월부터 도입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정책과 관련한 인지도 파악과 실제 수요 예측을 위해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일부 추가하였다. 또한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수준도 파악하여 돌봄 관련 추가 지원 필요 정도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나. 당사자 조사표 설계

본 조사에서는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삶과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발달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자 중심으로 개발된 조사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조사참여 가능수준을 판별하고, 그에 따라 읽기 쉬운 조사표와 그림상징 조사표 등을 개발·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1) 판별조사표 개발

① 당사자 그룹의 구분

본 조사에서는 김경양·문희원·남보람(2019)의 연구를 근거로 발달장애인의 문해능력을 고려하면서 보편적 읽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읽기 쉬운 자료를 세 가지 종류로 구성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표 1-3-4〉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당사자 그룹 구분

그룹 구분	명명	조사표
① 보통 읽기 자료 그룹 (Plain Language Group) - 보통 읽기 조사표를 활용하여 상당 부분 직접 조사 참여가 가능한 그룹	PL 그룹	“보통 읽기 조사표” → “읽기 쉬운 조사표” + 보통 읽기 자료 그룹 수준용 문항
② 읽기 쉬운 자료 그룹 (Easy to Read Group) - 읽기 쉬운 조사표를 활용하여 일정 부분 직접 조사 참여가 가능한 그룹	ER 그룹	“읽기 쉬운 조사표”
③ 그림상징 그룹 (Graphic Symbols Group) - 그림상징 등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아 조사 참여가 가능한 그룹	그림상징 그룹	“그림상징 조사표”
④ 조사 참여 불가능 그룹	미참여 그룹	당사자 조사 제외

첫 번째 그룹은 보통 읽기 자료 그룹(PL 그룹)으로 보통 읽기 조사표를 활용하여 상당 부분 직접 조사 참여가 가능한 사람(비장애학생 기준으로 15세 수준의 문해 능력이 있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읽기 쉬운 자료 그룹(ER 그룹)으로 읽기 쉬운 조사표를 활용하여 일정 부분 직접 조사 참여가 가능한 사람(비장애학생 기준으로 유아 수준의 문해 능력이 있는 경우)이다. 세 번째 그룹은 그림상징 그룹으로 그림상징 등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아 조사참여가 가

능한 사람(조사원의 질문에 구어로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 글을 읽기 어려운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미참여 그룹)은 본 조사의 참여와 응답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② 판별지표의 개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판별지표 개발에 대한 내용은 김경양·김기룡(2020)을 참조하여 재정리하였다.

발달장애인이 본 조사에 참여하여 응답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의사소통 수준,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능력, 어휘 능력, 구문 읽기 능력, 문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조사원이 낭독 또는 설명하는 문항의 내용을 듣고 질문의 요점과 취지를 이해해서 구두 상으로 응답하거나, 보기(그림상징 등의 보기카드 활용)를 보고 발달장애인 본인의 근거 있는 판단 결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준과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를 지표를 통해 확인하였다.

판별지표 개발은 총 4차에 걸쳐 이뤄졌으며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여 리빙랩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발달장애인을 네 그룹으로 판별하기 위한 선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선정하였다. 첫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것, 둘째, 조사원이 읽어주는 문항을 이해할 수 있는지 판별할 것, 셋째,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판별할 것, 넷째,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구어로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질문을 듣고 상징에서 응답을 선택할 수 있는지 판별할 것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문항을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읽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자가 문항을 읽어주는 것이기에 조사자의 지원을 기본 전제로 하였다.

판별을 위한 과제는 총 다섯 가지로 상징 명료도 검사, 질문에 ‘예/아니요’로 대답하기, 문장 완성하기, 문장 배열하기, 짧은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상징 명료도 검사를 위한 그림상징 판별지표는 어휘에 대한 지시어를 듣고 해당하는 상징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와 관련된 판별은 읽기 쉬운 판별지표에서 확인하므로 그림상징 판별지표는 읽을 수 있는 단서를 제외하고 그림만을 제시한다. 현장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그림상징 조사표에 포함된 동사 어휘 중 도상성이 높은 상징 6개로 판별지표 어휘를 구성하였다. 총 6개의 그림상징 판별지표 어휘 중 4개를 정반응 응답하면 그림상징 조사표 진행, 5개 이상 정반응 응답을 하면 ‘예/아니요’로 대답하기 판별지표를 진행하고, 3개 이하로 정반응 응답을 하면 본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두 번째는 ‘예, 아니요’ 답하기이다. 본 조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짧은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정오 반응을 ‘예, 아니요’로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목적으로 K-WAB ‘예, 아니요 답하기’에서 발췌하였다.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내용부터 현재 주변 상황 인지, 보편적 통념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선정하였고, 단문부터 복문 순으로 구성하였다. 이 때 김향희·이현정·김덕용·허지희·김용욱(2006)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으로 선정된 것을 참고하였다. 짧은 글 읽고 질문에 답하기는 기초학력검사(KISE-BAAT)에서 구성된 순서대로 난이도를 나누었다. 또한 본 조사의 기본 취지에 맞게 실제 직업 상황에 사용하는 표현으로 고안하였으며, 예비검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세 번째는 문장 완성하기이다. 문장 완성하기는 짧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여, 선다형 선택지에서 적절한 어휘를 고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학력검사(KISE-BAAT)의 읽기에서 지표를 발췌하였으며, 지표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문장의 의미 관계 2~3세 수준(김영태, 1998; 김영태, 1997)을 기준으로 2~3어문 의미 관계로 구성된 문장 중 어휘 수준은 3세 수준(이희란·장유경·최유리·이승복, 2009; 최은아, 2004)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탈 것 지표의 보기 또한 3세 수준에 부합하는 어휘들로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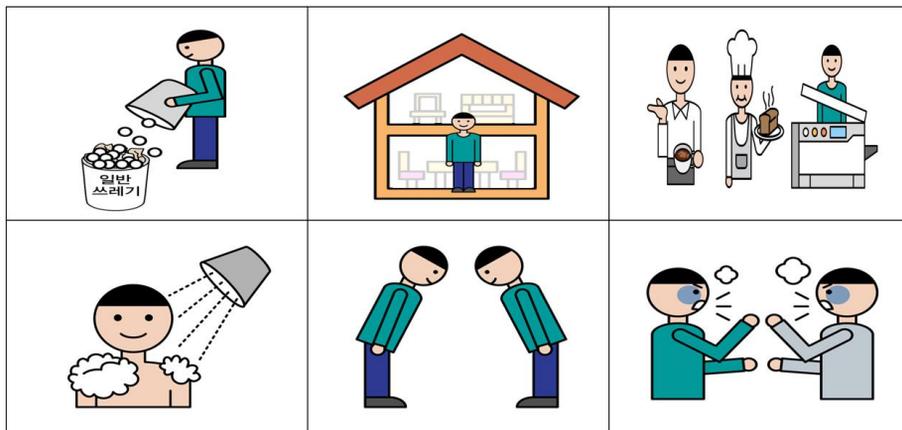
네 번째는 문장 배열하기로 짧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여 선다형 선택지에서 적절한 어휘를 고를 수 있는가가 평가의 목적이다. 기초학력검사(KISE-BAAT)의 읽기에서 지표를 발췌하였으며, 지표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문장 완성하기’보다 상위 수준으로 구성하기 위해 권도하·정분선(2000) 및 김영태(1998, 1997)의 자료를 참고하여 3어문 의미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소영(1987) 및 이승희·황민아(2002)의 자료를 참고하여 다양한 수준의 조사를 포함하는 지표를 발췌하였다.

다섯 번째로 짧은 글 읽고 질문에 답하기이다. 목적은 본 조사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추론이 포함되지 않으며 간단한 문장으로 조합된 짧은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지표는 다음 기준에 근거하여 고안하였다. 구문적 특성은 5세 이상의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배소영(1995), 권도하·정분선(1999)에 의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문법형태소 발달은 5세 전후이며, 배소영(1987), 이정미·권도하(2005)는 질문에 포함된 의문사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것은 5세 경에 발달하는 ‘언제’라고 하였다. 이야기 구성은 조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간단한 한 개의 일화와 추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적 정보 이해 과제로 구성하였다. 어휘 선정은 황진애·김영태·이주연(2007)에 의하면 읽기 이해력과 가장 상관이 높은 언어 능력이라고 하였으므로, 판별지표의 어휘는 본 조사의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어휘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된 직업흥미검

사(중학생용)의 어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조사의 기본 취지에 맞게 실제 직업 상황에 사용하는 표현으로 고안하였으며, 예비검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각 그룹은 다섯가지 과제를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판별되도록 규칙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그룹별 발달장애인이 직접 참여한 다수의 테스트와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지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그림 1-3-1] 판별지표 중 그림상징 판별지표의 상징들(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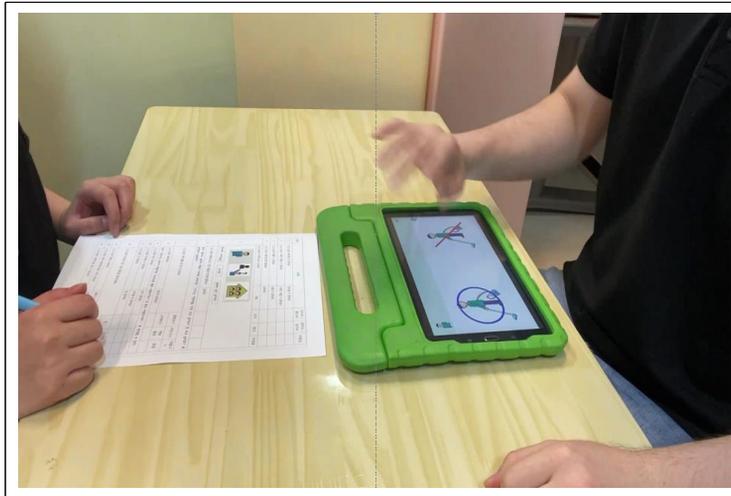


또한 실제 조사현장에서 다수의 조사원이 일관된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 판별 지침, 유의사항, 오반응/정반응 판별 등을 담은 판별매뉴얼을 작성하여 교육하였고, 다양한 판별 사례에 대한 동영상 교육과 실습을 통해 체계적인 판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였다.

〈표 1-3-5〉 판별 매뉴얼 중 그림상징 판별지표 지시문(예시)

검사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님, 그림 하나씩 볼게요. • 000님, 제가 말하는 거 이 그림 중에 골라주세요.
정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답을 고른 경우 <예시> 손가락으로 표현: 상징 지적 몸짓: 검사자가 지시단어를 읽고 상징을 하나씩 훑어줄 때, 고개를 끄덕인다/말소리가 아닌 발성으로 표현한다(으어) • 틀린 답을 골랐다가 스스로 수정한 경우
오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답이 아닌 다른 단어를 고른 경우 • 두 번 읽어준 후 다시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 보기에 없는 대답을 할 경우 • 5-10초 기다린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검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문항 중 4개 맞춘 경우 검사기록지에 그림상징 조사표 대상자로 표시합니다. 검사 종료 후 그림상징 조사표를 사용합니다. • 6개 문항 중 5개 이상 맞춘 경우 검사기록지에 읽기 쉬운 자료 그룹(ER 그룹) 평가로 문항 24를 진행합니다. • 6개 문항 중 3개 이하로 맞춘 경우 검사기록지 기타부분에 검사불가능으로 표시합니다. 설문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림 1-3-2] 판별 시연 동영상 제작, 교육



2) PL, ER 그룹 조사표 개발

① PL, ER 그룹 조사항목 개발

본 조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조사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응답 부담을 낮추고자 문항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당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욕구, 선호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응답 표본 수를 확보하고, 그룹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PL 그룹과 ER 그룹에게 그림상징 보기 등을 활용한 읽기 쉬운 조사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질문하였다. 다만 PL 그룹에게는 자신에 대한 생각 등 다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항목이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차별화하였다.

PL, ER 그룹 조사표는 취업과 일자리(취업자, 미취업자 조사), 공통 조사 두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취업자는 일을 하는 이유, 하는 일의 종류, 하는 일에 대한 만족,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만족, 일이 재미있거나 힘든지 여부, 일할 때 힘들거나 화날 때 대처방법, 일할 때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 계속 일하고 싶은지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PL 그룹에게는 근무 시간 연장 희망 여부와 임금 수준을 알고 있다면 금액이 적정한지 등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미취업자는 일을 하고 싶은지, 당장 일할 생각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며, 직업교육 등을 받고 싶은지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공통 조사에서는 건강상태와 행복 여부, 집에 있기/기관방문/일하기 중 하고 싶은 활동, 여가시간 희망 활동 등을 질문하였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과 맥락을 구성하여 사회성을 길러야 한다고 설명한 심은정·박승희(2017)의 연구를 참조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할 수 있는지, 화났다고 말할 수 있는지 등의 항목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본인 소유의 돈(카드) 등을 갖고 있는지, 일상생활 시 도움이 필요한지, 놀림, 따돌림, 폭력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와 함께 향후 살고 싶은 방식 등을 포함하였다.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와 졸업 이후 희망 진로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PL 그룹에게는 가족과 잘 지내는지 여부, 장애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경험 유무,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과 함께 자아존중감 지표의 일부 항목을 문항으로 추가하였다.

② 읽기 쉬운 조사표 개발

발달장애인 읽기 쉬운 조사표 개발에 대한 내용은 김경양·김기룡(2020)을 참조하여 재정리하였다.

먼저 읽기 쉬운 조사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어휘, 문장 및 문단, 상징, 레이아웃의 네 가지 영역별 하위 요소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가령 ‘문장 및 문단’의 영역에서는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서술어만 사용하였는가?,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였는가?, 최대한 주어가 중심이 된 능동적인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명사화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였는가?, 한 문장에 하나의 주제만 있는가?, 경고문을 제외하고 문장을 긍정문으로 수정하였는가?, 개조식 문장이 아닌 서술식의 구어체를 사용하였는가? 등의 체크리스트가 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평가와 발달장애인 당사자 리빙랩 그룹의 타당도 검증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며 원 조사표를 읽기 쉬운 조사표로 변환하여 개발하였다.

조사표는 크게 3회 정도에 걸쳐 개선하였는데 1회차 개선은 ‘스트레스’ 또는 ‘한자어’ 등 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쉬운 단어로 변경하고, ‘이렇게’와 같은 단어 대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문장의 마무리가 되지 않은 항목을 적절하게 완성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여러 동사가 한 문장에 속해 있는 경우 문장에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고, 구체적인 행동 동사를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적절한 어휘를 제시하며, 중복 문항으로 보이는 문항이 있는 경우 전반적인 문항 흐름을 정리하였고, 복잡한 문항은 ER 그룹도 응답 가능하도록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2회차 주요 개선사항은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운 어휘를 보다 쉽게 조정하고, 한 문장에 여러 내용을 담고 있어 문장을 분리하였으며, ER 그룹 수준에서는 ‘여부’나 ‘유무’가 아닌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제외하고, 집중도를 고려하여 문항 수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주로 글씨체나 정렬을 부각하는 방법 위주로 수정하였다.

3회차 주요 개선사항은 문항과 문항에 대한 답을 일관성 있게 바꾸었고,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여백을 좀 더 두었다. 구분되는 영역은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바꾸고 조사원을 위한 지침을 추가하고, 질문에 표기된 기호를 제거하여 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상징이 필요한 문항을 선정한 후 관련 상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1-3-3] 읽기 쉬운 조사표(예시)

	<p>2. 나는 식사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p>
	<p>3. 나는 화장실 갈 때 도움이 필요하다</p>
	<p>4. 나는 다른 사람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현재 기준)</p>

3) 그림상징 조사표 개발

발달장애인 그림상징 조사표 개발에 대한 내용은 김경양·김기룡(2020)을 참조하여 재정리 하였다.

그림상징 조사표는 ‘그림상징 그룹’을 특정하여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림상징 조사표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어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읽어 주는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둘째, 구어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체 수단(예: 상징, 도구 활용)으로 소통이 가능한 경우, 셋째, 구어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으나 스스로 글자를 읽고 해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그림상징 조사표를 사용하는 대상자에게 삶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선행연구로 진행된 바가 없었다. 부연하면, 조사표 문항을 개발하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삶에서 중요한 척도인 적응행동과 관련된 기존 연구 및 검사 도구에서 조사항목을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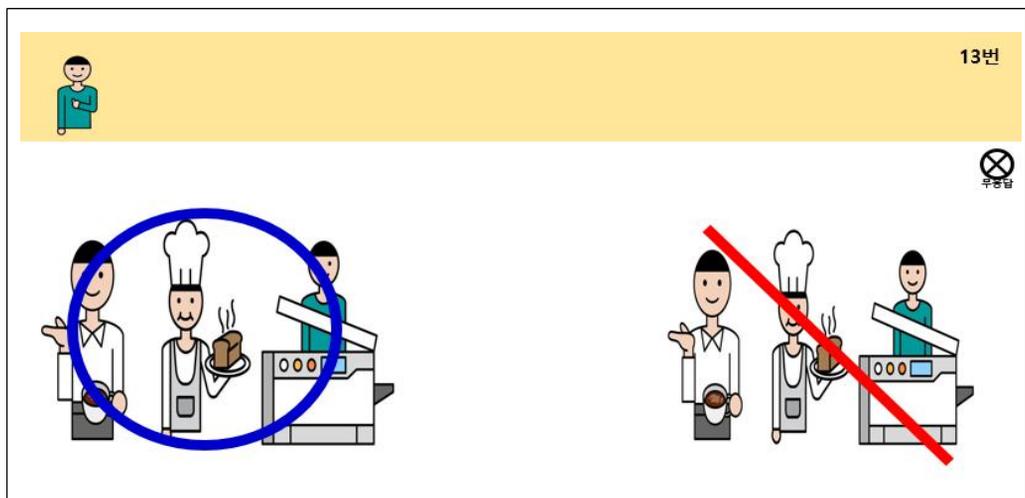
조사문항 개발을 위해 첫째, 적응행동검사 문항 및 프로그램 체크리스트의 문항을 그림상징 그룹이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그림상징 문항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참조한 자료는 바

인랜드 적응행동척도(K-Vineland-II), 한국판 적응행동검사(K-SIB-R), 자기결정기술 활동 프로그램, TTAP(Teach) Community Behavior Checklist, 이경선, 이미숙(2018)의 연구 등이다. 둘째, 그림상징 그룹을 위한 그래픽 상징을 활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그래픽 상징은 ‘한국형 보완대체의사소통용 기본상징체계(한국형 AAC 그림상징, KSAAC)’이다. 셋째, 그림상징 그룹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검토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항목을 추출하였다. 넷째, 그림상징 그룹이 응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사표의 양식을 고려하였다.

그림상징 조사표는 총 7회에 걸쳐서 수정, 보완되었으며, 응답 일관성 테스트 1문항을 포함하여 최종 16개 문항을 개발하여 구성하였다.

조사표 설계 완료 후에는 조사원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교육하였다. 가령 그림상징 그룹 대상자가 뒷말만 따라 하거나 질문 속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말할 때, 질문에 집중하지 않을 때, 소리를 내거나 의미 없이 ‘네’라고 대답할 때, 특정 단어에 대해 이해가 어려울 때 등 조사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질문의 동사나 보기의 순서를 바꾸기, 상징 가리키며 질문하기, 핵심 어휘 중심으로 질문하기, 3초 휴지기를 갖기 등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부합하여 적절한 대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질문이나 보기의 표현 등을 변경할 시 통계 생산의 일관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의된 예시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1-3-4] 그림상징 조사표(예시)



4. 조사표 체계 및 내용

가. 조사표 체계 및 내용

이상의 과정을 거쳐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표가 개발되었으며, 먼저 보호자 조사 조사표 체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3-6〉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항목 - 보호자 조사

구분	세부내용
A. 인적사항 및 장애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정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발달장애인과 동거 여부 · 인적사항: 성별, 연령, 혼인상태 · 장애정보: 주된 장애유형, 장애등급(장애등급제 폐지 전), 발달장애 의심시기, 장애 등록시기, 중복장애 유무, 중복장애 유형, 현재 장애상태 · 장애특성: 언어 이해/표현 수준, 비언어적 표현 이해/활용 수준, 인지능력 수준, 도전적행동 발생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B.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이수 내역: 최종 학교, 졸업 여부, 학교 이행 과정, 학교 교육이 미친 도움 정도, 전공과 경험 · 재학생 학교생활: 학교생활 적응 정도, 학교교육 도움 정도,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졸업 이후 진로계획 · 재학생 진로: 직업교육 희망하는 진로, 직업교육 내용, 진로 직업교육에 필요한 사항, 전공과 진학 의사 · 학교 외의 교육: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교육프로그램 참여 희망
C. 취업상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여부, 종사상 지위
D. 취업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동기: 일하기로 결심한 이유, 영향을 미친 사람 · 일자리 정보: 사업체명, 산업, 일자리 유형, 종사자 규모, 발달장애인 근로자 규모 · 취업과정: 근무시작시기, 임금근로자 일자리 선택 이유/취업경로/취업 시 어려움, 비임금근로자 일자리 선택 이유 · 업무특성: 주 업무, 업무 종류, 직업 구분, 어려운 정도, 힘든 정도, 적응 정도, 업무를 좋아하는 정도(당사자) · 근로조건 및 근무실태: 근로계약 상태,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하루 평균 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 희망 여부, 임금(순수입), 임금(순수입) 관리 주체, 임금 체불 여부 · 근무환경: 일하는 장소, 출퇴근 이동수단/소요시간/소요비용, 혼자 출퇴근 가능 여부, 근무장소 안전 정도, 다친 경험, 안전 관련 위험요소, 이해/배려 정도, 차별/폭력/학대 경험 및 대처, 적합 환경 여부 · 장애 관련 지원: 장애 관련 지원(받고 있는 지원/필요한 지원), 외부인 이용 의향 · 직업생활: 근무 시 어려움, 가족 도움 여부, 일자리 소통 여부, 직업생활 유지 필요사항 · 일자리 만족 및 지속 근무 의사: 일자리 만족(당사자/보호자), 지속 근무 의사(당사자/보호자) · 직업재활시설 일반고용 전환: 일반 사업체 일자리 전환 희망 여부 및 가능 여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이전 취업 경험: 다른 일자리 근무 경험

주: 보호자 조사에서 '당사자'의 의사, 만족 등은 당사자 본인의 응답이 아닌 보호자가 판단하여 응답한 항목임을 유의

〈표 1-3-6〉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항목 - 보호자 조사(계속)

구분	세부내용
E. 미취업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경험: 일자리 근무 경험/개수, 마지막 일자리 정보(산업, 업무 종류, 일자리 유형, 종사상 지위, 근무기간, 그만둔 이유 등) · 취업 희망: 취업 희망 여부(보호자), 희망/비희망 이유(보호자), 취업 희망 여부(당사자), 즉시 취업 가능 여부, 즉시 취업 불가능 이유, 희망하는 일자리(종사상 지위, 일자리 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업무 종류, 희망하는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하루 평균 근로시간, 희망하는 최소 임금(순수입), 선호 일자리, 취업 희망시기) · 필요한 장애 관련 지원: 필요한 지원, 외부인 이용 의향 · 구직경험 및 취업준비: 구직활동 여부, 이력서 제출/면접 경험, 애로사항, 취업준비 여부, 준비 필요사항
F.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가치관: 일하는 것에 대한 이해 정도 · 근로능력: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수준, 전문 기술/자격 보유 여부, 주관적 근로능력 · 취업에 대한 지지: 가족의 지지, 도움줄 수 있는 사람 수 · 정보기기 활용: 컴퓨터 활용 가능 정도, 스마트폰 활용 가능 정도 ·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필요한 서비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
G.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과 운동: 건강상태, 만성질환, (조기)노화, 운동 여부 및 시간 ·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흡연, 음주, 약물 중독, 스마트폰/게임 중독, 과체중(비만), 성적(性的) 문제, 정신적 문제 유무 · 일상생활 도움: 필요 수준, 충분 정도, 주 도움 제공자 · 하루 일과: 주로 하는 활동(평일, 주말), 하루 일과 만족도(당사자/보호자) · 기관 이용 현황: 주로 이용하는 기관(목적, 시간, 지속 이용 의사) · 사회 참여: 여가시간 집 밖 활동 선호 여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선호 정도, 친구 관계, 사회활동 참여 경험(여행, 관람, 투표 등), 거주지 주변 주요 시설 이용 여건 · 부당한 경험: 차별 경험, 폭력/학대/방치 경험, 대처 방법 · 재난안전: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 정도 · 일상생활 변화: 작년 대비 일상생활 변화 정도, 작년 대비 당사자 삶의 질 변화 정도 · 일상생활 만족: 전반적 만족(당사자/보호자) · 장애 관련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당사자/보호자)
H. 자립 및 미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 의사: 향후 희망 거주 유형, 자립 가능 정도, 당사자의 자립 의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 의사결정 주체 · 자립 준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자립생활 능력, 자립 준비 수준, 자립 시도 의향 · 미래 계획: 미래 계획 수립 여부, 사보험 가입 여부,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I. 가구 및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정보: 가구원 수, 가구 구성, 출생 순위, 가구주, 장애가구원 수, 가구 월평균 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여부 · 보호자 정보: 주(부) 보호자, 주 보호자 정보(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부 보호자 정보(취업상태) · 돌봄: 돌봄 시간, 혼자 있는 시간, 보호자 부재 시 돌봄 방법, 돌봄 시 어려움, 예정에 없던 일로 인해 추가로 돌봄을 구해본 경험, 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도 인지 수준, 희망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유형, 돌봄 부담 정도 · 보호자 삶의 만족: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주: 보호자 조사에서 '당사자'의 의사, 만족 등은 당사자 본인의 응답이 아닌 보호자가 판단하여 응답한 항목임을 유의

〈표 1-3-7〉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항목 - 당사자(PL, ER 그룹) 조사

구 분	세 부 내 용	
	보통 읽기 자료 그룹(PL 그룹)	읽기 쉬운 자료 그룹(ER 그룹)
QA. 취업과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을 하는 이유 · 하는 일의 종류 · 취업 만족, 같이 일하는 사람 만족 · 하는 일이 재미있는지 여부 · 하는 일이 힘든지 여부 · 근무시간 연장 희망 여부 · 직업교육 희망 여부 · 임금 수준 인지 여부, 금액 적정 여부 · 일할 때 필요한 도움 · 하는 일의 위험 정도 · 일자리 안전교육 경험 여부 · 불났을 때 스스로 대피 가능 여부 · 일자리에 대피를 도와주는 사람 유무 · 차별/폭력 경험 및 대처 · 일할 때 힘들거나 화날 때 대처 방법 · 지속 근무 의사 · 그만 다니고 싶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을 하는 이유 · 하는 일의 종류 · 취업 만족, 같이 일하는 사람 만족 · 하는 일이 재미있는지 여부 · 하는 일이 힘든지 여부 · 직업교육 희망 여부 · 일할 때 필요한 도움 · 하는 일의 위험 정도 · 일자리 안전교육 경험 여부 · 불났을 때 스스로 대피 가능 여부 · 일자리에 대피를 도와주는 사람 유무 · 차별/폭력 경험 및 대처 · 일할 때 힘들거나 화날 때 대처 방법 · 지속 근무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취업 희망 여부 · 즉시 취업 의사 · 일하고 싶은 이유 · 희망하는 일의 종류 · 다른 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싶은지 여부 · 일하는 방법 교육 희망 여부 ·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취업 희망 여부 · 즉시 취업 의사 · 일하고 싶은 이유 · 희망하는 일의 종류 · 다른 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싶은지 여부 · 일하는 방법 교육 희망 여부 ·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
QB. 공통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 행복 여부 · 가족과 잘 지내는지 여부 · 하고 싶은 활동 (집에 있기/기관방문/일하기) · 여가시간 희망 활동(집안, 집밖) · 친구 유무 · 모르는 사람 먼저 말 걸 수 있는지 여부 · 화났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 · 본인 돈(카드) 보유 여부 · 도움 필요 여부 · 장애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경험 ·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은 경험 · 폭력을 받은 경험 · 살고 싶은 방식 · 하고 싶은 것 결정 가능 여부 · 배우고 싶은 것 · 학교생활 만족, 졸업 이후 희망 진로 · 자신에 대한 생각 · 불이 났을 때 소방서 신고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 행복 여부 · 하고 싶은 활동 (집에 있기/기관방문/일하기) · 여가시간 희망 활동(집안, 집밖) · 친구 유무 · 모르는 사람 인사 가능 여부 · 화났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 · 본인 돈(카드) 보유 여부 · 도움 필요 여부 ·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은 경험 · 폭력을 받은 경험 · 살고 싶은 방식 · 배우고 싶은 것 · 학교생활 만족, 졸업 이후 희망 진로 · 불이 났을 때 소방서 신고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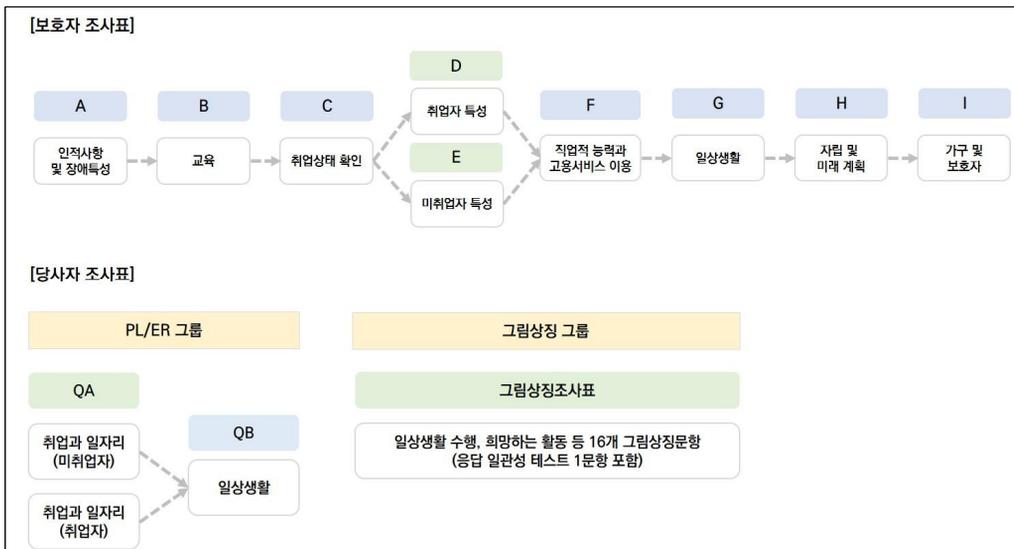
〈표 1-3-8〉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항목 - 당사자(그림상징 그룹) 조사

구분	세부내용
그림상징 조사표	· 청소 가능 여부, 쓰레기 버리기 가능 여부, 씻기 가능 여부, 집에 있는 것 선호 여부,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다니는 기관 선호 여부, 해본 활동, 자신이 멋있는지 여부, 친구 유무, 인사 가능 여부, 사고 싶은 물건, 일하고 싶은지 여부, 맞은 적이 있는지 여부, 도움 요청 가능 여부, 청소 가능 여부(응답 일관성 테스트 문항)

당사자 조사표는 조사참여 가능수준별로 세분화된다. PL 그룹과 ER 그룹은 기본적으로 읽기 쉬운 조사표로 조사하되, PL 그룹은 ER 그룹보다 문항 수가 많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과 추상적인 개념을 추가적으로 응답하게 된다. 그림상징 그룹에게는 그림상징 조사표를 이용하여 16개 항목을 질문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당사자, 보호자 조사표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1-3-5]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표 기본 구조



나. 2024년 조사표 관련 세부 변경사항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도입 시에는 기존에 없었던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2024년에는 장애인 자립·주거 지원 강화 등과 같은 정책현안 이슈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 수립 근거자료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년도와 조사로 파악한 응답 가능 범위, 응답자 부담 경감, 당사자의 조사참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문항을 조정하였다.

〈표 1-3-9〉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표 세부 변경사항 - 보호자 조사

구분	세부 변경사항	내역
조사 영역 변경	H. 자립 및 미래 계획 I. 가구 및 보호자	자립 및 미래 계획 영역 신설에 따라, 기존 'H(가구 및 보호자)'가 'I'로 이동
문항 추가	F41. 최종중 발달장애인 취업 의사	최종중 발달장애인의 취업 욕구 및 규모 파악
	H6. 자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H7. 자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자립생활 능력 H8.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준비 수준 H9. 자립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립을 시도할 의향	장애인 정책 추진 방향 등의 기초에 따라 발달장애인 자립 부분 강화하여 확인
	G17. 사회참여 경험(투표 참여)	2024년 투표 상황이 발생하여, 추가
	E19.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른 문항 활용도 저하로 해당 보기문항 삭제
문항 변경	G26. 작년 대비 일상생활 변화 정도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른 문항 활용도 저하로 '코로나19'라는 표현 삭제
	G25. 당사자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 G25-1.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	장애인 고유의 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해 기존 통합 문항을 당사자 / 보호자(가족) 별도 문항으로 분리
	I12.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도 인지 수준 I12-1. 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유형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및 욕구 확인
문항 삭제	D33-1. 현 사업체의 안전 관련 위험요소	응답 부담 완화 문항 활용도 제고

5. TAPI 조사표 개발

본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한 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에 따라 응답자에게 질문하고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조사방법(TAPI: 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으로 진행되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응답 결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조사참여 가능수준 판별 및 조사내용 관련 지침이나 기준이 까다롭고 정밀하다. 가령 당사자 조사 시 판별조사표의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한 응답 결과에 따라 네 그룹으로 판별되고, 그룹별 조사표나 문항을 차별적으로 배정받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종이조사표로 진행할 경우 조사원이나 응답자의 오류를 방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본 조사는 TAPI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TAPI를 활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면접현장에서의 직접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개별 면접조사의 경우 실사 진행 중 현장에서 조사원이 직접 데이터 간 일치성을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TAPI 시스템을 통해 문항 간 응답 일치성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였다.

둘째, 조사과정을 자동화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조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조사시간이 길어질수록 발달장애인의 집중도가 저하되고, 도전적 행동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TAPI 조사방식은 조사 진행과정을 자동화하여 복잡한 설문구조 및 조사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현장의 설문시간을 전반적으로 단축시키고 설문 이후의 데이터 처리 및 검증시간도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실시간 조사관리가 가능했다. 대규모 조사의 경우 실사 진행과정에 대한 빠른 판단 및 대처가 중요하다. 본 조사는 네트워크 기반의 실시간 조사관리 TAPI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사 진행상황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가. TAPI 시스템 구성

TAPI 시스템은 TAPI 조사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TAPI Interviewer, TAPI 조사표 작성용 프로그램인 TAPI 설문 프로그램, TAPI 조사 전반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용 프로그램인 TAPI Manager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1) 실사운동 시스템: TAPI Interviewer

조사원이 조사 응답자의 기본정보와 사전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조사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조사 완료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림 1-3-6] TAPI Interviewer 화면(예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학부 22 진행 7 완료 0														
PO	출생연도	성별	지역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사유	사유구분	유급종류	전학년도(초·중·고)	전학년도(대학)	전학년도(대학)	휴학연도	입학연도	전학년도(대학교)
70	통	남	충청	07 지적장애	보통	생활불편	주부	직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서울대 (사) 강남구 삼성동 113	010-100-0013	보통	010-094-0019	02-11-14	조사완료
80	통	남	충청	07 지적장애	보통	생활불편	강남구	소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서울대 (사) 강남구 삼성동 113	010-100-0013	보통	010-094-0019	02-11-16	조사완료
100	통	남	충청	07 지적장애	보통	생활불편	강남구	소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서울대 (사) 강남구 삼성동 113	010-100-0013	보통	010-094-0019	02-11-25	조사완료
150	통	남	충청	06 지적장애	보통	생활불편	강남구	소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서울대 (사) 강남구 삼성동 113	010-100-0013	보통	010-094-0019	02-09-09	조사완료
160	통	남	충청	06 지적장애	보통	생활불편	강남구	소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서울대 (사) 강남구 삼성동 113	010-100-0013	보통	010-094-0019	02-09-09	조사완료
200	통	남	충청	07 지적장애	보통	경상남도	양산시	정읍동	경남 양산시 양산시 112	010-300-0013	보통	010-094-0019	05-11-19	조사완료
270	통	남	충청	06 지적장애	보통	생활불편	충청	전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서울대 (사) 강남구 삼성동 113	010-100-0013	보통	010-094-0019	02-03-08	조사완료
280	통	남	충청	06 지적장애	보통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63동 302호 (사) 수원시 정자동 63동 302호	010-800-0013	보통	010-094-0019	02-03-19	조사완료
290	통	남	충청	07 지적장애	보통	충청	충주시	공회동	충청북도 충주시 공회동 191동 101호 (사) 충주시 공회동 191동 101호	010-800-0013	보통	010-094-0019	02-03-19	조사완료
300	통	남	충청	07 지적장애	보통	경기도	후천시	삼죽동	경기도 후천시 삼죽동 4호 (사) 후천시 삼죽동 4호	010-800-0013	보통	010-094-0019	02-03-19	조사완료
310	통	남	충청	07 지적장애	보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진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진동 47-C동 101호 (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진동 47-C동 101호	010-400-0013	보통	010-094-0019	02-11-26	조사완료
330	통	남	충청	06 지적장애	보통	충청	충주시	공회동	충청북도 충주시 공회동 191동 101호 (사) 충주시 공회동 191동 101호	010-800-0013	보통	010-094-0019	02-03-19	조사완료
370	통	남	충청	06 지적장애	보통	충청	충주시	공회동	충청북도 충주시 공회동 191동 101호 (사) 충주시 공회동 191동 101호	010-800-0013	보통	010-094-0019	02-03-19	조사완료

2) 설문 시스템: TAPI 설문 프로그램

설문 로직이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설문 로직에 일치하도록 설문이 진행되며, 로직이 맞지 않는 응답이 입력될 경우 오류창이 떠서 데이터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그림 1-3-7] TAPI 설문 프로그램 화면(예시)

E21. (테스트)이신육님이 취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2개입니다. 특별히 없으면 1순위에 응답 불가능합니다.

일을 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야 함

당사자의 진로 및 적성을 탐색하고 개발해야 함

직업 및 취업 정보를 확보해야 함

근로능력, 기술을 키워야 함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

책임감, 시간 엄수 등 직업태도를 갖춰야 함

자기관리(신변처리 등)를 잘해야 함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잘 관리해야 함

기타

특별히 없음

확인

E21. (테스트)이신육님이 취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일을 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야 함

당사자의 진로 및 적성을 탐색하고 개발해야 함

직업 및 취업 정보를 확보해야 함

근로능력, 기술을 키워야 함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

책임감, 시간 엄수 등 직업태도를 갖춰야 함

자기관리(신변처리 등)를 잘해야 함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잘 관리해야 함

기타

특별히 없음

2순위로는 응답이 가능하군요

〈표 1-3-10〉 TAPI 논리설계서(예시)

문항	연관 문항	지침	상세로직	확인창/경고창/지침 문구
A4	-	입력 범위	입력범위를 1900년 이상만 가능하도록 제한	
A4	-	로직 보완	모든 응답자의 양력생일을 기준으로 만나이 계산 (만나이 계산법) 1)생월일이 1월1일~5월15일: 2024-생년 2)생월일이 5월16일~12월31일: 2024-생년-1	
A4	-	경 고 창	2008년 5월 15일 이후 출생인 경우 경고창	2024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2008년 5월 15일 이후 출생)이신 분은 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생년월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정해주세요.
A5	A1 A2	경 고 창	아래 2가지의 경우에서 벗어나면 경고창 띄움 1) A1의 5.배우자는 A5에 2,3만 응답가능 2) A1의 5.배우자이면서 A2의 1.같이 살고있음은 A5에 2만 응답가능	당사자님과 관계가 '배우자'라고 응답하셨는데 혼인상태가 '미혼'일 수 없습니다. 또는 당사자님과의 관계가 '배우자'이고 '같이 살고 있다'고 응답하셨는데 혼인상태가 '이혼/사별/별거'일 수 없습니다. 사실혼이라도 결혼/동거에 해당하니 혼인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수정해주세요.
A5	A1 A2	확 인 창	A4에서 계산된 만나이가 18 이하이고, A5에서 2, 3 응답 시 확인창	연령이 만 18세 이하인데 결혼/동거, 사별/이혼/별거가 맞는지요?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를 클릭해주세요.
A6	A4	확 인 창	A6에 A4에서 계산된 만나이보다 크게 응답 시 경고창	"최초로 장애를 의심한 시기"는 현재 나이 이전이어야 합니다. 응답값을 확인해주세요.

3) 실사관리 프로그램: TAPI Manager

조사 진행상황, 응답자의 이동 등 TAPI 조사 전반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리자는 조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상황에 맞는 지침을 내릴 수 있다.

[그림 1-3-8] TAPI Manager 화면(예시)

The screenshot displays the TAPI Manager interface with a main data table and a detailed view of a specific respondent's information.

현장원ID	이름	사무소	담당 SV	담당지역	백부수			완료수			완료율	노트북번호	인터뷰		
					개	완료분	대체표본	개	완료분	대체표본					
10154	홍성진	부산사무소	김승욱	부산/울산	112	85	27	112	85	27	100.0	100.0	100.0	HRC-V180-081	10.0
10468	김미경	대구사무소	배종영	경북	55	34	21	55	34	21	100.0	100.0	100.0	HRC-V05-156	10.0

The detailed view below shows columns for: 응답원번호 (Respondent No.), 성명 (Name), 생년월일 (DOB), 성별 (Gender), 거주지 (Residence), 직업 (Occupation), and various status indicators (e.g., 설문지 수령 여부, 인터뷰 완료 여부).

나. TAPI 조사과정과 자료 처리 과정

TAPI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① 설문지 탑재된 태블릿 PC를 조사원에게 전달
- ② 조사원은 배부받은 리스트의 응답 대상자에게 접촉하여 TAPI 실사를 진행
- ③ 조사가 완료된 데이터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전송
- ④ 조사원이 전송한 데이터는 서버에 날짜별로 자동 저장
- ⑤ 관리자는 조사원이 전송한 데이터를 리뷰/검증
- ⑥ 오류가 있을 경우 정확한 응답내용을 확인하거나 재조사 실시
- ⑦ 확인된 데이터는 서버로 전송되어 저장

제4절 조사 실시

1. 조사 실시 과정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표 1-4-1〉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실시 과정

수행 단계	수행 내용	수행 일정
사전연구 수행	▪ 문헌연구, 타 조사 사례 등 검토	~ 2024. 2
표본설계	▪ 등록장애인 DB 확보·구축 ▪ 중복표본 추출, 대상자 DB 구축 ▪ 독립표본 추출, 대상자 DB 구축	2024. 1~4 2024. 4 2024. 4~5
조사업체 선정	▪ 조사업체 선정·계약	2024. 1~4
조사표 개발	▪ 조사표 개발 ▪ 당사자용 읽기 쉬운 조사표 개발 ▪ TAPI 논리설계서 및 지침서 등 개발	2024. 1~4 2024. 3~4 2024. 4~5
통계작성 승인	▪ 통계청의 국가통계작성승인 획득(제383005호)	2024. 4~6.
TAPI 시스템 준비	▪ TAPI Interviewer 및 Manager 구축 ▪ TAPI 설문 프로그래밍 ▪ 테스트를 통한 최종 TAPI 시스템 확정	2024. 5~6
조사준비	▪ 고용노동부, 공단 협조요청 공문 발송 ▪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 광고 배너 설치 ▪ 신문광고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 팸플릿, 포스터, 장애인 복지시책 등 작성 ▪ 읽기 쉬운 자료 등 응답자 선물 준비	2024. 5~6
사전조사	▪ 사전조사 실시	2024. 5. 20.~6. 7.
조사원 교육	▪ 대면 집체교육 실시(서울, 대전)	2024. 6. 14~6. 18.
본 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3,000가구 조사	2024. 6. 17.~9. 30.
데이터 검증 및 가중치 설계	▪ 전화검증 및 데이터 클리닝 등 ▪ 가중치 설계	2024. 10~11
데이터 가공 및 분석	▪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공 및 분석	2024. 11~2025. 4
보고서 작성 및 검증	▪ 분석보고서 작성 및 검증	2025. 1~4

가. 응답 대상자 DB 구축

제2절 표본설계에서 설명한대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위한 표집틀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명부이며, 이 명부에는 장애인의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장애유형,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인수받은 등록장애인 명부를 활용하여 전문가에 의한 표본추출이 이뤄졌으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의 중복표본 및 대체표본을 2024년 4월에,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만을 위한 독립표본 및 대체표본은 2024년 4~5월에 추출하여 응답 대상자 DB로 구축, 관리하였다.

나. 조사대상자 점점 홍보 실시

[그림 1-4-1] 조사 안내 포스터 및 조사 실시 안내문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본 조사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우리 나라 발달장애인과 장애인들 대상으로 취업실태 및 생활, 정책연구 등을 파악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조사목적 | 우리나라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취업실태 및 생활, 정책연구 파악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6조

조사대상 |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장애인 당사자(3,000명가)
※ 지역, 장애유형, 성별, 연령에 따라 부차적 추첨

조사방법 | 가구 방문 면접조사(태블릿 PC를 활용한 조사)

조사기간 | 2024년 6월 ~ 9월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소

홍합대: www.esd.or.kr | 홈페이지: www.esd.or.kr
홍합대 전화: 02-709-7115 9999 | 이메일: survey@esd.or.kr | 홍합대 전화: 02-414-9166 9166 | 이메일: kardon@esd.or.kr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 홈페이지: www.esd.or.kr

포털사이트에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검색하시거나
오픈채팅 앱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283005호)로서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개인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를 연구 수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에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내의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 대상 가구나 전담 간호사 되어 조사 안내를 위해 연안을 드렸으나, **원래보다도** 정황이 좋지 않은 안배를 드립니다.

이 조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6조에 따라 실시되는 통계조사로 설문조사는 「보호자님」과 「발달장애인 당사자님」 두 분 모두에게 연락을 예정입니다.

(보호자) 남/여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일과 리 생활 및 수요, 경우로부터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여부를 예정입니다. (약 40분 정도 소요)
(장애인 당사자) 남/여는 의사소통 능력에 맞게 개발된 설문지로 간단하게 여부를 예정입니다.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보호자 조사까지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께서 국가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최대한 담고자 질문이 길어진 것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초점으로 2인원 설문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해 적절한 안내를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내주세요.

조사는 9-10월 중에 진행되어 앞으로의 지역을 담당하는 통계조사원 분이 방문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되신 분께서는, 제책에 맞게 주실지도.**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으신 경우에는, 담당 조사원이 연락을 드리기 전에 기다려 주실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정보 및 모든 내용 내용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조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정보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전달 문의처
☎ (02) 3149-189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개발실 김호진 연구위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호진 연구위원

1) 추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1:1전화 컨택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본 조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출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직원(535명)의 1:1 전화 컨택을 통해 조사에 대해 직접 안내하였으며, 응답 대상자 문의 시 참여 독려를 부탁하였다. 535곳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조사안내 포스터를 배포하여 기관 이용도가 높은 발달장애인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2) 조사 실시 홍보 MMS 발송

사전조사 전 본 조사 실시에 대한 안내 및 참여의사 고취를 위하여 응답 대상자에게 조사에 대한 안내 및 홍보 MMS를 발송하였다.

3) 관련 협회·단체 등의 협조를 통한 홍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관련 협회·단체의 회원들에게 조사참여를 독려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였다.

4) 발달장애인 읽기 쉬운 자료, 조사안내 등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제작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직업정보서’를 요약, 재편집하여 당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그림 1-4-2]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생활정보 및 직업정보 안내서 제공



[그림 1-4-3]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조사 안내 및 팸플릿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지역+지역성 장애인인 취업상태 및 생활, 정책특구 등을 파악하는 국가적인 조사입니다. 귀하의 참여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정책실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에 대해 소개합니다.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당사자(3,000가구)	2024년 8월 - 9월	전화 조사방이 병행하여 태블릿 PC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주관기관	수행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andbook Research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홈페이지: www.easd.kr

포털사이트에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를 검색하시거나 오른쪽 QR코드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님을 위한 읽기 쉬운 조사

안녕하세요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당신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해 주세요.
-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해 주세요.
-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말해 주세요.

당신은 편안하게 이야기 하면 됩니다.
당신이 이야기 해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와 당신만 아는 비밀입니다.
비밀이란 당신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친구
- 직장 사람들
- 부모님
- 그 외 모든 사람들

당신에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 15 분이 걸립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더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우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031) 728-7143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전화 02) 3149-1895

다. 조사원 선발 및 교육

1) 조사원 선발

본 조사의 자료수집을 담당하는 조사원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 중에서 발달장애인 표본을 3개년 이상 조사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다.

조사원의 중도탈락 등을 고려하여 121명의 조사원을 선발하였으며, 최종 115명이 본 조사에 투입되었다. 투입된 조사원 모두 장애인 조사 관련 경험이 있으며, 75명(65.2%)이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2회 이상 수행하였고, 17명(14.8%)은 1회 수행하였다.

또한 최대 조사원 7명 당 슈퍼바이저 1인을 배치하여 조사원에 대한 지도,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였다.

2) 조사원 교육

선발된 조사원은 본 조사에 관한 소정의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조사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조사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조사원은 본 조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본 조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조사하므로 조사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조사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조사표 개발 연구진, 관련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참여 가능수준 판별, 발달장애인 조사하기, 유의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였으며, 실제 사례에 대해 별도로 제작한 동영상 교육 등을 통해 조사원의 이해를 높였다.

덧붙여 면접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조사원이 조사표 및 TAPI 조사방법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조사표 교육 이해도 테스트를 통해 조사원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고, 성적이 낮은 조사원은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교육은 서울과 대전을 나누어 대면 집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조사원과 응답자의 방역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교육도 진행하였다.

〈표 1-4-2〉 권역별 조사원 교육 실시

구분	2024. 6. 14.(금)	2024. 6. 18.(화)
대상지역	대전/광주/대구/부산 조사원	수도권/강원/제주 조사원

〈표 1-4-3〉 조사원 교육 내용

구분	교육 내용
조사개요	▪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조사 대상, 조사 일정 및 기간, 조사 준비물 등
장애이해	▪ 발달장애인 조사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의무 및 관련법, 주의사항,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호자 조사표 교육	▪ 발달장애인 관련 주요 개념 이해, 조사 영역별 질문 이동 경로 파악 등
발달장애인 판별 및 조사	▪ 발달장애인 응답 가능 수준 판별 지표 적용, 그림상징 조사표 교육
당사자 조사표 교육	▪ 조사표별 난이도 안내, 문항 특징 등
조사표 이해도 테스트	▪ 조사표 교육 이후 설문 이해 및 적용 여부 평가, 주요 개념 및 유의사항 재점검
조사절차 교육	▪ DB 구축, 주소지 방문, 자기소개, 질문에 대한 응답, 보고 등
직·산업 교육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교육
TAPI 설명 및 실습	▪ TAPI 조사 특징, 유의사항 등 실습
조사원 유의사항	▪ 조사원 유의사항 및 당부사항 안내

[그림 1-4-4] 발달장애인 당사자 조사를 위한 전문가 교육 진행



라.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전화조사를 통해 응답 대상자 DB 정보를 확인하고, 응답자에게 본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조사취지, 참여방법을 사전에 안내하여 대상가구의 거부감을 줄이고 협조도를 높이고자 실시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집에 거주하는 시간, 의사소통의 원활한 정도, 조사에 대한 호의도 등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조사원에게 제공하려는 부차적인 목적도 있다.

〈표 1-4-4〉 사전조사 주요 조사항목

구분	주요 조사항목
A. 조사 참여 확인사항	▪ 본인 여부 확인, 조사 취지 설명, 조사협조 요청 등
B. 장애정보	▪ 장애등록 여부 확인
C. 리스트 정보 확인	▪ 주소 정보 확인
D. 조사 참여 가능 여부 확인	▪ 보호자 조사 참여 가능 여부, 시설 거주 여부 등
E. 본 조사일 확인사항	▪ 본 조사 시간 약속, 방문시기 확인
F. 전화 종료 후 조사원 기재 사항	▪ 응답자 호응도 평가, 응답자 특성 기재
G. 최종 접촉 결과 정리	▪ 최종 접촉 결과 기재

단, 본 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대면으로 조사해야 하고, 설문 소요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의 이유로 사전조사 단계에서 조사참여 거절 의사를 강하게

밝힌 대상자는 본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사전조사는 2회에 걸쳐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대상은 구축한 목표 표본인 3,000명이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중복표본(966명)은 2024. 5. 7. ~ 5. 11., 독립표본은 2024. 5. 16. ~ 5. 31.까지 실시하였다.

독립표본의 경우 총 6,874개 표본을 투입하여 결번/연락처없음, 전화안받음, 조사참여 거절, 조사대상 아님 등을 제외하고 총 2,104명이 본 조사에 협조하기로 하여 협조율은 30.6%로 나타났다. 사전조사에서 조사협조를 얻지 못한 표본에 대해서는 조사실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본 조사 실시를 고지하였다.

마. 본 조사 실시

본 조사는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표 1-4-5〉 본 조사 진행 절차

진행단계	진행 내용
① 주소지 확인	▪ 방문 가구 위치와 주거지 특성을 사전 파악 - 태블릿PC 일체, 비상용 종이 조사표, 조사지침서, 응답 대상자 정보, 지도, 응답자 선물, 조사원 신분증, 조사협조공문, 필기구 등 준비
② 주소지 방문	▪ 응답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적격대상 장애인이 아니거나, 응답자가 부재, 거절할 경우 해당사항에 대한 대처요령에 따라 대처
③ 조사원 소개	▪ 가구에 방문하여 정중하게 조사원 본인에 대해 소개(신분증 활용)
④ 조사의 요청	▪ 조사협조 요청(고용노동부 및 공단 공문 활용)
⑤ 응답자 질문에 대답	▪ 조사원 지침서에 포함된 예상 질문에 대한 응답 사전 준비 및 대응
⑥ 접촉일지의 기록	▪ 접촉일지에 접촉결과, 사유를 자세히 기록
⑦ 면접의 실시/종료	▪ 응답자의 동의를 받은 후 차분히 면접 진행
⑧ 면접설문내용의 확인	▪ 면접이 종료된 설문을 조사원 스스로 다시 한 번 검토
⑨ 데이터 전송	▪ 최종적으로 검증까지 완료된 응답자의 데이터를 안전한 전송환경에서 전송
⑩ 보고	▪ 종료된 리스트, 응답자 선물 수령증 등 제출

바. 본 조사 관리

1) 실사진행상황 및 조사원 관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실사진행상황 집계 시스템, 조사원 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원을 관리하였다. 조사원은 일단위, 주간단위 조사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 하였으며, 수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조사원은 최소 3일에 한 번 조사결과 데이터를 전송하였고, 슈퍼바이저는 조사원이 전송한 데이터를 100% 점검하고 확인하였다. 또한 상시 콜센터를 설치·가동하여 실사진행과정 중 문제나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응답 대상자 조사 참여 관리

응답을 거절하는 응답자에 대한 조사협조 설득방안을 마련하여 거절률을 최소화하고 조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먼저 강력거절 응답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차원적인 방법을 통해 설득하여 조사참여를 유도하였다.

- ① '다른 용무로 통화가 어렵다고 거절'하는 경우는 약속시간을 정하고 재접촉을 한다.
- ② 조사자체를 신뢰하지 못하여 거절하는 경우 우편, 팩스 및 이메일로 협조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사 안내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연구진이 직접 응답자와 통화를 실시하여 설득한다.
- ③ '전화번호 틀림', '전화번호 없음', '결번' 등 전화로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체를 하지 않고 방문 접촉을 원칙으로 한다.

3) 표본 대체 관리

본 조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조사참여 가능수준을 판별하고,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바 비대면조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방문 및 대면조사를 사전에 허용한 가구를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로 인해 장애인 경제활동지표를 생산해야 하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등과는 달리 원표본 유지율의 엄격한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엄격한 대체원칙을 세우고 관리하였다.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경우로 제한하였다.

- ① 고소, 고발 등 협박수준의 거절, 지속적 거절 ② 외출로 인한 부재(3회 이상 방문)
- ③ 입원, 해외체류 등 장기부재 ④ 기존 연락처 및 실거주지 변경으로 주소추적 불가
- ⑤ 당사자 시설 입소 ⑥ 지적, 자폐성장애 아님 ⑦ 당사자 사망 및 실종
- ⑧ 응답 가능한 보호자(가족, 가족 이외) 부재

단, 단순거절, 3회 이하 부재, 실거주지가 다르며 새 주소의 추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원표본을 조사해야 했다.

원표본 조사율을 높이기 위한 특수 지침은 아래와 같다.

- ① 연락처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대체하지 않고 직접 방문 접촉한다.
- ② 사전조사 성공자는 최대한 대체하지 않고 진행한다.
- ③ 사전조사 시 강력거절인 경우에도 본 조사 시 방문 접촉하여 다시 조사협조를 구한다.
- ④ 사전조사 시 공문을 받아 본 후에 조사협조를 고려하겠다고 한 응답자의 경우, 본 조사 시 공문 수령을 확인하고 다시 조사협조를 구한다.

사. 자료 검증

자료 검증은 'TAPI 시스템에 의한 검증', '조사원의 자기 검증', '슈퍼바이저 리뷰를 통한 검증', '독립전화 검증팀 검증', '논리적 오류 및 비교자료를 통한 검증' 등 다섯 단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주요 자료 검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화검증 내용

전체 조사 완료된 3,000표본 중 독립표본 2,043표본에 대해 무작위 전화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표본은 681표본(33.3%), 검증 결과 오류가 발생한 표본은 1표본으로 오류율은 0.1%이다. (경찰 중복표본은 경찰 조사 검증 시 발달조사 조사 여부 확인)

2) 논리적 오류 검증 내용

입력 및 리뷰 단계에서 검증에 대한 검토가 누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검증 가이드를 작성하였다.

〈표 1-4-6〉 검증 가이드(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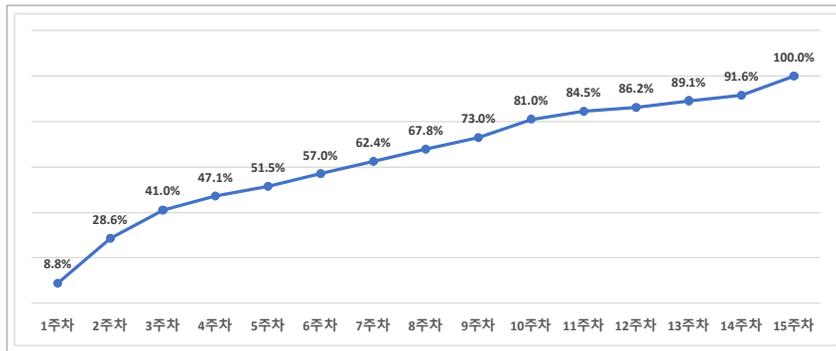
문항번호	검증 내용
전체	· 직접 입력한 숫자, 주관식 응답의 경우 오타 및 비상식적 응답지 없는지 확인
전체	· (기타)응답내용을 확인하여 위의 객관식 보기에 해당하는 응답내용은 없는지 확인 · (기타)응답내용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적합한 내용 인지 확인
A1, A2	· 보호자 동거여부와 H. 가구구성(가구원, 주/부 보호자) 비교
A3	· 리스트 상의 성별과 일치해야 함
A4	· 리스트 상의 만 나이와 일치해야 함
A8	· 리스트 상의 장애유형과 일치해야 함
D5	·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이나 민간사업체로 분류된 사항 확인
D8	· 입직 당시 연령이 만15세 미만인 경우 확인
D22	· 주당 근로일수*하루 근로시간이 90시간 이상이면 확인 · 출퇴근 시간 확인 후 수정

검증 가이드에 따라 문항 간 비교 및 논리검증을 실시하였다. 유관 문항 데이터 및 주요 응답 메모 내용의 확인을 거쳐 응답 확인이 가능한 문항의 경우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보완 수정하였다.

2. 조사 실시 결과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중복표본은 2024년 6월 17일부터 7월 14일,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 조사 독립표본은 7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5주에 걸쳐 발달장애인 목표 표본인 3,000가구에 대한 조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림 1-4-5]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진행률 추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2,149명, 보호자는 3,000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전체 표본의 71.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조사참여 가능수준 판별은 당사자 조사 참여 거절자를 제외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전원에 대해 이뤄졌고, PL 그룹은 판별된 1,039명 중 1,038명이 조사에 참여한 반면, ER 그룹은 797명 중 762명, 그림상징 그룹은 313명 중 281명이 참여하였다.

<표 1-4-7> 당사자 조사참여 가능수준 판별 결과, 조사 참여 표본 수

그룹 구분	판별 표본 수	조사 참여 표본 수
① 보통 읽기 자료 그룹 (PL 그룹)	1,039명 (34.6%)	1,038명
② 읽기 쉬운 자료 그룹 (ER 그룹)	797명 (26.6%)	762명
③ 그림상징 그룹	313명 (10.4%)	281명
④ 조사 참여 불가능 그룹 (미참여 그룹)	851명 (28.4%)	-
전 체	3,000명 (100.0%)	

제5절 응답 표본 분석 및 신뢰도 검토

1. 조사 참여 표본 특성

가. 전체 응답 표본(3,000명)

보호자 조사 참여를 기준으로 전체 발달장애인 응답 표본은 3,000명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5-1〉 전체 발달장애인(3,000명)의 인적구성

구 분		응답 표본 수	비율
성별	남성	2,058	68.6
	여성	942	31.4
연령	15~19세	494	16.5
	20~29세	999	33.3
	30~39세	601	20.0
	40~49세	338	11.3
	50~59세	294	9.8
	60세 이상	274	9.1
지역	서울	463	15.4
	경기	544	18.1
	광역시도	857	28.6
	기타시도	1,136	37.9
장애유형	지적장애	1,952	65.1
	자폐성장애	1,048	34.9
2019년 6월 시점 장애등급	1급	840	28.0
	2급	1,142	38.1
	3급	943	31.4
	2019년 7월 이후 등록	75	2.5
전 체		3,000	100.0

주 1)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기에 전체 발달장애인을 대표하지 않음

2) “지역”에서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함

나. 당사자 조사 응답 표본(2,081명)

발달장애인 당사자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총 2,081명으로 PL 그룹 1,038명, ER 그룹 762명, 그림상징 그룹 281명이다. 그룹별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5-2〉 당사자 조사 참여 발달장애인(2,081명)의 인적구성

(단위: 명, %)

구 분	PL 그룹		ER 그룹		그림상징 그룹		
	응답 표본 수	비율	응답 표본 수	비율	응답 표본 수	비율	
성별	남성	723	69.7	499	65.5	192	68.3
	여성	315	30.3	263	34.5	89	31.7
연령	15~19세	173	16.7	115	15.1	60	21.4
	20~29세	405	39.0	233	30.6	73	26.0
	30~39세	223	21.5	118	15.5	64	22.8
	40~49세	108	10.4	93	12.2	29	10.3
	50~59세	83	8.0	113	14.8	22	7.8
	60세 이상	46	4.4	90	11.8	33	11.7
지역	서울	134	12.9	107	14.0	50	17.8
	경기	151	14.5	123	16.1	50	17.8
	광역시도	326	31.4	210	27.6	88	31.3
	기타시도	427	41.1	322	42.3	93	33.1
장애유형	지적장애	695	67.0	550	72.2	169	60.1
	자폐성장애	343	33.0	212	27.8	112	39.9
2019년 6월 시점 장애등급	1급	80	7.7	145	19.0	114	40.6
	2급	383	36.9	349	45.8	128	45.6
	3급	534	51.4	249	32.7	37	13.2
	2019년 7월 이후 등록	41	3.9	19	2.5	2	0.7
전 체	1,038	100.0	762	100.0	281	100.0	

주 1)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기에 전체 발달장애인을 대표하지 않음

2) "지역"에서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함

다. 당사자 조사 응답 신뢰도 검증

1) 응답 신뢰도 검증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PL, ER 그룹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수록하고 있다. 분석에 앞서 PL, ER 그룹 응답 결과의 신뢰도나 타당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적으로 검증하여 부적합(불성실) 응답으로 판단되는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응답 신뢰도 검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첫째,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를 확인, 반영하였다. 1단계에서는 뒷말만 따라하기, 특정 숫자로만 응답하기, 의미없는 말/단어를 반복하기, 무반응, 조사거부, 조사 중 이탈, 조사방해 등의 사안이 발생했는지를 평가하였다. 2단계에서는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와 응답의 신뢰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제대로 된 응답을 전혀 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한 편이다', '보통이다', '제대로 된 응답을 한 편이다', '제대로 된 응답을 잘 하였다'로 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둘째, 무응답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모든 문항에 무응답', '대부분 문항 무응답', '일부 무응답(4~6개)', '일부 무응답(1~3개)', '무응답 없음'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부적합 응답자를 제외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은 없다. Dunn, Heggestad, Shanock & Theilgard(2018)는 전체 문항의 10% 이상이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되면 해당 응답자를 제외하는 것을 제안하지만, 확정된 비율이 아니라 조사 성격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조정 가능하다고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청취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선택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와 권고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PL, ER 그룹의 응답 신뢰도 검증은 'QA. 취업과 일자리', 'QB. 공통조사' 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적합 응답도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제외하였다.

2) 응답 신뢰도 검증 결과(PL, ER 그룹)

QA, QB파트 응답 대상자는 판별지표에 따라 PL, ER그룹으로 분류된 1,836명이며, QA, QB 파트에 응답하게 되는 문항은 최소 25개에서 최대 37개로 이 중 모든 문항에 무응답한 경우인 36명을 모두 제외하였으며, 그에 따라 1,800명이 당사자 조사 참여 표본이 된다.

다음으로 무응답이 7개 이상(최소 문항 수 기준 40% 이상)으로 대부분 문항에 무응답한 경우를 제외하는데, 2024년에는 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특별히 제외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장평가에 의해 '제대로 된 응답을 전혀 하지 못했다'로 평가된 12명을 추가적으로 제외하였다. 그에 따라 QA, QB파트 조사에 참여한 1,800명 중 부적합 응답으로 판정한 12명을 모두 제외하여 최종 1,788명으로 분석하였다.

〈표 1-5-3〉 현장평가 및 무응답 검증 결과(PL, ER 그룹)

(단위: 명)

현장평가 무응답 수	제대로 된 응답을 전혀 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못한 편이다	보통이다	제대로 된 응답을 한 편이다	제대로 된 응답을 잘 하였다	전 체
모든 문항 무응답	2	11	9	12	2	36
대부분 문항 무응답	0	0	0	0	0	0
일부 무응답(4~6개)	0	4	9	6	4	23
일부 무응답(1~3개)	0	7	12	17	33	69
무응답 없음	12	63	212	487	934	1,708
전 체	14	85	242	522	973	1,836

2. 본 보고서 분석 표본 특성(PL, ER 그룹)

당사자 조사 응답 신뢰도 검증을 통해 QA, QB 파트에서는 1,788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PL 그룹은 1,036명, ER 그룹은 752명이며, 그룹별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5-4〉 본 보고서 분석 대상 발달장애인(1,788명)의 인적구성

(단위: 명, %)

구 분	PL 그룹		ER 그룹		
	응답 표본 수	비율	응답 표본 수	비율	
성별	남성	721	69.6	492	65.4
	여성	315	30.4	260	34.6
연령	15~19세	173	16.7	113	15.0
	20~29세	404	39.0	229	30.5
	30~39세	222	21.4	118	15.7
	40~49세	108	10.4	90	12.0
	50~59세	83	8.0	113	15.0
	60세 이상	46	4.4	89	11.8
지역	서울	133	12.8	105	14.0
	경기	151	14.6	123	16.4
	광역시도	326	31.5	205	27.3
	기타시도	426	41.1	319	42.4
장애유형	지적장애	694	67.0	547	72.7
	자폐성장애	342	33.0	205	27.3
2019년 6월 시점 장애등급	1급	79	7.6	139	18.5
	2급	382	36.9	347	46.1
	3급	534	51.5	248	33.0
	2019년 7월 이후 등록	41	4.0	18	2.4
전 체	1,036	100.0	752	100.0	

주 1)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기에 전체 발달장애인을 대표하지 않음

주 2) “지역”에서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함

3. 응답 신뢰도 검토

가. 보호자 조사 응답의 신뢰도

보호자 조사 응답자와 주 보호자의 일치도(대각요소의 비율)는 94.9%로 보호자 조사는 대부분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가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가 교차된 경우도 일치한 것으로 인정할 때 해당 비율은 97.9%까지 상승한다.

또한 보호자 조사 응답자의 89.7%는 조사대상 발달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대부분 같이 살고 있는 주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5〉 보호자 조사 응답자와 주 보호자의 일치도

(단위: 명)

구 분	응답자								소 계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	자녀	그 외 가족 및 친인척	기타	
아버지	378	54	2	2	0	0	1	1	438
어머니	36	1,853	7	1	0	0	2	8	1,907
형제자매	0	3	207	1	0	1	8	5	225
조부모	0	0	0	51	0	0	0	0	51
배우자	1	1	0	0	167	1	1	2	173
자녀	0	1	0	0	1	66	0	2	70
그 외 가족 및 친인척	3	0	2	0	0	0	58	3	66
기타	0	1	1	0	0	0	0	68	70
전 체	418	1,913	219	55	168	68	70	89	3,000

〈표 1-5-6〉 보호자 조사 응답자와 발달장애인 동거 여부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같이 살고 있음	2,690	89.7
같이 살고 있지 않음	310	10.3
전 체	3,000	100.0

나. 당사자 조사참여 가능수준 판별의 신뢰도

본 조사에서는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지표와 방법을 활용하여 훈련된 조사원에 의해 3,000명의 발달장애인의 조사참여 가능수준을 판별하였다. 판별 결과 PL 그룹 1,039명, ER 그룹 797명, 그림상징 그룹 313명, 미참여 그룹 851명으로 판별되었다. 당사자 조사 참여를 거절한 사람도 미참여 그룹에 포함하였다.

판별 결과의 신뢰도를 검토하고자 보호자 조사표의 조사항목을 통해 그룹별 주요 특성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장애등급,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수준,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수준 등에 대해 네 개 그룹별로 명확한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판별 전 보호자가 응답한 결과와 실제 판별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뜻한다.

〈표 1-5-7〉 그룹별 장애등급 구성

(단위: %, 명)

구 분	조사참여 가능수준			
	PL 그룹	ER 그룹	그림상징 그룹	미참여 그룹
1급	7.7	19.4	43.1	55.2
2급	36.9	46.0	43.5	30.1
3급	51.5	32.0	12.5	13.4
2019년 7월 이후 등록	3.9	2.5	1.0	1.3
전 체 (인원)	100.0 (1,039)	100.0 (797)	100.0 (313)	100.0 (851)

〈표 1-5-8〉 그룹별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단위: %, 명)

구 분	조사참여 가능수준			
	PL 그룹	ER 그룹	그림상징 그룹	미참여 그룹
두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함	80.6	55.8	20.8	17.3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16.3	34.3	44.7	32.5
단어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2.5	7.9	31.9	27.1
다른 사람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함	0.7	2.0	2.6	23.0
전 체 (인원)	100.0 (1,039)	100.0 (797)	100.0 (313)	100.0 (851)

〈표 1-5-9〉 그룹별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

(단위: %, 명)

구 분	조사참여 가능수준			
	PL 그룹	ER 그룹	그림상징 그룹	미참여 그룹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함	84.1	62.1	23.0	18.1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12.1	25.2	38.0	24.6
불명료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2.4	8.4	28.4	19.4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함	0.9	3.0	7.3	24.2
소리 등으로도 전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음	0.5	1.3	3.2	13.7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인원)	(1,039)	(797)	(313)	(851)

〈표 1-5-10〉 그룹별 비언어적 표현 이해 수준

(단위: %, 명)

구 분	조사참여 가능수준			
	PL 그룹	ER 그룹	그림상징 그룹	미참여 그룹
이해할 수 있음	60.9	34.9	15.7	12.2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37.0	55.7	67.1	47.2
이해할 수 없음	2.1	9.4	17.3	40.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인원)	(1,039)	(797)	(313)	(851)

〈표 1-5-11〉 그룹별 비언어적 표현 활용 수준

(단위: %, 명)

구 분	조사참여 가능수준			
	PL 그룹	ER 그룹	그림상징 그룹	미참여 그룹
활용할 수 있음	55.6	30.4	10.5	9.8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9.8	56.0	62.9	44.4
활용할 수 없음	4.5	13.7	26.5	45.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인원)	(1,039)	(797)	(313)	(851)

다. 행정통계 ‘등록장애인 현황’과의 비교

본 조사의 추정치와 모집단 정보인 등록장애인 현황 정보를 비교하였다.

가중치 설계 시 레이킹 비 보정에 의해 장애유형의 부분합은 동일한 가운데 장애유형별, 연령별 교차 구성비의 비교 결과, 본 조사 추정치와 등록장애인 현황(모집단)의 개별 셀들의 비율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12〉 장애유형별×연령별 교차 구성비의 비교

(단위: %, 명)

구 분	본 조사 추정치			등록장애인 현황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15~19세	10.5	9.0	24.5	10.5	9.1	23.9
20~29세	27.5	25.4	47.8	27.5	25.1	50.1
30~39세	20.7	20.3	24.3	20.7	20.5	22.7
40~49세	16.1	17.5	3.0	16.1	17.6	2.8
50~59세	13.3	14.7	0.4	13.3	14.7	0.4
60세 이상	11.8	13.1	0.1	11.8	13.0	0.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23,772)	(202,265)	(21,507)	(223,499)	(202,001)	(21,498)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2023년 12월 말)」, 2024(정정된 자료, 정정일: 2024.12.28.)

장애등급별 구성비(조사결과)를 2018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현황에서의 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1급 3.2%p, 2급 3.7%p, 3급 0.5%p 차이로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등급)의 분포가 유사하게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본추출 모집단에는 장애등급에 대한 정보가 없었음을 감안 하면 본 조사 시 장애정도에 따른 응답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13〉 장애등급별 구성비의 비교

(단위: %, 명)

구 분	본 조사 추정치			등록장애인 현황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전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1급	24.0	22.0	42.7	27.2	25.2	49.4
2급	38.6	38.6	38.6	34.9	35.1	32.4
3급	37.4	39.4	18.8	37.9	39.6	18.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정 수)	(217,673)	(196,481)	(21,192)	(199,215)	(183,133)	(16,082)

주 1) 본 조사 추정치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등록된 경우는 제외하고 산출함

2) 등록장애인 현황의 장애등급 정보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자료(2018년 12월 말)를 사용함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2018년 12월 말)」, 2019

제 2 장 전체 조사 결과

제1절 인적사항 및 장애특성

1. 인적사항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남성은 62.0%, 여성은 38.0%이며, 자폐성장장애인의 남성 비율(86.8%)이 지적장애인(59.4%)보다 높다. 발달장애인의 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15~19세 10.5%, 20~29세 27.5%, 30~49세 36.9%, 50세 이상 25.1%로 평균 연령은 37.9세이다. 29세 이하 비중 지적장애인은 34.4%인데 반해 자폐성장장애인은 72.3%로 차이를 보였다. 그에 따라 평균 연령도 지적장애인은 39.2세이며, 자폐성장장애인은 25.5세로 추정되었다.

〈표 2-1-1〉 발달장애인의 성별, 연령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성별	남성	138,787	62.0	120,129	59.4	18,658	86.8
	여성	84,985	38.0	82,136	40.6	2,849	13.2
연령	15~19세	23,460	10.5	18,198	9.0	5,262	24.5
	20~29세	61,579	27.5	51,296	25.4	10,283	47.8
	30~49세	82,493	36.9	76,635	37.9	5,858	27.2
	50세 이상	56,240	25.1	56,136	27.8	104	0.5
	평균 연령		37.9세		39.2세		25.5세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발달장애인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이 82.1%로 많고, 결혼/동거로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10.1%, 이혼/사별/별거로 사실혼의 경험은 있지만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7.7%로 나타났다. 미혼 비율은 자폐성장장애인이 99.6%이며, 지적장애인은 80.3%이다.

현재 거주지역은 서울 13.1%, 경기 21.6%, 광역시도 23.9%, 기타시도 41.4%이며, 자폐성장장애인이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2-1-2〉 발달장애인의 혼인상태, 지역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혼인상태	미혼	183,825	82.1	162,396	80.3	21,429	99.6
	결혼/동거	22,695	10.1	22,658	11.2	37	0.2
	이혼/사별/별거	17,252	7.7	17,212	8.5	40	0.2
지역	서울	29,419	13.1	24,859	12.3	4,560	21.2
	경기	48,366	21.6	42,518	21.0	5,848	27.2
	광역시도	53,391	23.9	48,168	23.8	5,223	24.3
	기타시도	92,596	41.4	86,720	42.9	5,876	27.3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주: "지역"에서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함

2. 장애정보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223,772명 중 지적장애인은 202,265명으로 90.4%를 차지하고 있고, 자폐성장애인은 21,507명으로 9.6%의 비율이다.

〈표 2-1-3〉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지적장애	202,265	90.4
자폐성장애	21,507	9.6
전 체	223,772	100.0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응답받은 결과, 1급 23.4%, 2급 37.5%, 3급 36.4%이며, 1급 비중은 지적장애인이 21.4%인데 반해 자폐성장애인은 42.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3급 비중은 지적장애인이 38.3%로 자폐성장애인(18.5%)보다 많다.

〈표 2-1-4〉 발달장애인의 장애등급(2019년 6월 기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1급	52,340	23.4	43,296	21.4	9,045	42.1
2급	83,986	37.5	75,814	37.5	8,172	38.0
3급	81,346	36.4	77,371	38.3	3,975	18.5
2019년 7월 이후 등록	6,100	2.7	5,785	2.9	315	1.5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주: 장애등급제는 폐지됐지만 통계적 활용을 위한 질문임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함

주된 장애 이외에 중복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발달장애인의 9.3%인 20,771명이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9.8%, 자폐성장애인 4.6%로 추정되었다.

〈표 2-1-5〉 발달장애인의 중복장애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중복장애 있음	20,771	9.3	19,792	9.8	979	4.6
중복장애 없음	203,001	90.7	182,473	90.2	20,528	95.4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유형을 응답받은 결과, 뇌병변장애가 2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체장애(20.1%), 뇌전증장애(17.3%), 청각장애(9.8%), 정신장애(8.7%) 등의 순이다.

〈표 2-1-6〉 중복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중복장애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지체장애	4,184	20.1
뇌병변장애	4,836	23.3
시각장애	1,396	6.7
청각장애	2,028	9.8
언어장애	1,467	7.1
지적장애	374	1.8
정신장애	1,815	8.7
뇌전증장애	3,590	17.3
기타장애	1,081	5.2
전 체	20,771	100.0

주: “중복장애 유무”에서 중복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보호자나 가족이 발달장애 여부를 처음으로 의심한 시기는 만 0세(태어나서 돌까지) 7.8%, 1세 14.8%, 2세 11.2%, 3세 12.9%, 4~5세 17.0%, 6~8세 13.4%, 9~11세 5.7%, 12~14세 4.2%, 15~18세 3.2%, 19세 이후 8.0%이며, 평균 연령은 6.8세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인 만 5세 이하에서 발달장애 여부를 의심한 경우는 63.8%이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60.9%, 자폐성장애인 90.7%이다.

장애를 등록한 시기는 0~5세 15.9%, 6~11세 28.3%, 12~18세 20.7%, 19~29세 14.4%, 30~39세 9.5%, 40세 이후 10.6%이며, 자폐성장애인이 저연령에서 등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를 처음 의심하여 등록하기까지 평균 10.7년(세)이 소요된 가운데, 해당 기간은 지적장애인은 11.4년(세), 자폐성장애인은 4.6년(세)으로 추정되었다.

〈표 2-1-7〉 발달장애 의심 및 장애 등록 시기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장애 의심 시기	0세	17,545	7.8	16,703	8.3	842	3.9
	1세	33,225	14.8	29,277	14.5	3,948	18.4
	2세	25,160	11.2	20,184	10.0	4,976	23.1
	3세	28,859	12.9	23,762	11.7	5,097	23.7
	4~5세	37,958	17.0	33,319	16.5	4,639	21.6
	6~8세	30,087	13.4	28,828	14.3	1,259	5.9
	9~11세	12,717	5.7	12,540	6.2	177	0.8
	12~14세	9,503	4.2	9,152	4.5	351	1.6
	15~18세	7,119	3.2	7,031	3.5	88	0.4
	19세 이후	17,896	8.0	17,790	8.8	106	0.5
	모름/응답거절	3,704	1.7	3,680	1.8	24	0.1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균 연령		6.8세		7.2세		3.2세	
응답 추정 수	220,068		198,585		21,483		
장애 등록 시기	0~5세	35,671	15.9	27,679	13.7	7,992	37.2
	6~11세	63,322	28.3	53,623	26.5	9,699	45.1
	12~18세	46,239	20.7	43,482	21.5	2,757	12.8
	19~29세	32,241	14.4	31,330	15.5	911	4.2
	30~39세	21,230	9.5	21,125	10.4	106	0.5
	40세 이후	23,637	10.6	23,595	11.7	42	0.2
	모름/응답거절	1,432	0.6	1,432	0.7	0	0.0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균 연령		17.6세		18.6세		7.8세	
응답 추정 수	222,340		200,833		21,507		

주: 평균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3. 장애 특성

가. 의사소통 수준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과 관련해서 '두 문장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함' 52.1%,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28.1%, '단어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12.7%, '다른 사람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함' 7.1%로 나타났다. 간단한 문장 수준 이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80.2%이며, 지적장애인은 81.3%, 자폐성장장애인은 70.3%이다.

〈표 2-1-8〉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두 문장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함	116,582	52.1	108,155	53.5	8,426	39.2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62,917	28.1	56,234	27.8	6,684	31.1
단어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28,492	12.7	24,188	12.0	4,304	20.0
다른 사람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함	15,781	7.1	13,688	6.8	2,093	9.7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함' 56.2%,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21.4%, '불명료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10.7%,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함' 7.4%, '소리 등으로도 전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음' 4.3%로 나타났다.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77.7%이며, 지적장애인은 78.9%, 자폐성장장애인은 66.1%이다. 말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 역시 자폐성장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9〉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함	125,826	56.2	116,712	57.7	9,114	42.4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47,943	21.4	42,849	21.2	5,094	23.7
불명료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23,963	10.7	20,699	10.2	3,264	15.2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함	16,506	7.4	13,873	6.9	2,633	12.2
소리 등으로도 전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음	9,534	4.3	8,132	4.0	1,402	6.5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상대방의 제스처나 표정, 억양 등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음' 37.3%,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46.9%, '이해할 수 없음' 15.8%로 나타났다.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제한적으로 이해 포함)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84.2%이며, 지적장애인은 84.8%, 자폐성장장애인은 78.7%이다.

〈표 2-1-10〉 비언어적 표현 이해 수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이해할 수 있음	83,486	37.3	77,610	38.4	5,876	27.3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104,874	46.9	93,815	46.4	11,059	51.4
이해할 수 없음	35,412	15.8	30,841	15.2	4,571	21.3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의사소통 시 제스처나 표정, 억양 등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 '활용할 수 있음' 33.4%,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47.0%, '활용할 수 없음' 19.7%로 나타났다.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제한적으로 활용 포함)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80.3%이며, 지적장애인은 81.1%, 자폐성장장애인은 72.5%이다.

〈표 2-1-11〉 비언어적 표현 활용 수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활용할 수 있음	74,654	33.4	69,721	34.5	4,933	22.9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105,074	47.0	94,410	46.7	10,664	49.6
활용할 수 없음	44,044	19.7	38,134	18.9	5,910	27.5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나. 인지능력 수준

〈표 2-1-12〉 인지능력 수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문자에 대한 인지 - 한글 읽기	불가능하다	66,072	29.5	60,829	30.1	5,243	24.4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60,551	27.1	55,854	27.6	4,697	21.8
	가능하다	96,911	43.3	85,344	42.2	11,567	53.8
	모름/응답거절	238	0.1	238	0.1	0	0.0
문자에 대한 인지 - 한글 쓰기	불가능하다	68,767	30.7	63,351	31.3	5,416	25.2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66,789	29.8	61,430	30.4	5,359	24.9
	가능하다	87,876	39.3	77,144	38.1	10,732	49.9
	모름/응답거절	340	0.2	340	0.2	0	0.0
숫자에 대한 인지 (수 개념)	불가능하다	76,439	34.2	69,927	34.6	6,513	30.3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75,404	33.7	68,698	34.0	6,705	31.2
	가능하다	71,589	32.0	63,300	31.3	8,289	38.5
	모름/응답거절	340	0.2	340	0.2	0	0.0
날짜, 요일에 대한 인지	불가능하다	73,897	33.0	66,694	33.0	7,202	33.5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62,201	27.8	56,962	28.2	5,239	24.4
	가능하다	87,334	39.0	78,269	38.7	9,065	42.2
	모름/응답거절	340	0.2	340	0.2	0	0.0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표 2-1-12〉 인지능력 수준(계속)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위치, 장소에 대한 인지	불가능하다	59,003	26.4	52,619	26.0	6,385	29.7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76,012	34.0	69,164	34.2	6,848	31.8
	가능하다	88,389	39.5	80,142	39.6	8,247	38.3
	모름/응답거절	368	0.2	340	0.2	28	0.1
주위 사람에 대한 인지	불가능하다	46,905	21.0	41,532	20.5	5,373	25.0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82,432	36.8	74,258	36.7	8,174	38.0
	가능하다	93,986	42.0	86,053	42.5	7,932	36.9
	모름/응답거절	449	0.2	422	0.2	28	0.1
상황에 대한 인지	불가능하다	59,458	26.6	52,524	26.0	6,933	32.2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80,237	35.9	71,979	35.6	8,258	38.4
	가능하다	83,680	37.4	77,413	38.3	6,267	29.1
	모름/응답거절	398	0.2	349	0.2	49	0.2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문자(한글)에 대한 인지능력 수준과 관련해서 한글 읽기가 가능한 비율은 제한적으로 가능한 수준을 포함하여 70.4%, 한글 쓰기가 가능한 비율은 69.1%이다.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가능한 수준을 포함하면 숫자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비율은 65.7%, 날짜, 요일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비율은 66.8%, 위치, 장소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비율은 73.5%, 주위 사람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비율은 78.8%, 안전, 위생 등 상황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비율은 73.3%로 나타났다.

한글 읽기와 한글 쓰기를 포함한 문자, 숫자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비율(제한적으로 가능 포함)은 자폐성장애인이 다소 높으나, 날짜, 요일, 위치, 장소, 주위 사람, 상황 등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비율(제한적으로 가능 포함)은 지적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 도전적 행동 수준

〈표 2-1-13〉 도전적 행동의 발생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자신을 해치는 행동	전혀 안함	175,032	78.2	164,050	81.1	10,983	51.1
	가끔 함	40,583	18.1	32,264	16.0	8,319	38.7
	자주 함	8,025	3.6	5,819	2.9	2,206	10.3
	모름/응답거절	133	0.1	133	0.1	0	0.0
타인을 해치는 행동	전혀 안함	192,357	86.0	177,750	87.9	14,606	67.9
	가끔 함	27,401	12.2	21,561	10.7	5,840	27.2
	자주 함	3,882	1.7	2,821	1.4	1,061	4.9
	모름/응답거절	133	0.1	133	0.1	0	0.0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	전혀 안함	185,003	82.7	170,710	84.4	14,294	66.5
	가끔 함	34,243	15.3	28,200	13.9	6,043	28.1
	자주 함	4,393	2.0	3,222	1.6	1,171	5.4
	모름/응답거절	133	0.1	133	0.1	0	0.0
방해하는 행동	전혀 안함	184,737	82.6	170,940	84.5	13,798	64.2
	가끔 함	33,735	15.1	27,259	13.5	6,477	30.1
	자주 함	5,013	2.2	3,780	1.9	1,233	5.7
	모름/응답거절	287	0.1	287	0.1	0	0.0
특이한 반복적인 습관	전혀 안함	164,235	73.4	155,658	77.0	8,577	39.9
	가끔 함	45,702	20.4	37,382	18.5	8,320	38.7
	자주 함	13,383	6.0	8,864	4.4	4,520	21.0
	모름/응답거절	452	0.2	361	0.2	90	0.4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전혀 안함	183,489	82.0	169,775	83.9	13,714	63.8
	가끔 함	34,231	15.3	27,955	13.8	6,276	29.2
	자주 함	5,754	2.6	4,248	2.1	1,506	7.0
	모름/응답거절	298	0.1	287	0.1	11	0.1
위촉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	전혀 안함	168,779	75.4	156,383	77.3	12,396	57.6
	가끔 함	47,748	21.3	40,080	19.8	7,669	35.7
	자주 함	6,834	3.1	5,415	2.7	1,419	6.6
	모름/응답거절	410	0.2	387	0.2	23	0.1
비협조적인 행동	전혀 안함	169,848	75.9	157,340	77.8	12,508	58.2
	가끔 함	45,099	20.2	37,737	18.7	7,363	34.2
	자주 함	8,515	3.8	6,902	3.4	1,613	7.5
	모름/응답거절	310	0.1	287	0.1	23	0.1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주: 도전적 행동 사례

- ① 자신을 해치는 행동: 자신을 때리기, 머리 부딪치기, 할퀴기, 베거나 찌르기, 물어뜯기, 피부 문지르기, 머리카락 뽑기, 피부 뜯기, 손톱 물어뜯기, 자신을 꼬집기, 음식 거부 등
- ② 타인을 해치는 행동: 때리기, 발로 차기, 물기, 꼬집기, 할퀴기, 머리카락 뽑기, 물건으로 때리기 등
- ③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 때리기, 찢기, 자르기, 집어 던지기, 태우기, 흠집내기, 할퀴기 등
- ④ 방해하는 행동: 귀찮게 매달리기,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기, 시비 걸거나 불평하기, 싸움 걸기, 이유 없이 웃거나 울기, 방해하기, 고함치거나 악쓰기 등
- ⑤ 특이한 반복적인 습관: 서성이기, 흔들거리기, 손가락 흔들기, 손이나 물건 빨기, 경련과 같은 움직임 (틱), 반향어, 혼자 중얼거리기, 이빨 갈기, 더러운 것이나 물건 삼키기, 지나친 과식이나 소식, 물건이나 허공 응시하기, 기이한 표정, 소리지르기 등
- ⑥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큰소리로 말하기, 욕이나 저속한 말하기, 거짓말하기, 타인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하거나 만지는 행동, 위협하기, 허튼 소리하기, 타인에게 침 뱉기, 코 후비기, 트림, 방귀, 성기 만지기, 부적절한 곳에서 소변보기 등
- ⑦ 위축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특이한 공포감 표현, 활동에 대한 관심의 결여, 슬픔이나 근심스러운 표정, 과제에 대한 집중력 결여, 너무 많이 잠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기 등
- ⑧ 비협조적인 행동: 복종에 거부, 집안일을 하지 않음, 규칙에 따르지 않음, 반항적이거나 빠지는 행동, 등교나 출근 거부, 학교나 직장에 지각하기, 차례 지키지 않거나 공유해야 하는 것의 거부, 속이기, 훔치기, 법의 위반 등

발달장애인이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하는 비율은 21.7%, ‘타인을 해치는 행동’은 14.0%,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은 17.3%, ‘방해하는 행동’은 17.3%, ‘특이한 반복적인 습관’은 26.4%,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은 17.9%, ‘위축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은 24.4%, ‘비협조적인 행동’은 24.0%이다.

개별 도전적 행동 발생 정도는 자폐성장애인의 비율이 지적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3점 척도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발생 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특이한 반복적인 습관’이 1.32점으로 가장 높고, ‘비협조적인 행동’ 1.28점, ‘위축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 1.27점 등의 순이다.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특이한 반복적인 습관’이 1.8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14〉 도전적 행동의 발생 정도 평균

(단위: 3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자신을 해치는 행동	1.25	223,639	1.22	202,132	1.59	21,507
타인을 해치는 행동	1.16	223,639	1.13	202,132	1.37	21,507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	1.19	223,639	1.17	202,132	1.39	21,507
방해하는 행동	1.20	223,485	1.17	201,978	1.42	21,507
특이한 반복적인 습관	1.32	223,320	1.27	201,904	1.81	21,417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1.20	223,474	1.18	201,978	1.43	21,496
위축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	1.27	223,362	1.25	201,878	1.49	21,484
비협조적인 행동	1.28	223,462	1.26	201,978	1.49	21,484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라. 현재 장애상태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현재 장애상태를 보호자에게 응답받은 결과, 특별히 개선되거나 악화되지 않는 경우가 69.3%이고, '점점 개선되고 있음' 17.8%, '점점 악화되고 있음' 12.9%로 나타났다. 자폐성장애인은 개선되고 있는 비율이 26.4%로 지적장애인(16.9%)보다 높았다.

〈표 2-1-15〉 현재 장애상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점점 개선되고 있음	39,813	17.8	34,134	16.9	5,679	26.4
특별히 개선되거나 악화되지 않음	155,028	69.3	141,448	69.9	13,579	63.1
점점 악화하고 있음	28,843	12.9	26,594	13.1	2,249	10.5
모름/응답거절	88	0.0	88	0.0	0	0.0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4. 일상생활 수행능력

상당한 도움 이상이 필요한 비율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옷 갈아입기' 16.4%, '세수나 양치, 머리 감기' 18.4%, '목욕하기' 23.1%, '차려놓으면 식사하기' 14.6%, '걷기' 12.6%, '배변 및 배뇨' 15.5%이다. 해당 비율은 모든 항목에서 자폐성장장애인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16〉 일상생활 수행능력

(단위: 명, %)

구분	구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옷 갈아입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21,385	9.6	18,843	9.3	2,542	11.8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15,355	6.9	12,639	6.2	2,716	12.6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42,585	19.0	37,261	18.4	5,324	24.8
	도움 없이 혼자할 수 있다	144,447	64.6	133,522	66.0	10,925	50.8
세수나 양치, 머리 감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24,843	11.1	21,723	10.7	3,120	14.5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16,405	7.3	13,287	6.6	3,117	14.5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41,529	18.6	36,252	17.9	5,277	24.5
	도움 없이 혼자할 수 있다	140,996	63.0	131,003	64.8	9,993	46.5
목욕하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28,873	12.9	25,052	12.4	3,821	17.8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22,913	10.2	19,293	9.5	3,620	16.8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42,701	19.1	37,581	18.6	5,120	23.8
	도움 없이 혼자할 수 있다	129,285	57.8	120,339	59.5	8,946	41.6
차려놓으면 식사하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20,633	9.2	18,066	8.9	2,567	11.9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12,030	5.4	10,148	5.0	1,881	8.7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30,407	13.6	26,522	13.1	3,885	18.1
	도움 없이 혼자할 수 있다	160,516	71.7	147,393	72.9	13,123	61.0
	모름/응답거절	187	0.1	136	0.1	51	0.2
걷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17,861	8.0	16,036	7.9	1,825	8.5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10,391	4.6	9,089	4.5	1,303	6.1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22,108	9.9	19,787	9.8	2,321	10.8
	도움 없이 혼자할 수 있다	173,092	77.4	157,104	77.7	15,988	74.3
	모름/응답거절	319	0.1	249	0.1	71	0.3
배변 및 배뇨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21,069	9.4	18,613	9.2	2,456	11.4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13,511	6.0	11,146	5.5	2,365	11.0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34,626	15.5	30,059	14.9	4,567	21.2
	도움 없이 혼자할 수 있다	154,543	69.1	142,447	70.4	12,096	56.2
	모름/응답거절	23	0.0	0	0.0	23	0.1
전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균 점수는 4점 척도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걷기’, ‘차려놓으면 식사하기’, ‘배변 및 배뇨’에 비해 ‘목욕하기’, ‘세수나 양치, 머리 감기’, ‘옷 갈아입기’가 도움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7〉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평균 점수

(단위: 4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옷 갈아입기	3.39	223,772	3.41	202,265	3.15	21,507
세수나 양치, 머리 감기	3.33	223,772	3.37	202,265	3.03	21,507
목욕하기	3.22	223,772	3.25	202,265	2.89	21,507
차려놓으면 식사하기	3.48	223,585	3.50	202,129	3.28	21,456
걷기	3.57	223,453	3.57	202,016	3.51	21,436
배변 및 배뇨	3.44	223,749	3.47	202,265	3.22	21,484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관련하여 상당한 도움 이상이 필요한 비율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머리 빗기, 손·발톱 깎기, 화장(여자) 또는 면도(남자)’ 27.7%, ‘청소하기’ 38.0%, ‘식사 준비하기’ 47.9%, ‘빨래하기’ 49.2%, ‘가까운 곳 외출하기’ 36.3%,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44.7%, ‘물건 구입하기’ 45.1%, ‘돈 관리하기’ 55.5%, ‘전화 사용하기’ 38.1%, ‘약 챙겨먹기’ 36.5%이다. 해당 비율은 모든 항목에서 자폐성장애인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18〉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머리 빗기, 손 발톱 깎기, 화장(여자) 또는 면도(남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34,295	15.3	29,334	14.5	4,961	23.1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27,706	12.4	24,074	11.9	3,632	16.9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54,064	24.2	48,189	23.8	5,875	27.3
	도움 없이 혼자할 수 있다	107,707	48.1	100,668	49.8	7,039	32.7
청소하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48,853	21.8	42,003	20.8	6,850	31.9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36,117	16.1	31,788	15.7	4,329	20.1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58,565	26.2	53,125	26.3	5,439	25.3
	도움 없이 혼자할 수 있다	79,133	35.4	74,393	36.8	4,740	22.0
	모름/응답거절	1,104	0.5	955	0.5	148	0.7
식사 준비하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65,064	29.1	56,346	27.9	8,718	40.5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42,029	18.8	37,095	18.3	4,934	22.9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52,409	23.4	48,336	23.9	4,073	18.9
	도움 없이 혼자할 수 있다	63,260	28.3	59,646	29.5	3,614	16.8
	모름/응답거절	1,009	0.5	841	0.4	168	0.8
빨래하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67,518	30.2	57,955	28.7	9,563	44.5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42,562	19.0	37,541	18.6	5,021	23.3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45,465	20.3	42,121	20.8	3,344	15.5
	도움 없이 혼자할 수 있다	66,418	29.7	63,089	31.2	3,329	15.5
	모름/응답거절	1,810	0.8	1,559	0.8	252	1.2
가까운 곳 외출하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49,316	22.0	41,773	20.7	7,543	35.1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31,846	14.2	27,786	13.7	4,059	18.9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47,442	21.2	43,975	21.7	3,467	16.1
	도움 없이 혼자할 수 있다	94,901	42.4	88,478	43.7	6,423	29.9
	모름/응답거절	267	0.1	253	0.1	14	0.1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63,002	28.2	54,078	26.7	8,925	41.5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37,053	16.6	33,484	16.6	3,569	16.6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42,734	19.1	39,648	19.6	3,086	14.3
	도움 없이 혼자할 수 있다	80,514	36.0	74,631	36.9	5,884	27.4
	모름/응답거절	468	0.2	424	0.2	44	0.2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표 2-1-18〉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계속)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물건 구입하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61,668	27.6	52,904	26.2	8,763	40.7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39,230	17.5	35,304	17.5	3,926	18.3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47,759	21.3	44,309	21.9	3,450	16.0
	도움 없이 혼자할 수 있다	74,947	33.5	69,594	34.4	5,354	24.9
	모름/응답거절	168	0.1	154	0.1	14	0.1
돈 관리하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79,477	35.5	68,708	34.0	10,769	50.1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44,805	20.0	40,632	20.1	4,174	19.4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50,344	22.5	46,996	23.2	3,349	15.6
	도움 없이 혼자할 수 있다	48,972	21.9	45,775	22.6	3,196	14.9
	모름/응답거절	173	0.1	154	0.1	19	0.1
전화 사용하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50,903	22.7	43,116	21.3	7,787	36.2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34,285	15.3	30,735	15.2	3,551	16.5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43,384	19.4	39,770	19.7	3,613	16.8
	도움 없이 혼자할 수 있다	94,684	42.3	88,165	43.6	6,519	30.3
	모름/응답거절	516	0.2	478	0.2	38	0.2
약 챙겨먹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45,919	20.5	38,636	19.1	7,283	33.9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35,772	16.0	31,592	15.6	4,180	19.4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52,647	23.5	48,663	24.1	3,984	18.5
	도움 없이 혼자할 수 있다	88,100	39.4	82,160	40.6	5,940	27.6
	모름/응답거절	1,334	0.6	1,214	0.6	120	0.6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균 점수는 4점 척도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선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개별 평균 점수들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개별 평균 점수들보다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돈 관리하기’, ‘빨래하기’, ‘식사 준비하기’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9〉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평균 점수

(단위: 4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머리 빗기, 손·발톱 깎기, 화장(여자) 또는 면도(남자)	3.05	223,772	3.09	202,265	2.70	21,507
청소하기	2.75	222,668	2.79	201,310	2.38	21,359
식사 준비하기	2.51	222,763	2.55	201,424	2.12	21,339
빨래하기	2.50	221,962	2.55	200,706	2.02	21,255
가까운 곳 외출하기	2.84	223,505	2.89	202,012	2.41	21,493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2.63	223,304	2.67	201,841	2.28	21,463
물건 구입하기	2.61	223,604	2.65	202,111	2.25	21,493
돈 관리하기	2.31	223,599	2.35	202,111	1.95	21,488
전화 사용하기	2.81	223,256	2.86	201,787	2.41	21,469
약 챙겨먹기	2.82	222,438	2.87	201,051	2.40	21,387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제2절 교육

1. 최종학력 및 학교 경험

가. 최종학력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최종학력은 ‘무학’ 13.6%, ‘초등학교 졸업’ 11.6%, ‘중학교 졸업’ 13.9%, ‘고등학교 졸업’ 55.2%, ‘대학교 이상 졸업’ 5.7%로 나타났다.

자폐성장장애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77.0%로 높다.

〈표 2-2-1〉 최종학력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무학	30,411	13.6	30,282	15.0	129	0.6
초등학교 졸업	25,890	11.6	24,727	12.2	1,163	5.4
중학교 졸업	31,161	13.9	27,501	13.6	3,660	17.0
고등학교 졸업	123,527	55.2	108,785	53.8	14,742	68.5
대학교 이상 졸업	12,782	5.7	10,969	5.4	1,813	8.4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주 1) 재학/휴학/수료 등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판별

2) 대학교 이상 졸업에는 4년제 미만 대학(교) 포함

나. 다닌 학교 유형 및 경험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학교의 유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이 5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27.4%, 특수학교 19.3% 순이다. 중학교 역시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이 39.1%로 가장 많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32.1%, 특수학교 28.6%이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 34.6%로 가장 많고, 특수학교 34.1%,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31.1% 순이다. 일반학급을 다니는 비율은 초, 중, 고에 걸쳐 점차 줄어들고, 특수학교 비율은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 중학교의 경우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자폐성장장애인은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비율이 높다.

〈표 2-2-2〉 재학 경험이 있는 학교의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초등학교	특수학교	40,421	19.3	33,381	17.8	7,040	32.8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57,176	27.4	47,982	25.6	9,195	42.9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111,296	53.2	106,178	56.6	5,119	23.9
	대안학교 등 기타	151	0.1	70	0.0	81	0.4
	소 계	209,045	100.0	187,611	100.0	21,434	100.0
중학교	특수학교	50,875	28.6	40,944	26.2	9,931	46.6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57,044	32.1	49,139	31.4	7,905	37.1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69,553	39.1	66,268	42.3	3,285	15.4
	대안학교 등 기타	404	0.2	214	0.1	190	0.9
	소 계	177,876	100.0	156,564	100.0	21,312	100.0
고등학교	특수학교	52,520	34.1	41,891	31.3	10,629	53.1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53,347	34.6	46,901	35.0	6,446	32.2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47,937	31.1	45,114	33.7	2,823	14.1
	대안학교 등 기타	187	0.1	58	0.0	130	0.6
	소 계	153,992	100.0	133,964	100.0	20,028	100.0

주: 초/중/고등학교별로 재학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고등학교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경우 초/중/고등학교 유형별로 이행 과정을 살펴보면,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계속 다닌 경우가 53.6%,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에서 계속 다닌 경우는 29.2%로 나타났다. 9.4%는 초등학교는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이었으나 중학교부터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으로 이동하여 고등학교까지 이수하였다. 5.5%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을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으로 이동하였다. 자폐성장애인의 74.0%는 초/중/고 모두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재학하였으나 지적장애인은 초/중/고 모두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을 다닌 경우가 31.7%로 나타났다.

〈표 2-2-3〉 학교 이행 과정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초)특수학교/학급→(중)특수학교/학급→(고)특수학교/학급	82,481	53.6	67,665	50.5	14,816	74.0
(초)특수학교/학급→(중)특수학교/학급→(고)일반학급	1,153	0.7	1,061	0.8	92	0.5
(초)특수학교/학급→(중)일반학급→(고)특수학교/학급	320	0.2	257	0.2	63	0.3
(초)특수학교/학급→(중)일반학급→(고)일반학급	1,189	0.8	1,070	0.8	120	0.6
(초)일반학급→(중)특수학교/학급→(고)특수학교/학급	14,441	9.4	12,762	9.5	1,679	8.4
(초)일반학급→(중)특수학교/학급→(고)일반학급	619	0.4	537	0.4	82	0.4
(초)일반학급→(중)일반학급→(고)특수학교/학급	8,459	5.5	7,988	6.0	471	2.4
(초)일반학급→(중)일반학급→(고)일반학급	44,955	29.2	42,446	31.7	2,508	12.5
기타	376	0.2	178	0.1	198	1.0
전 체	153,992	100.0	133,964	100.0	20,028	100.0

- 주 1) 고등학교 이상을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
 2)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은 동일 범주로 분석하였으며, 한 번이라도 '대안학교 등 기타'로 간 경우는 '기타'에 포함
 3) 응답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현재 재학/휴학(유예) 제외), 학교 교육의 도움 정도를 보호자에게 응답받은 결과, 54.8%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비율은 자폐성장애인 보호자가 63.6%로 높았고, 평균 점수(5점 척도)도 3.65점으로 지적장애인 보호자(3.47점)보다 높았다.

〈표 2-2-4〉 학교 교육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미친 도움 정도(졸업/중퇴)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7,464	3.9	6,869	4.0	595	3.5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23,229	12.2	21,780	12.5	1,450	8.4
그저 그랬다	55,028	28.8	50,822	29.3	4,206	24.5
도움이 된 편이다	77,924	40.8	69,840	40.2	8,084	47.1
큰 도움이 되었다	26,624	14.0	23,799	13.7	2,825	16.5
모름/응답거절	509	0.3	509	0.3	0	0.0
전 체	190,778	100.0	173,620	100.0	17,158	100.0
평 균		3.49		3.47		3.65
응답 추정 수		190,269		173,110		17,158

- 주 1) 최종학력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하거나 대학교 이상인 경우에 질문함
 2) 평균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재학생(휴학/유예 포함)의 학교생활 및 진로·직업교육

가. 재학생(휴학/유예 포함)의 학교생활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유예 포함)은 22,117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62.1%는 고등학교, 19.8%는 중학교, 17.4%는 대학교 이상에 재학/휴학(유예)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현재 재학/휴학(유예) 중인 학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초등학교	161	0.7	122	0.7	39	0.8
중학교	4,382	19.8	3,426	19.9	956	19.6
고등학교	13,724	62.1	10,444	60.6	3,280	67.3
대학교 이상	3,850	17.4	3,253	18.9	597	12.3
전 체	22,117	100.0	17,244	100.0	4,873	100.0

주: 현재 초/중/고/대학교 이상 재학/휴학(유예) 중인 경우에 질문함

보호자의 60.6%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비율은 자폐성장애인 보호자가 58.0%로 지적장애인 보호자(61.4%)보다 낮았다.

〈표 2-2-6〉 학교생활 적응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	373	2.0	311	2.2	62	1.5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1,337	7.3	937	6.7	399	9.3
그저 그렇다	5,489	30.0	4,155	29.7	1,334	31.2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7,789	42.6	5,988	42.8	1,801	42.1
잘 적응하고 있다	3,279	18.0	2,599	18.6	680	15.9
전 체	18,267	100.0	13,991	100.0	4,276	100.0
평 균		3.67		3.69		3.62
응답 추정 수	18,267		13,991		4,276	

주: 현재 초/중/고 재학/휴학(유예) 중인 경우에 질문함

현재 학교 교육의 도움 정도를 보호자에게 응답받은 결과,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0.0%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보호자가 70.3%, 자폐성장애인 보호자가 69.1%이다.

〈표 2-2-7〉 학교 교육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미치는 도움 정도(재학/휴학)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58	2.5	409	2.9	50	1.2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908	5.0	649	4.6	259	6.1
그저 그렇다	4,109	22.5	3,096	22.1	1,012	23.7
도움이 되는 편이다	8,956	49.0	6,784	48.5	2,172	50.8
큰 도움이 된다	3,836	21.0	3,053	21.8	783	18.3
전 체	18,267	100.0	13,991	100.0	4,276	100.0
평 균		3.81		3.82		3.79
응답 추정 수	18,267		13,991		4,276	

주: 현재 초/중/고 재학/휴학(유예) 중인 경우에 질문함

〈표 2-2-8〉 학교 생활의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심한 장애 또는 장애가 심해져서 학교 생활 힘들어짐	1,673	9.2	1,225	8.8	448	10.5
장애인 당사자가 다니기 싫어함	476	2.6	337	2.4	139	3.2
수업내용이나 수준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적절하지 않음	2,463	13.5	1,819	13.0	644	15.1
학교에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음	177	1.0	71	0.5	106	2.5
발달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 부족	2,518	13.8	1,885	13.5	633	14.8
학교에 보내기가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움	113	0.6	50	0.4	64	1.5
등하교 하기(교통수단 이용 등)가 불편함	1,676	9.2	1,411	10.1	264	6.2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등에 대한 지원(편의제공 등)이 부족	869	4.8	497	3.6	372	8.7
주위의 시선이나 편견, 장애로 인한 따돌림 등	2,179	11.9	1,708	12.2	471	11.0
기타	0	0.0	0	0.0	0	0.0
특별히 없음	6,124	33.5	4,988	35.7	1,136	26.6
전 체	18,267	100.0	13,991	100.0	4,276	100.0

주: 현재 초/중/고 재학/휴학(유예) 중인 경우에 질문함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보호자에게 응답받은 결과, '특별히 없음'이 33.5%로 가장 많았고, '발달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 부족'(13.8%), '수업내용이나 수준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적절하지 않음'(13.5%), '주위의 시선이나 편견, 장애로 인한 따돌림 등'(11.9%), '등학교하기(교통수단 이용 등)가 불편함'(9.2%) 등을 많이 응답하였다.

학교 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지적장애인 보호자와 자폐성장애인 보호자 모두 '발달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 부족'과 '수업내용이나 수준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적절하지 않음'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 재학생(휴학/유예 포함)의 진로·직업교육

현재 또는 향후에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진로·직업교육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37.3%), '진로설계'(16.7%), '직업훈련'(16.5%), '직업탐색'(12.6%), '현장실습 및 지원고용'(6.7%) 등을 응답하였다.

공통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진로설계, 직업훈련, 직업탐색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진로·직업교육(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진로설계	3,043	16.7	2,533	18.1	510	11.9
직업탐색	2,295	12.6	1,749	12.5	546	12.8
직업평가	21	0.1	0	0.0	21	0.5
직업훈련	3,007	16.5	2,466	17.6	541	12.7
현장실습 및 지원고용	1,224	6.7	876	6.3	348	8.1
취업준비훈련	565	3.1	420	3.0	145	3.4
취업지원	868	4.8	686	4.9	182	4.3
취업 후 사후 관리	199	1.1	187	1.3	12	0.3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6,821	37.3	4,871	34.8	1,950	45.6
기타	224	1.2	202	1.4	21	0.5
전 체	18,267	100.0	13,991	100.0	4,276	100.0

주: 현재 초/중/고 재학/휴학(유예) 중인 경우에 질문함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진로·직업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의 장애상태, 특성 등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 및 코칭'(37.1%)이 가장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관련 교육과정 확대'(17.3%), '발달장애인 교육 전문인력 확보'(10.2%), '충분한 진로·직업 상담과 평가'(8.9%)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관련 교육과정 확대'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폐성장애인은 '발달장애인 교육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표 2-2-10〉 진로·직업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충분한 진로·직업 상담과 평가	1,628	8.9	1,375	9.8	252	5.9
개인의 장애상태, 특성 등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 및 코칭	6,773	37.1	4,984	35.6	1,789	41.8
발달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관련 교육과정 확대	3,155	17.3	2,515	18.0	640	15.0
진로·직업교육 시간 확대	808	4.4	635	4.5	174	4.1
발달장애인 교육 전문인력 확보	1,856	10.2	1,133	8.1	723	16.9
기자재, 보조기기, 편의시설 등 지원 필요	828	4.5	789	5.6	38	0.9
현장실습, 인턴 등 일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1,453	8.0	1,088	7.8	365	8.5
장애인 취업알선기관, 사업체 등과의 연계프로그램 확대	1,251	6.8	1,025	7.3	226	5.3
기타	515	2.8	447	3.2	68	1.6
전 체	18,267	100.0	13,991	100.0	4,276	100.0

주: 현재 초/중/고 재학/휴학(유예) 중인 경우에 질문함

다. 재학생(휴학/유예 포함)의 진로계획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해서 '상급학교 진학(전공과 포함)'(46.2%),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음'(21.0%), '취업'(13.3%), '취업 관련 훈련 또는 교육 참여'(9.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취업'으로 응답한 비율은 지적장애인 보호자가 14.4%로 자폐성장애인 보호자(9.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11〉 졸업 이후 진로계획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상급학교 진학(전공과 포함)	8,438	46.2	6,327	45.2	2,111	49.4
취업	2,434	13.3	2,017	14.4	416	9.7
취업 관련 훈련 또는 교육 참여	1,812	9.9	1,470	10.5	342	8.0
취업 이외 훈련 또는 교육 참여	478	2.6	353	2.5	124	2.9
가정 내 생활	698	3.8	443	3.2	255	6.0
보호시설 입소	492	2.7	381	2.7	111	2.6
기타	77	0.4	55	0.4	22	0.5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3,839	21.0	2,945	21.0	894	20.9
전 체	18,267	100.0	13,991	100.0	4,276	100.0

주: 현재 초/중/고 재학/휴학(유예) 중인 경우에 질문함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전공과 진학 의사를 보호자에게 응답받은 결과, 50.4%가 진학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폐성장애인 보호자가 52.0%로 지적장애인(49.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12〉 전공과 진학 의사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진학할 의사가 있음	9,204	50.4	6,982	49.9	2,221	52.0
진학할 의사가 없음	4,177	22.9	3,203	22.9	975	22.8
아직 모르겠음	4,886	26.7	3,806	27.2	1,080	25.3
전 체	18,267	100.0	13,991	100.0	4,276	100.0

주: 현재 초/중/고 재학/휴학(유예) 중인 경우에 질문함

3. 전공과 교육

가. 전공과 경험 및 도움 정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발달장애인 중 23.2%가 전공과를 다닌 적이 있거나 졸업하였으며, 2.6%는 현재 전공과에 재학(휴학) 중으로 나타났다. 전공과 경험이 있는 비율은 자폐성 장애인이 38.1%로 지적장애인(24.1%)보다 높다.

〈표 2-2-13〉 전공과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공과를 다니지 않았음	101,192	74.2	90,944	75.9	10,249	61.9
전공과를 다닌 적이 있거나 졸업하였음	31,629	23.2	26,181	21.9	5,448	32.9
현재 전공과에 재학(휴학) 중임	3,488	2.6	2,629	2.2	859	5.2
전 체	136,309	100.0	119,754	100.0	16,555	100.0

주: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 질문함

전공과 교육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를 보호자에게 응답받은 결과, 50.2%의 보호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21.8%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표 2-2-14〉 전공과 교육이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772	5.6	1,386	5.3	386	7.1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5,136	16.2	4,159	15.9	976	17.9
그저 그렇다	8,842	28.0	7,207	27.5	1,635	30.0
도움이 된 편이다	12,297	38.9	10,529	40.2	1,768	32.4
큰 도움이 되었다	3,583	11.3	2,900	11.1	683	12.5
전 체	31,629	100.0	26,181	100.0	5,448	100.0
평 균		3.34		3.36		3.25
응답 추정 수		31,629		26,181		5,448

주: 전공과를 다닌 적이 있거나 졸업한 경우에 질문함

나. 전공과 교육 방향

전공과에서 더 강화해야 하는 사항으로 전공과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31.4%는 ‘개인의 장애상태 및 특성 등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 및 코칭’을, 22.2%는 ‘특별히 없음’, 11.4%는 ‘발달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관련 교육과정 확대’, 8.8%는 ‘발달장애인 교육 전문인력 확보’로 응답하였다. 지적장애인 보호자와 자폐성장애인 보호자 모두 ‘개인의 장애상태 및 특성 등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 및 코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2-2-15〉 전공과에서 더 강화해야 하는 사항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발달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관련 교육과정 확대	3,999	11.4	3,075	10.7	924	14.7
개인의 장애상태 및 특성 등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 및 코칭	11,030	31.4	8,976	31.2	2,054	32.6
발달장애인 교육 전문인력 확보	3,093	8.8	2,496	8.7	597	9.5
기자재, 보조기기, 편의시설 등 지원 필요	247	0.7	185	0.6	62	1.0
교내 현장실습을 위한 다양한 시설 마련	1,645	4.7	1,365	4.7	280	4.4
현장실습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체 확보	2,673	7.6	2,251	7.8	422	6.7
지역사회 산업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728	2.1	670	2.3	58	0.9
취업 연계 등 장애인 고용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2,661	7.6	2,079	7.2	582	9.2
취업 후 사후관리 강화	1,234	3.5	1,103	3.8	131	2.1
기타	25	0.1	0	0.0	25	0.4
특별히 없음	7,783	22.2	6,611	22.9	1,172	18.6
전 체	35,117	100.0	28,811	100.0	6,307	100.0

주: 현재 전공과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전공과를 다닌 경험이 있거나 전공과를 졸업한 경우에 질문함

4. 학교 이외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중 최근 3년 동안 학교 이외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4.4%이며, 해당 비율은 자폐성장애인이 28.4%로 지적장애인(13.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표 2-2-16〉 최근 3년 학교 이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있음	29,447	14.4	24,554	13.1	4,893	28.4
없음	175,732	85.6	163,404	86.9	12,328	71.6
전 체	205,179	100.0	187,957	100.0	17,222	100.0

주: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질문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43.8%는 '생활기술교육(위생관리, 정리, 안전, 가족 돕기, 성 인식, 교통 이용, 지역사회 이용, 소득과 지출 등)'을, 39.4%는 '문화예술교육(요리, 노래, 영화, 전시회, 스포츠, 여행 등)'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7〉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교육프로그램 종류(중복응답)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생활기술교육	12,898	43.8	10,833	44.1	2,064	42.2
기초문해교육	5,258	17.9	4,498	18.3	760	15.5
학력보완교육	584	2.0	522	2.1	62	1.3
직업능력교육	11,188	38.0	9,360	38.1	1,827	37.3
문화예술교육	11,602	39.4	9,342	38.0	2,261	46.2
인문교양교육	2,904	9.9	2,363	9.6	541	11.1
시민참여교육	1,932	6.6	1,685	6.9	248	5.1
기타	22	0.1	0	0.0	22	0.5
전 체	29,447	-	24,554	-	4,893	-

주 1) "최근 3년 학교 이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에서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2)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4.9%는 향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5.0%는 생활기술교육, 11.6%는 직업능력교육을, 9.8%는 문화예술교육을 희망하였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56.6%로 자폐성장아인(38.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18〉 향후 참여할 의향이 있는 교육프로그램 종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생활기술교육	30,759	15.0	26,797	14.3	3,962	23.0
기초문해교육	9,630	4.7	9,373	5.0	257	1.5
학력보완교육	497	0.2	456	0.2	41	0.2
직업능력교육	23,871	11.6	20,974	11.2	2,897	16.8
문화예술교육	20,172	9.8	17,840	9.5	2,332	13.5
인문교양교육	5,295	2.6	4,469	2.4	826	4.8
시민참여교육	1,833	0.9	1,464	0.8	369	2.1
특별히 없음	112,911	55.0	106,373	56.6	6,537	38.0
모름/응답거절	212	0.1	212	0.1	0	0.0
전 체	205,179	100.0	187,957	100.0	17,222	100.0

주: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질문함

제3절 취업상태 확인

1. 취업 여부

2024년 6월 15일 주간을 기준으로 하여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임금, 비임금의 형태로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68,230명으로 비율은 30.5%이다.

취업 비율은 지적장애인 30.3%, 자폐성장애인 32.6%로 나타났다.

〈표 2-3-1〉 발달장애인의 취업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취업하여 일하고 있음	68,230	30.5	61,217	30.3	7,014	32.6
일하고 있지 않음	155,542	69.5	141,048	69.7	14,493	67.4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주: 취업 여부에 대한 판단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의 기준을 준용함

2. 종사상 지위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94.6%인 64,524명은 임금근로자이며, 2.1%는 자영업자, 3.3%는 무급가족종사자이다.

〈표 2-3-2〉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임금근로자	64,524	94.6	57,753	94.3	6,770	96.5
자영업자	1,427	2.1	1,259	2.1	168	2.4
무급가족종사자	2,279	3.3	2,204	3.6	75	1.1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주: “발달장애인의 취업 여부”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음’을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제4절 취업자 특성

1. 취업자의 인적구성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70.6%, 여성 29.4%이며, 연령별로는 15~29세 47.1%, 30~39세 28.5%, 40~49세 14.5%, 50세 이상 9.9%이다. 최종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 6.8%, 중졸 5.2%, 고졸 이상 87.9%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15.4%, 경기 25.1%, 광역시도 23.6%, 기타시도 35.8%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이 61천명으로 89.7%를 차지하며, 자폐성장장애인은 10.3%이다. 2019년 6월 기준 장애등급은 1급 10.1%, 2급 36.3%, 3급 51.1%이다. 취업자의 인적구성을 만 15세 이상 전체 발달장애인 인구분포와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15~39세, 학력별로는 고졸 이상,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장애등급별로는 2급, 3급의 비중이 실제 발달장애인 인구에서의 비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1〉 취업자의 인적구성

구 분		추정 수	비율	(단위: 명, %) 전체 발달장애인 인구 분포
성별	남성	48,186	70.6	62.0
	여성	20,044	29.4	38.0
연령	15~29세	32,117	47.1	38.0
	30~39세	19,470	28.5	20.7
	40~49세	9,887	14.5	16.1
	50세 이상	6,756	9.9	25.1
학력	초졸 이하	4,671	6.8	25.2
	중졸	3,582	5.2	13.9
	고졸 이상	59,977	87.9	60.9
지역	서울	10,534	15.4	13.1
	경기	17,118	25.1	21.6
	광역시도	16,136	23.6	23.9
	기타시도	24,443	35.8	41.4
장애유형	지적장애	61,217	89.7	90.4
	자폐성장장애	7,014	10.3	9.6
2019년 6월 시점 장애등급	1급	6,890	10.1	23.4
	2급	24,739	36.3	37.5
	3급	34,852	51.1	36.4
2019년 7월 이후 등록		1,749	2.6	2.7
전 체		68,230	100.0	100.0

주: “지역”에서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함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인적구성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의 취업자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장애유형의 만 15세 이상 인구구성 분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4-2〉 취업자의 인적구성 -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 분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성별	남성	41,855	68.4	6,330	90.3
	여성	19,361	31.6	683	9.7
연령	15~29세	27,387	44.7	4,730	67.4
	30~39세	17,331	28.3	2,139	30.5
	40~49세	9,765	16.0	122	1.7
	50세 이상	6,734	11.0	22	0.3
학력	초졸 이하	4,654	7.6	17	0.2
	중졸	3,561	5.8	21	0.3
	고졸 이상	53,002	86.6	6,975	99.5
지역	서울	8,558	14.0	1,976	28.2
	경기	15,187	24.8	1,931	27.5
	광역시도	14,499	23.7	1,637	23.3
	기타시도	22,973	37.5	1,470	21.0
2019년 6월 시점 장애등급	1급	4,843	7.9	2,047	29.2
	2급	22,040	36.0	2,699	38.5
	3급	32,620	53.3	2,231	31.8
	2019년 7월 이후 등록	1,713	2.8	36	0.5
전 체		61,217	100.0	7,014	100.0

주: “지역”에서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함

2. 취업 동기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는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려고’가 3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생계를 유지하기 위해)’(33.0%),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폐성장장애인 보호자는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려고’(49.8%),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19.5%)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적장애인 보호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생계를 유지하기 위해)’가 35.2%로 높았다.

〈표 2-4-3〉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돈을 벌기 위해서(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22,529	33.0	21,546	35.2	984	14.0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려고	24,599	36.1	21,109	34.5	3,490	49.8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11,630	17.0	10,264	16.8	1,365	19.5
장애인 본인이 일하고 싶어해서	3,408	5.0	3,061	5.0	347	4.9
낮 시간을 보내려고(돌봄의 일환)	5,254	7.7	4,449	7.3	805	11.5
작업기술, 기능 등을 배우려고	469	0.7	446	0.7	23	0.3
기타	341	0.5	341	0.6	0	0.0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부모 및 가족'이 4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 당사자'(28.9%), '복지관, 시설 등 종사자'(10.9%), '학교 교사'(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 보호자는 '장애인 당사자' 응답 비율(30.2%)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폐성장애인 보호자는 '부모 및 가족' 응답 비율(65.6%)이 높다.

〈표 2-4-4〉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장애인 당사자	19,727	28.9	18,493	30.2	1,234	17.6
부모 및 가족	33,628	49.3	29,030	47.4	4,598	65.6
학교 교사	3,169	4.6	2,775	4.5	394	5.6
전문 취업알선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종사자	2,065	3.0	1,889	3.1	176	2.5
복지관, 시설 등 종사자	7,467	10.9	6,974	11.4	493	7.0
친구, 이웃 등 지인	2,175	3.2	2,056	3.4	119	1.7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3. 현재 직장(사업체) 정보

현재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사업체)의 산업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46.3%로 가장 많고, ‘제조업’ 30.2%, ‘도소매, 음식 숙박업’ 14.2% 등의 순으로 많다. 지적장애인은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폐성장애인은 ‘제조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의 비율이 높다.

〈표 2-4-5〉 현재 직장(사업체)의 산업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2,484	3.6	2,453	4.0	31	0.4
제조업	20,608	30.2	18,369	30.0	2,240	31.9
건설업	646	0.9	546	0.9	99	1.4
도소매, 음식 숙박업	9,710	14.2	9,009	14.7	700	10.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31,599	46.3	28,199	46.1	3,400	48.5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3,183	4.7	2,640	4.3	543	7.7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주: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 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현재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사업체)의 유형은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가 40.1%로 가장 많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22.6%),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13.5%) 등의 순으로 많다.

지적장애인은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종사 비율이 자폐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반면에 자폐성장애인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2-4-6〉 현재 직장(사업체)의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15,400	22.6	13,561	22.2	1,839	26.2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9,179	13.5	7,972	13.0	1,208	17.2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	9,130	13.4	8,277	13.5	852	12.2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7,335	40.1	24,814	40.5	2,521	35.9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자리	3,873	5.7	3,382	5.5	490	7.0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3,314	4.9	3,211	5.2	103	1.5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현재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규모(사업장 기준)는 '10~49인'이 43.9%로 가장 많고, '1~4인'(16.1%), '5~9인'(15.9%) 등의 순으로 많다. 지적장애인은 '1~4인'의 비율이 자폐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반면에 자폐성장애인은 '10~49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2-4-7〉 현재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규모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1~4인	10,972	16.1	10,092	16.5	881	12.6
5~9인	10,845	15.9	9,822	16.0	1,023	14.6
10~49인	29,934	43.9	26,418	43.2	3,515	50.1
50~99인	5,800	8.5	5,237	8.6	563	8.0
100인 이상	9,352	13.7	8,556	14.0	796	11.4
모름/응답거절	1,328	1.9	1,092	1.8	236	3.4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현재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사업체)의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발달장애인의 규모는 '5명 이상' 45.7%, '1~4명' 28.9%로 다른 발달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비율이 74.7%이다. 자폐성장애인이 다른 발달장애인과 같이 근무하는 비율(78.5%)이 지적장애인(74.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8〉 현재 직장(사업체)의 다른 발달장애인 규모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있음	50,948	74.7	45,440	74.2	5,508	78.5
1~4명	19,752	28.9	17,776	29.0	1,976	28.2
5명 이상	31,196	45.7	27,664	45.2	3,532	50.4
없음	15,793	23.1	14,413	23.5	1,380	19.7
모름/응답거절	1,490	2.2	1,364	2.2	126	1.8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4. 근속기간 및 취업과정

가. 근속기간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현재 직장(사업체) 근속기간은 '3~10년 미만'이 34.7%로 가장 많고, '1년 미만'(26.5%), '1~3년 미만'(23.3%) 등의 순으로 많다.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1~3년 미만'의 비율이 27.6%로 지적장애인(22.8%)보다 높다.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이며, 지적장애인은 5년 2개월, 자폐성장애인은 4년 1개월이다.

〈표 2-4-9〉 현재 직장(사업체)에서의 근속기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1년 미만	18,065	26.5	16,222	26.5	1,843	26.3
1~3년 미만	15,901	23.3	13,967	22.8	1,934	27.6
3~10년 미만	23,649	34.7	21,160	34.6	2,489	35.5
10년 이상	10,616	15.6	9,868	16.1	748	10.7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평균 근속기간		5년	5년 2개월		4년 1개월	
응답 추정 수	68,230		61,217		7,014	

주: 입사 월에 대해 모름/응답거절인 경우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응답받았으며, 봄은 4월, 여름은 7월 (2024년은 6월로 처리), 가을은 10월, 겨울은 1월로 산정하여 계산함

연령그룹별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근속기간을 비교하면, 15~29세에서는 3개월, 30~49세에서는 10개월의 차이로 15~29세와 30~49세 모두 자폐성장애인의 근속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10〉 현재 직장(사업체)에서의 근속기간 - 연령별, 장애유형별

(단위: 명)

연령	장애유형	평균	응답 추정 수
15~29세	지적장애	2년 5개월	27,387
	자폐성장애	2년 8개월	4,730
	전체	2년 6개월	32,117
30~49세	지적장애	6년 2개월	27,096
	자폐성장애	7년	2,261
	전체	6년 3개월	29,357
50세 이상	전체	11년 11개월	6,756

주 1) 입사 월에 대해 모름/응답거절인 경우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응답받았으며, 봄은 4월, 여름은 7월(2024년은 6월로 처리), 가을은 10월, 겨울은 1월로 산정하여 계산함

2) 50세 이상은 자폐성장애의 표본이 적어서 장애유형별로 제시하지 않음

나. 직장(사업체) 선택 이유 및 취업과정

발달장애인 임금근로자가 현재 직장(사업체) 취업을 선택한 이유로 '업무가 장애인의 능력 수준에 맞아서'가 3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잘되어 있어서'(18.5%), '근로조건이 좋아서(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근로환경 등)'(14.0%), '직장(사업체)에서 채용해줘서(이 일자리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13.8%) 등의 순으로 많다.

지적장애인 보호자는 '업무가 장애인의 능력 수준에 맞아서', '근로조건이 좋아서(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근로환경 등)'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폐성장애인 보호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잘되어 있어서', '직장(사업체)에서 채용해줘서(이 일자리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의 응답 비율이 지적장애인 보호자에 비해 높다.

〈표 2-4-11〉 현재 직장(사업체) 선택 이유(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업무가 장애인의 능력 수준에 맞아서	23,282	36.1	20,928	36.2	2,354	34.8
발달장애인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	5,528	8.6	4,949	8.6	578	8.5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잘되어 있어서	11,918	18.5	10,530	18.2	1,387	20.5
근로조건이 좋아서(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근로환경 등)	9,050	14.0	8,356	14.5	694	10.3
출퇴근이 가깝거나 용이해서	2,450	3.8	2,229	3.9	221	3.3
평소 장애인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이라서(적성, 취향)	2,879	4.5	2,432	4.2	447	6.6
직장(사업체)에서 채용해줘서(이 일자리 말고 대안이 없어서)	8,895	13.8	7,851	13.6	1,044	15.4
기타	523	0.8	478	0.8	44	0.7
전 체	64,524	100.0	57,753	100.0	6,770	100.0

주: 임금근로자에게 질문함

발달장애인 임금근로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에 취업한 경로는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단체/협회 등의 소개, 알선’이 4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족, 친구, 선후배, 일자리 동료 등 주변 지인의 소개 및 추천’(25.4%)의 응답이 많았다.

지적장애인 보호자는 ‘공공, 민간 취업알선기관, 직업훈련기관의 소개, 알선’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폐성장애인 보호자는 ‘학교, 전공과 등의 소개 및 추천’ 응답 비율이 지적장애인 보호자에 비해 높다.

〈표 2-4-12〉 현재 직장(사업체) 취업경로(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직접 채용 관련 정보를 습득하여 지원	3,246	5.0	2,755	4.8	491	7.2
공공, 민간 취업알선기관, 직업훈련기관의 소개, 알선	9,581	14.8	8,782	15.2	799	11.8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단체/협회 등의 소개, 알선	27,713	43.0	24,837	43.0	2,876	42.5
학교, 전공과 등의 소개 및 추천	7,310	11.3	6,377	11.0	932	13.8
가족, 친구, 선후배, 일자리 동료 등 주변 지인의 소개 및 추천	16,377	25.4	14,704	25.5	1,673	24.7
기타	298	0.5	298	0.5	0	0.0
전 체	64,524	100.0	57,753	100.0	6,770	100.0

주: 임금근로자에게 질문함

발달장애인 임금근로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에 취업하기까지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특별히 없었음'이 34.3%로 가장 많은 가운데,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체 자체가 없거나 부족했음'(27.3%), '발달장애인 채용정보나 사업체의 특성 정보를 알기 어려웠음'(13.8%)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적장애인 보호자는 '특별히 없었음' 비율(34.7%)이 자폐성장애인 보호자(30.8%)에 비해 높았고, 자폐성장애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체 자체가 없거나 부족했음' 응답 비율(31.4%)이 지적장애인 보호자(26.9%)에 비해 높다.

〈표 2-4-13〉 현재 직장(사업체) 취업 시 어려움(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장애인 당사자의 취업의지가 적음	4,870	7.5	4,364	7.6	506	7.5
장애인 당사자의 취업 준비(작업훈련, 이력서 작성 등)가 어려웠음	2,758	4.3	2,410	4.2	348	5.1
발달장애인 채용정보나 사업체의 특성 정보를 알기 어려웠음	8,914	13.8	7,985	13.8	929	13.7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체 자체가 없거나 부족했음	17,638	27.3	15,512	26.9	2,125	31.4
취업알선기관 등 주변의 도움이 부족했음	3,229	5.0	2,893	5.0	336	5.0
서류나 면접 과정에서 탈락을 많이 경험함	1,126	1.7	1,041	1.8	85	1.3
취업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	3,555	5.5	3,241	5.6	314	4.6
기타	296	0.5	253	0.4	43	0.6
특별히 없었음	22,138	34.3	20,054	34.7	2,084	30.8
전 체	64,524	100.0	57,753	100.0	6,770	100.0

주: 임금근로자에게 질문함

3,706명으로 추정되는 발달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84.9%가 현재 직장(사업체)을 선택한 이유로 '이 직장(사업체)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를 들었다.

〈표 2-4-14〉 현재 직장(사업체) 선택 이유(비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이 직장(사업체)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3,145	84.9
다른 일을 할 수는 있으나 이 일이 좋아서(해야 해서, 필요해서)	536	14.4
모름/응답거절	26	0.7
전 체	3,706	100.0

주: 비임금근로자에게 질문함

5. 주된 업무 특성

가. 업무 종류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 종류는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가 32.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소·세탁(실내·외 청소, 세차, 세탁 등)'(19.8%),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17.2%) 등의 순으로 많다.

지적장애인은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 '청소·세탁(실내·외 청소, 세차, 세탁 등)', '농림어업(채소·화초 재배, 모종 심기, 버섯 재배, 물고기 잡기 등)' 등의 비율이 자폐성장장애인에 비해 높은 반면에 자폐성장장애인은 '사무(사무지원, 사서, 우체국 등)', '예술스포츠(음악, 미술, 스포츠 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2-4-15〉 주로 수행하는 업무 종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	11,704	17.2	10,698	17.5	1,006	14.3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	22,337	32.7	20,058	32.8	2,278	32.5
사무(사무지원, 사서, 우체국 등)	5,661	8.3	4,729	7.7	932	13.3
음식(바리스타, 제빵, 재료 준비, 설거지 등)	5,199	7.6	4,662	7.6	536	7.6
청소·세탁(실내·외 청소, 세차, 세탁 등)	13,536	19.8	12,772	20.9	763	10.9
농림어업(채소·화초 재배, 모종 심기, 버섯 재배, 물고기 잡기 등)	2,436	3.6	2,400	3.9	37	0.5
예술스포츠(음악, 미술, 스포츠 등)	5,372	7.9	4,088	6.7	1,284	18.3
기타	1,985	2.9	1,809	3.0	177	2.5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주로 하는 업무내용을 기반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라 직업을 분류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67.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16.0%), '사무 종사자'(4.7%) 등의 순으로 많다.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은 지적장애인(68.5%)이 자폐성장장애인(58.9%) 보다 높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자폐성장장애인(8.1%)이 지적장애인(1.6%)보다 높다.

〈표 2-4-16〉 직업 구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72	2.3	1,002	1.6	569	8.1
사무 종사자	3,190	4.7	2,517	4.1	673	9.6
서비스 종사자	10,951	16.0	9,712	15.9	1,239	17.7
판매 종사자	649	1.0	628	1.0	21	0.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698	2.5	1,698	2.8	0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811	4.1	2,535	4.1	277	3.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10	1.9	1,210	2.0	100	1.4
단순노무 종사자	46,048	67.5	41,914	68.5	4,134	58.9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나. 업무 특성 및 적응 정도

주로 하는 업무가 발달장애인 취업자에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정도를 응답받은 결과, '적당하다'가 63.3%로 가장 많고,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7.6%, 쉽다고 응답한 비율은 29.1%이다. 5점 척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2.76점으로 주로 하는 업무의 기술적인 어려움은 지적장애인(보호자)과 자폐성장애인(보호자)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2-4-17〉 업무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쉽다	2,337	3.4	2,138	3.5	200	2.9
쉬운 편이다	17,510	25.7	15,534	25.4	1,976	28.2
적당하다	43,192	63.3	38,937	63.6	4,254	60.7
어려운 편이다	4,633	6.8	4,126	6.7	507	7.2
매우 어렵다	558	0.8	481	0.8	76	1.1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평 균		2.76		2.76		2.76
응답 추정 수		68,230		61,217		7,014

주로 하는 업무가 발달장애인 취업자에게 육체적으로 힘든 정도를 응답받은 결과, '적당하

다가 57.8%로 가장 많고,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은 19.4%, 힘들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2.9%이다. 5점 척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지적장애인이 2.97점, 자폐성장애인이 2.78점으로 지적장애인(보호자)이 육체적으로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18〉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든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혀 힘들지 않다	1,527	2.2	1,317	2.2	211	3.0
힘들지 않은 편이다	14,087	20.6	12,197	19.9	1,889	26.9
적당하다	39,405	57.8	35,214	57.5	4,192	59.8
힘든 편이다	12,439	18.2	11,791	19.3	648	9.2
매우 힘들다	771	1.1	698	1.1	74	1.1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평 균		2.95		2.97		2.78
응답 추정 수	68,230		61,217		7,014	

발달장애인 취업자 중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완전히 적응한 경우는 69.7%이며, 29.7%는 일부 적응하였고, 0.6%는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2-4-19〉 현재 업무 적응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완전히 적응했음	47,555	69.7	42,986	70.2	4,569	65.1
일부 적응했음	20,235	29.7	17,861	29.2	2,375	33.9
전혀 적응하지 못했음	440	0.6	370	0.6	70	1.0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다. 업무를 좋아하는 정도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좋아하는 비율은 63.7%이며, 싫어하는 비율은 2.6%로 나타났다. 5점 척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지적장애인이 3.71점, 자폐성장애인이 3.80점으로 자폐성장애인이 업무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20〉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현재 업무를 좋아하는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싫어한다	0	0.0	0	0.0	0	0.0
싫어하는 편이다	1,772	2.6	1,468	2.4	305	4.3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23,019	33.7	21,078	34.4	1,941	27.7
좋아하는 편이다	36,072	52.9	32,475	53.0	3,597	51.3
매우 좋아한다	7,367	10.8	6,196	10.1	1,171	16.7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평균		3.72		3.71		3.80
응답 추정 수	68,230		61,217		7,014	

6. 근무조건 및 근로환경

가. 근로계약

발달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 상태를 살펴보면, '상용직(1년 이상 계약 또는 정년)'이 49.6%로 가장 많고,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 47.1%, '일용직(1개월 미만)' 3.1%로 나타났다. '상용직(1년 이상 계약 또는 정년)' 비율은 자폐성장애인이 46.8%로 지적장애인(49.9%)에 비해 다소 낮다.

〈표 2-4-21〉 근로계약 상태(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상용직(1년 이상 계약 또는 정년)	32,000	49.6	28,829	49.9	3,170	46.8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	30,385	47.1	26,881	46.5	3,504	51.8
일용직(1개월 미만)	2,020	3.1	1,924	3.3	96	1.4
모름/응답거절	119	0.2	119	0.2	0	0.0
전 체	64,524	100.0	57,753	100.0	6,770	100.0

주: 임금근로자에게 질문함

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주 5일 근로하는 경우가 82.1%로 가장 많고, 6~7일 근로하는 비율은 7.5%로 나타났다. 6~7일 근로하는 비율은 지적장애인에서 8.3%로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는 지적장애인이 4.9일, 자폐성장애인이 4.8일로 나타났다.

〈표 2-4-22〉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1~2일	1,104	1.6	1,001	1.6	103	1.5
3~4일	5,870	8.6	5,152	8.4	718	10.2
5일	56,000	82.1	49,915	81.5	6,085	86.8
6~7일	5,135	7.5	5,054	8.3	81	1.1
모름/응답거절	121	0.2	94	0.2	28	0.4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평균 근로일수	4.9일		4.9일		4.8일	
응답 추정 수	68,109		61,123		6,986	

주: 평균 근로일수는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일 근로시간은 '4시간 미만' 12.5%, '4시간' 34.3%, '4시간 초과 8시간 미만' 25.5%, '8시간' 23.2%, '8시간 초과' 4.3%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이며, 지적장애인 5.6시간, 자폐성장애인 4.9시간이다.

〈표 2-4-23〉 하루 평균 근로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4시간 미만	8,562	12.5	7,508	12.3	1,054	15.0
4시간	23,386	34.3	20,147	32.9	3,238	46.2
4시간 초과 8시간 미만	17,410	25.5	15,877	25.9	1,533	21.9
8시간	15,843	23.2	14,725	24.1	1,118	15.9
8시간 초과	2,935	4.3	2,865	4.7	70	1.0
모름/응답거절	94	0.1	94	0.2	0	0.0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평균 근로시간	5.5시간		5.6시간		4.9시간	
응답 추정 수	68,136		61,123		7,014	

주: 평균 근로시간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보호자는 당사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처럼 일하면 좋음' 85.1%, '현재보다 더 긴 시간 일하면 좋겠음' 12.7%, '현재보다 더 짧은 시간 일하면 좋겠음' 2.2%로 응답하였다.

자폐성장애인 취업자의 보호자가 더 긴 시간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2-4-24〉 근로시간 조정 희망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현재보다 더 긴 시간 일하면 좋겠음	8,681	12.7	7,715	12.6	966	13.8
현재처럼 일하면 좋음	58,030	85.1	52,171	85.2	5,859	83.5
현재보다 더 짧은 시간 일하면 좋겠음	1,518	2.2	1,330	2.2	188	2.7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다. 임금(순수입)

발달장애인 취업자(무급가족종사자 제외)의 월평균 임금(자영업자의 경우는 순수입)은 평균 108.7만원이며, 지적장애인은 110.4만원, 자폐성장어인은 94.2만원이다.

50만원 미만은 12.5%, 100만원 미만은 48.0%이다. 100만원 미만 비율은 지적장애인은 47.0%이며, 자폐성장어인은 56.8%이다.

〈표 2-4-25〉 월평균 임금(순수입)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50만원 미만	8,227	12.5	7,150	12.1	1,077	15.5
50~100만원 미만	23,423	35.5	20,560	34.8	2,863	41.3
100~150만원 미만	17,742	26.9	15,781	26.7	1,961	28.3
150~200만원 미만	8,008	12.1	7,509	12.7	499	7.2
200만원 이상	8,551	13.0	8,012	13.6	539	7.8
전 체	65,951	100.0	59,013	100.0	6,938	100.0
평균 임금(순수입)	108.7만원		110.4만원		94.2만원	
응답 추정 수	65,345		58,455		6,891	

- 주 1)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질문함(무급가족종사자 제외)
 2) 연속형 문항에 '모름/응답거절'인 경우 추가로 응답받은 범주형 문항 응답값을 활용하여 산출함
 3) 평균 임금(순수입)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발달장애인 취업자(무급가족종사자 제외)의 임금(순수입)은 부모 등 가족이 관리하는 경우가 72.2%, 장애인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27.2%로 나타났다.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지적장애인이 28.3%로 자폐성장어인(17.6%)보다 높다.

〈표 2-4-26〉 임금(순수입) 관리 주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장애인 본인이 직접 관리	17,921	27.2	16,701	28.3	1,220	17.6
부모 등 가족이 관리	47,644	72.2	41,925	71.0	5,719	82.4
제3자가 관리	386	0.6	386	0.7	0	0.0
전 체	65,951	100.0	59,013	100.0	6,938	100.0

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질문함(무급가족종사자 제외)

7. 근무환경

가. 근무장소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주로 일하는 장소와 관련해서 '사무실, 사업장(공장, 가게 등)'이 87.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야외 작업현장(논, 밭, 공사현장 등)'(6.6%), '주로 이동하면서'(3.8%) 등의 순으로 많다.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무실, 사업장(공장, 가게 등)'에서 근로하는 비율이 88.7%로 높다.

〈표 2-4-27〉 주로 일하는 장소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사무실, 사업장(공장, 가게 등)	59,708	87.5	53,486	87.4	6,222	88.7
야외 작업현장(논, 밭, 공사현장 등)	4,520	6.6	4,391	7.2	130	1.8
주로 이동하면서	2,608	3.8	2,362	3.9	246	3.5
가정	1,303	1.9	887	1.4	416	5.9
기타	91	0.1	91	0.1	0	0.0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나. 출퇴근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출퇴근 시 주로 이용하는 이동수단(1순위)은 '버스(셔틀 포함)'가 47.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가용'(16.6%), '지하철'(14.9%), '도보'(14.6%) 등의 순이다.

〈표 2-4-28〉 출퇴근 시 주로 이용하는 이동수단(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지하철	10,183	14.9	8,909	14.6	1,274	18.2
버스(셔틀 포함)	32,292	47.3	29,796	48.7	2,496	35.6
자가용	11,345	16.6	9,619	15.7	1,726	24.6
택시(일반/장애인용)	1,218	1.8	1,048	1.7	170	2.4
휠체어/스쿠터	336	0.5	336	0.5	0	0.0
자전거/오토바이	1,421	2.1	1,303	2.1	118	1.7
도보	9,965	14.6	9,020	14.7	945	13.5
특별히 없음	1,470	2.2	1,185	1.9	285	4.1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편도 기준으로 32.3분이며, 지적장애인은 32.4분, 자폐성장애인은 31.8분이다.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66.9%는 출퇴근 소요시간(편도 기준)이 30분 이내로, 집 근처에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4-29〉 출퇴근 소요시간(편도 기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10분 이내	12,175	17.8	11,077	18.1	1,098	15.6
20분 이내	15,556	22.8	13,736	22.4	1,820	25.9
30분 이내	17,896	26.2	16,172	26.4	1,723	24.6
1시간 이내	18,178	26.6	16,086	26.3	2,093	29.8
1시간 이상	4,332	6.3	4,052	6.6	280	4.0
모름/응답거절	94	0.1	94	0.2	0	0.0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평균 소요시간(편도 기준)		32.3분		32.4분		31.8분
응답 추정 수	68,136		61,123		7,014	

주: 평균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출퇴근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56.7%이며, 49.7%가 하루 평균 5천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표 2-4-30〉 하루 평균 출퇴근 소요비용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비용이 발생함	38,654	56.7	34,499	56.4	4,155	59.2
5천원 미만	33,879	49.7	30,343	49.6	3,537	50.4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	3,052	4.5	2,594	4.2	458	6.5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	428	0.6	374	0.6	54	0.8
2만원 이상	1,295	1.9	1,189	1.9	106	1.5
전혀 발생하지 않음	29,551	43.3	26,717	43.6	2,834	40.4
모름/응답거절	25	0.0	0	0.0	25	0.4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혼자서 출퇴근 할 수 있으며 혼자서 하고 있는 경우는 67.5%이며,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있는 경우는 25.4%, 도움이 필요하지만 혼자 하고 있는 경우는 6.9%이다. 출퇴근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32.2%이며, 지적장애인은 30.4%, 자폐성장장애인은 48.3%이다.

〈표 2-4-31〉 혼자 출퇴근 가능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있음	17,321	25.4	14,304	23.4	3,017	43.0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혼자서 하고 있음	4,677	6.9	4,304	7.0	373	5.3
혼자서 할 수 있으며 혼자서 하고 있음	46,085	67.5	42,461	69.4	3,624	51.7
모름/응답거절	147	0.2	147	0.2	0	0.0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다. 안전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주로 일하는 근무장소가 안전한 경우는 77.3%이며, 위험한 경우는 3.0%이다. 안전한 근무장소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은 76.1%, 자폐성장장애인은 87.0%이다.

〈표 2-4-32〉 근무장소의 안전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위험하다	169	0.2	151	0.2	18	0.3
위험한 편이다	1,846	2.7	1,795	2.9	51	0.7
그저 그렇다	13,498	19.8	12,656	20.7	842	12.0
안전한 편이다	41,984	61.5	37,307	60.9	4,677	66.7
매우 안전하다	10,734	15.7	9,308	15.2	1,426	20.3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평 균		3.90		3.88		4.06
응답 추정 수		68,230		61,217		7,014

이 직장(사업체)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8.5%이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8.8%로 자폐성장애인(5.5%)에 비해 높다.

〈표 2-4-33〉 직장(사업체)에서 다친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사고를 당하거나 다친 적 없음	62,434	91.5	55,806	91.2	6,628	94.5
사고를 당하거나 다친 적 있음	5,796	8.5	5,411	8.8	386	5.5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주: 병원을 들러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사고를 당하거나 다친 적 있음'에 해당

라. 이해와 배려, 부당한 경험

일자리의 동료 또는 고용주가 발달장애인 취업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많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75.1%인 반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2.9%이다. 이해와 배려가 많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보호자가 74.0%이고, 자폐성장애인 보호자는 84.6%이다.

〈표 2-4-34〉 직장(사업체) 사람(고용주, 직장동료)의 이해와 배려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부족하다	43	0.1	0	0.0	43	0.6
부족한 편이다	1,923	2.8	1,822	3.0	101	1.4
보통이다	13,992	20.5	13,095	21.4	897	12.8
많은 편이다	34,458	50.5	30,731	50.2	3,727	53.1
매우 많다	16,799	24.6	14,593	23.8	2,206	31.4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다	878	1.3	838	1.4	40	0.6
모름/응답거절	138	0.2	138	0.2	0	0.0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평 균		3.98		3.96		4.14
응답 추정 수		67,215		60,241		6,975

주: 평균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에서 차별, 폭력, 학대 등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 취업자의 6.4%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자폐성장장애인이 6.5%로 지적장애인(6.4%)에 비해 높다.

〈표 2-4-35〉 직장(사업체)에서 차별, 폭력, 학대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경험한 적이 없음	63,873	93.6	57,314	93.6	6,559	93.5
경험한 적이 있음	4,357	6.4	3,902	6.4	455	6.5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차별, 폭력, 학대를 경험했을 때 보호자가 대처하지 않거나 대처하지 못한 비율은 57.9%이다. 지적장애인 보호자는 57.5%, 자폐성장장애인 보호자는 60.8%이다.

〈표 2-4-36〉 직장(사업체)에서 차별, 폭력, 학대 경험 시 보호자의 대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가해자 또는 직장(사업체)에 직접 항의하였음	776	17.8	686	17.6	90	19.7
장애인 당사자에게 대처방안을 알려주었음	849	19.5	811	20.8	38	8.4
관련 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음	211	4.9	161	4.1	50	11.1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음(못했음)	2,521	57.9	2,245	57.5	277	60.8
전 체	4,357	100.0	3,902	100.0	455	100.0

주: “직장(사업체)에서 차별, 폭력, 학대 경험 유무”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다. 근무환경 적절성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보호자는 현재 일자리가 일하기에 적절한 환경인지 여부에 대해 90.5%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표 2-4-37〉 일하기에 적절한 환경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적절한 환경임	61,730	90.5	55,078	90.0	6,651	94.8
적절한 환경이 아님	6,501	9.5	6,138	10.0	362	5.2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8. 장애 관련 지원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현 직장(사업체)에서 장애와 관련하여 받고 있는 지원사항은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78.2%, '업무시간 조정(단축)' 69.3%,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66.3%,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52.4%,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59.5%이다. 모든 항목에 대해 자폐성장애인이 지적장애인보다 지원받고 있는 비율이 높다.

〈표 2-4-38〉 장애와 관련해서 받고 있는 지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받음	53,387	78.2	47,628	77.8	5,759	82.1
	받지 않음	14,843	21.8	13,588	22.2	1,255	17.9
업무시간 조정(단축)	받음	47,257	69.3	42,007	68.6	5,250	74.9
	받지 않음	20,973	30.7	19,210	31.4	1,763	25.1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받음	45,241	66.3	40,151	65.6	5,090	72.6
	받지 않음	22,989	33.7	21,065	34.4	1,924	27.4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받음	35,719	52.4	31,843	52.0	3,876	55.3
	받지 않음	32,511	47.6	29,373	48.0	3,138	44.7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받음	40,629	59.5	36,120	59.0	4,510	64.3
	받지 않음	27,601	40.5	25,097	41.0	2,504	35.7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현 직장(사업체)에서 발달장애인 취업자에게 장애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이미 받고 있는 경우 포함)은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81.5%, ‘업무시간 조정(단축)’ 74.4%,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72.8%,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56.5%,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65.7%이다. 모든 항목에 대해 자폐성장애인이 지적 장애인에 비해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4-39〉 장애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	55,578	81.5	49,574	81.0	6,004	85.6
	받고 있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음	12,369	18.1	11,360	18.6	1,009	14.4
	모름/응답거절	283	0.4	283	0.5	0	0.0
업무시간 조정(단축)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	50,745	74.4	45,136	73.7	5,609	80.0
	받고 있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음	17,202	25.2	15,797	25.8	1,405	20.0
	모름/응답거절	283	0.4	283	0.5	0	0.0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	49,662	72.8	44,213	72.2	5,449	77.7
	받고 있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음	18,179	26.6	16,632	27.2	1,547	22.1
	모름/응답거절	389	0.6	371	0.6	18	0.3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	38,569	56.5	34,418	56.2	4,152	59.2
	받고 있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음	28,988	42.5	26,144	42.7	2,844	40.5
	모름/응답거절	672	1.0	655	1.1	18	0.3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	44,837	65.7	39,846	65.1	4,992	71.2
	받고 있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음	22,868	33.5	20,864	34.1	2,004	28.6
	모름/응답거절	525	0.8	507	0.8	18	0.3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근로지원인 등 외부인을 이용할 의향에 대해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보호자는 ‘이용하지 않겠음’ 46.4%, ‘무료라면 이용하겠음’ 34.6%, ‘이미 외부인을 이용하고 있음’ 7.7%, ‘이용하고 싶지만 일자리 또는 업무 특성상 이용 불가’ 7.5%, ‘유료라도 이용하겠음’ 3.5%로 응답하였다. 지적장애인 보호자는 ‘이용하지 않겠음’이라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많고, 자폐성장애인 보호자는 ‘유료라도 이용하겠음’ 또는 ‘이미 외부인을 이용하고 있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40〉 업무 수행을 도와줄 외부인(근로지원인 등) 이용 의향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무료라면 이용하겠음	17,193	34.6	15,532	35.1	1,662	30.5
유료라도 이용하겠음	1,740	3.5	1,330	3.0	410	7.5
이용하고 싶지만 일자리 또는 업무 특성상 이용 불가	3,747	7.5	3,351	7.6	395	7.3
이용하지 않겠음	23,037	46.4	20,699	46.8	2,338	42.9
이미 외부인을 이용하고 있음	3,846	7.7	3,201	7.2	645	11.8
모름/응답거절	99	0.2	99	0.2	0	0.0
전 체	49,662	100.0	44,213	100.0	5,449	100.0

주: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에서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으로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9. 직업생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현 직장(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호자에게 응답받은 결과,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57.0%인 가운데 주된 어려움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의사소통 포함)' 10.0%, '출퇴근의 어려움' 8.2%,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 5.4% 등을 들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적장애인 보호자가 57.3%로 자폐성장아인 보호자(54.4%)보다 높다.

〈표 2-4-41〉 근무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출퇴근의 어려움	5,616	8.2	4,900	8.0	716	10.2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의 근태관리의 어려움	1,049	1.5	828	1.4	222	3.2
자기관리의 어려움	1,871	2.7	1,630	2.7	241	3.4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	3,020	4.4	2,827	4.6	193	2.8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	3,658	5.4	3,379	5.5	279	4.0
근로조건 문제(저임금, 계약 만료 등)	3,522	5.2	3,301	5.4	221	3.2
근무환경의 열악함	1,315	1.9	1,204	2.0	111	1.6
대인관계의 어려움(의사소통 포함)	6,800	10.0	5,841	9.5	959	13.7
도와줄 사람이 없음	492	0.7	431	0.7	61	0.9
장애상태 악화	67	0.1	67	0.1	0	0.0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1,465	2.1	1,382	2.3	83	1.2
사업체 영업 부진	465	0.7	356	0.6	109	1.6
특별히 없음	38,889	57.0	35,071	57.3	3,818	54.4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보호자나 함께 사는 가족이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출근 전 준비, 출퇴근 통행, 직업생활 상담 및 금전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서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하고 있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경우는 63.6%이며,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도와주고 있는 경우는 31.5%,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4.8%이다.

직업생활 수행 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36.4%이며, 지적장애인은 34.0%, 자폐성장아인은 56.9%이다.

〈표 2-4-42〉 직업생활 수행 시 보호자 또는 가족이 도와주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도와주고 있음	21,517	31.5	17,752	29.0	3,765	53.7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나 도와주지 못하고 있음	3,301	4.8	3,073	5.0	228	3.3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하고 있어 도와줄 필요 없음	43,412	63.6	40,391	66.0	3,021	43.1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발달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보호자가 사업체(고용주, 인사담당자, 직장상사 등)와 소통(상담, 교류, 연락 등)하는 정도와 관련해서 ‘자주 하고 있음(일주일에 1~2번 이상)’ 14.3%, ‘드물게 하고 있음(한 달에 1~2번 이하)’ 41.7%이며, 한 적이 없는 경우는 43.9%이다.

자폐성장애인의 보호자가 사업체와 소통하는 비율이 73.0%로 지적장애인 보호자(53.9%)에 비해 높다.

〈표 2-4-43〉 보호자가 사업체(고용주, 인사담당자, 직장상사 등)와 소통하는 정도(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자주 하고 있음(일주일에 1~2번 이상)	9,198	14.3	7,593	13.1	1,604	23.7
드물게 하고 있음(한 달에 1~2번 이하)	26,878	41.7	23,539	40.8	3,339	49.3
한 적이 없음	28,342	43.9	26,515	45.9	1,828	27.0
모름/응답거절	106	0.2	106	0.2	0	0.0
전 체	64,524	100.0	57,753	100.0	6,770	100.0

주: 임금근로자에게 질문함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보호자는 당사자의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히 없음’(28.9%)을 제외하면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15.6%),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함’(15.1%), ‘근로능력, 기술을 키워야 함’(13.8%) 등을 응답하였다. 지적장애인은 ‘근로능력, 기술을 키워야 함’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였으나, 자폐성장애인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함’과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이 높았다.

〈표 2-4-44〉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일을 하려는 의지를 높여야 함	6,104	8.9	5,288	8.6	816	11.6
근로능력, 기술을 키워야 함	9,419	13.8	8,817	14.4	601	8.6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10,287	15.1	8,682	14.2	1,605	22.9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	10,626	15.6	9,277	15.2	1,349	19.2
책임감, 시간 업무 등 직업태도를 갖춰야 함	4,976	7.3	4,515	7.4	461	6.6
자기관리(신변처리 등)를 잘해야 함	2,450	3.6	2,185	3.6	265	3.8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잘 관리해야 함	4,675	6.9	3,993	6.5	682	9.7
특별히 없음	19,694	28.9	18,459	30.2	1,234	17.6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10. 일자리 만족 및 지속 근무 의사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75.1%는 현재 직장(사업체)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있으며, 싫어하는 비율은 2.5%로 낮은 편이다. 당사자가 좋아한다고 판단하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보호자가 75.3%로 자폐성장애인 보호자(73.5%)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표 2-4-45〉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싫어한다	28	0.0	0	0.0	28	0.4
싫어하는 편이다	1,695	2.5	1,474	2.4	221	3.1
그저 그렇다	15,273	22.4	13,664	22.3	1,609	22.9
좋아하는 편이다	40,468	59.3	36,814	60.1	3,654	52.1
매우 좋아한다	10,766	15.8	9,264	15.1	1,502	21.4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평 균		3.88		3.88		3.91
응답 추정 수		68,230		61,217		7,014

보호자의 76.7%는 현재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다니는 직장(사업체)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하는 비율은 1.4%로 낮은 편이다.

〈표 2-4-46〉 현재 직장(사업체)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불만족한다	28	0.0	0	0.0	28	0.4
불만족하는 편이다	921	1.3	803	1.3	118	1.7
그저 그렇다	14,976	21.9	13,518	22.1	1,459	20.8
만족하는 편이다	42,855	62.8	38,859	63.5	3,995	57.0
매우 만족한다	9,451	13.9	8,037	13.1	1,414	20.2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평 균		3.89		3.88		3.95
응답 추정 수	68,230		61,217		7,014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88.2%는 현재 직장(사업체)에 계속 다니고 싶어하며, 다른 직장(사업체)에 다니고 싶어하는 비율은 8.7%, 일 자체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비율은 3.1%이다.

〈표 2-4-47〉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에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이 직장(사업체)에 계속 다니고 싶어함	60,165	88.2	54,025	88.3	6,140	87.5
다른 직장(사업체)에 다니고 싶어함	5,926	8.7	5,374	8.8	552	7.9
일 자체를 그만두고 싶어함	2,114	3.1	1,817	3.0	297	4.2
모름/응답거절	24	0.0	0	0.0	24	0.3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이 직장(사업체)에 계속 다니기를 원하는 비율이 90.3%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48〉 당사자의 현재 직장(사업체) 지속 근무에 대한 보호자의 희망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이 직장(사업체)에 계속 다니길 원함	61,594	90.3	55,311	90.4	6,283	89.6
다른 직장(사업체)에 다니길 원함	5,995	8.8	5,389	8.8	606	8.6
일 자체를 그만하길 원함	641	0.9	517	0.8	124	1.8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11.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의 일반고용 전환 의사 및 필요 지원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에 근로하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의 11.7%는 일반 사업체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며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8.0%는 전환을 희망하지만 어렵다고 생각하고, 36.8%는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전환을 희망하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보호자 29.3%, 자폐성장아인 보호자 33.0%이다.

〈표 2-4-49〉 일반 사업체 일자리 전환 희망 여부(보호자) 및 가능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환을 희망하며, 향후 가능하다고 생각함	1,804	11.7	1,613	11.9	191	10.4
전환을 희망하나,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함	2,775	18.0	2,359	17.4	417	22.7
전환을 희망하지 않음	5,670	36.8	4,977	36.7	692	37.6
생각해본 적 없음	5,151	33.4	4,612	34.0	539	29.3
전 체	15,400	100.0	13,561	100.0	1,839	100.0

주: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 질문함

일반 일자리 사업체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전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반 사업체 직업영역 개발·확대'(35.1%)이며,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역량강화 지원'(22.3%), '전환코디네이터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 지원'(12.4%), '일반 사업체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일자리의 중간 단계 일자리 개발'(11.8%) 등을 응답하였다. 지적장애인 보호자는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전환 성공 수당 등 장려금 지원(사업체 또는 장애인)'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폐성장애인 보호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역량강화 지원',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반 사업체 직업영역 개발·확대', '일반 사업체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일자리의 중간 단계 일자리 개발'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2-4-50〉 일반 사업체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역량강화 지원	1,020	22.3	819	20.6	201	33.1
전환코디네이터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 지원	569	12.4	538	13.6	31	5.0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반 사업체 직업영역 개발·확대	1,609	35.1	1,366	34.4	243	40.1
전환 성공 수당 등 장려금 지원(사업체 또는 장애인)	513	11.2	513	12.9	0	0.0
일반 사업체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일자리의 중간 단계 일자리 개발	540	11.8	407	10.3	133	21.9
직업재활시설의 경쟁력 강화(사회적기업, 표준사업장 등) 지원	329	7.2	329	8.3	0	0.0
전 체	4,579	100.0	3,972	100.0	608	100.0

주: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에 근무하며, 전환을 희망(전환을 희망하며 향후 가능하다고 생각함, 전환을 희망하나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함)하는 경우에 질문함

12. 이전 취업 경험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에 일하기 전에 다른 일자리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37.5%이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37.9%로 자폐성장애인(34.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2-4-51〉 이전에 다른 직장(사업체)에서 일해 본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있음	25,575	37.5	23,176	37.9	2,399	34.2
없음	42,655	62.5	38,040	62.1	4,614	65.8
전 체	68,230	100.0	61,217	100.0	7,014	100.0

제5절 미취업자 특성

1. 미취업자의 인적구성

발달장애인 미취업자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58.2%, 여성 41.8%이며, 연령별로는 15~29세 34.0%, 30~39세 17.3%, 40~49세 16.9%, 50세 이상 31.8%이다.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 33.2%, 중졸 17.7%, 고졸 이상 49.1%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12.1%, 경기 20.1%, 광역시도 24.0%, 기타시도 43.8%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이 141천명으로 90.7%이고, 자폐성장장애인은 9.3%이다. 2019년 6월 기준 장애등급은 1급 29.2%, 2급 38.1%, 3급 29.9%이다. 미취업자의 인적구성을 만 15세 이상 전체 발달장애인 인구분포와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지역별로는 광역시도, 기타시도, 장애등급별로는 1~2급의 비중이 실제 발달장애인 인구에서의 비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1〉 미취업자의 인적구성

구 분		추정 수	비율	(단위: 명, %) 전체 발달장애인 인구 분포
성별	남성	90,601	58.2	62.0
	여성	64,941	41.8	38.0
연령	15~29세	52,922	34.0	38.0
	30~39세	26,906	17.3	20.7
	40~49세	26,230	16.9	16.1
	50세 이상	49,484	31.8	25.1
학력	초졸 이하	51,630	33.2	25.2
	중졸	27,579	17.7	13.9
	고졸 이상	76,332	49.1	60.9
지역	서울	18,885	12.1	13.1
	경기	31,248	20.1	21.6
	광역시도	37,255	24.0	23.9
	기타시도	68,153	43.8	41.4
장애유형	지적장애	141,048	90.7	90.4
	자폐성장장애	14,493	9.3	9.6
2019년 6월 시점 장애등급	1급	45,450	29.2	23.4
	2급	59,246	38.1	37.5
	3급	46,495	29.9	36.4
	2019년 7월 이후 등록	4,350	2.8	2.7
전 체		155,542	100.0	100.0

주: “지역”에서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함

발달장애인 미취업자의 인적구성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미취업자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장애유형의 만 15세 이상 인구구성 분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5-2〉 미취업자의 인적구성 -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성별	남성	78,274	55.5	12,328	85.1
	여성	62,775	44.5	2,166	14.9
연령	15~29세	42,108	29.9	10,814	74.6
	30~39세	23,824	16.9	3,081	21.3
	40~49세	25,715	18.2	515	3.6
	50세 이상	49,401	35.0	82	0.6
학력	초졸 이하	50,355	35.7	1,275	8.8
	중졸	23,940	17.0	3,639	25.1
	고졸 이상	66,753	47.3	9,580	66.1
지역	서울	16,301	11.6	2,584	17.8
	경기	27,331	19.4	3,918	27.0
	광역시도	33,669	23.9	3,586	24.7
	기타시도	63,747	45.2	4,406	30.4
2019년 6월 시점 장애등급	1급	38,453	27.3	6,998	48.3
	2급	53,773	38.1	5,473	37.8
	3급	44,751	31.7	1,744	12.0
	2019년 7월 이후 등록	4,071	2.9	279	1.9
전체		141,048	100.0	14,493	100.0

주: "지역"에서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함

2. 취업 경험

가. 과거 취업 경험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미취업자가 과거에 일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0%이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20.9%로 자폐성장애인(11.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해 본 경험이 있을 때 경험한 일자리 개수가 1개인 경우는 69.2%, 2개는 13.0%, 3개는 11.5%, 4개 이상은 6.3%이다. 일자리 개수가 1개인 경우는 지적장애인이 68.6%, 자폐성장애인은 80.8%로 자폐성장애인이 많았으나 일자리 개수가 2개인 경우는 지적장애인이 13.2%, 자폐성장애인이 9.1%로 나타났다.

〈표 2-5-3〉 취업 경험 및 일자리 개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있음	31,142	20.0	29,523	20.9	1,619	11.2
1개	21,563	69.2	20,254	68.6	1,309	80.8
2개	4,038	13.0	3,890	13.2	148	9.1
3개	3,578	11.5	3,467	11.7	112	6.9
4개 이상	1,964	6.3	1,913	6.5	51	3.1
소 계	31,142	100.0	29,523	100.0	1,619	100.0
없음	124,400	80.0	111,525	79.1	12,874	88.8
전 체	155,542	100.0	141,048	100.0	14,493	100.0

나. 마지막 직장(일자리) 정보

취업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가 마지막으로 일한 직장(일자리)의 산업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33.2%로 가장 많고, '제조업'(30.8%), '도소매, 음식 숙박업'(14.7%) 등의 순으로 많다. 지적장애인은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12.1%), 자폐성장애인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40.9%로 마지막에 일한 직장(일자리)의 산업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2-5-4〉 마지막 직장(일자리)의 산업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3,569	11.5	3,569	12.1	0	0.0
제조업	9,590	30.8	8,970	30.4	619	38.3
건설업	1,556	5.0	1,556	5.3	0	0.0
도소매, 음식 숙박업	4,570	14.7	4,355	14.7	216	13.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10,340	33.2	9,678	32.8	662	40.9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1,518	4.9	1,396	4.7	122	7.5
전 체	31,142	100.0	29,523	100.0	1,619	100.0

주 1)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 2)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 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취업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가 마지막 직장(일자리)에서 주로 수행한 업무 종류는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가 38.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21.5%), ‘청소·세탁(실내·외 청소, 세차, 세탁 등)’(13.5%) 등의 순으로 많다.

〈표 2-5-5〉 마지막 직장(일자리)에서 주로 수행한 업무 종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	6,698	21.5	6,364	21.6	334	20.6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	11,870	38.1	11,136	37.7	734	45.3
사무(사무지원, 사서, 우체국 등)	1,683	5.4	1,498	5.1	185	11.4
음식(바리스타, 제빵, 재료 준비, 설거지 등)	2,026	6.5	1,959	6.6	67	4.1
청소·세탁(실내·외 청소, 세차, 세탁 등)	4,210	13.5	4,050	13.7	161	9.9
농림어업·채소·화초 재배, 모종 삼기, 버섯 재배, 물고기 잡기 등)	3,377	10.8	3,377	11.4	0	0.0
예술스포츠(음악, 미술, 스포츠 등)	420	1.3	306	1.0	114	7.1
기타	857	2.8	832	2.8	25	1.5
전 체	31,142	100.0	29,523	100.0	1,619	100.0

주: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취업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가 마지막으로 일한 직장(일자리)의 사업체 유형은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가 47.7%로 가장 많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14.7%),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14.6%),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9.1%) 등의 순으로 많다.

〈표 2-5-6〉 마지막 직장(일자리) 사업체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4,592	14.7	4,032	13.7	560	34.6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2,759	8.9	2,509	8.5	250	15.4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	2,844	9.1	2,581	8.7	263	16.3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14,849	47.7	14,545	49.3	304	18.8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자리	1,543	5.0	1,392	4.7	151	9.3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4,555	14.6	4,464	15.1	91	5.6
전 체	31,142	100.0	29,523	100.0	1,619	100.0

주: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취업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가 마지막으로 일한 직장(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 91.6%, 자영업자 2.5%, 무급가족종사자 5.9%이다.

〈표 2-5-7〉 마지막 직장(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임금근로자	28,523	91.6	26,927	91.2	1,597	98.6
자영업자	778	2.5	778	2.6	0	0.0
무급가족종사자	1,841	5.9	1,818	6.2	23	1.4
전 체	31,142	100.0	29,523	100.0	1,619	100.0

주: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취업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가 마지막으로 일한 직장(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35.5%로 가장 많고, '1~3년 미만'(27.2%), '3~10년 미만'(19.1%) 등의 순으로 많다.

마지막 일한 직장(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2개월이며, 지적장애인은 5년 4개월, 자폐성장애인은 2년 1개월이다.

〈표 2-5-8〉 마지막 직장(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1년 미만	11,060	35.5	10,239	34.7	821	50.7
1~3년 미만	8,472	27.2	8,000	27.1	472	29.2
3~10년 미만	5,962	19.1	5,719	19.4	243	15.0
10년 이상	5,648	18.1	5,565	18.8	83	5.1
전 체	31,142	100.0	29,523	100.0	1,619	100.0
평균 근속기간		5년 2개월		5년 4개월		2년 1개월
응답 추정 수		31,142		29,523		1,619

- 주 1)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2) 월에 대해 모름/응답거절인 경우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응답받았으며, 봄은 4월, 여름은 7월, 가을은 10월, 겨울은 1월로 산정하여 계산함

다.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이유

취업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가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가 17.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13.7%), '장애상태, 건강 등의 악화'(12.0%),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은 '장애상태, 건강 등의 악화' 또는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자폐성장애인은 '계약기간 만료'와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2-5-9〉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낮은 임금 수준	763	2.5	690	2.3	73	4.5
열악한 근무환경	1,612	5.2	1,584	5.4	28	1.7
계약기간 만료	5,517	17.7	5,024	17.0	493	30.4
영업부진, 폐업 등	1,920	6.2	1,794	6.1	125	7.7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2,691	8.6	2,531	8.6	160	9.9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	4,264	13.7	4,207	14.3	57	3.5
일자리에서의 부적응(근태 및 대인관계 문제 등)	2,685	8.6	2,539	8.6	147	9.1
장애인 당사자가 근로의지 부족(흥미를 갖지 못함 등)	1,496	4.8	1,377	4.7	119	7.3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	3,199	10.3	3,001	10.2	197	12.2
도와줄 사람이 없음	643	2.1	605	2.0	38	2.3
출퇴근의 어려움	545	1.8	517	1.8	28	1.8
장애상태, 건강 등의 악화	3,731	12.0	3,649	12.4	82	5.0
가사, 돌봄, 이사 등 가족적 사유	1,359	4.4	1,348	4.6	11	0.7
다른(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하기 위해	510	1.6	472	1.6	38	2.3
기타	209	0.7	184	0.6	24	1.5
전 체	31,142	100.0	29,523	100.0	1,619	100.0

주: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그만둘 당시 당사자가 계속 다니기를 원하는 비율은 32.2%이다.

〈표 2-5-10〉 당사자가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어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계속 다니기를 원했음	10,021	32.2	9,489	32.1	532	32.9
계속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음	21,033	67.5	19,946	67.6	1,087	67.1
모름/응답거절	88	0.3	88	0.3	0	0.0
전 체	31,142	100.0	29,523	100.0	1,619	100.0

주: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취업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가 마지막으로 일한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이후의 미취업기간을 현재(2024년 6월)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6개월 미만(10.0%), 1년 미만(누적) 19.2%, 3년 미만(누적) 36.4%, 5년 미만(누적) 47.7%, 10년 미만(누적) 64.1%이며, 10년 이상은 35.9%이다. 평균 미취업기간은 9년 6개월이며, 지적장애인은 9년 9개월, 자폐성장애인은 4년 9개월이다.

〈표 2-5-11〉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의 미취업기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6개월 미만	3,115	10.0	2,834	9.6	281	17.4
6개월 ~ 1년 미만	2,879	9.2	2,590	8.8	289	17.9
1년 ~ 3년 미만	5,347	17.2	4,979	16.9	368	22.7
3년 ~ 5년 미만	3,529	11.3	3,398	11.5	132	8.1
5년 ~ 10년 미만	5,105	16.4	4,847	16.4	257	15.9
10년 이상	11,167	35.9	10,875	36.8	293	18.1
전 체	31,142	100.0	29,523	100.0	1,619	100.0
평균 미취업기간	9년 6개월		9년 9개월		4년 9개월	
응답 추정 수	31,142		29,523		1,619	

- 주 1)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2) 월에 대해 모름/응답거절인 경우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응답받았으며, 봄은 4월, 여름은 7월 (2024년은 6월로 처리), 가을은 10월, 겨울은 1월로 산정하여 계산함

3. 취업 희망

가. 향후 취업 희망 여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이 지금 당장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4.9%,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27.6%로, 보호자의 발달장애인 취업 희망 비율은 32.6%이다.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30.5%, 자폐성장장애인이 52.9%이다.

〈표 2-5-12〉 보호자의 발달장애인 취업 희망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지금 당장 일하기를 원함	7,694	4.9	6,724	4.8	970	6.7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일하기를 원함	43,007	27.6	36,304	25.7	6,703	46.3
일하기를 원하지 않음	104,840	67.4	98,021	69.5	6,820	47.1
전 체	155,542	100.0	141,048	100.0	14,493	100.0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길 원해서'가 39.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28.5%), '돈을 벌었으면 해서(생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18.9%), '낮시간을 보내게 하려고(돌봄의 일환)'(7.7%) 등의 순이다. 지적장애인 보호자는 '돈을 벌었으면 해서(생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자폐성장장애인 보호자는 '낮시간을 보내게 하려고(돌봄의 일환)'와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길 원해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2-5-13〉 보호자가 당사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돈을 벌었으면 해서(생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9,571	18.9	9,290	21.6	281	3.7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길 원해서	20,185	39.8	16,850	39.2	3,335	43.5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14,472	28.5	11,659	27.1	2,813	36.7
장애인 당사자가 일하고 싶어 해서	1,277	2.5	1,159	2.7	118	1.5
낮시간을 보내게 하려고(돌봄의 일환)	3,910	7.7	2,992	7.0	918	12.0
직업기술, 기능 등을 배우길 원해서	1,265	2.5	1,077	2.5	187	2.4
모름/응답거절	21	0.0	0	0.0	21	0.3
전 체	50,701	100.0	43,028	100.0	7,674	100.0

주: 당사자 취업을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질문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가 4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 본인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24.4%),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문제 등 개인적 이유로'(14.0%), '발달장애인이 일할 만한 일자리(업무)가 없어서'(7.7%) 등의 순으로 많다.

〈표 2-5-14〉 보호자가 당사자의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장애인 본인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25,607	24.4	24,387	24.9	1,220	17.9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48,369	46.1	44,598	45.5	3,771	55.3
장애 이외의 취업 조건 문제로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3,399	3.2	3,017	3.1	382	5.6
발달장애인이 일할 만한 일자리(업무)가 없어서	8,027	7.7	7,372	7.5	656	9.6
굳이 일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경제적 부양 가능 등)	688	0.7	539	0.5	149	2.2
이전에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 포기해서	2,344	2.2	2,319	2.4	25	0.4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문제 등 개인적 이유로	14,664	14.0	14,164	14.5	500	7.3
장애인 당사자의 가사, 돌봄 참여 등 가족적 이유로	1,281	1.2	1,184	1.2	97	1.4
기타	328	0.3	308	0.3	20	0.3
모름/응답거절	133	0.1	133	0.1	0	0.0
전 체	104,840	100.0	98,021	100.0	6,820	100.0

주: 당사자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질문함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24.1%이며, 희망하지 않는 비율은 75.9%이다. 취업 희망 비율은 지적장애인은 22.9%, 자폐성장애인은 36.0%이다.

〈표 2-5-15〉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희망함(희망하는 것 같음)	37,541	24.1	32,319	22.9	5,221	36.0
희망하지 않음(희망하지 않는 것 같음)	118,001	75.9	108,729	77.1	9,272	64.0
전 체	155,542	100.0	141,048	100.0	14,493	100.0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고,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66.5%는 당사자가 바로 취업해서 일하기는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자폐성장애인 보호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73.9%까지 상승한다.

〈표 2-5-16〉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음	17,907	33.3	15,808	34.6	2,099	26.1
바로 취업해서 일하기 어려움	35,718	66.5	29,761	65.2	5,957	73.9
모름/응답거절	91	0.2	91	0.2	0	0.0
전 체	53,716	100.0	45,660	100.0	8,056	100.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져도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없는 이유로 보호자의 41.7%는 ‘통학, 훈련, 재할 등 다른 활동 때문에’를 들었으며, 25.7%는 ‘기술 습득 등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16.2%는 ‘장애인 본인이 지금은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11.8%는 ‘건강문제 등 개인적인 이유로’라고 응답하였다.

〈표 2-5-17〉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져도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없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장애인 본인이 지금은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5,783	16.2	5,264	17.7	519	8.7
통학, 훈련, 재할 등 다른 활동 때문에	14,908	41.7	11,752	39.5	3,156	53.0
기술 습득 등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9,171	25.7	7,448	25.0	1,723	28.9
출퇴근 등 일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771	2.2	712	2.4	60	1.0
건강문제 등 개인적인 이유로	4,214	11.8	3,889	13.1	325	5.5
장애인 당사자의 가사, 돌봄 참여 등 가족적 이유로	819	2.3	695	2.3	124	2.1
기타	52	0.1	0	0.0	52	0.9
전 체	35,718	100.0	29,761	100.0	5,957	100.0

주: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져도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나. 취업 희망 일자리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가 희망하는 당사자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95.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18〉 희망하는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임금근로자	51,527	95.9	43,743	95.8	7,784	96.6
자영업자	1,078	2.0	933	2.0	144	1.8
무급가족종사자	964	1.8	848	1.9	116	1.4
모름/응답거절	148	0.3	136	0.3	12	0.1
전 체	53,716	100.0	45,660	100.0	8,056	100.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일자리)의 사업체 유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이 32.2%로 가장 많고,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20.7%),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17.4%),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13.6%) 등의 순으로 많다.

〈표 2-5-19〉 희망하는 직장(일자리) 사업체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17,288	32.2	14,573	31.9	2,715	33.7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9,340	17.4	7,806	17.1	1,534	19.0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	11,102	20.7	9,357	20.5	1,744	21.7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7,322	13.6	6,674	14.6	649	8.1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자리	5,949	11.1	4,746	10.4	1,203	14.9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2,716	5.1	2,504	5.5	212	2.6
전 체	53,716	100.0	45,660	100.0	8,056	100.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보호자가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업무는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가 36.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사무지원, 사서, 우체국 등)' 16.5%,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 15.9% 등의 순으로 많다.

〈표 2-5-20〉 희망하는 업무 종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	8,525	15.9	7,455	16.3	1,070	13.3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	19,414	36.1	16,592	36.3	2,822	35.0
사무(사무지원, 사서, 우체국 등)	8,883	16.5	7,098	15.5	1,785	22.2
음식(바리스타, 제빵, 재료 준비, 설거지 등)	6,872	12.8	6,099	13.4	773	9.6
청소·세탁(실내·외 청소, 세차, 세탁 등)	4,643	8.6	4,270	9.4	373	4.6
농림어업채소화초 재배 모종 삼기 버섯 재배 물고기 잡기 등)	1,520	2.8	1,425	3.1	95	1.2
예술스포츠(음악, 미술, 스포츠 등)	3,616	6.7	2,558	5.6	1,057	13.1
기타	244	0.5	162	0.4	81	1.0
전 체	53,716	100.0	45,660	100.0	8,056	100.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희망하는 근로일수는 주 5일이 83.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4일이 14.8%이다. 평균 희망 근로일수는 4.7일로 나타났다.

〈표 2-5-21〉 희망하는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1~2일	323	0.6	224	0.5	99	1.2
3~4일	7,976	14.8	6,844	15.0	1,132	14.1
5일	44,825	83.4	38,066	83.4	6,759	83.9
6~7일	592	1.1	526	1.2	66	0.8
전 체	53,716	100.0	45,660	100.0	8,056	100.0
평균 희망 근로일수		4.7일		4.7일		4.7일
응답 추정 수	53,716		45,660		8,056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희망하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5.1시간으로, '4시간' 40.0%, '4시간 초과 8시간 미만' 29.6%, '8시간'이 20.0%로 나타났다.

〈표 2-5-22〉 희망하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4시간 미만	5,421	10.1	4,582	10.0	839	10.4
4시간	21,482	40.0	17,661	38.7	3,821	47.4
4시간 초과 8시간 미만	15,886	29.6	13,867	30.4	2,019	25.1
8시간	10,756	20.0	9,400	20.6	1,356	16.8
8시간 초과	171	0.3	150	0.3	21	0.3
전 체	53,716	100.0	45,660	100.0	8,056	100.0
평균 희망 근로시간	5.1시간		5.2시간		4.9시간	
응답 추정 수	53,716		45,660		8,056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보호자는 당사자가 평균 119.3만원의 월평균 임금(순수입)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희망하는 임금(순수입)은 지적장애인 보호자가 119.1만원, 자폐성장애인 보호자가 119.9만원이다.

〈표 2-5-23〉 희망하는 최소 월평균 임금(순수입) 수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50만원 미만	1,656	3.1	1,418	3.1	238	3.0
50~100만원 미만	14,733	27.4	12,521	27.4	2,212	27.5
100~150만원 미만	18,721	34.9	15,764	34.5	2,958	36.7
150~200만원 미만	7,584	14.1	6,761	14.8	823	10.2
200만원 이상	9,930	18.5	8,475	18.6	1,455	18.1
모름/응답거절	1,092	2.0	722	1.6	370	4.6
전 체	53,716	100.0	45,660	100.0	8,056	100.0
평균 희망 임금	119.3만원		119.1만원		119.9만원	
응답 추정 수	52,625		44,938		7,686	

주 1)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2) 평균 희망 임금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보호자가 당사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는 '장애인 당사자의 적성, 취향에 맞는 일자리'가 2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능력수준에 적합한 일자리' 21.6%, '안정적인 일자리(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19.6%, '일이 쉽고, 힘들지 않은 일자리'가 17.9%,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잘 되어 있는 일자리'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24〉 희망하는 일자리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	1,339	2.5	1,169	2.6	170	2.1
일이 쉽고, 힘들지 않은 일자리	9,628	17.9	8,380	18.4	1,248	15.5
안정적인 일자리(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10,547	19.6	9,317	20.4	1,230	15.3
장애인 당사자의 적성, 취향에 맞는 일자리	12,512	23.3	10,169	22.3	2,343	29.1
장애인 당사자의 능력수준에 적합한 일자리	11,612	21.6	9,971	21.8	1,640	20.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잘 되어 있는 일자리	5,642	10.5	4,395	9.6	1,247	15.5
출퇴근이 가깝거나 용이한 일자리	1,462	2.7	1,369	3.0	93	1.2
안전하고 쾌적한 일자리	976	1.8	891	2.0	85	1.1
전 체	53,716	100.0	45,660	100.0	8,056	100.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17.7%의 보호자는 당사자가 지금 즉시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6개월 내 취업 희망 비율(누적)은 36.5%, 1년 내 취업 희망 비율(누적)은 54.6%이다.

〈표 2-5-25〉 희망하는 취업 시기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지금 즉시	9,492	17.7	8,409	18.4	1,083	13.4
6개월 내	10,106	18.8	9,214	20.2	892	11.1
1년 내	9,711	18.1	8,219	18.0	1,492	18.5
3년 내	9,968	18.6	8,346	18.3	1,622	20.1
3년 이후	14,241	26.5	11,274	24.7	2,967	36.8
모름/응답거절	199	0.4	199	0.4	0	0.0
전 체	53,716	100.0	45,660	100.0	8,056	100.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다. 취업 시 필요한 장애 관련 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가 취업할 경우 장애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은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73.6%, '업무시간 조정(단축)' 43.6%,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38.5%,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32.2%,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10.0%로 나타났다. 자폐성장애인이 지적장애인에 비해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또는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5-26〉 취업 시 장애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39,539	73.6	33,701	73.8	5,838	72.5
업무시간 조정(단축)	23,421	43.6	19,996	43.8	3,425	42.5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20,692	38.5	17,008	37.2	3,684	45.7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5,391	10.0	4,525	9.9	867	10.8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17,289	32.2	14,333	31.4	2,956	36.7
기타	124	0.2	84	0.2	40	0.5
전 체	53,716	-	45,660	-	8,056	-

주 1)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2)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근로지원인 등 외부인을 이용할 의향에 대해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보호자는 '무료라면 이용하겠음' 72.1%, '유료라도 이용하겠음' 11.9%, '이용하지 않겠음' 16.0%로 응답하였다. 이용을 원하는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82.6%, 자폐성장애인이 90.3%로 나타났다.

〈표 2-5-27〉 취업 시 업무 수행을 도와줄 외부인(근로지원인 등) 이용 의향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무료라면 이용하겠음	14,914	72.1	12,573	73.9	2,342	63.6
유료라도 이용하겠음	2,465	11.9	1,481	8.7	983	26.7
이용하지 않겠음	3,313	16.0	2,954	17.4	359	9.7
전 체	20,692	100.0	17,008	100.0	3,684	100.0

주: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4. 구직활동 및 취업을 위한 준비

가. 구직활동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최근 3년 내 일자리를 구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9.8%이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9.9%, 자폐성장애인 9.7%이다.

〈표 2-5-28〉 최근 3년 내 일자리를 구해본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있음	5,278	9.8	4,500	9.9	779	9.7
없음	48,438	90.2	41,161	90.1	7,277	90.3
전 체	53,716	100.0	45,660	100.0	8,056	100.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최근 3년 구직활동 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74.3%, 없는 비율은 25.7%로 나타났다.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경험이 없는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25.6%, 자폐성장애인이 25.8%이다.

〈표 2-5-29〉 최근 3년 내 이력서 제출 또는 면접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이력서 제출 또는 면접 경험 있음	3,924	74.3	3,346	74.4	578	74.2
1~4회	3,239	61.4	2,687	59.7	552	70.8
5~9회	531	10.1	505	11.2	26	3.4
10회 이상	154	2.9	154	3.4	0	0.0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 본 적이 없음	1,355	25.7	1,154	25.6	201	25.8
전 체	5,278	100.0	4,500	100.0	779	100.0

주: 최근 3년 내 일자리를 구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최근 3년 구직활동 시 겪은 애로사항으로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일자리(사업체) 자체가 없거나 부족함'이 39.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능력, 기술, 경력 등이 부족함' 13.2%, '발달장애인 취업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움' 12.4% 등의 순으로 많다.

〈표 2-5-30〉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발달장애인 취업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움	655	12.4	543	12.1	112	14.3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일자리(사업체) 자체가 없거나 부족함	2,079	39.4	1,775	39.5	304	39.0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과정에서 자주 탈락함	652	12.4	544	12.1	108	13.9
임금, 근로시간, 계약조건 등이 맞지 않음	189	3.6	178	4.0	10	1.3
장애인 당사자의 취업 의지가 없거나 부족함	167	3.2	98	2.2	69	8.9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능력, 기술, 경력 등이 부족함	699	13.2	691	15.4	9	1.1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관리, 사회 적응 등의 준비가 부족함	400	7.6	283	6.3	117	15.0
기타	179	3.4	179	4.0	0	0.0
특별히 없음	259	4.9	208	4.6	50	6.5
전 체	5,278	100.0	4,500	100.0	779	100.0

주: 최근 3년 내 일자리를 구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나. 취업을 위한 준비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15.4%에 그치고 있다.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14.5%, 자폐성장애인이 20.2%이다.

〈표 2-5-31〉 취업을 위한 준비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직업교육훈련 참여 등 준비를 하고 있음	8,258	15.4	6,627	14.5	1,631	20.2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없음	45,458	84.6	39,033	85.5	6,425	79.8
전 체	53,716	100.0	45,660	100.0	8,056	100.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보호자는 당사자가 취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1순위)으로 '일을 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야 함'(34.8%), '근로능력, 기술을 키워야 함'(15.3%), '당사자의 진로 및 적성을 탐색하고 개발해야 함'(14.6%),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함'(10.6%), '직업 및 취업 정보를 확보해야 함'(10.6%) 등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는 '일을 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야 함'과 '근로능력, 기술을 키워야 함'을, 자폐성장장애인의 보호자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2-5-32〉 취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일을 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야 함	18,708	34.8	16,699	36.6	2,009	24.9
당사자의 진로 및 적성을 탐색하고 개발해야 함	7,818	14.6	6,644	14.6	1,174	14.6
직업 및 취업 정보를 확보해야 함	5,695	10.6	5,293	11.6	402	5.0
근로능력, 기술을 키워야 함	8,203	15.3	7,063	15.5	1,139	14.1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5,677	10.6	4,154	9.1	1,522	18.9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	3,444	6.4	2,710	5.9	734	9.1
책임감, 시간 업무 등 직업태도를 갖춰야 함	832	1.5	739	1.6	93	1.2
자기관리(신변처리 등)를 잘해야 함	1,499	2.8	1,126	2.5	373	4.6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잘 관리해야 함	1,827	3.4	1,231	2.7	596	7.4
모름/응답거절	14	0.0	0	0.0	14	0.2
전 체	53,716	100.0	45,660	100.0	8,056	100.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제6절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1. 직업적 능력

가. 직업에 대한 이해와 근로의지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비율은 52.9%, 그렇지 않은 비율은 47.1%이다. 이해하는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54.4%, 자폐성장애인이 38.3%이다.

〈표 2-6-1〉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잘 이해하고 있음	63,586	28.4	59,384	29.4	4,202	19.5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편임	54,712	24.4	50,668	25.1	4,044	18.8
조금은 이해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편임	44,167	19.7	39,379	19.5	4,788	22.3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함	61,307	27.4	52,834	26.1	8,473	39.4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나.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기술 수준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수준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유사한 성별,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힘(근력), 체력’ 44.7%, ‘이동, 빠르게 움직이기’ 56.1%, ‘서있기, 불편한 자세 유지하기’ 51.9%, ‘미세한 손동작으로 작업하기’ 67.9%, ‘주어진 지시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73.5%,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기’ 80.6%,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작업 후 정리하기’ 76.2%, ‘높은 집중력과 주의 유지하기’ 81.1%, ‘동일한 일을 일정 시간(2시간) 이상 반복하기’ 73.7%,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76.3%,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73.5%,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84.3%, ‘동료나 상사와 협력, 의사소통하기’ 81.4%, ‘새로운 상황과 장소에 적응하기’ 81.3%로 나타났다.

〈표 2-6-2〉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수준(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힘(근력), 체력	매우 낮다	23,623	10.6	22,511	11.1	1,112	5.2
	낮은 편이다	76,298	34.1	70,808	35.0	5,490	25.5
	비슷한 편이다	103,854	46.4	92,914	45.9	10,940	50.9
	높은 편이다	18,419	8.2	15,076	7.5	3,343	15.5
	매우 높다	1,578	0.7	956	0.5	622	2.9
이동, 빠르게 움직이기	매우 낮다	35,060	15.7	33,057	16.3	2,004	9.3
	낮은 편이다	90,509	40.4	82,734	40.9	7,775	36.2
	비슷한 편이다	86,509	38.7	76,931	38.0	9,579	44.5
	높은 편이다	10,651	4.8	8,760	4.3	1,890	8.8
	매우 높다	1,043	0.5	784	0.4	259	1.2
서있기, 불편한 자세 유지하기	매우 낮다	32,826	14.7	30,408	15.0	2,418	11.2
	낮은 편이다	83,266	37.2	75,907	37.5	7,359	34.2
	비슷한 편이다	98,056	43.8	87,781	43.4	10,275	47.8
	높은 편이다	8,099	3.6	6,890	3.4	1,209	5.6
	매우 높다	1,401	0.6	1,155	0.6	246	1.1
	모름/응답거절	125	0.1	125	0.1	0	0.0
미세한 손동작으로 작업하기	매우 낮다	53,741	24.0	49,131	24.3	4,610	21.4
	낮은 편이다	98,194	43.9	89,625	44.3	8,569	39.8
	비슷한 편이다	61,911	27.7	55,289	27.3	6,622	30.8
	높은 편이다	7,879	3.5	6,531	3.2	1,348	6.3
	매우 높다	1,699	0.8	1,341	0.7	358	1.7
	모름/응답거절	349	0.2	349	0.2	0	0.0
주어진 지시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매우 낮다	59,974	26.8	53,737	26.6	6,236	29.0
	낮은 편이다	104,456	46.7	95,462	47.2	8,994	41.8
	비슷한 편이다	52,062	23.3	46,845	23.2	5,217	24.3
	높은 편이다	6,014	2.7	5,186	2.6	828	3.9
	매우 높다	1,266	0.6	1,035	0.5	232	1.1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기	매우 낮다	77,984	34.8	71,133	35.2	6,851	31.9
	낮은 편이다	102,394	45.8	93,090	46.0	9,304	43.3
	비슷한 편이다	37,073	16.6	32,868	16.2	4,205	19.6
	높은 편이다	5,010	2.2	4,133	2.0	877	4.1
	매우 높다	1,196	0.5	927	0.5	269	1.3
	모름/응답거절	114	0.1	114	0.1	0	0.0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표 2-6-2〉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수준(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계속)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작업 후 정리하기	매우 낮다	71,286	31.9	64,038	31.7	7,248	33.7
	낮은 편이다	99,314	44.4	90,687	44.8	8,627	40.1
	비슷한 편이다	46,962	21.0	42,370	20.9	4,592	21.3
	높은 편이다	4,879	2.2	4,036	2.0	843	3.9
	매우 높다	1,218	0.5	1,020	0.5	198	0.9
	모름/응답거절	114	0.1	114	0.1	0	0.0
높은 집중력과 주의 유지하기	매우 낮다	78,744	35.2	71,048	35.1	7,696	35.8
	낮은 편이다	102,707	45.9	93,926	46.4	8,781	40.8
	비슷한 편이다	35,877	16.0	32,179	15.9	3,698	17.2
	높은 편이다	5,064	2.3	4,055	2.0	1,009	4.7
	매우 높다	1,359	0.6	1,058	0.5	301	1.4
	모름/응답거절	22	0.0	0	0.0	22	0.1
동일한 일을 일정시간 이상(2시간) 반복하기	매우 낮다	67,974	30.4	61,089	30.2	6,886	32.0
	낮은 편이다	97,041	43.4	88,269	43.6	8,772	40.8
	비슷한 편이다	52,359	23.4	47,498	23.5	4,861	22.6
	높은 편이다	4,875	2.2	4,129	2.0	746	3.5
	매우 높다	1,414	0.6	1,173	0.6	242	1.1
	모름/응답거절	108	0.0	108	0.1	0	0.0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매우 낮다	73,595	32.9	66,233	32.7	7,363	34.2
	낮은 편이다	97,165	43.4	88,769	43.9	8,396	39.0
	비슷한 편이다	46,785	20.9	42,405	21.0	4,380	20.4
	높은 편이다	4,587	2.0	3,567	1.8	1,020	4.7
	매우 높다	1,640	0.7	1,292	0.6	348	1.6
	모름/응답거절	108	0.0	108	0.1	0	0.0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매우 낮다	75,394	33.7	68,135	33.7	7,259	33.8
	낮은 편이다	89,121	39.8	81,278	40.2	7,844	36.5
	비슷한 편이다	50,890	22.7	45,830	22.7	5,060	23.5
	높은 편이다	6,331	2.8	5,346	2.6	984	4.6
	매우 높다	2,036	0.9	1,677	0.8	360	1.7
	모름/응답거절	108	0.0	108	0.1	0	0.0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매우 낮다	87,912	39.3	78,806	39.0	9,105	42.3
	낮은 편이다	100,631	45.0	91,403	45.2	9,228	42.9
	비슷한 편이다	30,987	13.8	28,284	14.0	2,703	12.6
	높은 편이다	3,073	1.4	2,705	1.3	368	1.7
	매우 높다	1,169	0.5	1,066	0.5	103	0.5
	모름/응답거절	108	0.0	108	0.1	0	0.0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표 2-6-2〉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수준(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계속)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동료나 상사와 협력, 의사소통하기	매우 낮다	79,240	35.4	70,215	34.7	9,025	42.0
	낮은 편이다	102,921	46.0	93,582	46.3	9,339	43.4
	비슷한 편이다	36,732	16.4	33,982	16.8	2,750	12.8
	높은 편이다	3,519	1.6	3,246	1.6	272	1.3
	매우 높다	1,159	0.5	1,057	0.5	103	0.5
	모름/응답거절	200	0.1	183	0.1	17	0.1
새로운 상황과 장소에 적응하기	매우 낮다	79,624	35.6	71,280	35.2	8,345	38.8
	낮은 편이다	102,369	45.7	93,213	46.1	9,156	42.6
	비슷한 편이다	37,234	16.6	33,783	16.7	3,452	16.0
	높은 편이다	3,429	1.5	3,019	1.5	410	1.9
	매우 높다	1,115	0.5	970	0.5	145	0.7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표 2-6-3〉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평균적인 능력 수준(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힘(근력), 체력	2.54	223,772	2.51	202,265	2.85	21,507
이동, 빠르게 움직이기	2.34	223,772	2.32	202,265	2.56	21,507
서있기, 불편한 자세 유지하기	2.38	223,647	2.37	202,140	2.51	21,507
미세한 손동작으로 작업하기	2.13	223,423	2.12	201,916	2.27	21,507
주어진 지시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2.04	223,772	2.03	202,265	2.06	21,507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기	1.88	223,658	1.87	202,151	2.00	21,507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작업 후 정리하기	1.95	223,658	1.95	202,151	1.98	21,507
높은 집중력과 주의 유지하기	1.87	223,750	1.86	202,265	1.95	21,485
동일한 일을 일정시간 이상(2시간) 반복하기	1.99	223,664	1.99	202,157	2.01	21,507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1.94	223,772	1.94	202,265	2.00	21,507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1.97	223,772	1.97	202,265	2.04	21,507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1.79	223,772	1.79	202,265	1.75	21,507
동료나 상사와 협력, 의사소통하기	1.86	223,572	1.87	202,082	1.75	21,490
새로운 상황과 장소에 적응하기	1.86	223,772	1.86	202,265	1.83	21,507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점이 유사한 성별, 연령대 사람들의 평균적인 능력 수준이라고 할 때 발달장애인은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1.79점, '동료나 상사와 협력, 의사소통하기' 1.86점, '새로운 상황과 장소에 적응하기' 1.86점, '높은 집중력과 주의 유지하기' 1.87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기' 1.88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바리스타, 목공 등 일반적인 일자리(사업체)로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기술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는 9.8%이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9.3%, 자폐성장장애인이 14.7%로 나타났다.

〈표 2-6-4〉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기술이나 자격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갖고 있음	21,928	9.8	18,775	9.3	3,153	14.7
갖고 있지 않음	201,844	90.2	183,490	90.7	18,354	85.3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통상적인 수준의 근로가 가능한 발달장애인은 31천명(13.6%), 단시간 또는 단순한 수준의 근로가 가능한 경우는 85천명(38.2%), 집안일 수행 정도만 가능한 경우는 46천명(20.4%), 집안일 자체도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62천명(27.7%)이다. 단시간 또는 단순한 수준 이상으로 근로가 가능한 발달장애인은 전체의 51.8%인 116천명이며, 지적장애인이 104천명(51.5%)이고, 자폐성장장애인이 12천명(55.3%)이다.

〈표 2-6-5〉 주관적 근로능력 수준

(단위: 명, %, 4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통상적인 수준의 근로가 가능	30,526	13.6	27,705	13.7	2,821	13.1
단시간 또는 단순한 수준의 근로가 가능	85,466	38.2	76,384	37.8	9,082	42.2
집안일 수행 정도만 가능(돈을 벌 수 있는 수준이 아님)	45,693	20.4	42,449	21.0	3,244	15.1
집안일 자체도 수행 불가능	62,086	27.7	55,727	27.6	6,359	29.6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 균		2.62		2.62		2.61
응답 추정 수	223,772		202,265		21,507	

주관적 근로능력 수준에서 집안일 수행 정도만 가능하거나, 집안일 자체도 수행이 어렵다고 응답한 발달장애인 미취업자에게 기관 방문객에게 인사하기, 화단 물주기, 스티커 붙이기 등과 같이 최종중 발달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직무가 개발되고, 일자리에서 출퇴근이나 편의시설 등이 지원되는 경우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13.3%이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11.6%, 자폐성장애인 31.1%이다.

〈표 2-6-6〉 최종중 발달장애인 취업 의사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있음	13,777	13.3	11,024	11.6	2,752	31.1
없음	89,816	86.7	83,720	88.4	6,096	68.9
전 체	103,592	100.0	94,744	100.0	8,848	100.0

주: 미취업자 중 “주관적 근로능력 수준”에서 ‘집안일 수행 정도만 가능’, ‘집안일 자체도 수행 불가능’으로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다. 취업에 대한 지지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이 발달장애인 취업을 지지하는 비율은 53.1%이며,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30.7%이다. 지지하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가족이 51.5%, 자폐성장애인 가족이 67.9%이다.

〈표 2-6-7〉 발달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30,288	13.5	28,569	14.1	1,719	8.0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38,368	17.1	35,942	17.8	2,426	11.3
그저 그렇다	36,049	16.1	33,314	16.5	2,734	12.7
지지하는 편이다	63,400	28.3	56,346	27.9	7,054	32.8
매우 지지한다	55,336	24.7	47,791	23.6	7,545	35.1
모름/응답거절	331	0.1	302	0.1	29	0.1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 균		3.34		3.29		3.76
응답 추정 수	223,441		201,963		21,478	

주: 평균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발달장애인 미취업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을 지지하고 교육훈련, 정보제공, 취업알선, 동행(면접, 일자리 등), 취업비용 지원 등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5명 미만인 경우가 87.1% 이고, 전혀 없는 경우도 10.2%로 나타났다.

〈표 2-6-8〉 취업을 원할 경우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수(미취업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10명 이상	582	0.4	346	0.2	237	1.6
5~9명	3,478	2.2	3,011	2.1	467	3.2
1~4명	135,517	87.1	122,395	86.8	13,122	90.5
전혀 없음	15,843	10.2	15,175	10.8	667	4.6
모름/응답거절	122	0.1	122	0.1	0	0.0
전 체	155,542	100.0	141,048	100.0	14,493	100.0

주: 미취업자에게 질문함

2. 정보기기 활용 능력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컴퓨터 활용과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 게임 등 두루 활용이 가능한 비율은 18.2%이며, 일부 기능만 활용 가능한 비율은 32.5%, 활용할 수 없는 비율은 49.3%이다. 컴퓨터를 일부라도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49.3%, 자폐성장애인이 64.0%이다.

〈표 2-6-9〉 컴퓨터 활용 가능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 게임 등 두루 활용 가능	40,714	18.2	34,808	17.2	5,906	27.5
일부 기능만 활용 가능	72,823	32.5	64,962	32.1	7,860	36.5
활용할 수 없음	110,236	49.3	102,495	50.7	7,741	36.0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발달장애인의 스마트폰 활용과 관련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19.9%)을 포함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은 41.7%이며, 사용이 가능한 비율은 35.2%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34.4%, 자폐성장애인이 42.6%이다.

〈표 2-6-10〉 스마트폰 활용 가능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	44,559	19.9	40,990	20.3	3,569	16.6
사용할 수 없는 편이다	48,686	21.8	44,754	22.1	3,932	18.3
보통이다	51,832	23.2	46,982	23.2	4,850	22.6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	60,872	27.2	54,312	26.9	6,560	30.5
매우 잘 사용한다	17,824	8.0	15,227	7.5	2,597	12.1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 균		2.82		2.79		3.03
응답 추정 수	223,772		202,265		21,507	

3. 고용서비스 이용

가.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최근 3년 동안 일자리를 갖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복지관, 시설·협회·단체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15.8%인 35,381명으로 추정된다. 지적장애인의 이용 비율은 15.2%, 자폐성장아인은 21.6%이다.

〈표 2-6-11〉 최근 3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있음	35,381	15.8	30,733	15.2	4,648	21.6
없음	188,391	84.2	171,532	84.8	16,859	78.4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표 2-6-12〉 최근 3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중복응답)(전체 발달장애인)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진로상담, 설계(진로설계 컨설팅)	7,175	3.2	6,189	3.1	985	4.6
직업탐색, 직업정보 제공	10,857	4.9	9,182	4.5	1,675	7.8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7,662	3.4	6,026	3.0	1,637	7.6
직업능력평가	2,802	1.3	2,164	1.1	639	3.0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역량 강화	4,439	2.0	4,047	2.0	392	1.8
직업기술 교육, 훈련	8,868	4.0	7,831	3.9	1,037	4.8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	10,470	4.7	9,149	4.5	1,321	6.1
현장실습(훈련)(지원고용 등)	4,739	2.1	4,051	2.0	688	3.2
취업알선(구직상담, 동행면접 등)	9,555	4.3	8,569	4.2	985	4.6
취업 전후 인력 지원(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	2,067	0.9	1,722	0.9	345	1.6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	396	0.2	302	0.1	94	0.4
출퇴근 지원(차량, 비용, 인력 등)	2,125	0.9	1,724	0.9	401	1.9
직업생활 상담 및 고충 처리(인권 보호)	1,709	0.8	1,623	0.8	86	0.4
발달장애인 취업 관련 부모(보호자) 교육	1,537	0.7	1,159	0.6	378	1.8
전 체	223,772	-	202,265	-	21,507	-

주 1)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하였으나, 전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율을 산출함
 2)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최근 3년동안 이용한 고용서비스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4.9%가 '직업탐색, 직업정보 제공'을 이용하였고,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4.7%), '취업알선(구직상담, 동행면접 등)'(4.3%), '직업기술 교육, 훈련'(4.0%),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3.4%), '진로상담, 설계(진로설계 컨설팅)'(3.2%) 등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모두 '직업탐색, 직업정보 제공'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폐성장애인은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역량 강화', '직업생활 상담 및 고충 처리(인권 보호)'를 제외한 모든 고용서비스를 지적장애인보다 많이 이용하였다.

이용한 고용서비스의 도움 정도를 3점 척도로 응답받은 결과, 도움이 된 비율(3점인 비율)은 '진로상담, 설계(진로설계 컨설팅)' 52.1%, '직업탐색, 직업정보 제공' 51.1%,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57.6%, '직업능력평가' 59.2%,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역량 강화' 63.5%, '직업기술 교육, 훈련' 67.4%,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 59.7%, '현장실습(훈련)(지원 고용 등)' 54.6%, '취업알선(구직상담, 동행면접 등)' 73.0%, '취업 전후 인력 지원(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 60.8%,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 37.9%, '출퇴근 지원(차량, 비용, 인력 등)' 61.6%, '직업생활 상담 및 고충 처리(인권 보호)' 28.7%, '발달장애인 취업 관련 부모(보호자) 교육' 47.3%이다.

〈표 2-6-13〉 이용한 고용서비스의 도움 정도

구 분		(단위: 명, %)	
		추정 수	비율
진로상담, 설계 (진로설계 컨설팅)	도움이 됨	3,740	52.1
	이용자 전체	7,175	100.0
직업탐색, 직업정보 제공	도움이 됨	5,552	51.1
	이용자 전체	10,857	100.0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도움이 됨	4,417	57.6
	이용자 전체	7,662	100.0
직업능력평가	도움이 됨	1,660	59.2
	이용자 전체	2,802	100.0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역량 강화	도움이 됨	2,820	63.5
	이용자 전체	4,439	100.0
직업기술 교육, 훈련	도움이 됨	5,981	67.4
	이용자 전체	8,868	100.0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	도움이 됨	6,247	59.7
	이용자 전체	10,470	100.0

주: 최근 3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표 2-6-13〉 이용한 고용서비스의 도움 정도(계속)

구 분		추정 수	비율
현장실습(훈련) (지원고용 등)	도움이 됨	2,586	54.6
	이용자 전체	4,739	100.0
취업알선 (구직상담, 동행면접 등)	도움이 됨	6,973	73.0
	이용자 전체	9,555	100.0
취업 전후 인력 지원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	도움이 됨	1,256	60.8
	이용자 전체	2,067	100.0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	도움이 됨	150	37.9
	이용자 전체	396	100.0
출퇴근 지원 (차량, 비용, 인력 등)	도움이 됨	1,309	61.6
	이용자 전체	2,125	100.0
직업생활 상담 및 고충 처리 (인권 보호)	도움이 됨	490	28.7
	이용자 전체	1,709	100.0
발달장애인 취업 관련 부모(보호자) 교육	도움이 됨	727	47.3
	이용자 전체	1,537	100.0

주: 최근 3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나. 필요한 고용서비스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와 현재 취업자에게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질문하였다. 취업을 유지하거나 향후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9%이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보호자가 69.0%, 자폐성장애인 보호자가 76.2%이다.

〈표 2-6-14〉 필요한 고용서비스 유무(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 취업자)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있음	85,276	69.9	73,790	69.0	11,486	76.2
없음	36,671	30.1	33,087	31.0	3,583	23.8
전 체	121,947	100.0	106,877	100.0	15,069	100.0

주: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와 현재 취업자에게 질문함

만 15세 이상 전체 발달장애인에게 취업을 유지하거나 향후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1%이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보호자가 36.5%, 자폐성장애인 보호자가 53.4%이다.

〈표 2-6-15〉 필요한 고용서비스 유무(전체 발달장애인)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있음	85,276	38.1	73,790	36.5	11,486	53.4
없음	138,496	61.9	128,475	63.5	10,021	46.6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주: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와 현재 취업자에게 질문하였고,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한 고용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표 2-6-16〉 필요한 고용서비스(중복응답)(전체 발달장애인)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진로상담, 설계(진로설계 컨설팅)	19,589	8.8	16,726	8.3	2,863	13.3
직업탐색, 직업정보 제공	28,212	12.6	24,340	12.0	3,871	18.0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27,643	12.4	22,755	11.3	4,888	22.7
직업능력평가	9,817	4.4	8,470	4.2	1,347	6.3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역량 강화	7,838	3.5	6,728	3.3	1,110	5.2
직업기술 교육, 훈련	28,075	12.5	24,126	11.9	3,950	18.4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	30,303	13.5	26,140	12.9	4,164	19.4
현장실습(훈련)(지원고용 등)	22,328	10.0	18,628	9.2	3,700	17.2
취업알선(구직상담, 동행면접 등)	27,188	12.1	23,715	11.7	3,473	16.1
취업 전후 인력 지원(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	14,153	6.3	11,688	5.8	2,465	11.5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	3,477	1.6	2,958	1.5	520	2.4
출퇴근 지원(차량, 비용, 인력 등)	16,825	7.5	14,152	7.0	2,672	12.4
직업생활 상담 및 고충 처리(인권 보호)	16,363	7.3	13,977	6.9	2,386	11.1
발달장애인 취업 관련 부모(보호자) 교육	5,532	2.5	4,156	2.1	1,377	6.4
전 체	223,772	-	202,265	-	21,507	-

주 1)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와 현재 취업자에게 질문하였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한 고용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전체 발달장애인 보호자 중 8.8%는 '진로상담, 설계(진로설계 컨설팅)'가, 12.6%는 '직업탐색, 직업정보 제공'이, 12.4%는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이, 4.4%는 '직업능력평가가', 3.5%는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역량 강화'가, 12.5%는 '직업기술 교육, 훈련'이, 13.5%는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이, 10.0%는 '현장실습(훈련)(지원고용 등)'이, 12.1%는 '취업알선(구직상담, 동행면접 등)'이, 6.3%는 '취업 전후 인력 지원(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이, 1.6%는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이, 7.5%는 '출퇴근 지원(차량, 비용, 인력 등)'이, 7.3%는 '직업생활 상담 및 고충 처리(인권 보호)', 2.5%는 '발달장애인 취업 관련 부모(보호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23.5%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가 있으며, 18.6%는 이용 여부를 추후 고려해보겠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이용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는 57.9%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가 있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보호자가 22.0%, 자폐성장애인 보호자가 37.2%이다.

〈표 2-6-17〉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현재 이용할 의사가 있음	15,522	6.9	13,608	6.7	1,914	8.9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음	37,034	16.5	30,936	15.3	6,098	28.4
이용 여부를 추후 고려해보겠음	41,596	18.6	36,551	18.1	5,044	23.5
이용하지 않을 것임	129,595	57.9	121,169	59.9	8,427	39.2
모름/응답거절	25	0.0	0	0.0	25	0.1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후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38.1%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2%가 이용 여부를 추후에 고려해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용 의사가 있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보호자가 36.6%, 자폐성장애인 보호자가 49.1%로 나타났다.

〈표 2-6-18〉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 취업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현재 이용할 의사가 있음	12,946	10.6	11,196	10.5	1,750	11.6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음	33,551	27.5	27,904	26.1	5,648	37.5
이용 여부를 추후 고려해보겠음	30,736	25.2	27,007	25.3	3,728	24.7
이용하지 않을 것임	44,714	36.7	40,770	38.1	3,943	26.2
전 체	121,947	100.0	106,877	100.0	15,069	100.0

주: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와 현재 취업자 대상으로 분석함

제7절 일상생활

1. 건강과 운동

가. 건강상태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는 36.9%, 나쁜 경우는 27.4%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비율은 지적장애인 29.0%, 자폐성장아인 11.9%이다.

〈표 2-7-1〉 전반적인 건강상태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나쁘다	8,555	3.8	8,351	4.1	204	0.9
나쁜 편이다	52,737	23.6	50,375	24.9	2,362	11.0
보통이다	79,844	35.7	72,596	35.9	7,248	33.7
좋은 편이다	72,448	32.4	62,552	30.9	9,896	46.0
매우 좋다	10,188	4.6	8,391	4.1	1,797	8.4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 균		3.10		3.06		3.50
응답 추정 수	223,772		202,265		21,507	

작년 대비 건강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달라진 것이 없음'이 79.9%, '더 나빠진 편임' 15.8%, '더 좋아진 편임'이 4.2%로 나타났다.

〈표 2-7-2〉 작년 대비 건강상태 변화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더 좋아진 편임	9,461	4.2	8,224	4.1	1,237	5.8
달라진 것이 없음	178,893	79.9	159,951	79.1	18,942	88.1
더 나빠진 편임	35,418	15.8	34,091	16.9	1,328	6.2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현재 건강상태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수준에 대해 지장이 있는 경우는 44.9%, 지장이 없는 경우는 55.1%이다. 지적장애인이 현재 건강상태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비율은 46.3%로 자폐성장아인(31.7%)보다 높다.

〈표 2-7-3〉 현재 건강상태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수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혀 지장이 없음	123,333	55.1	108,650	53.7	14,682	68.3
지장이 있는 편임	77,420	34.6	71,736	35.5	5,684	26.4
매우 지장이 있음	23,019	10.3	21,879	10.8	1,140	5.3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현재 장애 이외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은 39.3%로, 지적장애인 40.6%, 자폐성장아인 27.1%이다.

〈표 2-7-4〉 만성질환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있음	88,005	39.3	82,179	40.6	5,826	27.1
없음	135,650	60.6	119,969	59.3	15,681	72.9
모름/응답거절	117	0.1	117	0.1	0	0.0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만성질환이 있다고 한 경우 '신경정신과 질환'이 30.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혈압, 저혈압(28.6%)', '당뇨병'(23.8%),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15.0%)', '뇌전증(장애미등록)'(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5〉 만성질환 종류(중복응답)

구 분	(단위: 명, %)	
	추정 수	비율
암(위, 간, 폐, 기관지 등)	1,246	1.4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13,234	15.0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3,022	3.4
만성간염, 간경변	2,237	2.5
당뇨병	20,973	23.8
갑상선질환	2,944	3.3
고혈압, 저혈압	25,156	28.6
중풍, 뇌혈관질환	2,239	2.5
심근경색증, 협심증	2,787	3.2
만성기관지염(심한가래, 기침), 천식	2,278	2.6
백내장, 녹내장	1,015	1.2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1,623	1.8
골다공증	1,683	1.9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1,062	1.2
뇌전증(장애미등록)	12,691	14.4
신경정신과 질환	26,373	30.0
기타	7,558	8.6
전 체	88,005	-

- 주 1)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2)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나. (조기)노화

발달장애인의 15.5%는 체력 감소 등 신체활동능력이 제한되거나 청력, 시력 등의 감각기관의 변화, 뼈가 약해지는 골근육계 변화, 알츠하이머나 당뇨병 등 노인성 질병이 발생하는 등 (조기)노화가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적장애인은 16.7%, 자폐성장애인은 4.4%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6〉 (조기)노화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조기)노화가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음	34,676	15.5	33,728	16.7	948	4.4
노화가 시작되지 않음(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189,096	84.5	168,537	83.3	20,559	95.6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조기)노화가 시작되었거나 진행되어 노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연령은 평균적으로 44.5세로 나타났으며, 15~29세는 1.7%, 30~39세는 8.3%, 40~49세는 17.3%, 50세 이상은 41.1%가 (조기)노화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표 2-7-7〉 (조기)노화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령			
			15~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조기)노화가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음	34,676	15.5	1.7	8.3	17.3	41.1
노화가 시작되지 않음(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189,096	84.5	98.3	91.7	82.7	58.9
전 체	223,772	100.0	100.0 (85,039)	100.0 (46,376)	100.0 (36,117)	100.0 (56,240)
평균 발현 연령	44.5세		19.5세	31.1세	38세	50세
응답 추정 수	34,676		1,484	3,863	6,236	23,093

- 주 1) (조기)노화가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관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연령을 질문함
 2) 해당 연령대에 속하는 전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율을 산출함

다. 운동

평소 운동을 하는 경우는 35.2%이며, 지적장애인은 33.4%, 자폐성장애인은 51.8%이다.

〈표 2-7-8〉 평소 운동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하고 있음	78,747	35.2	67,605	33.4	11,141	51.8
하지 않음	145,025	64.8	134,660	66.6	10,366	48.2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소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하루 평균 운동시간은 70.8분이며, 하루 30분 이내 운동하는 비율은 23.5%, 1시간 이내 운동하는 비율은 73.6%이다.

〈표 2-7-9〉 하루 평균 운동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30분 이내	18,478	23.5	16,279	24.1	2,199	19.7
30분 초과 1시간 이내	39,490	50.1	33,788	50.0	5,702	51.2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	15,265	19.4	12,977	19.2	2,288	20.5
2시간 초과	5,486	7.0	4,561	6.7	925	8.3
모름/응답거절	28	0.0	0	0.0	28	0.2
전 체	78,747	100.0	67,605	100.0	11,141	100.0
운동시간 평균		70.8분		70.1분		75.5분
응답 추정 수		78,719		67,605		11,114

주 1) 평소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2) 평균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라.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다소 있다'와 '매우 많다'를 합산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로 할 경우 '흡연 문제'는 3.9%, '음주 문제'는 2.4%, '약물 중독'은 0.6%, '스마트폰, 게임 중독 문제'는 8.6%, '과체중(비만) 문제'는 19.4%, '성적(性的) 문제'는 3.4%,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는 21.9%로 나타났다.

〈표 2-7-10〉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흡연 문제	전혀 없다	214,923	96.0	193,461	95.6	21,462	99.8
	다소 있다	5,682	2.5	5,664	2.8	18	0.1
	매우 많다	3,140	1.4	3,140	1.6	0	0.0
	모름/응답거절	28	0.0	0	0.0	28	0.1
음주 문제	전혀 없다	218,163	97.5	196,750	97.3	21,413	99.6
	다소 있다	4,393	2.0	4,326	2.1	67	0.3
	매우 많다	1,051	0.5	1,051	0.5	0	0.0
	모름/응답거절	166	0.1	138	0.1	28	0.1
약물 중독 문제	전혀 없다	222,442	99.4	200,987	99.4	21,455	99.8
	다소 있다	1,172	0.5	1,172	0.6	0	0.0
	매우 많다	106	0.0	106	0.1	0	0.0
	모름/응답거절	52	0.0	0	0.0	52	0.2
스마트폰, 게임 중독 문제	전혀 없다	204,235	91.3	185,621	91.8	18,613	86.5
	다소 있다	15,493	6.9	13,093	6.5	2,400	11.2
	매우 많다	3,721	1.7	3,279	1.6	442	2.1
	모름/응답거절	324	0.1	272	0.1	52	0.2
과체중(비만) 문제	전혀 없다	180,239	80.5	164,785	81.5	15,454	71.9
	다소 있다	29,740	13.3	25,929	12.8	3,811	17.7
	매우 많다	13,598	6.1	11,455	5.7	2,143	10.0
	모름/응답거절	195	0.1	96	0.0	99	0.5
성적(性的) 문제	전혀 없다	216,042	96.5	195,866	96.8	20,176	93.8
	다소 있다	7,032	3.1	5,938	2.9	1,094	5.1
	매우 많다	645	0.3	461	0.2	185	0.9
	모름/응답거절	52	0.0	0	0.0	52	0.2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	전혀 없다	174,585	78.0	157,941	78.1	16,644	77.4
	다소 있다	39,607	17.7	35,781	17.7	3,826	17.8
	매우 많다	9,457	4.2	8,543	4.2	914	4.2
	모름/응답거절	124	0.1	0	0.0	124	0.6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2. 일상생활 도움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69.1%이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67.7%, 자폐성장아인 81.8%이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과시간의 대부분 필요한 비율은 28.5%,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필요한 비율은 22.2%,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 필요한 비율은 29.1%, 2시간 미만으로 필요한 비율은 20.2%이다.

〈표 2-7-11〉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및 필요 수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필요함	154,609	69.1	137,007	67.7	17,602	81.8
일과시간의 대부분 필요함(12시간 이상)	44,055	28.5	38,320	28.0	5,735	32.6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34,383	22.2	29,533	21.6	4,850	27.6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4,988	29.1	40,342	29.4	4,645	26.4
2시간 미만	31,184	20.2	28,812	21.0	2,372	13.5
소 계	154,609	100.0	137,007	100.0	17,602	100.0
필요하지 않음	69,163	30.9	65,258	32.3	3,905	18.2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주. "필요 수준"은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10.4%이며, 어느정도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는 65.6%로 나타났다.

〈표 2-7-12〉 필요한 만큼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는지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혀 못 받고 있다	2,238	1.4	2,128	1.6	110	0.6
별로 못 받고 있다	13,855	9.0	12,635	9.2	1,220	6.9
보통이다	37,048	24.0	33,837	24.7	3,211	18.2
어느정도 받고 있다	62,888	40.7	54,980	40.1	7,908	44.9
충분히 받고 있다	38,553	24.9	33,427	24.4	5,126	29.1
모름/응답거절	28	0.0	0	0.0	28	0.2
전 체	154,609	100.0	137,007	100.0	17,602	100.0
평 균		3.79		3.77		3.95
응답 추정 수	154,582		137,007		17,575	

주 1)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2) 평균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1순위)은 부모가 71.0%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배우자 및 자녀'(9.2%), '형제자매'(7.5%) 등의 순이다.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 부모가 도와주는 비율이 90.6%로 지적장애인(68.5%)에 비해 높다.

〈표 2-7-13〉 일상생활 주 도움 제공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부모	109,744	71.0	93,791	68.5	15,953	90.6
조부모	2,096	1.4	1,690	1.2	406	2.3
형제자매	11,552	7.5	11,411	8.3	142	0.8
배우자 및 자녀	14,281	9.2	14,255	10.4	27	0.2
친인척	3,855	2.5	3,805	2.8	51	0.3
활동지원사	9,519	6.2	8,673	6.3	845	4.8
공공후견인	219	0.1	219	0.2	0	0.0
기관 종사자	2,345	1.5	2,165	1.6	179	1.0
친구 및 이웃	999	0.6	999	0.7	0	0.0
전 체	154,609	100.0	137,007	100.0	17,602	100.0

주: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일상생활에서 주 도움 제공자 외에 다른 도움 제공자가 없는 경우는 33.4%이다.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35.1%, 자폐성장장애인 19.8%이다.

〈표 2-7-14〉 주 도움 제공자 외에 다른 도움 제공자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있음	102,984	66.6	88,863	64.9	14,121	80.2
없음	51,626	33.4	48,144	35.1	3,482	19.8
전 체	154,609	100.0	137,007	100.0	17,602	100.0

주: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3. 하루 일과

가. 주로 하는 활동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평일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활동(1순위)은 '근로'가 28.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휴식하기(그냥 쉬기)'(21.1%), 'TV 보기'(16.8%), '기관의 돌봄,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12.3%), '통학'(9.8%) 등의 순이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모두 '근로'가 각각 28.3%, 30.0%로 가장 많다.

〈표 2-7-15〉 평일 주된 활동(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근로	63,631	28.4	57,181	28.3	6,450	30.0
통학	21,825	9.8	16,691	8.3	5,134	23.9
기관의 돌봄,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27,634	12.3	23,172	11.5	4,462	20.7
휴식하기(그냥 쉬기)	47,186	21.1	44,863	22.2	2,323	10.8
외출	2,068	0.9	1,993	1.0	75	0.4
운동하기	5,147	2.3	4,487	2.2	660	3.1
TV 보기	37,567	16.8	36,546	18.1	1,022	4.8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하기	9,184	4.1	8,196	4.1	988	4.6
집에서 하는 개인·가족 취미 활동	3,073	1.4	2,931	1.4	142	0.7
집 밖에서 하는 개인·가족 취미 활동	1,569	0.7	1,472	0.7	97	0.5
가사(집안일) 및 돌봄	3,919	1.8	3,897	1.9	21	0.1
병원이나 치료센터 방문	517	0.2	439	0.2	78	0.4
종교활동	430	0.2	398	0.2	32	0.1
기타	22	0.0	0	0.0	22	0.1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일 주된 활동을 3순위 응답까지 중복으로 살펴보면, '휴식하기(그냥 쉬기)'(55.7%), 'TV 보기'(51.0%), '근로'(29.9%)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다.

〈표 2-7-16〉 평일 주된 활동(1+2+3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근로	67,001	29.9	60,099	29.7	6,903	32.1
통학	23,363	10.4	17,918	8.9	5,445	25.3
기관의 돌봄,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35,578	15.9	29,671	14.7	5,907	27.5
휴식하기(그냥 쉬기)	124,669	55.7	115,304	57.0	9,365	43.5
외출	11,558	5.2	10,872	5.4	686	3.2
운동하기	31,563	14.1	27,170	13.4	4,393	20.4
TV 보기	114,092	51.0	108,197	53.5	5,895	27.4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하기	55,284	24.7	47,777	23.6	7,508	34.9
집에서 하는 개인·가족 취미 활동	15,899	7.1	13,890	6.9	2,009	9.3
집 밖에서 하는 개인·가족 취미 활동	6,041	2.7	5,280	2.6	762	3.5
가사(집안일) 및 돌봄	12,939	5.8	12,716	6.3	223	1.0
병원이나 치료센터 방문	5,761	2.6	5,000	2.5	761	3.5
종교활동	2,118	0.9	2,030	1.0	88	0.4
기타	471	0.2	436	0.2	34	0.2
전 체	223,772	-	202,265	-	21,507	-

주: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표 2-7-17〉 주말 주된 활동(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근로	5,859	2.6	5,647	2.8	212	1.0
통학	1,477	0.7	1,285	0.6	192	0.9
기관의 돌봄,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2,777	1.2	2,269	1.1	508	2.4
휴식하기(그냥 쉬기)	86,243	38.5	78,146	38.6	8,098	37.7
외출	11,193	5.0	9,864	4.9	1,329	6.2
운동하기	10,446	4.7	7,988	3.9	2,458	11.4
TV 보기	52,382	23.4	50,044	24.7	2,338	10.9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하기	22,647	10.1	19,479	9.6	3,168	14.7
집에서 하는 개인·가족 취미 활동	5,207	2.3	4,297	2.1	909	4.2
집 밖에서 하는 개인·가족 취미 활동	4,725	2.1	3,738	1.8	987	4.6
가사(집안일) 및 돌봄	4,167	1.9	4,105	2.0	62	0.3
병원이나 치료센터 방문	496	0.2	431	0.2	64	0.3
종교활동	16,154	7.2	14,972	7.4	1,182	5.5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주말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활동(1순위)은 '휴식하기(그냥 쉬기)'가 3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TV 보기'(23.4%),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하기'(10.1%) 등의 순이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모두 '휴식하기(그냥 쉬기)' 응답이 가장 많다.

주말 주된 활동을 3순위 응답까지 중복으로 살펴보면, '휴식하기(그냥 쉬기)'(68.4%), 'TV 보기'(60.4%),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하기'(27.1%) 등의 비율이 높다.

〈표 2-7-18〉 주말 주된 활동(1+2+3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근로	6,617	3.0	6,364	3.1	253	1.2
통학	1,582	0.7	1,372	0.7	209	1.0
기관의 돌봄,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3,546	1.6	2,833	1.4	713	3.3
휴식하기(그냥 쉬기)	153,056	68.4	139,878	69.2	13,178	61.3
외출	32,573	14.6	28,907	14.3	3,666	17.0
운동하기	33,412	14.9	27,766	13.7	5,646	26.3
TV 보기	135,173	60.4	126,177	62.4	8,996	41.8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하기	60,640	27.1	52,444	25.9	8,196	38.1
집에서 하는 개인·가족 취미 활동	23,496	10.5	20,137	10.0	3,359	15.6
집 밖에서 하는 개인·가족 취미 활동	16,427	7.3	13,814	6.8	2,613	12.1
가사(집안일) 및 돌봄	14,643	6.5	14,238	7.0	405	1.9
병원이나 치료센터 방문	1,481	0.7	1,228	0.6	253	1.2
종교활동	26,805	12.0	24,089	11.9	2,715	12.6
기타	421	0.2	421	0.2	0	0.0
전 체	223,772	-	202,265	-	21,507	-

주: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57.8%는 현재 이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있으며, 싫어하는 비율은 4.0%로 낮은 편이다.

〈표 2-7-19〉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이렇게 일과를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싫어한다	1,273	0.6	1,231	0.6	41	0.2
싫어하는 편이다	7,604	3.4	6,938	3.4	666	3.1
그저 그렇다	85,328	38.1	78,451	38.8	6,876	32.0
좋아하는 편이다	112,492	50.3	100,997	49.9	11,495	53.4
매우 좋아한다	16,743	7.5	14,386	7.1	2,357	11.0
모름/응답거절	333	0.1	261	0.1	71	0.3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 균		3.61		3.60		3.72
응답 추정 수		223,439		202,004		21,436

주: 평균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보호자의 45.4%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이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하는 비율은 12.1%이다. 당사자(보호자 판단)보다 보호자의 만족 정도는 낮다.

〈표 2-7-20〉 당사자의 하루 일과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불만족한다	4,804	2.1	4,360	2.2	444	2.1
불만족하는 편이다	22,359	10.0	19,887	9.8	2,471	11.5
그저 그렇다	94,925	42.4	87,029	43.0	7,896	36.7
만족하는 편이다	92,727	41.4	83,490	41.3	9,237	42.9
매우 만족한다	8,956	4.0	7,498	3.7	1,458	6.8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 균		3.35		3.35		3.41
응답 추정 수		223,772		202,265		21,507

4. 기관 이용 현황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학교, 일자리를 제외하고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비율은 26.8%이다.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24.7%, 자폐성장애인 46.4%이다.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관련 시설, 센터, 협회'(12.5%), '(장애인)복지관'(11.8%),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21〉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3,529	1.6	3,077	1.5	452	2.1
(장애인)복지관	26,403	11.8	22,330	11.0	4,073	18.9
관련 시설, 센터, 협회	27,995	12.5	22,958	11.4	5,037	23.4
기타	2,105	0.9	1,682	0.8	422	2.0
특별히 없음	163,741	73.2	152,217	75.3	11,523	53.6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기관 이용의 주된 목적은 '단기보호(주간, 야간 돌봄 등)'가 36.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재활, 치료'(29.8%), '취미, 여가활동'(17.9%), '직업재활 훈련, 취업'(14.0%) 등이다. '거주, 생활'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본 조사의 대상이 재가장애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2-7-22〉 기관 이용의 주된 목적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단기보호(주간, 야간 돌봄 등)	21,735	36.2	18,050	36.1	3,685	36.9
거주, 생활	1,227	2.0	1,166	2.3	61	0.6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재활, 치료	17,890	29.8	14,453	28.9	3,437	34.4
직업재활 훈련, 취업	8,431	14.0	7,625	15.2	806	8.1
취미, 여가활동	10,749	17.9	8,753	17.5	1,995	20.0
전 체	60,031	100.0	50,048	100.0	9,984	100.0

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 응답

주로 이용하는 기관의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는 4.2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4.8시간이다.

〈표 2-7-23〉 기관의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및 하루 평균 이용 시간

(단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일주일 평균 이용 일수	4.2일	60,031	4.2일	50,048	4.3일	9,984
하루 평균 이용 시간	4.8시간	60,031	4.9시간	50,048	4.7시간	9,984

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 응답

기관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96.7%는 당사자가 해당 기관을 계속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2-7-24〉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기관 지속 이용 의사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계속 이용하고 싶어함	58,025	96.7	48,607	97.1	9,418	94.3
이용하고 싶어하지 않음	1,880	3.1	1,336	2.7	544	5.4
모름/응답거절	126	0.2	105	0.2	21	0.2
전 체	60,031	100.0	50,048	100.0	9,984	100.0

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 응답

5. 사회 참여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여가시간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비율은 59.3%이며, 집 밖 활동을 좋아하는 경우는 40.4%이다.

〈표 2-7-25〉 여가시간에 집 밖에서의 활동을 좋아하는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임	132,762	59.3	120,649	59.6	12,113	56.3
집 밖 활동을 좋아하는 편임	90,379	40.4	81,007	40.0	9,373	43.6
모름/응답거절	631	0.3	609	0.3	21	0.1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아하는 비율은 23.3%이고, 싫어하는 비율은 38.7%이다. 5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 점수는 2.76점이며, 지적장애인은 2.77점, 자폐성장애인은 2.69점으로 상대적으로 지적장애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26〉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싫어한다	22,400	10.0	20,135	10.0	2,265	10.5
싫어하는 편이다	64,089	28.6	57,549	28.5	6,540	30.4
그저 그렇다	84,961	38.0	76,195	37.7	8,767	40.8
좋아하는 편이다	48,149	21.5	44,694	22.1	3,455	16.1
매우 좋아한다	3,916	1.8	3,487	1.7	430	2.0
모름/응답거절	256	0.1	205	0.1	51	0.2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균		2.76		2.77		2.69
응답 추정 수	223,516		202,060		21,456	

주: 평균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발달장애인이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없는 경우는 60.5%이며, 친구가 있는 경우는 39.5%이다.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5명 미만인 경우가 34.3%이다.

〈표 2-7-27〉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있다	88,311	39.5	81,608	40.3	6,703	31.2
10명 이상	3,342	1.5	3,151	1.6	191	0.9
5~9명	8,105	3.6	7,617	3.8	488	2.3
1~4명	76,863	34.3	70,840	35.0	6,023	28.0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없다	135,443	60.5	120,657	59.7	14,786	68.8
모름/응답거절	18	0.0	0	0.0	18	0.1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최근 1년 동안 참여 경험이 있었던 활동 비율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영화관, 음악회, 미술관, 테마파크 등 관람' 38.9%, '여행(1박 이상)' 33.8%, '등산, 낚시, 자전거 타기' 12.8%, '운동경기 관람 및 참여' 9.6%, '동호회 활동' 3.3%, '자조모임 참여' 3.9%, '종교 활동' 23.2%, '봉사활동' 3.7%, '투표 경험' 41.9%이다.

〈표 2-7-28〉 최근 1년 동안의 활동과 참여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영화관, 음악회, 미술관, 테마파크 관람	있음	86,989	38.9	75,304	37.2	11,685	54.3
	없음	136,368	60.9	126,598	62.6	9,770	45.4
	모름/응답거절	415	0.2	363	0.2	52	0.2
여행 (1박 이상)	있음	75,690	33.8	63,042	31.2	12,648	58.8
	없음	147,743	66.0	138,936	68.7	8,807	41.0
	모름/응답거절	339	0.2	287	0.1	52	0.2
등산, 낚시, 자전거 타기	있음	28,735	12.8	23,260	11.5	5,475	25.5
	없음	194,239	86.8	178,302	88.2	15,938	74.1
	모름/응답거절	797	0.4	703	0.3	94	0.4
운동경기 관람 및 참여	있음	21,464	9.6	17,882	8.8	3,582	16.7
	없음	201,572	90.1	183,699	90.8	17,873	83.1
	모름/응답거절	736	0.3	684	0.3	52	0.2
동호회 활동	있음	7,413	3.3	6,229	3.1	1,184	5.5
	없음	214,431	95.8	194,257	96.0	20,174	93.8
	모름/응답거절	1,929	0.9	1,779	0.9	149	0.7
자조모임 참여	있음	8,638	3.9	7,329	3.6	1,309	6.1
	없음	213,391	95.4	193,367	95.6	20,024	93.1
	모름/응답거절	1,743	0.8	1,569	0.8	173	0.8
종교 활동	있음	52,001	23.2	45,961	22.7	6,040	28.1
	없음	170,879	76.4	155,464	76.9	15,415	71.7
	모름/응답거절	892	0.4	840	0.4	52	0.2
봉사활동	있음	8,169	3.7	7,299	3.6	870	4.0
	없음	214,589	95.9	194,052	95.9	20,537	95.5
	모름/응답거절	1,014	0.5	914	0.5	100	0.5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투표 경험	있음	87,912	41.9	80,461	42.0	7,451	41.3
	없음	121,112	57.7	110,637	57.7	10,475	58.1
	모름/응답거절	754	0.4	644	0.3	111	0.6
전 체		209,779	100.0	191,742	100.0	18,037	100.0

주: '투표 경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4월 10일) 당시 만 18세 이상 응답자에게만 질문함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변 주요 시설 이용 여건을 살펴보면, 39.6%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이용 여건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생활편의시설(관공서, 병원, 공원, 마트 등)의 경우는 37.7%가 이용 여건이 좋았으며,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복지관, 센터, 시설·협회·단체 등)은 28.9%로 나타났다.

〈표 2-7-29〉 거주지 주변 주요 시설 이용 여건

(단위: 명, %, 3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나쁘다	45,115	20.2	42,367	20.9	2,748	12.8
	보통이다	89,979	40.2	81,908	40.5	8,071	37.5
	좋다	88,678	39.6	77,990	38.6	10,688	49.7
생활편의시설 (관공서, 병원, 공원, 마트 등)	나쁘다	45,461	20.3	42,697	21.1	2,764	12.9
	보통이다	93,967	42.0	85,976	42.5	7,991	37.2
	좋다	84,344	37.7	73,593	36.4	10,751	50.0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복지관, 센터, 시설·협회·단체 등)	나쁘다	58,340	26.1	54,272	26.8	4,068	18.9
	보통이다	100,796	45.0	91,765	45.4	9,030	42.0
	좋다	64,636	28.9	56,228	27.8	8,408	39.1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6. 부당한 경험

일자리에서의 경험을 제외하고 평소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42.8%이다.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41.7%, 자폐성장애인 52.9%이다.

〈표 2-7-30〉 평소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경험한 적 없음	127,689	57.1	117,568	58.1	10,121	47.1	
드물게 경험함	82,659	36.9	73,254	36.2	9,405	43.7	
자주 경험함	13,099	5.9	11,118	5.5	1,981	9.2	
모름/응답거절	326	0.1	326	0.2	0	0.0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최근 1년 내 폭력, 학대, 방치 등을 경험한 경우는 7.2%인 16,077명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7.1%)보다 자폐성장애인의 비율이 8.3%로 많았다.

〈표 2-7-31〉 최근 1년 폭력, 학대, 방치 등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경험한 적 없음	207,540	92.7	187,876	92.9	19,664	91.4
경험한 적 있음	16,077	7.2	14,282	7.1	1,794	8.3
모름/응답거절	155	0.1	106	0.1	49	0.2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차별이나 폭력, 학대, 방치 등을 경험한 경우 보호자의 대처 방법으로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음(못했음)'이 64.9%로 가장 많았다.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보호자는 66.1%, 자폐성장애인 보호자는 56.2%로 나타났다.

〈표 2-7-32〉 최근 1년 차별, 폭력, 학대, 방치 등 대처 방법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하였음	13,788	14.1	11,466	13.3	2,322	20.1
장애인 당사자에게 대처방안을 알려주었음	13,064	13.4	11,565	13.4	1,499	13.0
관련 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음	6,489	6.6	5,299	6.2	1,190	10.3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음(못했음)	63,367	64.9	56,878	66.1	6,489	56.2
모름/응답거절	914	0.9	864	1.0	50	0.4
전 체	97,622	100.0	86,072	100.0	11,550	100.0

주: 평소 장애로 인한 차별, 최근 1년 폭력, 학대, 방치 등을 경험한 경우에 질문함

7. 안전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 정도(충분히 할 수 있다+할 수 있다)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난이나 위급상황 인지' 55.7%,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 43.6%, '스스로 대피' 53.5%,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 46.5%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폐성장애인은 모든 영역에서 지적장애인에 비해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 정도가 낮았다.

〈표 2-7-33〉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 정도

(단위: 명, %, 4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재난이나 위급상황 인지	전혀 못한다	51,349	22.9	44,455	22.0	6,893	32.1
	못하는 편이다	47,748	21.3	42,698	21.1	5,050	23.5
	할 수 있는 편이다	88,539	39.6	81,696	40.4	6,843	31.8
	충분히 할 수 있다	36,137	16.1	33,416	16.5	2,721	12.7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	전혀 못한다	69,813	31.2	60,798	30.1	9,014	41.9
	못하는 편이다	56,498	25.2	51,067	25.2	5,432	25.3
	할 수 있는 편이다	64,473	28.8	59,830	29.6	4,643	21.6
	충분히 할 수 있다	32,988	14.7	30,570	15.1	2,418	11.2
스스로 대피	전혀 못한다	54,146	24.2	46,668	23.1	7,477	34.8
	못하는 편이다	50,006	22.3	44,404	22.0	5,602	26.0
	할 수 있는 편이다	82,818	37.0	77,054	38.1	5,764	26.8
	충분히 할 수 있다	36,802	16.4	34,139	16.9	2,663	12.4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	전혀 못한다	58,030	25.9	50,009	24.7	8,021	37.3
	못하는 편이다	61,711	27.6	55,225	27.3	6,486	30.2
	할 수 있는 편이다	72,173	32.3	67,361	33.3	4,813	22.4
	충분히 할 수 있다	31,858	14.2	29,670	14.7	2,188	10.2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8. 일상생활 변화 및 만족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작년(2023년 6월)과 비교하여, '변화 없다'가 가장 많은 가운데 '건강관리 활동(운동, 치료, 재활 등)'(5.4%), '학업 및 자기 개발 활동'(2.9%), '보호자(가족)의 돌봄(보호) 시간'(3.8%), '친지, 친구 등 모임 참석 활동'(3.2%), '일상생활 수행능력'(4.0%)이 증가 비율보다 감소 비율이 높은 항목이었다. 반면 감소 비율보다 증가 비율이 높은 항목은 '취업활동(일 관련 활동 전반)'(3.5%), '디지털 기기(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9.1%), '복지관 등 기관, 시설 이용 시간'(3.8%), '취미활동(집 밖)'(4.4%), '그냥 집에서 보낸 시간(특별히 한 것 없이)'(6.4%), '도전적(문제)행동의 발생 빈도'(3.6%), '식사량'(7.6%) 이었다.

〈표 2-7-34〉 작년(2023년 6월) 대비 일상생활 변화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건강관리 활동 (운동, 치료, 재활 등)	크게 줄어들었다	1,113	0.5	1,022	0.5	91	0.4
	다소 줄어들었다	10,978	4.9	10,278	5.1	700	3.3
	변화 없다	192,778	86.1	174,072	86.1	18,706	87.0
	다소 늘어났다	9,977	4.5	8,410	4.2	1,567	7.3
	크게 늘어났다	1,074	0.5	952	0.5	122	0.6
	원래 하지 않았다	7,353	3.3	7,109	3.5	245	1.1
	모름/응답거절	499	0.2	423	0.2	76	0.4
취업활동 (일 관련 활동 전반 - 구직 활동 포함)	크게 줄어들었다	2,206	1.0	1,897	0.9	309	1.4
	다소 줄어들었다	4,860	2.2	4,525	2.2	335	1.6
	변화 없다	166,216	74.3	149,611	74.0	16,605	77.2
	다소 늘어났다	5,677	2.5	4,763	2.4	913	4.2
	크게 늘어났다	2,236	1.0	2,112	1.0	123	0.6
	원래 하지 않았다	40,233	18.0	37,328	18.5	2,905	13.5
	모름/응답거절	2,345	1.0	2,029	1.0	316	1.5
학업 및 자기 개발 활동	크게 줄어들었다	1,296	0.6	1,163	0.6	133	0.6
	다소 줄어들었다	5,266	2.4	4,906	2.4	360	1.7
	변화 없다	161,937	72.4	144,521	71.5	17,416	81.0
	다소 늘어났다	4,707	2.1	3,433	1.7	1,274	5.9
	크게 늘어났다	899	0.4	851	0.4	48	0.2
	원래 하지 않았다	46,812	20.9	44,765	22.1	2,047	9.5
	모름/응답거절	2,855	1.3	2,626	1.3	229	1.1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표 2-7-34〉 작년(2023년 6월) 대비 일상생활 변화 정도(계속)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보호자(가족)의 돌봄(보호) 시간	크게 줄어들었다	1,186	0.5	1,110	0.5	77	0.4
	다소 줄어들었다	7,212	3.2	6,454	3.2	758	3.5
	변화 없다	203,159	90.8	183,755	90.8	19,404	90.2
	다소 늘어났다	6,775	3.0	5,967	2.9	808	3.8
	크게 늘어났다	1,130	0.5	925	0.5	205	1.0
	원래 하지 않았다	3,499	1.6	3,367	1.7	132	0.6
	모름/응답거절	811	0.4	688	0.3	123	0.6
디지털 기기 (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	크게 줄어들었다	1,006	0.4	917	0.5	89	0.4
	다소 줄어들었다	3,388	1.5	2,894	1.4	495	2.3
	변화 없다	195,502	87.4	177,150	87.6	18,352	85.3
	다소 늘어났다	17,602	7.9	15,540	7.7	2,062	9.6
	크게 늘어났다	2,829	1.3	2,510	1.2	319	1.5
	원래 하지 않았다	2,405	1.1	2,314	1.1	92	0.4
	모름/응답거절	1,040	0.5	941	0.5	99	0.5
복지관 등 기관, 시설 이용 시간	크게 줄어들었다	1,799	0.8	1,622	0.8	176	0.8
	다소 줄어들었다	4,414	2.0	3,915	1.9	498	2.3
	변화 없다	163,838	73.2	146,853	72.6	16,986	79.0
	다소 늘어났다	7,492	3.3	6,525	3.2	967	4.5
	크게 늘어났다	939	0.4	742	0.4	197	0.9
	원래 하지 않았다	42,403	18.9	39,988	19.8	2,414	11.2
	모름/응답거절	2,888	1.3	2,620	1.3	268	1.2
친지, 친구 등 모임 참석 활동	크게 줄어들었다	2,071	0.9	1,882	0.9	188	0.9
	다소 줄어들었다	5,022	2.2	4,393	2.2	629	2.9
	변화 없다	176,657	78.9	158,894	78.6	17,763	82.6
	다소 늘어났다	5,975	2.7	5,536	2.7	439	2.0
	크게 늘어났다	487	0.2	440	0.2	46	0.2
	원래 하지 않았다	31,881	14.2	29,598	14.6	2,283	10.6
	모름/응답거절	1,679	0.8	1,521	0.8	158	0.7
취미활동 (집 밖)	크게 줄어들었다	1,719	0.8	1,619	0.8	100	0.5
	다소 줄어들었다	6,716	3.0	5,988	3.0	728	3.4
	변화 없다	185,425	82.9	167,338	82.7	18,087	84.1
	다소 늘어났다	9,032	4.0	7,670	3.8	1,362	6.3
	크게 늘어났다	707	0.3	618	0.3	89	0.4
	원래 하지 않았다	19,035	8.5	18,042	8.9	994	4.6
	모름/응답거절	1,138	0.5	991	0.5	147	0.7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표 2-7-34〉 작년(2023년 6월) 대비 일상생활 변화 정도(계속)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그냥 집에서 보낸 시간 (특별히 한 것 없이)	크게 줄어들었다	813	0.4	716	0.4	97	0.5
	다소 줄어들었다	5,309	2.4	4,697	2.3	612	2.8
	변화 없다	201,130	89.9	181,750	89.9	19,380	90.1
	다소 늘어났다	11,870	5.3	10,833	5.4	1,037	4.8
	크게 늘어났다	2,518	1.1	2,290	1.1	228	1.1
	원래 하지 않았다	1,633	0.7	1,557	0.8	76	0.4
	모름/응답거절	499	0.2	423	0.2	76	0.4
도전적(문제) 행동의 발생 빈도	크게 줄어들었다	962	0.4	827	0.4	135	0.6
	다소 줄어들었다	5,668	2.5	4,618	2.3	1,050	4.9
	변화 없다	197,502	88.3	178,852	88.4	18,650	86.7
	다소 늘어났다	6,792	3.0	5,600	2.8	1,192	5.5
	크게 늘어났다	1,204	0.5	1,023	0.5	181	0.8
	원래 하지 않았다	10,712	4.8	10,514	5.2	198	0.9
	모름/응답거절	931	0.4	831	0.4	100	0.5
식사량	크게 줄어들었다	1,031	0.5	1,004	0.5	28	0.1
	다소 줄어들었다	9,602	4.3	8,823	4.4	779	3.6
	변화 없다	195,447	87.3	177,305	87.7	18,142	84.4
	다소 늘어났다	14,973	6.7	12,914	6.4	2,060	9.6
	크게 늘어났다	1,955	0.9	1,533	0.8	422	2.0
	모름/응답거절	763	0.3	687	0.3	76	0.4
일상생활 수행능력	크게 줄어들었다	1,266	0.6	1,221	0.6	46	0.2
	다소 줄어들었다	7,737	3.5	7,306	3.6	431	2.0
	변화 없다	205,522	91.8	185,936	91.9	19,586	91.1
	다소 늘어났다	7,728	3.5	6,431	3.2	1,297	6.0
	크게 늘어났다	755	0.3	685	0.3	70	0.3
	모름/응답거절	763	0.3	687	0.3	76	0.4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점이 작년(2023년 6월)과 비교 시 일상생활 변화 없음을 의미할 때 '디지털 기기(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08점으로 가장 크게 늘어났으며, '그냥 집에서 보낸 시간(특별히 한 것 없이)'이 3.04점, '식사량'이 3.03점, '복지관 등 기관, 시설 이용 시간'과 '도전적(문제) 행동의 발생 빈도'가 3.01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관리 활동(운동, 치료, 재활 등)', '학업 및 자기 개발 활동', '친지, 친구 등 모임 참석 활동'이 모두 2.99점으로 작년(2023년 6월)에 비해 감소하였다.

〈표 2-7-35〉 작년(2023년 6월) 대비 일상생활 변화 정도 평균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건강관리 활동(운동, 치료, 재활 등)	2.99	215,920	2.99	194,733	3.04	21,186
취업활동(일 관련 활동 전반 - 구직 활동 포함)	3.00	181,194	3.00	162,908	3.01	18,286
학업 및 자기 개발 활동	2.99	174,105	2.99	154,874	3.04	19,231
보호자(가족)의 돌봄(보호) 시간	3.00	219,463	3.00	198,211	3.01	21,252
디지털 기기(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	3.08	220,326	3.08	199,010	3.10	21,316
복지관 등 기관, 시설 이용 시간	3.01	178,481	3.01	159,657	3.03	18,824
친지, 친구 등 모임 참석 활동	2.99	190,212	2.99	171,146	2.98	19,066
취미활동(집 밖)	3.00	203,599	3.00	183,233	3.03	20,366
그냥 집에서 보낸 시간(특별히 한 것 없이)	3.04	221,640	3.05	200,285	3.03	21,355
도전적(문제) 행동의 발생 빈도	3.01	212,129	3.01	190,920	3.01	21,209
식사량	3.03	223,009	3.03	201,578	3.10	21,431
일상생활 수행능력	3.00	223,009	2.99	201,578	3.04	21,431

주: 원래 하지 않았다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작년(2023년 6월)과 비교했을 때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삶의 질은 변화 없음이 80.7%로 가장 많은 가운데, 나빠진 경우는 6.8%, 좋아진 경우는 12.5%다.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이 나빠진 비율은 7.0%로, 자폐성장애인(5.1%)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2-7-36〉 작년(2023년 6월) 대비 당사자의 삶의 질 변화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나빠졌다	1,072	0.5	1,026	0.5	46	0.2
나빠진 편이다	14,212	6.4	13,157	6.5	1,055	4.9
변화 없다	180,627	80.7	163,824	81.0	16,803	78.1
좋아진 편이다	26,551	11.9	23,174	11.5	3,377	15.7
매우 좋아졌다	1,311	0.6	1,084	0.5	227	1.1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 균		3.06		3.05		3.12
응답 추정 수	223,772		202,265		21,507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46.2%이며, 불만족하는 비율은 12.4%이다. 만족도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3.36점이다.

〈표 2-7-37〉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일상생활 만족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불만족한다	4,714	2.1	4,282	2.1	432	2.0
불만족하는 편이다	23,079	10.3	21,043	10.4	2,036	9.5
그저 그렇다	92,272	41.2	84,089	41.6	8,183	38.0
만족하는 편이다	92,857	41.5	83,180	41.1	9,677	45.0
매우 만족한다	10,622	4.7	9,492	4.7	1,130	5.3
모름/응답거절	227	0.1	178	0.1	49	0.2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 균		3.36		3.36		3.42
응답 추정 수	223,545		202,087		21,458	

주: 평균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보호자가 만족하는 비율은 37.9%이며, 불만족하는 비율은 19.0%이다. 만족도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3.18점이며 이는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만족도 점수 평균(3.36점)보다 다소 낮다.

〈표 2-7-38〉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불만족한다	8,270	3.7	7,540	3.7	730	3.4
불만족하는 편이다	34,166	15.3	30,697	15.2	3,469	16.1
그저 그렇다	96,563	43.2	88,269	43.6	8,295	38.6
만족하는 편이다	77,921	34.8	69,824	34.5	8,097	37.6
매우 만족한다	6,824	3.0	5,936	2.9	888	4.1
모름/응답거절	28	0.0	0	0.0	28	0.1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 균		3.18		3.18		3.23
응답 추정 수	223,744		202,265		21,479	

주: 평균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9. 장애 관련 서비스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를 2순위까지 응답받은 결과를 중복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소득지원'이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 재활, 건강 지원'(34.6%), '돌봄, 보호, 휴식 지원'(30.0%), '취업 및 취업 유지 지원'(2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소득지원'을 제외하면 지적장애인은 '의료, 재활, 건강 지원'을, 자폐성장애인은 '돌봄, 보호, 휴식 지원'과 '취업 및 취업 유지 지원',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심리, 사회, 정서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39〉 당사자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1+2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경제적, 소득 지원	134,410	60.1	125,200	61.9	9,210	42.8
의료, 재활, 건강 지원	77,425	34.6	72,085	35.6	5,340	24.8
취업 및 취업 유지 지원	59,438	26.6	52,387	25.9	7,051	32.8
돌봄, 보호, 휴식 지원	67,164	30.0	58,272	28.8	8,892	41.3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40,169	18.0	34,606	17.1	5,563	25.9
심리, 사회, 정서적 지원	31,872	14.2	27,354	13.5	4,518	21.0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18,006	8.0	16,649	8.2	1,357	6.3
기타	45	0.0	0	0.0	45	0.2
특별히 없음	17,464	7.8	16,488	8.2	976	0.2
전 체	223,772	-	202,265	-	21,507	-

주 1) 비율은 전체 발달장애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함
 2)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를 2순위까지 응답받은 결과를 중복으로 살펴본 결과,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유사하게 ‘경제적, 소득지원’이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 재활, 건강 지원’(39.4%), ‘취업 및 취업 유지 지원’(18.7%), ‘휴식 지원’(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40〉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1+2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경제적, 소득 지원	148,301	66.3	136,939	67.7	11,361	52.8
의료, 재활, 건강 지원	88,157	39.4	82,837	41.0	5,321	24.7
취업 및 취업 유지 지원	41,917	18.7	37,167	18.4	4,750	22.1
휴식 지원	41,759	18.7	35,590	17.6	6,169	28.7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35,284	15.8	30,718	15.2	4,567	21.2
심리, 사회, 정서적 지원	39,199	17.5	33,927	16.8	5,272	24.5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27,995	12.5	24,839	12.3	3,156	14.7
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4,838	2.2	3,999	2.0	840	3.9
기타	313	0.1	210	0.1	103	0.5
특별히 없음	19,170	8.8	17,744	8.8	1,426	6.8
전 체	223,772	-	202,265	-	21,507	-

주 1) 비율은 전체 발달장애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함
 2)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제8절 자립 및 미래 계획

1. 자립의지

가. 자립의사 및 자립의지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희망하는 당사자의 향후 거주 형태로는 '보호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살기'가 56.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자립(독립)하여 살기'(28.1%), '장기거주형 시설에서 살기'(6.3%) 등의 순이다. 지적장애인은 '보호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살기', '자립(독립)하여 살기', 자폐성장어인은 '단기거주형 시설(그룹홈, 단기보호 등)에서 살기', '장기거주형 시설에서 살기', '발달장애인 공동체 마을(캠프힐 등)에서 살기'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8-1〉 당사자의 향후 희망 거주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보호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살기	127,101	56.8	116,313	57.5	10,788	50.2
자립(독립)하여 살기	62,953	28.1	57,389	28.4	5,564	25.9
단기거주형 시설(그룹홈, 단기보호 등)에서 살기	7,765	3.5	6,496	3.2	1,268	5.9
장기거주형 시설에서 살기	14,209	6.3	12,440	6.2	1,768	8.2
발달장애인 공동체 마을(캠프힐 등)에서 살기	11,744	5.2	9,627	4.8	2,117	9.8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70.2%로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보호자가 69.3%, 자폐성장어인 보호자가 78.5%이다.

〈표 2-8-2〉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가능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52,345	23.4	47,865	23.7	4,480	20.8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157,118	70.2	140,234	69.3	16,884	78.5
이미 혼자 힘으로 살고 있음	14,309	6.4	14,166	7.0	143	0.7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립 의지는 5점 리커트 척도에서 2.26점으로 낮은 편이며, 지적장애인은 2.28점, 자폐성장장애인은 2.02점이다.

〈표 2-8-3〉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의지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약하다	69,767	31.2	61,406	30.4	8,361	38.9
약한 편이다	64,217	28.7	57,432	28.4	6,784	31.5
보통이다	57,533	25.7	53,494	26.4	4,039	18.8
강한 편이다	26,320	11.8	24,403	12.1	1,917	8.9
매우 강하다	5,720	2.6	5,410	2.7	311	1.4
모름/응답거절	215	0.1	120	0.1	95	0.4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균		2.26		2.28		2.02
응답 추정 수	223,557		202,145		21,412	

주: 평균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나. 의사표현 및 자기결정권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31.6%, 표현하지 않는 비율은 39.3%이다.

〈표 2-8-4〉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	25,857	11.6	22,607	11.2	3,249	15.1
표현하지 않는 편이다	62,134	27.8	56,083	27.7	6,052	28.1
보통이다	64,813	29.0	59,027	29.2	5,786	26.9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이다	61,146	27.3	55,642	27.5	5,505	25.6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9,643	4.3	8,752	4.3	891	4.1
모름/응답거절	178	0.1	154	0.1	24	0.1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 균		2.85		2.86		2.75
응답 추정 수	223,594		202,111		21,483	

주: 평균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일상생활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주된 주체(결정권자)는 보호자가 76.7%이며, 장애인 본인이 22.4%이다. 장애인 본인이 의사결정의 주된 주체인 비율은 지적장애인 23.2%, 자폐성장애인 14.7%이다.

〈표 2-8-5〉 당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주된 주체(결정권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장애인 본인	50,149	22.4	46,983	23.2	3,166	14.7
보호자	171,644	76.7	153,303	75.8	18,341	85.3
그 외 사람	1,979	0.9	1,979	1.0	0	0.0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2. 자립준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1순위)은 '자립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3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직장'(18.4%), '본인에게 맞는 자립 계획 수립'(16.7%), '자립 관련 정보 습득'(14.2%) 등의 순이다.

〈표 2-8-6〉 자립을 위해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자립 관련 정보 습득	31,870	14.2	29,471	14.6	2,399	11.2
본인에게 맞는 자립 계획 수립	37,428	16.7	33,933	16.8	3,495	16.3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직장	41,211	18.4	37,829	18.7	3,382	15.7
자립해서 살 집	26,433	11.8	24,396	12.1	2,037	9.5
자립했을 때 도와줄 사람	68,303	30.5	60,775	30.0	7,527	35.0
자립생활 체험(다양한 주거 체험 활동 참여 등)	16,509	7.4	13,943	6.9	2,566	11.9
기타	1,269	0.6	1,227	0.6	43	0.2
모름/응답거절	749	0.3	691	0.3	57	0.3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당사자가 자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자립생활 능력(1순위)은 '자립하려는 의지와 태도'가 3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식사 준비, 빨래, 청소, 금전 관리 등)'(22.9%), '자기관리 능력(개인위생 관리, 계절에 맞는 옷 입기 등)'(13.9%), '대인관계 능력(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 등)'(8.9%) 등의 순이다.

〈표 2-8-7〉 자립을 위해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자립생활 능력(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자립하려는 의지와 태도	75,512	33.7	68,379	33.8	7,133	33.2
자기관리 능력(개인위생 관리, 계절에 맞는 옷 입기 등)	31,002	13.9	27,765	13.7	3,237	15.1
일상생활 수행능력(식사 준비, 빨래, 청소, 금전 관리 등)	51,295	22.9	45,984	22.7	5,311	24.7
건강관리 능력(약 챙겨먹기, 질환(병) 관리, 운동 등)	16,556	7.4	15,666	7.7	889	4.1
대인관계 능력(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 등)	19,901	8.9	17,682	8.7	2,219	10.3
위험 상황 대처 능력(화재 대피, 사고 대처 등)	19,602	8.8	17,568	8.7	2,034	9.5
자기결정 능력	8,730	3.9	8,085	4.0	645	3.0
기타	525	0.2	507	0.3	18	0.1
모름/응답거절	650	0.3	629	0.3	21	0.1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보호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 당사자가 자립할 준비가 된 경우는 7.5%, 그렇지 않은 경우가 70.9%로 나타났다. 전체 자립 수준 평균은 1.99점으로 낮은 편이며, 지적장애인은 2.02점, 자폐성장애인은 1.73점이다.

〈표 2-8-8〉 당사자의 자립 준비 수준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혀 준비가 안됐다	85,930	38.4	75,543	37.3	10,387	48.3
준비가 안된 편이다	72,763	32.5	65,432	32.3	7,330	34.1
보통이다	48,350	21.6	45,208	22.4	3,142	14.6
준비가 된 편이다	13,990	6.3	13,449	6.6	541	2.5
준비가 잘 되어 있다	2,740	1.2	2,633	1.3	107	0.5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 균		1.99		2.02		1.73
응답 추정 수	223,772		202,265		21,507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32.9%는 자립체험형 지원주택 제공을 통한 독립거주 등 당사자가 자립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립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보호자가 32.2%, 자폐성장애인 보호자가 39.2%이다.

〈표 2-8-9〉 자립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립을 시도할 의향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혀 의향이 없다	39,102	17.5	35,280	17.4	3,823	17.8
의향이 없는 편이다	53,877	24.1	49,612	24.5	4,265	19.8
보통이다	57,269	25.6	52,277	25.8	4,992	23.2
의향이 있는 편이다	59,318	26.5	52,723	26.1	6,595	30.7
의향이 매우 많다	14,206	6.3	12,373	6.1	1,833	8.5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 균		2.80		2.79		2.92
응답 추정 수		223,772		202,265		21,507

3. 미래 계획

당사자가 향후 가구원 등 주된 보호자로부터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미래 계획 수립 여부를 살펴보면, 재정적 계획은 30.4%, 주거 계획은 29.6%, 후견인 지명 등 법적 계획은 28.3%만 일부만(대략적으로만) 또는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10〉 당사자의 미래 계획 수립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재정적 계획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음	155,799	69.6	140,516	69.5	15,283	71.1
	일부만(대략적으로만) 세워져 있음	57,775	25.8	52,352	25.9	5,423	25.2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음	10,197	4.6	9,397	4.6	800	3.7
주거 계획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음	157,480	70.4	141,071	69.7	16,410	76.3
	일부만(대략적으로만) 세워져 있음	54,096	24.2	49,690	24.6	4,406	20.5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음	12,196	5.4	11,504	5.7	691	3.2
법적 계획 (후견인 지명 등)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음	160,396	71.7	144,330	71.4	16,067	74.7
	일부만(대략적으로만) 세워져 있음	52,821	23.6	47,940	23.7	4,881	22.7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음	10,555	4.7	9,996	4.9	559	2.6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주: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음'에는 이미 해결된 경우를 포함

당사자가 자립을 하거나, 또는 가족이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지원(1순위)은 '가족이 없더라도 보호자처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함'이 2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필요함'(18.5%),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쥐야 함'(16.1%),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10.3%) 등의 순이다.

〈표 2-8-11〉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필요함	41,361	18.5	36,841	18.2	4,520	21.0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거나 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줘야 함	13,748	6.1	11,911	5.9	1,838	8.5
살 집을 구하거나 집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줘야 함	16,704	7.5	15,504	7.7	1,200	5.6
일을 하거나 낮에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줘야 함	17,889	8.0	15,866	7.8	2,023	9.4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쥐야 함	36,125	16.1	34,323	17.0	1,801	8.4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	22,985	10.3	21,292	10.5	1,693	7.9
가족이 없더라도 보호자처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함	61,227	27.4	53,893	26.6	7,334	34.1
동네 사람들이 가깝게 대해주고 필요할 때 도와줘야 함	2,754	1.2	2,578	1.3	177	0.8
기타	123	0.1	94	0.0	29	0.1
특별히 없음	10,856	4.9	9,964	4.9	892	4.1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당사자가 자립을 하거나, 또는 가족이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지원을 2순위 응답까지 중복으로 살펴보면, ‘가족이 없더라도 보호자처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함’이 54.1%까지 증가하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쥐야 함’(30.5%),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30.4%),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필요함’(23.9%), ‘일을 하거나 낮에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줘야 함’(17.2%) 등의 비율이 높았다.

〈표 2-8-12〉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1+2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필요함	53,384	23.9	46,817	23.1	6,567	30.5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거나 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줘야 함	31,565	14.1	27,543	13.6	4,022	18.7
살 집을 구하거나 집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줘야 함	33,862	15.1	31,033	15.3	2,829	13.2
일을 하거나 낮에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줘야 함	38,550	17.2	34,098	16.9	4,452	20.7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쥐야 함	68,331	30.5	63,986	31.6	4,345	20.2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	68,095	30.4	62,631	31.0	5,464	25.4
가족이 없더라도 보호자처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함	121,022	54.1	108,358	53.6	12,664	58.9
동네 사람들이 가깝게 대해주고 필요할 때 도와줘야 함	6,482	2.9	5,980	3.0	502	2.3
기타	350	0.2	321	0.2	29	0.1
특별히 없음	15,532	6.9	14,281	7.1	1,250	5.8
전 체	223,772	-	202,265	-	21,507	-

주: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전용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 등의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은 33.5%로, 지적장애인(32.5%)보다 자폐성장애인의 사보험 가입비율이 42.7%로 높다.

〈표 2-8-13〉 사보험 가입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가입되어 있음	74,935	33.5	65,743	32.5	9,193	42.7
가입되어 있지 않음	148,837	66.5	136,522	67.5	12,314	57.3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제9절 가구 및 보호자

1. 가구 정보

가. 가구 구성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가구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은 평균 3.0명이며, 지적장애인 가구는 3.0명, 자폐성장애인 가구는 3.5명이다.

〈표 2-9-1〉 가구원 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1명	19,756	8.8	19,474	9.6	282	1.3
2명	55,771	24.9	53,319	26.4	2,452	11.4
3명	76,288	34.1	68,087	33.7	8,201	38.1
4명	51,358	23.0	42,995	21.3	8,363	38.9
5명 이상	20,598	9.2	18,389	9.1	2,209	10.3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균 가구원 수		3.0명		3.0명		3.5명
응답 추정 수	223,772		202,265		21,507	

발달장애인이 부모 모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47.1%이며, 부모 중 한 사람만 같이 거주하는 비율은 25.5%,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비율은 27.3%이다. 부모 모두와 같이 거주하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44.0%, 자폐성장애인 77.0%이다.

〈표 2-9-2〉 가구 내 부모 거주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부모 모두 같이 거주	105,454	47.1	88,901	44.0	16,553	77.0
한 사람만 같이 거주	57,161	25.5	52,976	26.2	4,185	19.5
부모 모두 같이 거주하지 않음	61,157	27.3	60,388	29.9	769	3.6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출생 순위가 첫째(또는 외동)인 경우는 44.1%이며, 둘째 이상인 경우는 55.9%이다.

〈표 2-9-3〉 당사자 출생 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첫째(또는 외동)	98,655	44.1	87,830	43.4	10,825	50.3
둘째	79,984	35.7	71,004	35.1	8,980	41.8
셋째	26,103	11.7	24,593	12.2	1,510	7.0
넷째 이상	19,031	8.5	18,839	9.3	192	0.9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가구의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가구주는 아버지가 45.9%로 가장 많고, 어머니 21.9%이며, 장애인 당사자가 가구주인 경우도 15.2%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가구주인 비율은 지적장애인 16.6%, 자폐성장애인 1.9%로 나타났다.

〈표 2-9-4〉 가구의 가구주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아버지	102,732	45.9	86,763	42.9	15,970	74.3
어머니	48,909	21.9	44,390	21.9	4,519	21.0
장애인 당사자	33,939	15.2	33,533	16.6	407	1.9
형제자매	12,388	5.5	12,178	6.0	210	1.0
조부모	2,545	1.1	2,202	1.1	343	1.6
배우자	15,724	7.0	15,703	7.8	21	0.1
자녀	3,819	1.7	3,819	1.9	0	0.0
기타	3,716	1.7	3,678	1.8	38	0.2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나. 장애가구원 유무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제외하고 가구원 중에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발달장애인 가구의 15.4%이다.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가구에서 16.1%로 자폐성장애인 가구 비율(8.0%)보다 높다.

〈표 2-9-5〉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 유무(당사자 제외)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있음	34,354	15.4	32,638	16.1	1,716	8.0
없음	189,418	84.6	169,627	83.9	19,791	92.0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제외하고 가구원 중에 등록된 다른 발달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발달장애인 가구의 9.7%이다.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가구에서 10.3%로 자폐성장애인 가구 비율(4.0%)보다 높다.

〈표 2-9-6〉 가구원 중 발달장애인 유무(당사자 제외)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있음	21,704	9.7	20,839	10.3	865	4.0
없음	202,068	90.3	181,426	89.7	20,642	96.0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다. 가구 경제

발달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95만원으로, 지적장애인 가구는 280.7만원, 자폐성장애인 가구는 432.5만원이다. '100~200만원 미만'이 27.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20.7%), '200~300만원 미만'(16.7%), '300~400만원 미만'(15.8%) 등의 순이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비율은 지적장애인 가구가 10.5%, 자폐성장애인 가구가 1.3%로 나타났다.

〈표 2-9-7〉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100만원 미만	21,570	9.6	21,285	10.5	285	1.3
100~200만원 미만	62,367	27.9	60,180	29.8	2,187	10.2
200~300만원 미만	37,427	16.7	34,594	17.1	2,832	13.2
300~400만원 미만	35,362	15.8	31,391	15.5	3,970	18.5
400~500만원 미만	20,138	9.0	16,758	8.3	3,379	15.7
500만원 이상	46,229	20.7	37,420	18.5	8,809	41.0
모름/응답거절	681	0.3	637	0.3	44	0.2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95만원		280.7만원		432.5만원	
응답 추정 수	215,149		194,845		20,304	

- 주 1) 연속형 문항에 '모름/응답거절'인 경우 추가로 응답받은 범주형 문항 응답값을 활용하여 산출함
 2) 월평균 가구소득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산출함

발달장애인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인 경우는 40.3%이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가구 43.1%, 자폐성장애인 가구 14.4%이다.

〈표 2-9-8〉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임	90,213	40.3	87,107	43.1	3,106	14.4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 아님	133,559	59.7	115,158	56.9	18,401	85.6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2. 보호자 정보

가. 보호자 현황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는 어머니가 56.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버지'(15.0%), '형제자매'(9.4%), '배우자'(8.1%) 순이다. 자폐성장애인은 주 보호자가 어머니인 비율이 82.0%로 지적장애인(54.1%)보다 훨씬 높다.

〈표 2-9-9〉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아버지	33,581	15.0	30,614	15.1	2,967	13.8
어머니	127,099	56.8	109,470	54.1	17,629	82.0
부모	160,680	71.8	140,084	69.3	20,596	95.8
형제자매	21,035	9.4	20,771	10.3	264	1.2
조부모	3,073	1.4	2,569	1.3	504	2.3
배우자	18,020	8.1	18,000	8.9	21	0.1
자녀	7,352	3.3	7,331	3.6	22	0.1
그 외 가족 및 친인척	6,731	3.0	6,664	3.3	67	0.3
가족 및 친인척이 아닌 보호자	6,880	3.1	6,846	3.4	34	0.2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주 보호자 이외에 부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78.1%이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76.5%, 자폐성장애인 93.2%이다.

부 보호자는 아버지가 3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형제자매'(16.3%), '어머니'(11.2%) 등의 순이다.

〈표 2-9-10〉 발달장애인의 부 보호자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있음	174,835	78.1	154,786	76.5	20,049	93.2
아버지	83,735	37.4	69,027	34.1	14,709	68.4
어머니	24,998	11.2	22,904	11.3	2,094	9.7
형제자매	36,488	16.3	34,475	17.0	2,013	9.4
조부모	4,659	2.1	4,122	2.0	537	2.5
배우자	1,989	0.9	1,989	1.0	0	0.0
자녀	10,447	4.7	10,304	5.1	143	0.7
그 외 가족 및 친인척	6,544	2.9	6,348	3.1	196	0.9
가족 및 친인척이 아닌 보호자	5,976	2.7	5,618	2.8	358	1.7
없음	48,937	21.9	47,479	23.5	1,458	6.8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나. 보호자 정보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는 성별로는 남성이 27.8%, 여성이 72.2%이며,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3.8%, 40대 11.6%, 50대 33.2%, 60대 31.2%, 70대 이상 20.2%이며, 평균 연령은 60.2세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이 36.6%, 고졸 이상이 63.4%이며, 현재 취업상태는 취업인 경우가 51.1%, 미취업인 경우가 48.9%이다.

지적장애인의 주 보호자가 자폐성장장애인의 주 보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 고령, 고졸 미만, 미취업의 비율이 높다.

〈표 2-9-11〉 주 보호자의 인구통계학 변수별 정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성별	남성	62,281	27.8	59,130	29.2	3,151	14.6
	여성	161,491	72.2	143,135	70.8	18,356	85.4
연령	40세 미만	8,504	3.8	7,993	4.0	511	2.4
	40~50세 미만	25,886	11.6	22,138	10.9	3,748	17.4
	50~60세 미만	74,373	33.2	63,901	31.6	10,472	48.7
	60~70세 미만	69,856	31.2	64,311	31.8	5,544	25.8
	70세 이상	45,154	20.2	43,921	21.7	1,233	5.7
	평균 연령	60.2세		60.7세		56.2세	
학력	초졸 이하	48,942	21.9	48,036	23.7	906	4.2
	중졸	32,922	14.7	31,635	15.6	1,287	6.0
	고졸	95,552	42.7	86,343	42.7	9,209	42.8
	대졸 이상	46,355	20.7	36,250	17.9	10,105	47.0
취업상태	취업	114,290	51.1	102,924	50.9	11,367	52.9
	미취업	109,482	48.9	99,341	49.1	10,140	47.1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부 보호자의 취업상태는 취업인 경우가 67.8%, 미취업인 경우가 30.7%이다. 부 보호자가 취업인 비율은 지적장애인 66.2%, 자폐성장애인 79.8%이다.

〈표 2-9-12〉 부 보호자의 취업상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취업	118,503	67.8	102,499	66.2	16,004	79.8
미취업	53,596	30.7	49,658	32.1	3,939	19.6
모름/응답거절	2,736	1.6	2,630	1.7	106	0.5
전 체	174,835	100.0	154,786	100.0	20,049	100.0

주: 부 보호자 유무에서 있음인 경우에 질문함

주 보호자의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는 27.8%, 나쁜 경우는 29.5%이다. 건강상태가 나쁜 비율은 지적장애인 주 보호자가 30.7%, 자폐성장애인 주 보호자가 18.4%이다.

〈표 2-9-13〉 주 보호자의 건강상태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나쁘다	7,496	3.3	7,055	3.5	440	2.0
나쁜 편이다	58,605	26.2	55,089	27.2	3,516	16.3
보통이다	95,524	42.7	85,509	42.3	10,016	46.6
좋은 편이다	60,379	27.0	53,134	26.3	7,245	33.7
매우 좋다	1,768	0.8	1,478	0.7	290	1.4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 균		2.96		2.94		3.16
응답 추정 수	223,772		202,265		21,507	

다. 주 보호자의 돌봄

주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일수는 일주일 평균 5.9일이며, 지적장애인 주 보호자는 5.8일, 자폐성장애인 주 보호자는 6.5일이다. 하루도 돌보지 않는 경우는 8.2%고, 7일 모두 돌보는 경우는 76.4%이다. 7일 모두 돌보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주 보호자가 75.2%, 자폐성장애인 주 보호자가 87.5%이다.

〈표 2-9-14〉 주 보호자의 일주일 평균 돌봄 일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0일	18,309	8.2	17,478	8.6	831	3.9
1~3일	18,145	8.1	17,369	8.6	775	3.6
4~6일	16,352	7.3	15,275	7.6	1,077	5.0
7일	170,967	76.4	152,143	75.2	18,824	87.5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균 돌봄 일수	5.9일		5.8일		6.5일	
응답 추정 수	223,772		202,265		21,507	

주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시간은 하루 평균 5.1시간이며, 지적장애인 주 보호자는 5시간, 자폐성장애인 주 보호자는 6.4시간이다. 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하여 돌보는 경우는 6.7%로 지적장애인 주 보호자는 6.4%, 자폐성장애인 주 보호자는 8.9%이다.

〈표 2-9-15〉 주 보호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0시간	27,497	12.3	26,219	13.0	1,278	5.9
1~2시간	61,434	27.5	57,602	28.5	3,832	17.8
3~6시간	78,430	35.0	69,369	34.3	9,062	42.1
7~12시간	41,457	18.5	36,030	17.8	5,427	25.2
12시간 초과	14,953	6.7	13,045	6.4	1,908	8.9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균 돌봄 시간	5.1시간		5시간		6.4시간	
응답 추정 수	223,772		202,265		21,507	

평일에 보호자나 돌봐주는 사람 없이 당사자가 혼자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3.4시간이며, 지적장애인은 3.5시간, 자폐성장애인은 1.9시간이다. 하루에 1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3.7%로 지적장애인 3.9%, 자폐성장애인 1.7%이다.

〈표 2-9-16〉 평일에 보호자나 돌봐주는 사람 없이 당사자가 혼자 있는 하루 평균 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0시간	77,853	37.2	66,422	35.3	11,431	53.5
1~2시간	42,213	20.2	37,495	19.9	4,718	22.1
3~6시간	57,050	27.2	53,416	28.4	3,634	17.0
7~12시간	24,678	11.8	23,466	12.5	1,212	5.7
12시간 초과	7,670	3.7	7,300	3.9	369	1.7
전 체	209,463	100.0	188,099	100.0	21,364	100.0
평균 시간		3.4시간		3.5시간		1.9시간
응답 추정 수	209,463		188,099		21,364	

주: 이미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함

보호자 또는 가족과 일정 시간 떨어져 있어야 할 때 당사자를 돌보거나 보호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혼자 있을 수 있어 특별히 조치하지 않음'이 55.1%, '친척이나 이웃 등 지인의 도움을 받음' 11.1%, '활동지원사, 긴급돌봄서비스, 센터 등 기관의 도움을 받음' 16.3%, '도움이 필요하나 별다른 방법이 없어 혼자 있게 함'이 17.5%이다. 지적장애인은 '충분히 혼자 있을 수 있어 특별히 조치하지 않음'이, 자폐성장애인은 '활동지원사, 긴급돌봄서비스, 센터 등 기관의 도움을 받음'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2-9-17〉 보호자 부재 시 돌봄 방법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충분히 혼자 있을 수 있어 특별히 조치하지 않음	115,453	55.1	107,197	57.0	8,255	38.6
친척이나 이웃 등 지인의 도움을 받음	23,222	11.1	19,902	10.6	3,320	15.5
활동지원사, 긴급돌봄서비스, 센터 등 기관의 도움을 받음	34,097	16.3	26,996	14.4	7,101	33.2
도움이 필요하나 별다른 방법이 없어 혼자 있게 함	36,691	17.5	34,004	18.1	2,687	12.6
전 체	209,463	100.0	188,099	100.0	21,364	100.0

주: 이미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함

발달장애인을 돌볼 때 겪는 어려움(1순위)은 '장애인 당사자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28.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호자(또는 가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16.4%), '보호자(또는 가족)의 육체적인 피로, 건강 악화'(15.1%), '보호자(또는 가족)의 일(직업활동) 지장'(10.0%) 순이다.

〈표 2-9-18〉 돌봄 시 겪는 어려움(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보호자(또는 가족)의 일(직업활동) 지장	22,403	10.0	20,235	10.0	2,168	10.1
보호자(또는 가족)의 육체적인 피로, 건강 악화	33,746	15.1	30,031	14.8	3,715	17.3
보호자(또는 가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36,687	16.4	32,468	16.1	4,219	19.6
집안 모임이나 친구 모임 등 사회활동 지장	3,468	1.5	2,863	1.4	605	2.8
보호자(또는 가족)의 여가, 휴식 제한	7,337	3.3	6,414	3.2	923	4.3
돌봄, 보호 관련 가족 간의 다툼, 불화	1,768	0.8	1,501	0.7	266	1.2
보호자(또는 가족) 이외 돌봐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음	5,799	2.6	5,136	2.5	663	3.1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상태 악화	4,115	1.8	3,915	1.9	200	0.9
발달장애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	6,076	2.7	5,348	2.6	727	3.4
돌봄이나 보호 비용 부담	3,196	1.4	2,989	1.5	207	1.0
장애인 당사자의 미래에 대한 걱정	64,036	28.6	58,594	29.0	5,443	25.3
기타	64	0.0	64	0.0	0	0.0
특별히 없음	35,077	15.7	32,706	16.2	2,370	11.0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표 2-9-19〉 주 보호자가 일을 하면서 예정에 없던 일로 인해 추가로 돌봄을 구해본 경험 여부 및 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가로 구해본 경험 있음	3,246	2.8	2,541	2.5	706	6.2
1~2시간	156	4.8	120	4.7	35	5.0
3~6시간	726	22.4	580	22.8	145	20.6
7~12시간	441	13.6	301	11.8	140	19.8
12시간 초과	1,924	59.3	1,539	60.6	385	54.6
소 계	3,246	100.0	2,541	100.0	706	100.0
추가로 구해본 경험 없음	111,044	97.2	100,383	97.5	10,661	93.8
전 체	114,290	100.0	102,924	100.0	11,367	100.0

주: 주 보호자 취업 여부에서 취업인 경우에 질문함

현재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주 보호자가 일을 하면서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초과 근무 (이른 시간 출근, 늦은 퇴근 등), 야간 또는 주말(휴일) 근무, 업무 관련 출장 등으로 인해 평소 에 이용하는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기관 돌봄) 외에 급하게 별도의 돌봄 제공자를 구해본 경험이 있던 경우는 2.8%로 나타났다. 돌봄을 추가로 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중 59.3%는 12시간을 초과하는 돌봄이 필요하였으며, 다음으로 '3~6시간'(22.4%), '7~12시간'(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2024년 6월부터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가 높아 통합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보호자가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확인해보았을 때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22.4%, '그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름'으로 응답한 사람은 77.6%로 나타났다.

〈표 2-9-2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인지 수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7,514	3.4	5,852	2.9	1,662	7.7
내용 중 일부를 알고 있음	16,609	7.4	14,129	7.0	2,480	11.5
그러한 취지의 사업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음	25,909	11.6	22,177	11.0	3,732	17.4
그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름	173,739	77.6	160,106	79.2	13,634	63.4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유형을 확인한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 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 지원하는 주간 그룹형 지원'은 14.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에서 전문인력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개별 지원'은 21.7%, '주중 지역사회 낮 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개별 지원'은 11.1%로 나타났다.

〈표 2-9-21〉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주간 그룹형 지원	31,761	14.2	27,471	13.6	4,290	19.9
주간 개별 지원	48,612	21.7	42,941	21.2	5,671	26.4
24시간 개발 지원	24,794	11.1	21,176	10.5	3,618	16.8
필요한 서비스 없음	118,605	53.0	110,677	54.7	7,928	36.9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을 돌보거나 보호하는 것의 부담 정도에 대해 ‘매우 부담된다’ 14.4%, ‘부담되는 편이다’ 37.1%로 응답하였으며,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는 13.0%,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3.0%이다. 매우 부담되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보호자가 13.8%, 자폐성장애인 보호자가 19.6%이다.

〈표 2-9-22〉 전반적인 돌봄 부담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부담된다	32,155	14.4	27,930	13.8	4,224	19.6
부담되는 편이다	83,062	37.1	73,828	36.5	9,234	42.9
그저 그렇다	72,890	32.6	67,498	33.4	5,392	25.1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29,043	13.0	26,674	13.2	2,368	11.0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6,623	3.0	6,334	3.1	289	1.3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 균		2.53		2.55		2.31
응답 추정 수		223,772		202,265		21,507

라. 보호자의 삶의 만족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는 23.5%인데 반해 불만족하는 비율은 27.0%이다.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고, 매우 불만족하는 비율은 6.5%이다.

〈표 2-9-23〉 보호자의 삶의 만족 정도

(단위: 명, %, 5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불만족한다	14,579	6.5	12,784	6.3	1,795	8.3
불만족하는 편이다	45,795	20.5	40,892	20.2	4,903	22.8
그저 그렇다	110,922	49.6	101,853	50.4	9,069	42.2
만족하는 편이다	49,223	22.0	43,840	21.7	5,383	25.0
매우 만족한다	3,253	1.5	2,896	1.4	357	1.7
전 체	223,772	100.0	202,265	100.0	21,507	100.0
평 균		2.91		2.92		2.89
응답 추정 수	223,772		202,265		21,507	

제 3 장

발달장애인(PL, ER 그룹) 당사자 조사 결과

제1절 취업과 일자리*

1. 취업자 조사 결과

PL, ER 그룹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취업자가 취업을 해서 일하는 이유로 '돈을 벌고 싶다'(73.7%), '일을 잘 할 수 있다'(12.7%), '일을 배우고 싶다'(7.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적장애인은 '돈을 벌고 싶다'(74.6%)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폐성장애인은 '일을 잘 할 수 있다'의 비율(20.4%)이 지적장애인(12.0%)에 비해 높다.

〈표 3-1-1〉 일을 하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돈을 벌고 싶다	41,740	73.7	38,567	74.6	3,173	64.8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	7,190	12.7	6,191	12.0	998	20.4
나는 일을 배우고 싶다	4,110	7.3	3,729	7.2	382	7.8
집에만 있기 싫다	1,498	2.6	1,324	2.6	174	3.6
다른 사람이(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일하라고 한다	1,964	3.5	1,797	3.5	168	3.4
기타	104	0.2	104	0.2	0	0.0
전 체	56,607	100.0	51,712	100.0	4,895	100.0

* 당사자(PL, ER 그룹)의 취업자/미취업자/공통조사의 응답 신뢰도 검증을 통해 총 1,800명의 응답자 중 부적합 응답으로 판단된 12명을 제외하여 1,788명으로 분석함(보고서 1장 5절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는 비율이 보호자에 비해 당사자가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D. 취업자 특성)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

1. 돈을 벌기 위해 - 34.8%	2.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려고 - 36.4%
3.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 17.7%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은 ‘공장에서 일한다’가 33.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실에서 일한다’(26.8%),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일한다’(17.0%) 등의 순이다.

지적장애인은 ‘공장에서 일한다’(33.9%)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폐성장애인은 ‘사무실에서 일한다’(34.2%)의 비율이 지적장애인에 비해 높다.

〈표 3-1-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일한다	9,638	17.0	8,811	17.0	827	16.9
나는 사무실에서 일한다	15,169	26.8	13,496	26.1	1,673	34.2
나는 공장에서 일한다	18,895	33.4	17,511	33.9	1,384	28.3
나는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키운다	2,120	3.7	2,120	4.1	0	0.0
나는 배달을 한다	1,336	2.4	1,237	2.4	99	2.0
나는 다른 일을 한다	9,449	16.7	8,537	16.5	912	18.6
전 체	56,607	100.0	51,712	100.0	4,895	100.0

발달장애인 취업자(PL, ER 그룹)의 76.8%는 현재 일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있으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76.4%, 자폐성장애인이 81.4%이다. 일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비율은 1.4%이다.

〈표 3-1-3〉 일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일 다니는 것이 좋다	43,473	76.8	39,489	76.4	3,984	81.4
그냥 그렇다	12,319	21.8	11,495	22.2	824	16.8
나는 일 다니는 것이 싫다	815	1.4	728	1.4	87	1.8
전 체	56,607	100.0	51,712	100.0	4,895	100.0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와 “현재 직장(사업체)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일자리에 다니는 것에 대해 당사자 본인 응답,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좋아하는 정도, 보호자의 만족 정도 등 세 가지 모두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D. 취업자 특성)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1. 좋아한다 - 75.8%	2. 그저 그렇다 - 21.3%	3. 싫어한다 - 2.9%
(D. 취업자 특성) “현재 직장(사업체)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		
1. 만족 - 77.7%	2. 보통 - 20.8%	3. 불만족 - 1.5%

발달장애인 취업자(PL, ER 그룹)의 68.8%는 일자리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있으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69.1%, 자폐성장애인이 66.1%이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비율은 1.9%, 혼자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이다.

〈표 3-1-4〉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다	38,954	68.8	35,720	69.1	3,234	66.1
그냥 그렇다	14,185	25.1	13,004	25.1	1,180	24.1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싫다	1,049	1.9	918	1.8	130	2.7
나는 혼자 일한다	2,420	4.3	2,069	4.0	351	7.2
전 체	56,607	100.0	51,712	100.0	4,895	100.0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직장(사업체) 사람(고용주, 직장동료)의 이해와 배려 정도”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를 참조하면, ‘이해와 배려가 많다’라는 응답이 75.4%로 나타나 당사자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다’(68.8%)와 유사한 수준이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D. 취업자 특성) “직장(사업체) 사람(고용주, 직장동료)의 이해와 배려 정도”

1. 많다 - 75.4% 2. 보통이다 - 20.4% 3. 부족하다 - 3.0%

발달장애인 취업자(PL, ER 그룹)의 65.2%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64.2%, 자폐성장애인이 75.2%이다. 재미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0%이다.

〈표 3-1-5〉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하는 일이 재미있다	36,882	65.2	33,201	64.2	3,681	75.2
그냥 그렇다	17,447	30.8	16,338	31.6	1,110	22.7
나는 하는 일이 재미없다	2,278	4.0	2,174	4.2	105	2.1
전 체	56,607	100.0	51,712	100.0	4,895	100.0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현재 업무를 좋아하는 정도”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좋아하는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D. 취업자 특성)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현재 업무를 좋아하는 정도”

1. 좋아한다 - 65.0% 2. 그저 그렇다 - 32.2% 3. 싫어한다 - 2.8%

“현재 일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 따라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일한다’는 ‘재미있다’가 69.8%,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68.3%, ‘공장에서 일한다’ 59.3%,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키운다’ 67.7%, ‘배달을 한다’ 43.7%, ‘다른 일을 한다’ 69.6% 등으로 나와 일하는 종류에 따라 좋아하는 정도가 차이를 보였다.

〈표 3-1-6〉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는지 여부(일의 종류별)

구 분		(단위: 명, %)	
		추정 수	비율
나는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일한다	재미있다	6,724	69.8
	전 체	9,638	100.0
나는 사무실에서 일한다	재미있다	10,360	68.3
	전 체	15,169	100.0
나는 공장에서 일한다	재미있다	11,199	59.3
	전 체	18,895	100.0
나는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키운다	재미있다	1,436	67.7
	전 체	2,120	100.0
나는 배달을 한다	재미있다	584	43.7
	전 체	1,336	100.0
나는 다른 일을 한다	재미있다	6,578	69.6
	전 체	9,449	100.0

발달장애인 취업자(PL, ER 그룹)의 23.0%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힘들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23.5%, 자폐성장애인이 17.8%이다. 힘들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1.1%이다.

〈표 3-1-7〉 하는 일이 힘든지 여부

구 분	추정 수	비율	(단위: 명, %)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하는 일이 힘들다	13,026	23.0	12,152	23.5	873	17.8
그냥 그렇다	20,339	35.9	18,711	36.2	1,628	33.3
나는 하는 일이 힘들지 않다	23,243	41.1	20,848	40.3	2,394	48.9
전 체	56,607	100.0	51,712	100.0	4,895	100.0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든 정도”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힘들다’, ‘힘들지 않다’의 비율 모두 당사자가 더 높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D. 취업자 특성)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든 정도”

1. 힘들다 - 19.7% 2. 적당하다 - 56.3% 3. 힘들지 않다 - 24.0%

발달장애인 취업자(PL 그룹)의 24.2%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지금보다 더 길게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더 짧게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5.2%이다.

〈표 3-1-8〉 현재보다 더 길게 일하고 싶은지 여부(PL 그룹)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지금보다 더 길게 일하고 싶다	9,165	24.2	8,362	24.3	803	23.1
지금이 좋다	26,712	70.6	24,209	70.4	2,504	71.9
지금보다 더 짧게 일하고 싶다	1,977	5.2	1,801	5.2	176	5.1
전 체	37,854	100.0	34,372	100.0	3,483	100.0

주: PL 그룹에게 질문함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근로시간 조정 희망 여부”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보호자(15.1%)에 비해 당사자(24.2%)가 지금보다 더 길게 일하고 싶은 비율이 소폭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D. 취업자 특성) “근로시간 조정 희망 여부”

- 1. 현재보다 더 긴 시간 일하면 좋겠음 - 15.1%
- 2. 현재처럼 일하면 좋음 - 82.3%
- 3. 현재보다 더 짧은 시간 일하면 좋겠음 - 2.6%

발달장애인 취업자(PL, ER 그룹)의 48.9%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48.6%, 자폐성장애인 52.1%이다.

〈표 3-1-9〉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교육받고 싶은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교육을 받고 싶다	27,707	48.9	25,158	48.6	2,549	52.1
나는 교육을 받기 싫다	28,900	51.1	26,554	51.4	2,346	47.9
전 체	56,607	100.0	51,712	100.0	4,895	100.0

발달장애인 취업자(PL 그룹)의 77.9%는 일하고 받는 금액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77.9%, 자폐성장애인 77.7%이다.

〈표 3-1-10〉 일하고 받는 금액 인지 여부(PL 그룹)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내가 얼마 받는지 알고 있다	29,476	77.9	26,771	77.9	2,705	77.7
나는 내가 얼마 받는지 모른다	8,378	22.1	7,601	22.1	777	22.3
전 체	37,854	100.0	34,372	100.0	3,483	100.0

주: PL 그룹에게 질문함

일하고 받는 금액을 알고 있는 발달장애인 취업자(PL 그룹)의 67.3%는 금액의 수준이 적당하고 응답하였으며, 32.7%는 적다고 응답하였다. 적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적장애인이 33.5%, 자폐성장애인이 25.5%이다.

〈표 3-1-11〉 일하고 받는 금액의 적정 여부(PL 그룹)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적당하다	19,829	67.3	17,814	66.5	2,015	74.5
돈이 적다	9,647	32.7	8,957	33.5	690	25.5
전 체	29,476	100.0	26,771	100.0	2,705	100.0

주: “일하고 받는 금액 인지 여부”에서 알고 있는 경우에 질문함

발달장애인 취업자(PL, ER 그룹)에게 일할 때 도움이 필요한지를 모두 응답받은 결과, 60.3%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21.8%는 ‘다른 사람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15.1%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9.5%는 ‘일하러 갈 때와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갈 때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응답하였다. 일할 때 하나라도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39.7%이며, 지적장애인은 39.3%, 자폐성장애인은 44.2%다.

〈표 3-1-12〉 일할 때 필요한 도움(중복응답)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일하러 갈 때와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갈 때 도움이 필요하다	5,390	9.5	4,629	9.0	761	15.5
나는 식사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1,028	1.8	1,001	1.9	26	0.5
나는 화장실 갈 때 도움이 필요하다	726	1.3	608	1.2	118	2.4
나는 다른 사람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12,361	21.8	11,365	22.0	997	20.4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8,544	15.1	7,647	14.8	897	18.3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34,130	60.3	31,396	60.7	2,734	55.8
전 체	56,607	-	51,712	-	4,895	-

주: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장애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 - 다른 사람의 도움”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미 받고 있는 경우 포함)은 71.2%인데 반해 당사자는 39.7%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D. 취업자 특성) “장애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 - 다른 사람의 도움”

- 1. 받고 있거나 필요함 - 71.2%
- 2. 받고 있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음 - 28.2%

하는 일이 다칠 수 있는지를 응답받은 결과, 발달장애인 취업자(PL, ER 그룹)의 30.2%는 다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31.1%, 자폐성장애인 21.4%로 지적장애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다칠 수 없다는 응답은 69.8%이다.

〈표 3-1-13〉 하는 일 다칠 수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내가 하는 일은 다칠 수 없다	39,494	69.8	35,647	68.9	3,847	78.6
내가 하는 일은 다칠 수 있다	17,113	30.2	16,065	31.1	1,048	21.4
전 체	56,607	100.0	51,712	100.0	4,895	100.0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근무장소의 안전 정도”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근무장소가 안전하다(78.3%)는 인식은 보호자가 당사자(69.8%)보다 높아 차이가 있었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D. 취업자 특성) “근무장소의 안전 정도”

1. 안전하다 - 78.3%	2. 적당하다 - 18.4%	3. 위험하다 - 3.3%
-----------------	-----------------	----------------

발달장애인 취업자(PL, ER 그룹)의 72.8%는 일자리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72.3%, 자폐성장애인 78.2%이다.

〈표 3-1-14〉 일자리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41,203	72.8	37,376	72.3	3,827	78.2
나는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15,404	27.2	14,336	27.7	1,069	21.8
전 체	56,607	100.0	51,712	100.0	4,895	100.0

발달장애인 취업자(PL, ER 그룹)의 89.4%는 일자리에서 불이 나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응답했고,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89.7%, 자폐성장애인 86.0%이다.

〈표 3-1-15〉 일자리에서 불이 나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스스로 갈 수 있다	50,589	89.4	46,377	89.7	4,212	86.0
나는 스스로 갈 수 없다	6,018	10.6	5,335	10.3	684	14.0
전 체	56,607	100.0	51,712	100.0	4,895	100.0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재난이나 위급상황 인지 가능 여부”와 “위급상황 발생 시 스스로 대피 가능 여부”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스스로 대피가 가능하다는 비율은 당사자(89.4%)가 보호자(83.0%)보다 높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G. 일상생활) “재난이나 위급상황 인지 가능 여부”

1. 할 수 있다 - 83.7%	2. 못한다 - 16.3%
-------------------	----------------

(G. 일상생활) “위급상황 발생 시 스스로 대피 가능 여부”

1. 할 수 있다 - 83.0%	2. 못한다 - 17.0%
-------------------	----------------

불이 나면 스스로 대피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발달장애인 취업자(PL, ER그룹)의 70.7%는 불이 나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고,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29.3%이다.

〈표 3-1-16〉 불이 나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나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줄 사람이 있다	4,257	70.7
나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	1,761	29.3
전 체	6,018	100.0

주: “일자리에서 불이 나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에서 ‘나는 스스로 갈 수 없다’로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불이 났을 때만의 상황이 아닌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를 질의하여 일부 차이는 있으나,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여부”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D. 취업자 특성)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여부”

1. 받음 - 73.0%	2. 받지 않음 - 27.0%
---------------	------------------

일할 때 장애인이라고 놀리거나 아프게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발달장애인 취업자(PL, ER 그룹)의 11.9%이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11.9%, 자폐성장래인 11.5%이다.

〈표 3-1-17〉 일할 때 사람들이 놀리거나, 때리거나, 아프게 한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장애인이라고 놀리거나 아프게 한 적이 있다	6,713	11.9	6,151	11.9	562	11.5
장애인이라고 놀리거나 아프게 한 적이 없다	49,894	88.1	45,561	88.1	4,333	88.5
전 체	56,607	100.0	51,712	100.0	4,895	100.0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직장(사업체)에서 차별, 폭력, 학대 경험 유무”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호자가 지각하는 경험 비율은 6.6%이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D. 취업자 특성) “직장(사업체)에서 차별, 폭력, 학대 경험 유무”

- 1. 경험한 적이 있음 - 6.6%
- 2. 경험한 적이 없음 - 93.4%

발달장애인 취업자(PL, ER그룹)가 일하다가 힘들거나 화날 때 하고 싶은 방법으로는 56.7%가 혼자서 쉬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5%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 18.7%는 집에 가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표 3-1-18〉 일하다가 힘들거나 화날 때 하고 싶은 방법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혼자서 쉬고 싶다(혼자 있고 싶다)	32,095	56.7	29,814	57.7	2,281	46.6
나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	13,296	23.5	12,130	23.5	1,166	23.8
나는 집에 가고 싶다	10,565	18.7	9,235	17.9	1,331	27.2
나는 다른 것을 하고 싶다	650	1.1	533	1.0	118	2.4
전 체	56,607	100.0	51,712	100.0	4,895	100.0

발달장애인 취업자(PL, ER 그룹)의 85.4%는 이 일자리를 계속 다니고 싶어하며, 10.4%는 다른 일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4.3%는 일 자체를 하기 싫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일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10.7%, 자폐성장애인 6.8%이다.

〈표 3-1-19〉 일자리를 계속 다니고 싶은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계속 다니고 싶다	48,320	85.4	43,914	84.9	4,406	90.0
나는 다른 일자리에 가고 싶다	5,869	10.4	5,534	10.7	335	6.8
나는 일하기 싫다	2,418	4.3	2,264	4.4	154	3.1
전 체	56,607	100.0	51,712	100.0	4,895	100.0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에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지 여부”와 “당사자의 현재 직장(사업체) 지속 근무에 대한 보호자의 희망 여부”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일자리를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본인 응답,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희망, 보호자의 희망 여부 등 세 가지 모두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D. 취업자 특성)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에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지 여부”

- 1. 이 직장(사업체)에 계속 다니길 원함 - 87.6%
- 2. 다른 직장(사업체)에 다니길 원함 - 9.2%
- 3. 일 자체를 그만하길 원함 - 3.2%

(D. 취업자 특성) “당사자의 현재 직장(사업체) 지속 근무에 대한 보호자의 희망 여부”

- 1. 이 직장(사업체)에 계속 다니길 원함 - 89.8%
- 2. 다른 직장(사업체)에 다니길 원함 - 9.2%
- 3. 일 자체를 그만하길 원함 - 0.9%

다른 일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발달장애인 취업자(PL 그룹)는 그 이유로 '다른 일을 하고 싶다'(46.8%), '일이 힘들고 어렵다'(17.4%),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다'(11.0%) 등을 응답하였다.

〈표 3-1-20〉 일자리를 그만 다니고 싶은 이유(PL 그룹)

구 분	추정 수	(단위: 명, %)
		비율
일이 힘들고 어렵다	703	17.4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다	446	1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158	3.9
몸이 아프고 병이 있다	157	3.9
일하는 곳까지 가는 것이 힘들다	297	7.3
돈을 적게 준다	315	7.8
다른 일을 하고 싶다	1,892	46.8
기타	79	1.9
전 체	4,046	100.0

주: "일자리를 계속 다니고 싶은지 여부"에서 '다른 일자리에 가고 싶다'로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2. 미취업자 조사 결과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80,042명의 발달장애인 미취업자(PL, ER 그룹) 중 41.6%는 일을 하고 싶어 하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40.1%, 자폐성장애인 60.0%이다.

〈표 3-1-21〉 일하고 싶은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일하고 싶다	33,295	41.6	29,681	40.1	3,614	60.0
나는 일하고 싶지 않다	46,086	57.6	43,697	59.0	2,389	39.7
모름/응답거절	660	0.8	639	0.9	21	0.4
전 체	80,042	100.0	74,017	100.0	6,025	100.0

일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발달장애인 미취업자(PL, ER 그룹)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는 어른이 된 이후에 일하고 싶은지를 응답받은 결과, 나중에는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이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14.6%, 자폐성장애인 37.0%이다.

〈표 3-1-22〉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중에는(또는 어른이 되면) 일하고 싶다	7,276	15.8	6,393	14.6	883	37.0
나중에도(또는 어른이 돼도) 일하고 싶지 않다	38,374	83.3	36,889	84.4	1,485	62.1
모름/응답거절	436	0.9	415	0.9	21	0.9
전 체	46,086	100.0	43,697	100.0	2,389	100.0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위 두 경우를 합하여 지금 또는 나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PL, ER 그룹)는 모두 40,571명으로 50.7%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48.7%, 자폐성장애인 74.6%이다.

〈표 3-1-23〉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취업 희망	40,571	50.7	36,074	48.7	4,497	74.6
취업 비희망	38,374	47.9	36,889	49.8	1,485	24.6
모름/응답거절	1,096	1.4	1,054	1.4	43	0.7
전 체	80,042	100.0	74,017	100.0	6,025	100.0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취업 희망’으로 합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보호자의 발달장애인 취업 희망 여부”와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취업 희망 비율(36.5%)에 비해 당사자가 실제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50.7%로 더 높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E 미취업자 특성) “보호자의 발달장애인 취업 희망 여부”

- 1. 취업 희망 - 43.9%
- 2. 취업 비희망 - 56.1%

(E 미취업자 특성)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

- 1. 취업 희망 - 36.5%
- 2. 취업 비희망 - 63.5%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PL, ER 그룹) 중 45.5%는 당장 내일부터 일할 의향이 있으며, 의향이 있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45.9%, 자폐성장애인 42.3%이다.

〈표 3-1-24〉 당장 내일부터 일할 의향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네, 일할래요	18,458	45.5	16,555	45.9	1,903	42.3
아니요, 안할래요	22,113	54.5	19,519	54.1	2,594	57.7
전 체	40,571	100.0	36,074	100.0	4,497	100.0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당사자의 응답 결과가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한 비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E. 미취업자 특성)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

1.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음 - 44.5% 2. 바로 취업해서 일하기 어려움 - 55.2%

*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응답받음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PL, ER 그룹)가 취업을 해서 일하고 싶은 이유로 ‘돈을 벌고 싶다’(59.1%), ‘일을 배우고 싶다’(16.4%), ‘집에만 있기 싫다’(10.7%), ‘일을 잘 할 수 있다’(8.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장애유형 별로 비교하면, 지적장애인은 ‘일을 배우고 싶다’(16.8%)의 응답 비율이 자폐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반면, 자폐성장애인은 ‘일을 잘 할 수 있다’의 비율(15.2%)이 지적장애인에 비해 높다.

〈표 3-1-25〉 일하고 싶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돈을 벌고 싶다	23,968	59.1	21,351	59.2	2,616	58.2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	3,392	8.4	2,707	7.5	685	15.2
나는 일을 배우고 싶다	6,658	16.4	6,051	16.8	607	13.5
집에만 있기 싫다	4,338	10.7	4,008	11.1	329	7.3
다른 사람이(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일하라고 한다	1,420	3.5	1,181	3.3	239	5.3
기타	795	2.0	776	2.2	20	0.4
전 체	40,571	100.0	36,074	100.0	4,497	100.0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보호자가 당사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당사자가 59.1%로 보호자(23.2%)에 비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일부 결과

(E. 미취업자 특성) “보호자가 당사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1.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길 원해서 - 38.6%
2.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 30.3%
3. 돈을 벌었으면 해서(생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 23.2%

* 보호자가 당사자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응답받음

발달장애인 미취업자(PL, ER 그룹)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일하고 싶다’가 35.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25.4%),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19.5%) 등의 순이다.

지적장애인은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20.1%)의 응답 비율이 자폐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반면, 자폐성장애인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의 비율(33.2%)이 지적장애인에 비해 높다.

〈표 3-1-26〉 희망하는 일의 종류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일하고 싶다	14,374	35.4	12,750	35.3	1,624	36.1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	10,312	25.4	8,821	24.5	1,491	33.2
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	7,917	19.5	7,251	20.1	666	14.8
나는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키우고 싶다	1,988	4.9	1,769	4.9	219	4.9
나는 배달을 하고 싶다	1,649	4.1	1,493	4.1	156	3.5
나는 다른 일 하고 싶다	4,331	10.7	3,991	11.1	341	7.6
전 체	40,571	100.0	36,074	100.0	4,497	100.0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희망하는 업무 종류”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일부 결과

(E. 미취업자 특성) “희망하는 업무 종류”

1.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 - 29.7%
2. 사무(사무지원, 사서, 우체국 등) - 21.1%
3.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 - 17.1%

*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응답받음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PL, ER 그룹) 중 41.0%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30.8%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을 희망하고, 28.3%는 혼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자폐성장어인은 혼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33.3%로 지적장애인(27.6%)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3-1-27〉 장애인들과 모여서 일하고 싶은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혼자서 일하고 싶다	11,465	28.3	9,966	27.6	1,499	33.3
나는 장애인이 모여서 일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12,481	30.8	11,216	31.1	1,265	28.1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16,625	41.0	14,893	41.3	1,733	38.5
전 체	40,571	100.0	36,074	100.0	4,497	100.0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희망하는 직장(일자리) 사업체 유형”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일부 결과

(E 미취업자 특성) “희망하는 직장(일자리) 사업체 유형”

1.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 - 24.2%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 20.6%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18.5%
4.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17.9%
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자리 - 13.8%

*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응답받음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PL, ER 그룹) 중 90.9%는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하며, 희망 비율은 지적장애인 90.7%, 자폐성장애인 92.4%이다.

〈표 3-1-28〉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36,868	90.9	32,713	90.7	4,155	92.4
나는 일하는 방법을 배우기 싫다	3,703	9.1	3,361	9.3	342	7.6
전 체	40,571	100.0	36,074	100.0	4,497	100.0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발달장애인 미취업자(PL, ER 그룹) 38,374명 중 34.3%는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일하는 것이 싫다’를 들었고, 29.6%는 ‘몸이 아파서(장애 때문에) 일하기 싫다’, 16.9%는 ‘일이 힘들어서 일하기 싫다’를 응답하였다.

지적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몸이 아파서(장애 때문에) 일하기 싫다’의 비율(30.3%)이 높은 반면, 자폐성장애인은 ‘일하는 것이 싫다’(51.5%)의 비율이 지적장애인에 비해 높다.

〈표 3-1-29〉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일하는 것이 싫다	13,173	34.3	12,408	33.6	764	51.5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	2,357	6.1	2,279	6.2	78	5.2
나를 안 뽑아 줄 것 같다	1,835	4.8	1,765	4.8	70	4.7
나는 몸이 아파서(장애 때문에) 일하기 싫다	11,368	29.6	11,194	30.3	174	11.8
나는 일해본 적이 없어서 일하기 싫다	3,007	7.8	2,868	7.8	138	9.3
나는 일이 힘들어서 일하기 싫다	6,503	16.9	6,262	17.0	241	16.2
기타	132	0.3	113	0.3	19	1.3
전 체	38,374	100.0	36,889	100.0	1,485	100.0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보호자가 당사자의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일부 결과

(E 미취업자 특성) “보호자가 당사자의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1.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일자리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 41.0%
2. 장애인 본인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 29.5%
3.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문제 등 개인적 이유로 - 18.0%

* 보호자가 당사자의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응답받음

제2절 공통조사 결과

1. 건강과 행복

발달장애인(PL, ER 그룹)의 56.8%는 본인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5.2%는 건강하지 않다고 하였다.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적장애인 55.2%, 자폐성장애인 75.1%이다.

〈표 3-2-1〉 요즘 건강한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건강하다	77,633	56.8	69,435	55.2	8,198	75.1
그냥 그렇다	38,120	27.9	36,033	28.7	2,087	19.1
나는 건강하지 않다	20,799	15.2	20,165	16.0	634	5.8
모름/응답거절	97	0.1	97	0.1	0	0.0
전 체	136,649	100.0	125,729	100.0	10,920	100.0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보호자가 판단하는 것(45.7%)보다 당사자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6.8%로 더 높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G. 일상생활) “전반적인 건강상태”

1. 좋다 - 45.7%

2. 보통이다 - 33.2%

3. 나쁘다 - 21.1%

발달장애인(PL, ER 그룹)의 52.3%는 요즘 생활이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6.9%이다.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폐성장애인(60.1%)이 지적장애인(51.6%)보다 높다.

〈표 3-2-2〉 요즘 행복한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그렇다	71,443	52.3	64,880	51.6	6,563	60.1
그냥 그렇다	55,402	40.5	51,559	41.0	3,843	35.2
전혀 아니다	9,362	6.9	8,848	7.0	514	4.7
모름/응답거절	441	0.3	441	0.4	0	0.0
전 체	136,649	100.0	125,729	100.0	10,920	100.0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일상생활 만족 정도”와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당사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비율과 유사하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G. 일상생활)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일상생활 만족 정도”

1. 좋아한다 - 65.2% 2. 그저 그렇다 - 32.8% 3. 싫어한다 - 2.0%

(G. 일상생활)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

1. 만족 - 53.7% 2. 그저 그렇다 - 37.7% 3. 불만족 - 8.6%

발달장애인(PL그룹)의 70.3%는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과 잘 지내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70.1%, 자폐성장애인 72.9%이다.

〈표 3-2-3〉 가족들과 잘 지내는지 여부(PL 그룹)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매우 그렇다	54,238	70.3	49,376	70.1	4,862	72.9
그냥 그렇다	19,841	25.7	18,139	25.8	1,701	25.5
전혀 아니다	2,850	3.7	2,750	3.9	100	1.5
모름/응답거절	180	0.2	170	0.2	11	0.2
전 체	77,109	100.0	70,435	100.0	6,674	100.0

주: PL 그룹에게 질문함

2. 하고 싶은 활동

집에서 쉬는 것, 복지관이나 센터에 가는 것, 일해서 돈 버는 것, 세 가지 중에 제일 하고 싶은 것을 ER 그룹의 발달장애인에게 응답받은 결과, '집에서 쉬고 싶다'(45.4%), '일해서 돈 벌고 싶다'(35.1%), '복지관이나 센터에 가고 싶다'(18.0%)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은 '일해서 돈 벌고 싶다'의 비율이 35.3%로 자폐성장애인(32.6%)에 비해 높고, 자폐성장애인은 '복지관이나 센터에 가고 싶다'의 비율(29.8%)이 지적장애인(17.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2-4〉 세 가지 중 제일 하고 싶은 활동(ER 그룹)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	27,015	45.4	25,419	46.0	1,596	37.6
나는 복지관이나 센터에 가고 싶다	10,746	18.0	9,479	17.1	1,267	29.8
나는 일해서 돈 벌고 싶다	20,926	35.1	19,543	35.3	1,383	32.6
모름/응답거절	853	1.4	853	1.5	0	0.0
전 체	59,539	100.0	55,294	100.0	4,246	100.0

주: ER 그룹에게 질문함

PL 그룹의 발달장애인은 '일해서 돈 벌고 싶다'(54.0%), '집에서 쉬고 싶다'(33.3%), '복지관이나 센터에 가고 싶다'(12.7%) 순으로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일해서 돈 벌고 싶다'고 응답한 PL그룹(54.0%) 비율이 ER 그룹(35.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2-5〉 세 가지 중 제일 하고 싶은 활동(1순위)(PL 그룹)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	25,654	33.3	23,181	32.9	2,473	37.1
나는 복지관이나 센터에 가고 싶다	9,831	12.7	8,979	12.7	852	12.8
나는 일해서 돈 벌고 싶다	41,625	54.0	38,276	54.3	3,349	50.2
전 체	77,109	100.0	70,435	100.0	6,674	100.0

주: PL 그룹에게 질문함

발달장애인(PL, ER 그룹)이 여가시간에 집 안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두 개까지 중복으로 응답받은 결과, 전체 발달장애인(PL, ER 그룹)의 61.6%가 'TV 보기'를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자거나 그냥 쉬기'(44.2%), '인터넷, 게임하기'(37.6%) 등의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지적장애인의 63.3%는 'TV 보기'를, 자폐성장애인의 58.8%는 '인터넷, 게임하기'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3-2-6〉 여가시간에 하고 싶은 집 안 활동(2개 중복응답)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TV 보기	84,167	61.6	79,571	63.3	4,596	42.1
인터넷, 게임하기	51,348	37.6	44,929	35.7	6,419	58.8
운동하기	21,738	15.9	19,402	15.4	2,336	21.4
자거나 그냥 쉬기	60,349	44.2	56,545	45.0	3,804	34.8
청소하기	14,448	10.6	13,775	11.0	673	6.2
음식 만들기	9,868	7.2	9,192	7.3	675	6.2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23,545	17.2	20,912	16.6	2,633	24.1
개, 고양이와 지내기	6,244	4.6	5,845	4.6	398	3.6
나는 다른 것을 하고 싶다	1,209	0.9	946	0.8	264	2.4
전 체	136,649	-	125,729	-	10,920	-

주: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발달장애인(PL, ER 그룹)이 여가시간에 집 밖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두 개까지 중복으로 응답받은 결과, '맛있는 것 먹으러 가기'가 45.2%로 가장 많고, '쇼핑하기(마트, 백화점 등)'(41.6%), '운동가기'(30.6%) 등의 순으로 많다.

〈표 3-2-7〉 여가시간에 하고 싶은 집 밖 활동(2개 중복응답)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친구나 다른 사람 만나기	33,705	24.7	31,993	25.4	1,712	15.7
여행가기	23,560	17.2	20,841	16.6	2,719	24.9
운동가기	41,817	30.6	38,237	30.4	3,580	32.8
영화관, 노래방, PC방 등 가기	27,559	20.2	25,141	20.0	2,417	22.1
쇼핑하기(마트, 백화점 등)	56,877	41.6	52,649	41.9	4,228	38.7
맛있는 것 먹으러 가기	61,819	45.2	56,630	45.0	5,189	47.5
교회, 성당, 절 가기	19,774	14.5	18,287	14.5	1,487	13.6
나는 다른 것을 하고 싶다	2,749	2.0	2,556	2.0	194	1.8
전 체	136,649	-	125,729	-	10,920	-

주: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발달장애인(PL, ER 그룹)이 배우고 싶은 것은 ‘배우고 싶은 것이 없다’(38.4%)를 제외하면 ‘요리, 운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취미 활동’(29.9%), ‘일하는 방법’(15.3%), ‘사는데 필요한 방법’(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8〉 배우고 싶은 것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글 읽고 쓰기, 숫자 계산을 배우고 싶다	8,381	6.1	7,693	6.1	687	6.3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20,932	15.3	18,612	14.8	2,320	21.2
돈 관리, 지하철 타기 등 사는데 필요한 방법을 배우고 싶다	10,988	8.0	9,828	7.8	1,160	10.6
요리, 운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즐기는 활동을 배우고 싶다	40,820	29.9	37,266	29.6	3,554	32.5
나는 다른 것을 배우고 싶다	2,702	2.0	2,379	1.9	323	3.0
배우고 싶은 것이 없다	52,420	38.4	49,650	39.5	2,770	25.4
모름/응답거절	406	0.3	300	0.2	106	1.0
전 체	136,649	100.0	125,729	100.0	10,920	100.0

3. 사회생활

발달장애인(PL, ER 그룹) 중 친구가 있는 경우는 49.1%이며, 지적장애인은 49.2%, 자폐성 장애인은 49.1%이다.

〈표 3-2-9〉 친구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친구가 있다	67,159	49.1	61,801	49.2	5,358	49.1
나는 친구가 없다	69,356	50.8	63,831	50.8	5,525	50.6
모름/응답거절	133	0.1	97	0.1	37	0.3
전 체	136,649	100.0	125,729	100.0	10,920	100.0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ER 그룹)의 보호자가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으며, 당사자와 보호자의 응답 결과가 유사하였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G. 일상생활)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

1. 있음 - 50.8%	2. 없음 - 49.2%
---------------	---------------

ER 그룹의 발달장애인 중 53.2%가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사할 수 있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53.1%, 자폐성장래인 54.0%이다.

〈표 3-2-10〉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할 수 있는지 여부(ER 그룹)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인사할 수 있다	31,661	53.2	29,370	53.1	2,291	54.0
나는 인사할 수 없다	27,766	46.6	25,833	46.7	1,933	45.5
모름/응답거절	113	0.2	91	0.2	21	0.5
전 체	59,539	100.0	55,294	100.0	4,246	100.0

주: ER 그룹에게 질문함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ER 그룹)의 보호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G. 일상생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1. 좋아한다 - 25.4% 2. 그저 그렇다 - 44.3% 3. 싫어한다 - 30.2%

PL 그룹의 발달장애인 중 42.3%가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비율은 지적장애인 42.3%, 자폐성장애인 43.0%이다.

〈표 3-2-11〉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는지 여부(PL 그룹)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먼저 말을 걸 수 있다	32,642	42.3	29,771	42.3	2,871	43.0
먼저 말을 걸 수 없다	44,432	57.6	40,665	57.7	3,768	56.4
모름/응답거절	35	0.0	0	0.0	35	0.5
전 체	77,109	100.0	70,435	100.0	6,674	100.0

주: PL 그룹에게 질문함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그룹)의 보호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G. 일상생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1. 좋아한다 - 30.4% 2. 그저 그렇다 - 37.9% 3. 싫어한다 - 31.7%

발달장애인(PL, ER 그룹)의 54.7%는 화가 나면 화났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54.7%, 자폐성장래인 54.9%이다.

〈표 3-2-12〉 화가 나면 화났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화가 났다고 말할 수 있다	74,768	54.7	68,770	54.7	5,998	54.9
나는 화가 났다고 말할 수 없다	61,602	45.1	56,726	45.1	4,876	44.7
모름/응답거절	278	0.2	232	0.2	46	0.4
전 체	136,649	100.0	125,729	100.0	10,920	100.0

4. 경제생활

발달장애인(PL, ER 그룹)의 74.8%는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이나 카드가 있으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74.9%, 자폐성장래인 73.5%이다.

〈표 3-2-13〉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카드)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돈이나 카드가 있다	102,181	74.8	94,155	74.9	8,026	73.5
나는 돈이나 카드가 없다	34,325	25.1	31,477	25.0	2,848	26.1
모름/응답거절	143	0.1	97	0.1	47	0.4
전 체	136,649	100.0	125,729	100.0	10,920	100.0

5. 학교생활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휴학(유예) 중인 발달장애인의 64.2%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4.2%는 싫다고 하였다. 학교 다니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적 장애인 63.4%, 자폐성장아인 67.1%이다.

〈표 3-2-14〉 학교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다	6,475	64.2	5,114	63.4	1,361	67.1
그냥 그렇다	3,186	31.6	2,628	32.6	558	27.5
나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싫다	422	4.2	322	4.0	100	4.9
모름/응답거절	11	0.1	0	0.0	11	0.5
전 체	10,094	100.0	8,064	100.0	2,030	100.0

주: 현재 초/중/고 재학/휴학(유예) 중인 경우에 질문함

졸업 이후 희망하는 활동에 대해 응답받은 결과, 발달장애인(PL, ER 그룹)의 29.7%는 '고등학교(또는 대학교)의 상급 과정 진학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싶다'(29.4%), '나는 일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전공과 포함)'(22.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표 3-2-15〉 졸업 이후 희망하는 활동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고등학교(또는 대학교)에 가고 싶다	2,999	29.7	2,202	27.3	797	39.3
나는 일해서 돈 벌고 싶다	2,969	29.4	2,486	30.8	483	23.8
나는 일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전공과 포함)	2,268	22.5	1,830	22.7	438	21.6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	1,266	12.5	1,050	13.0	215	10.6
나는 복지관, 센터에 다니고 싶다	502	5.0	440	5.5	62	3.0
나는 다른 것을 하고 싶다	55	0.5	55	0.7	0	0.0
모름/응답거절	35	0.3	0	0.0	35	1.7
전 체	10,094	100.0	8,064	100.0	2,030	100.0

주: 현재 초/중/고 재학/휴학(유예) 중인 경우에 질문함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졸업 이후의 진로 계획”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하면, 보호자와 당사자 모두 ‘상급학교 진학(전공과 포함)’ 응답이 가장 높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B. 교육) “졸업 이후의 진로 계획”

1. 상급학교 진학(전공과 포함) - 54.7%	2. 취업 - 16.7%
3.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 12.9%	4. 취업 관련 훈련 또는 교육 참여 - 12.8%

6. 장애에 대한 생각

발달장애인(PL, ER 그룹)의 70.7%는 평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지적장애인 70.1%, 자폐성장애인 77.0%이다.

〈표 3-2-16〉 평소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26,832	19.6	23,710	18.9	3,122	28.6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	69,769	51.1	64,485	51.3	5,284	48.4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39,686	29.0	37,272	29.6	2,414	22.1
모름/응답거절	362	0.3	262	0.2	101	0.9
전 체	136,649	100.0	125,729	100.0	10,920	100.0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하면,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G. 일상생활)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1. 필요함 - 58.4%	2. 필요하지 않음 - 41.6%
----------------	--------------------

PL 그룹 발달장애인의 54.7%는 ‘장애로 인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55.0%, 자폐성장애인 51.1%로 나타났다.

〈표 3-2-17〉 장애로 인해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이 있는지 여부(PL 그룹)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장애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이 있다	42,175	54.7	38,762	55.0	3,413	51.1
나는 장애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이 없다	34,716	45.0	31,579	44.8	3,137	47.0
모름/응답거절	218	0.3	94	0.1	124	1.9
전 체	77,109	100.0	70,435	100.0	6,674	100.0

주: PL 그룹에게 질문함

발달장애인 중 장애로 인해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 발달장애인 (PL, ER 그룹)의 33.5%이며,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33.2%, 자폐성장애인 36.5%이다.

〈표 3-2-18〉 장애로 인해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은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	45,771	33.5	41,783	33.2	3,988	36.5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은 적이 없다	90,433	66.2	83,588	66.5	6,846	62.7
모름/응답거절	444	0.3	358	0.3	86	0.8
전 체	136,649	100.0	125,729	100.0	10,920	100.0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평소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정도”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G 일상생활) “평소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정도”

1. 경험한 적 있음 - 40.0%
2. 경험한 적 없음 - 59.9%

다른 사람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때리거나 아프게 한 경험을 질문했을 때, 발달장애인 (PL, ER 그룹)의 18.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이 있는 비율은 지적장애인 18.2%, 자폐성장애인 23.7%이다.

〈표 3-2-19〉 다른 사람이 때리거나 아프게 한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다른 사람이 때리거나 아프게 한 적이 있다	25,495	18.7	22,906	18.2	2,589	23.7
다른 사람이 때리거나 아프게 한 적이 없다	111,009	81.2	102,717	81.7	8,292	75.9
모름/응답거절	145	0.1	106	0.1	39	0.4
전 체	136,649	100.0	125,729	100.0	10,920	100.0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최근 1년 폭력, 학대, 방치 등 경험 여부”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질문의 정의, 어감 등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호자가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G. 일상생활) “최근 1년 폭력, 학대, 방치 등 경험 여부”

1. 경험한 적 있음 - 6.2%

2. 경험한 적 없음 - 93.8%

7. 미래에 대한 생각

발달장애인(PL, ER 그룹)은 나중에 또는 어른이 되면 살고 싶은 방식으로 ‘가족(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이 5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결혼해서 아내 또는 남편과 살고 싶다’ 23.8%, ‘혼자서 살고 싶다’ 20.8%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표 3-2-20〉 나중에(또는 어른이 되면) 살고 싶은 방식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가족(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	71,205	52.1	64,533	51.3	6,672	61.1
나는 결혼해서 아내(남편)와 살고 싶다	32,490	23.8	30,492	24.3	1,998	18.3
나는 친구와 살고 싶다	3,489	2.6	3,098	2.5	390	3.6
나는 혼자서 살고 싶다	28,453	20.8	26,702	21.2	1,751	16.0
모름/응답거절	1,012	0.7	903	0.7	109	1.0
전 체	136,649	100.0	125,729	100.0	10,920	100.0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의지”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G. 일상생활)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의지”

1. 강함 - 20.7%	2. 보통 - 32.3%	3. 약함 - 47.0%
---------------	---------------	---------------

8. 자신에 대한 생각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PL 그룹의 발달장애인 중 52.9%는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53.0%, 자폐성장애인 51.5%이다.

〈표 3-2-21〉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PL 그룹)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40,758	52.9	37,319	53.0	3,439	51.5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없다	36,279	47.0	33,116	47.0	3,163	47.4
모름/응답거절	73	0.1	0	0.0	73	1.1
전 체	77,109	100.0	70,435	100.0	6,674	100.0

주: PL 그룹에게 질문함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정도”와 “당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주된 주체(결정권자)”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G. 일상생활)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정도”

1. 표현한다 - 49.1%	2. 보통이다 - 30.4%	3. 표현하지 않는다 - 20.5%
-----------------	-----------------	---------------------

(G. 일상생활) “당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주된 주체(결정권자)”

1. 장애인 본인 - 36.7%	2. 보호자 - 62.8%	3. 그 외 사람 - 0.5%
-------------------	----------------	------------------

PL 그룹의 발달장애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목별로 응답받은 결과 중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은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26.7%,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18.3%,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35.2%,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3.0%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자폐성장애인이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지적장애인에 비해 높다.

〈표 3-2-22〉 자신에 대한 생각(PL 그룹)

(단위: 명, %, 3점 척도)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20,568	26.7	17,820	25.3	2,748	41.2
	그냥 그렇다	43,084	55.9	39,996	56.8	3,088	46.3
	전혀 아니다	12,613	16.4	11,814	16.8	799	12.0
	모름/응답거절	845	1.1	805	1.1	40	0.6
	소 계	77,109	100.0	70,435	100.0	6,674	100.0
	평균		1.90		1.91		1.71
	응답 추정 수		76,265		69,630		6,635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매우 그렇다	14,117	18.3	12,071	17.1	2,046	30.7
	그냥 그렇다	41,501	53.8	38,105	54.1	3,395	50.9
	전혀 아니다	20,613	26.7	19,539	27.7	1,075	16.1
	모름/응답거절	878	1.1	720	1.0	158	2.4
	소 계	77,109	100.0	70,435	100.0	6,674	100.0
	평균		2.09		2.11		1.85
	응답 추정 수		76,231		69,715		6,51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매우 그렇다	27,150	35.2	24,286	34.5	2,864	42.9
	그냥 그렇다	38,738	50.2	35,647	50.6	3,091	46.3
	전혀 아니다	10,102	13.1	9,468	13.4	634	9.5
	모름/응답거절	1,120	1.5	1,035	1.5	85	1.3
	소 계	77,109	100.0	70,435	100.0	6,674	100.0
	평균		1.78		1.79		1.66
	응답 추정 수		75,990		69,400		6,590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33,164	43.0	29,827	42.3	3,337	50.0
	그냥 그렇다	38,195	49.5	35,258	50.1	2,937	44.0
	전혀 아니다	4,896	6.3	4,558	6.5	337	5.1
	모름/응답거절	855	1.1	792	1.1	63	0.9
	소 계	77,109	100.0	70,435	100.0	6,674	100.0
	평균		1.63		1.64		1.55
	응답 추정 수		76,254		69,643		6,611

- 주 1) PL 그룹에게 질문함
 2) 자아존중감 척도의 항목 중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함
 3) 평균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

9. 위급상황 대처

집에 불이 나면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발달장애인(PL, ER 그룹)의 68.9%는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비율은 지적장애인 69.1%, 자폐성장아인 66.6%이다.

〈표 3-2-23〉 집에 불이 나면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장애유형			
			지적		자폐성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나는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다	94,147	68.9	86,875	69.1	7,272	66.6
나는 소방서에 연락할 수 없다	42,502	31.1	38,854	30.9	3,648	33.4
전 체	136,649	100.0	125,729	100.0	10,920	100.0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의 보호자가 “집에 불이 나면 소방서에 연락 가능 여부”에 대해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한 결과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 위 문항에 응답한 당사자(PL, ER 그룹)의 보호자가 보호자 조사 시 응답한 결과

(G. 일상생활) “재난이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음”

1. 가능 - 61.7%

2. 못함 - 38.3%

참 고 문 헌

- 경기복지재단. (2017).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경기복지재단. (2020). 2020년 경기도 성인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당사자 욕구 실태조사, 경기복지재단.
- 경북행복재단. (2013). 제1차 경상북도 장애인 패널 조사(2013년) -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 경북행복재단.
- 고혜정. (2016).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 연구 접근 관점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18(1), 307-324.
- 관계부처합동. (2018).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종합대책,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합동. (2020).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합동. (2021).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 교육부. (2021). 2021년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2013). 문제행동 치료의 표준지침 및 치료 매뉴얼 개발 보고서,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2021). 장애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국립재활원.
- 국립특수교육원. (2018).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 기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 (2019). 발달장애인용 직업흥미검사, 국립특수교육원.
- 김경열. (2019a).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운영경험에 대한 질적사례분석, 발달장애연구, 23, 29-47.
- 김경열. (2019b). 발달장애인의 근로생활 유지 경험,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2), 875-883.
- 김동화, 김미옥. (2015).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발달장애인은 삶에 만족하는가?. 장애와 고용, 25(2), 209-233.

- 김미옥, 김고은. (2017).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관한 쟁점과 전망, 비판사회정책, 56, 59-94.
- 김정일. (2015). 직업준비검사 (ERS-II) 표준화연구, 장애인복지 연구, 6(1), 37-65.
- 김지수, 박승희. (2015). 발달장애학생의 고용전환 지원을 위한 “커리어점프 희망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자와 관련자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장애와 고용, 25(3), 73-100.
- 김태건, 임경원. (2018).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의 삶: 포토보이스와 마인드맵으로 들어본 이야기, 특수교육학연구, 53(3), 67-96.
- 김환희, 이영선. (2012). 장애인의 직업유지요인 탐색: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2(3), 183-210.
- 남용현, 김기룡, 송남영. (2017).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박상희. (2020). 사회 실생활 도구로의 발달장애 학생 스마트폰 활용 방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11), 255-262.
- 박수경, 배종필, 이정하, 서경주, 이선우. (2019). 중년기 발달장애인 자녀와 어머니의 함께 나이 들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45(45), 57-91.
- 박승희, 박현숙, 박지연, 이숙향. (2012). 발달장애인의 성공적 성인기 전환에 영향을 준 요소와 전환 지원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7(2), 141-175.
- 박은영, 강석구, 김삼섭. (2007). 자폐인의 직업유지 요인에 관한 사례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2(1), 207-226.
- 박은영. (2015). 청년기 지적장애인의 고용 유지 결정 요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4), 519-529.
- 방명애. (2001). 정신지체아동의 지체정도와 학교급간이 의사결정기술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36(1), 147-168.
- 배내윤. (2013). 중증 자폐성 장애 청소년의 성인기 전환에 대한 가족지원 요구 분석, 특수교육, 12(1), 31-59.
- 백종남, 김종미, 김삼섭. (2015). 발달장애학생 기초작업기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직업기초능력의 도출, 우선순위 및 미래유용성-준비도 매트릭스 분석,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 58(4), 125-146.
-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 연구, 서울대학교.
- 송호준. (2018). 발달장애인복지시설의 화재·재난안전 사고현황과 교육실태 및 안전의식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3), 433-455.
- 신빛나, 이준우. (2014).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지, 장애와 고용, 24(3), 35-66.
- 신준욱. (2016).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34, 47-70.
-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21). 팬데믹 시대(COVID-19)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행동 평가 도구의 개발 및 프로토콜 확립, 국립서울병원.
- 이경림, 박주홍. (2013).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양육 부담과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지적장애연구, 15(2), 349-373.
- 이경선, 이미숙. (2018).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진로지원행동 평가 문항 개발. 장애와 고용, 28(2), 85-117.
- 이미숙, 고혜정, 박영근, 이광림, 나인정, 남광현, 이경선. (2019). 전공과 지원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이소영. (2013). 장애인 건강격차의 문제와 건강지표 활용추세: 발달장애인의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 1(1), 73-106.
- 정지희, 심은정, 박지연. (2018). 발달장애 청년의 고용 및 고용유지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3(2), 77-99.
- 장미희, 최영. (2011). 가족탄력성이 성인 발달 장애인 형제자매의 관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4), 1-24.
- 전경화, 김신호, 김혜경, 이형주, 임병우. (2019). 발달장애아 부모의 생애사를 통해 본 도전적 행동 돌봄 적응, 한국정책연구, 19(3), 25-45.
- 전해숙, 강상경. (2020). 발달장애인 자녀의 장애특성과 부모의 건강특성이 부모의 돌봄 부담에 미치는 영향: 부모 연령대별 차이. 사회과학연구, 59(1), 695-730.
- 조한진, 김기룡, 김예원, 김정하, 김은애, 송효정, 이승홍, 이용표, 조정미. (2017).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채서현, 강태인, 김미영, 권영지, 박형빈. (2017). 발달장애인 부모가 인지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주거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1, 103-129.

- 최미지, 김예니, 반지정, 황석현, 김봉년, 양영희. (2017). 한국판 문제행동 평가도구(Behavior Problems Inventory-01) 표준화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8(4).
- 최민식, 신현기. (2018). 발달장애인 부모와 고용주의 취업준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인식 비교, *지적장애연구*, 20(4), 25-53.
- 최복천, 변용찬, 황주희, 김미옥, 박희찬, 심석순, 오다은. (2016).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선영, 김화수. (2018). 발달장애 학생의 직업적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학술대회*, 38-4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연주. (2019).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주 돌봄자인 부모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폐성장애연구*, 19(3), 77-109.
- Botsford, A. L., & Rule, D. (2004). Evaluation of a group intervention to assist aging parents with permanency planning for an adult offspring with special needs. *Social Work*, 49(3), 423-431.
- Bennett, T., DeLuca, D. A., & Allen, R. W. (1996).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Positive adaptation across the life cycle. *Children & Schools*, 18(1), 31-44.
- Courtenay, K., & Perera, B. (2020). COVID-19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mpacts of a pandemic. *Irish Journal of Psychological Medicine*, 37(3), 231-236.
- Dunn, A. M., Heggstad, E. D., Shanock, L. R., & Theilgard, N. (2018). Intra-individual response variability as an indicator of insufficient effort responding: Comparison to other indicators and relationships with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33(1), 105-121.
- Kohler, P. D., & Rusch, F. R. (1995). School to work transition: Identification of employment-related outcome and activity indicators.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18(1), 33-50.
- Smith, G. C., & Tobin, S. S. (1990). Permanency planning among older parents of adults with lifelong disabilit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4(3-4), 35-59.

부 록

1. 주요 변수별 변동계수(CV)	321
2. 성별 주요 통계표	322
3. 연령별 주요 통계표	358
4. 주요 용어 정의	394
5.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표	401

[부록1] 주요 변수별 변동계수(CV)

1. 장애 특성별 변동계수

〈부표 1-1-1〉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 변동계수(CV)

(단위: %)

구 분	비율	표준오차	변동계수(CV)
두 문장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함	52.1	1.07	2.05
두 문장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하지 못함	47.9	1.07	2.23

주: '두 문장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하지 못함'에는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단어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다른 사람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함이 포함

〈부표 1-1-2〉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 - 변동계수(CV)

(단위: %)

구 분	비율	표준오차	변동계수(CV)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함	56.2	1.06	1.88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함	43.8	1.06	2.42

주: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함'에는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불명료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함, 소리 등으로도 전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음이 포함

〈부표 1-1-3〉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 변동계수(CV)

(단위: %)

구 분	비율	표준오차	변동계수(CV)
일상생활 도움 필요	69.1	1.00	1.44
일상생활 도움 필요하지 않음	30.9	1.00	3.22

2. 취업 여부별 변동계수

〈부표 1-2-1〉 발달장애인 취업 여부 - 변동계수(CV)

(단위: %)

구 분	비율	표준오차	변동계수(CV)
지적장애	30.3	1.09	3.59
자폐성장애	32.6	1.49	4.58

[부록2] 성별 주요 통계표

1. 전체 조사 결과

가. 인적사항 및 장애특성

〈부표 2-1-1〉 발달장애인의 연령, 혼인상태, 지역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연령	15~19세	23,460	10.5	11.6	8.7
	20~29세	61,579	27.5	30.2	23.1
	30~49세	82,493	36.9	36.0	38.4
	50세 이상	56,240	25.1	22.2	29.9
	평균 연령	37.9세		36.6세	40세
혼인상태	미혼	183,825	82.1	89.4	70.2
	결혼/동거	22,695	10.1	6.8	15.5
	이혼/사별/별거	17,252	7.7	3.7	14.2
지역	서울	29,419	13.1	13.7	12.3
	경기	48,366	21.6	21.8	21.2
	광역시도	53,391	23.9	23.7	24.2
	기타시도	92,596	41.4	40.8	42.3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주: “지역”에서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함

〈부표 2-1-2〉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중복장애 유무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장애유형	지적장애	202,265	90.4	86.6	96.6
	자폐성장애	21,507	9.6	13.4	3.4
장애등급 (2019년 6월 기준)	1급	52,340	23.4	24.2	22.1
	2급	83,986	37.5	36.9	38.5
	3급	81,346	36.4	36.1	36.7
	2019년 7월 이후 등록	6,100	2.7	2.8	2.6
중복장애	중복장애 있음	20,771	9.3	9.0	9.8
	중복장애 없음	203,001	90.7	91.0	90.2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주: “장애등급”에서는 장애등급제는 폐지됐지만 통계적 활용을 위한 질문임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함

〈부표 2-1-3〉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두 문장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함	116,582	52.1	52.5	51.5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62,917	28.1	27.4	29.4
단어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28,492	12.7	13.2	12.0
다른 사람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함	15,781	7.1	7.0	7.1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4〉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함	125,826	56.2	55.6	57.3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47,943	21.4	20.7	22.6
불명료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23,963	10.7	11.5	9.4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함	16,506	7.4	7.8	6.6
소리 등으로도 전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음	9,534	4.3	4.3	4.1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5〉 인지능력 수준 평균 - 성별

(단위: 3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성 별			
			남성		여성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문자에 대한 인지 - 한글 읽기	2.14	223,534	2.18	138,549	2.06	84,985
문자에 대한 인지 - 한글 쓰기	2.09	223,432	2.13	138,549	2.01	84,883
숫자에 대한 인지(수 개념)	1.98	223,432	2.04	138,549	1.88	84,883
날짜, 요일에 대한 인지	2.06	223,432	2.12	138,549	1.97	84,883
위치, 장소에 대한 인지	2.13	223,404	2.17	138,521	2.06	84,883
주위 사람에 대한 인지	2.21	223,323	2.23	138,440	2.17	84,883
상황에 대한 인지	2.11	223,374	2.13	138,389	2.07	84,985

주: 토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가 가능한 수준이 높음

〈부표 2-1-6〉 도전적 행동의 발생 정도 평균 - 성별

(단위: 3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성 별			
			남성		여성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자신을 해치는 행동	1.25	223,639	1.30	138,654	1.18	84,985
타인을 해치는 행동	1.16	223,639	1.19	138,654	1.10	84,985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	1.19	223,639	1.22	138,654	1.14	84,985
방해하는 행동	1.20	223,485	1.22	138,500	1.16	84,985
특이한 반복적인 습관	1.32	223,320	1.37	138,432	1.25	84,888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1.20	223,474	1.24	138,489	1.15	84,985
위축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	1.27	223,362	1.30	138,377	1.24	84,985
비협조적인 행동	1.28	223,462	1.31	138,477	1.23	84,985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발생 정도가 많음

〈부표 2-1-7〉 현재 장애상태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점점 개선되고 있음	39,813
특별히 개선되거나 악화되지 않음	155,028	69.3	67.5	72.2
점점 악화하고 있음	28,843	12.9	12.9	12.8
모름/응답거절	88	0.0	0.1	0.0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8〉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평균 점수 - 성별

(단위: 4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성 별			
			남성		여성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옷 갈아입기	3.39	223,772	3.40	138,787	3.37	84,985
세수나 양치, 머리 감기	3.33	223,772	3.35	138,787	3.31	84,985
목욕하기	3.22	223,772	3.24	138,787	3.18	84,985
차려놓으면 식사하기	3.48	223,585	3.49	138,600	3.46	84,985
걷기	3.57	223,453	3.59	138,468	3.54	84,985
배변 및 배뇨	3.44	223,749	3.45	138,764	3.44	84,985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이 높음

〈부표 2-1-9〉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평균 점수 - 성별
(단위: 4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성 별			
			남성		여성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머리 빗기, 손 발톱 깎기, 화장(여자) 또는 면도(남자)	3.05	223,772	3.05	138,787	3.05	84,985
청소하기	2.75	222,668	2.75	138,131	2.77	84,537
식사 준비하기	2.51	222,763	2.46	138,036	2.59	84,727
빨래하기	2.50	221,962	2.44	137,517	2.59	84,445
가까운 곳 외출하기	2.84	223,505	2.89	138,534	2.76	84,971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2.63	223,304	2.68	138,319	2.55	84,985
물건 구입하기	2.61	223,604	2.66	138,633	2.53	84,971
돈 관리하기	2.31	223,599	2.34	138,614	2.25	84,985
전화 사용하기	2.81	223,256	2.85	138,309	2.76	84,947
약 챙겨먹기	2.82	222,438	2.83	137,852	2.81	84,586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이 높음

나. 교육

〈부표 2-1-10〉 최종학력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무학	30,411
초등학교 졸업	25,890	11.6	10.6	13.2
중학교 졸업	31,161	13.9	14.2	13.5
고등학교 졸업	123,527	55.2	57.5	51.4
대학교 이상 졸업	12,782	5.7	6.2	4.8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11〉 학교 교육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미친 도움 정도(졸업/중퇴)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7,464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23,229	12.2	13.0	10.8
그저 그랬다	55,028	28.8	26.4	33.0
도움이 된 편이다	77,924	40.8	41.2	40.2
큰 도움이 되었다	26,624	14.0	15.2	11.8
모름/응답거절	509	0.3	0.2	0.3
전 체 (추정 수)	190,778	100.0	100.0 (119,977)	100.0 (70,801)

주: 최종학력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하거나 대학교 이상인 경우에 질문함

〈부표 2-1-12〉 학교 이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최근 3년 학교 이외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있음	29,447	14.4	14.9	13.6
	없음	175,732	85.6	85.1	86.4
향후 참여할 의향이 있는 학교 이외 교육프로그램 유무	있음	92,057	44.9	44.7	45.2
	없음	112,911	55.0	55.2	54.7
	모름/응답거절	212	0.1	0.1	0.1
전 체 (추정 수)	205,179	100.0	100.0 (125,811)	100.0 (79,368)	

주: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질문함

다. 취업상태 확인

〈부표 2-1-13〉 발달장애인의 취업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취업하여 일하고 있음	68,230	30.5	34.7	23.6
일하고 있지 않음	155,542	69.5	65.3	76.4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주: 취업 여부에 대한 판단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의 기준을 준용함

〈부표 2-1-14〉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임금근로자	64,524	94.6	45,513	94.5
자영업자	1,427	2.1	886	1.8
무급가족종사자	2,279	3.3	1,787	3.7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48,186)	100.0 (20,044)

주: "발달장애인의 취업 여부"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음'을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라. 취업자 특성

〈부표 2-1-15〉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돈을 벌기 위해서(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22,529	33.0	34.1	30.5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려고	24,599	36.1	37.1	33.4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11,630	17.0	16.7	17.8
장애인 본인이 일하고 싶어해서	3,408	5.0	4.1	7.2
낮 시간을 보내려고(돌봄의 일환)	5,254	7.7	6.6	10.3
직업기술, 기능 등을 배우려고	469	0.7	0.6	0.9
기타	341	0.5	0.7	0.0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48,186)	100.0 (20,044)

〈부표 2-1-16〉 현재 직장(사업체)의 유형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15,400	22.6	19.4	30.2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9,179	13.5	13.9	12.3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	9,130	13.4	14.1	11.5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7,335	40.1	42.9	33.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자리	3,873	5.7	4.5	8.6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3,314	4.9	5.1	4.2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48,186)	100.0 (20,044)

〈부표 2-1-17〉 현재 직장(사업체)의 종사상 규모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1~4인	10,972	16.1	17.0	14.0
5~9인	10,845	15.9	16.2	15.2
10~49인	29,934	43.9	42.6	46.9
50~99인	5,800	8.5	7.8	10.1
100인 이상	9,352	13.7	13.9	13.2
모름/응답거절	1,328	1.9	2.5	0.6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48,186)	100.0 (20,044)

〈부표 2-1-18〉 현재 직장(사업체)의 다른 발달장애인 규모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없음	15,793	23.1	24.3	20.3
1~4명	19,752	28.9	29.6	27.3
5명 이상	31,196	45.7	44.1	49.5
모름/응답거절	1,490	2.2	1.9	2.9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48,186)	100.0 (20,044)

〈부표 2-1-19〉 현재 직장(사업체)에서의 근속기간 - 성별

(단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평균 근속기간	5년	5년 1개월	4년 11개월
응답 추정 수	68,230	48,186	20,044

주: 입사 월에 대해 모름/응답거절인 경우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응답받았으며, 봄은 4월, 여름은 7월 (2024년은 6월로 처리), 가을은 10월, 겨울은 1월로 산정하여 계산함

〈부표 2-1-20〉 현재 직장(사업체) 선택 이유(임금근로자)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업무가 장애인의 능력 수준에 맞아서	23,282	36.1	16943	37.2
발달장애인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	5,528	8.6	3882	8.5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잘되어 있어서	11,918	18.5	8146	17.9
근로조건이 좋아서(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근로환경 등)	9,050	14.0	6247	13.7
출퇴근이 가깝거나 용이해서	2,450	3.8	1593	3.5
평소 장애인이 하고 싶어했던 일이라서(적성, 취향)	2,879	4.5	1872	4.1
직장(사업체)에서 채용해줘서(이 일자리 말고 대안이 없어서)	8,895	13.8	6306	13.9
기타	523	0.8	523	1.1
전 체 (추정 수)	64,524	100.0	100.0 (45,513)	100.0 (19,011)

주: 임금근로자에게 질문함

〈부표 2-1-21〉 주로 수행하는 업무 종류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	11,704	17.2	16.5	18.8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	22,337	32.7	33.7	30.5
사무(사무지원, 사서, 우체국 등)	5,661	8.3	6.9	11.8
음식(바리스타, 제빵, 재료 준비, 설거지 등)	5,199	7.6	7.0	9.1
청소·세탁(실내·외 청소, 세차, 세탁 등)	13,536	19.8	20.7	17.6
농림어업(채소·화초 재배, 모종 심기, 버섯 재배, 물고기 잡기 등)	2,436	3.6	3.7	3.4
예술스포츠(음악, 미술, 스포츠 등)	5,372	7.9	8.6	6.1
기타	1,985	2.9	3.0	2.6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48,186)	100.0 (20,044)

〈부표 2-1-22〉 현재 업무 적응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완전히 적응했음	47,555	69.7	69.4	70.5
일부 적응했음	20,235	29.7	30.1	28.7
전혀 적응하지 못했음	440	0.6	0.6	0.9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48,186)	100.0 (20,044)

〈부표 2-1-23〉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현재 업무를 좋아하는 정도 - 성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현재 업무를 좋아하는 정도	3.72	3.69	3.79
응답 추정 수	68,230	48,186	20,044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업무를 좋아하는 수준이 높음

〈부표 2-1-24〉 근로계약 상태(임금근로자)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상용직(1년 이상 계약 또는 정년)	32,000	49.6	23629	51.9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	30,385	47.1	19963	43.9
일용직(1개월 미만)	2,020	3.1	1801	4.0
모름/응답거절	119	0.2	119	0.3
전 체 (추정 수)	64,524	100.0	100.0 (45,513)	100.0 (19,011)

주: 임금근로자에게 질문함

〈부표 2-1-25〉 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 성별

(단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4.9일	4.9일	5일
응답 추정 수	68,109	48,064	20,044
하루 평균 근로시간	5.5시간	5.7시간	5.1시간
응답 추정 수	68,136	48,092	20,044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2-1-26〉 월평균 임금(순수입) - 성별

(단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평균 임금(순수입)	108.7만원	117만원	89.3만원
응답 추정 수	65,345	45,793	19,553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질문함(무급가족종사자 제외)

〈부표 2-1-27〉 혼자 출퇴근 가능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있음	17,321	25.4	24.2	28.2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혼자서 하고 있음	4,677	6.9	6.3	8.3
혼자서 할 수 있으며 혼자서 하고 있음	46,085	67.5	69.5	62.8
모름/응답거절	147	0.2	0.0	0.7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48,186)	100.0 (20,044)

〈부표 2-1-28〉 직장(사업체)에서 다친 경험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사고를 당하거나 다친 적 없음	62,434	91.5	91.1	92.5
사고를 당하거나 다친 적 있음	5,796	8.5	8.9	7.5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48,186)	100.0 (20,044)

〈부표 2-1-29〉 직장(사업체) 사람(고용주, 직장동료)의 이해와 배려 정도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매우 부족하다	43	0.1	0.1	0.0
부족한 편이다	1,923	2.8	3.3	1.8
보통이다	13,992	20.5	23.9	12.4
많은 편이다	34,458	50.5	48.8	54.7
매우 많다	16,799	24.6	23.0	28.6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다	878	1.3	0.8	2.5
모름/응답거절	138	0.2	0.3	0.0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48,186)	100.0 (20,044)

〈부표 2-1-30〉 장애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	55,578	81.5	81.0	82.5
	전 체	68,230	100.0	100.0 (48,186)	100.0 (20,044)
업무시간 조정(단축)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	50,745	74.4	72.7	78.5
	전 체	68,230	100.0	100.0 (48,186)	100.0 (20,044)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	49,662	72.8	70.3	78.7
	전 체	68,230	100.0	100.0 (48,186)	100.0 (20,044)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	38,569	56.5	55.2	59.8
	전 체	68,230	100.0	100.0 (48,186)	100.0 (20,044)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	44,837	65.7	63.2	71.7
	전 체	68,230	100.0	100.0 (48,186)	100.0 (20,044)

주: 각 항목별로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제시

〈부표 2-1-31〉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일을 하려는 의지를 높여야 함	6,104	8.9	7.6	7.7
근로능력, 기술을 키워야 함	9,419	13.8	13.1	13.4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10,287	15.1	15.5	7.8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	10,626	15.6	15.3	19.0
책임감, 시간 업무 등 직업태도를 갖춰야 함	4,976	7.3	6.6	4.9
자기관리(신변처리 등)를 잘해야 함	2,450	3.6	3.5	3.0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잘 관리해야 함	4,675	6.9	7.4	2.2
특별히 없음	19,694	28.9	30.9	42.0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48,186)	100.0 (20,044)

〈부표 2-1-32〉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을 좋아하는 정도 및 보호자의 만족 정도 - 성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3.88	3.85	3.97
응답 추정 수	68,230	48,186	20,044
현재 직장(사업체)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	3.89	3.86	3.95
응답 추정 수	68,230	48,186	20,044

주: 점수가 높을수록 좋아하는 정도와 만족 정도가 높음

마. 미취업자 특성

〈부표 2-1-33〉 취업 경험 및 일자리 개수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있음	31,142	20.0	19,798	21.9
1개	21,563	69.2	71.5	65.3
2개	4,038	13.0	12.7	13.5
3개	3,578	11.5	11.3	11.8
4개 이상	1,964	6.3	4.5	9.5
소 계 (추정 수)	31,142	100.0	100.0 (19,798)	100.0 (11,344)
없음	124,400	80.0	70,803	78.1
전 체 (추정 수)	155,542	100.0	100.0 (90,601)	100.0 (64,941)

〈부표 2-1-34〉 당사자가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어했는지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계속 다니기를 원했음	10,021	32.2	34.0	28.9
계속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음	21,033	67.5	65.5	71.1
모름/응답거절	88	0.3	0.4	0.0
전 체 (추정 수)	31,142	100.0	100.0 (19,798)	100.0 (11,344)

주: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부표 2-1-35〉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의 미취업기간 - 성별
(단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평균 미취업기간	9년 6개월	9년 3개월	9년 12개월
응답 추정 수	31,142	19,798	11,344

주 1)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2) 월에 대해 모름/응답거절인 경우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응답받았으며, 봄은 4월, 여름은 7월 (2024년은 6월로 처리), 가을은 10월, 겨울은 1월로 산정하여 계산함

〈부표 2-1-36〉 보호자의 발달장애인 취업 희망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지금 당장 일하기를 원함	7,694	4.9	5.5	4.2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일하기를 원함	43,007	27.6	30.9	23.2
일하기를 원하지 않음	104,840	67.4	63.6	72.7
전 체 (추정 수)	155,542	100.0	100.0 (90,601)	100.0 (64,941)

〈부표 2-1-37〉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희망함(희망하는 것 같음)	37,541	24.1	26.5	20.9
희망하지 않음(희망하지 않는 것 같음)	118,001	75.9	73.5	79.1
전 체 (추정 수)	155,542	100.0	100.0 (90,601)	100.0 (64,941)

〈부표 2-1-38〉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음	17,907	33.3	11112	31.8
바로 취업해서 일하기 어려움	35,718	66.5	23763	68.0
모름/응답거절	91	0.2	91	0.3
전 체 (추정 수)	53,716	100.0	100.0 (34,966)	100.0 (18,75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부표 2-1-39〉 희망하는 업무 종류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	8,525	15.9	14.4	18.7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	19,414	36.1	38.4	32.0
사무(사무지원, 사서, 우체국 등)	8,883	16.5	16.5	16.7
음식(바리스타, 제빵, 재료 준비, 설거지 등)	6,872	12.8	11.8	14.6
청소·세탁(실내·외 청소, 세차, 세탁 등)	4,643	8.6	7.7	10.5
농림어업(채소·화초 재배, 모종 삼기, 버섯 재배, 물고기 잡기 등)	1,520	2.8	3.7	1.2
예술스포츠(음악, 미술, 스포츠 등)	3,616	6.7	7.2	5.9
기타	244	0.5	0.4	0.5
전 체 (추정 수)	53,716	100.0	100.0 (34,966)	100.0 (18,75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부표 2-1-40〉 희망하는 일자리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	1,339	2.5	2.1	3.3
일이 쉽고, 힘들지 않은 일자리	9,628	17.9	17.1	19.4
안정적인 일자리(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10,547	19.6	21.0	17.1
장애인 당사자의 적성, 취향에 맞는 일자리	12,512	23.3	23.2	23.5
장애인 당사자의 능력수준에 적합한 일자리	11,612	21.6	23.9	17.3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잘 되어 있는 일자리	5,642	10.5	10.5	10.5
출퇴근이 가깝거나 용이한 일자리	1,462	2.7	1.7	4.7
안전하고 쾌적한 일자리	976	1.8	0.5	4.2
전 체 (추정 수)	53,716	100.0	100.0 (34,966)	100.0 (18,75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부표 2-1-41〉 희망하는 취업 시기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지금 즉시	9,492	17.7	16.8	19.3
6개월 내	10,106	18.8	19.2	18.2
1년 내	9,711	18.1	16.5	21.0
3년 내	9,968	18.6	19.1	17.5
3년 이후	14,241	26.5	27.8	24.1
모름/응답거절	199	0.4	0.6	0.0
전 체 (추정 수)	53,716	100.0	100.0 (34,966)	100.0 (18,75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부표 2-1-42〉 취업 시 장애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39,539	73.6	74.4	72.1
업무시간 조정(단축)	23,421	43.6	43.1	44.6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20,692	38.5	39.2	37.2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5,391	10.0	9.8	10.4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17,289	32.2	33.5	29.6
기타	124	0.2	0.4	0.0
전 체 (추정 수)	53,716	-	- (34,966)	- (18,750)

주 1)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2)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부표 2-1-43〉 최근 3년 내 일자리를 구해본 경험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있음	5,278	9.8	9.5	10.5
없음	48,438	90.2	90.5	89.5
전 체 (추정 수)	53,716	100.0	100.0 (34,966)	100.0 (18,75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부표 2-1-44〉 취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1순위)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일을 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야 함	18,708	34.8	35.3	34.0
당사자의 진로 및 적성을 탐색하고 개발해야 함	7,818	14.6	13.6	16.4
직업 및 취업 정보를 확보해야 함	5,695	10.6	10.4	11.0
근로능력, 기술을 키워야 함	8,203	15.3	14.6	16.6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5,677	10.6	11.2	9.4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	3,444	6.4	5.5	8.2
책임감, 시간 업무 등 직업태도를 갖춰야 함	832	1.5	1.5	1.7
자기관리(신변처리 등)를 잘해야 함	1,499	2.8	3.8	0.9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잘 관리해야 함	1,827	3.4	4.3	1.7
모름/응답거절	14	0.0	0.0	0.1
전 체 (추정 수)	53,716	100.0	100.0 (34,966)	100.0 (18,75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바.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부표 2-1-45〉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잘 이해하고 있음	63,586	28.4	30.0	25.9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편임	54,712	24.4	25.2	23.3
조금은 이해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편임	44,167	19.7	18.1	22.4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함	61,307	27.4	26.8	28.4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46〉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평균적인 능력 수준(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 - 성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성 별			
			남성		여성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힘(근력), 체력	2.54	223,772	2.63	138,787	2.41	84,985
이동, 빠르게 움직이기	2.34	223,772	2.42	138,787	2.20	84,985
서있기, 불편한 자세 유지하기	2.38	223,647	2.45	138,662	2.28	84,985
미세한 손동작으로 작업하기	2.13	223,423	2.18	138,633	2.05	84,790
주어진 지시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2.04	223,772	2.09	138,787	1.95	84,985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기	1.88	223,658	1.92	138,787	1.81	84,871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작업 후 정리하기	1.95	223,658	1.99	138,787	1.88	84,871
높은 집중력과 주의 유지하기	1.87	223,750	1.92	138,765	1.80	84,985
동일한 일을 일정시간 이상(2시간) 반복하기	1.99	223,664	2.04	138,679	1.91	84,985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1.94	223,772	2.00	138,787	1.85	84,985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1.97	223,772	2.03	138,787	1.89	84,985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1.79	223,772	1.82	138,787	1.74	84,985
동료나 상사와 협력, 의사소통하기	1.86	223,572	1.88	138,770	1.82	84,802
새로운 상황과 장소에 적응하기	1.86	223,772	1.90	138,787	1.78	84,985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적인 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

〈부표 2-1-47〉 주관적 근로능력 수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통상적인 수준의 근로가 가능	30,526	13.6	15.9	10.0
단시간 또는 단순한 수준의 근로가 가능	85,466	38.2	39.5	36.0
집안일 수행 정도만 가능(돈을 벌 수 있는 수준이 아님)	45,693	20.4	18.5	23.6
집안일 자체도 수행 불가능	62,086	27.7	26.1	30.4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48〉 컴퓨터 활용 가능 정도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 게임 등 두루 활용 가능	40,714	18.2	21.4	12.9
일부 기능만 활용 가능	72,823	32.5	34.1	30.1
활용할 수 없음	110,236	49.3	44.5	57.0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49〉 스마트폰 활용 가능 정도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사용하지 못한다	93,245	41.7	39.2	45.7
보통이다	51,832	23.2	22.1	24.8
사용할 수 있다	78,696	35.2	38.7	29.5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와 '사용할 수 없는 편이다'의 합산이며,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와 '매우 잘 사용한다'의 합산임

〈부표 2-1-50〉 최근 3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있음	35,381	15.8	15.5	16.4
없음	188,391	84.2	84.5	83.6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51〉 필요한 고용서비스(중복응답)(전체 발달장애인)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진로상담, 설계(진로설계 컨설팅)	19,589	8.8	9.8	7.1
직업탐색, 직업정보 제공	28,212	12.6	12.6	12.6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27,643	12.4	13.3	10.8
직업능력평가	9,817	4.4	4.8	3.7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역량 강화	7,838	3.5	3.6	3.4
직업기술 교육, 훈련	28,075	12.5	13.2	11.4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	30,303	13.5	13.3	13.9
현장실습(훈련)(지원고용 등)	22,328	10.0	11.0	8.3
취업알선(구직상담, 동행면접 등)	27,188	12.1	12.4	11.7
취업 전후 인력 지원(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	14,153	6.3	6.9	5.5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	3,477	1.6	1.6	1.5
출퇴근 지원(차량, 비용, 인력 등)	16,825	7.5	7.9	6.9
직업생활 상담 및 고충 처리(인권 보호)	16,363	7.3	7.9	6.3
발달장애인 취업 관련 부모(보호자) 교육	5,532	2.5	2.7	2.1
전 체 (추정 수)	223,772	-	- (138,787)	- (84,985)

주: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와 현재 취업자에게 질문하였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한 고용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부표 2-1-52〉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현재 이용할 의사가 있음	15,522	6.9	7.0	6.9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음	37,034	16.5	18.1	14.1
이용 여부를 추후 고려해보겠음	41,596	18.6	19.3	17.4
이용하지 않을 것임	129,595	57.9	55.6	61.7
모름/응답거절	25	0.0	0.0	0.0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사. 일상생활

〈부표 2-1-53〉 전반적인 건강상태 - 성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평균	3.10	3.18	2.98
응답 추정 수	223,772	138,787	84,985

주: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음

〈부표 2-1-54〉 만성질병 유무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있음	88,005	39.3	36.8	43.4
없음	135,650	60.6	63.2	56.5
모름/응답거절	117	0.1	0.0	0.1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55〉 (조기)노화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조기)노화가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음	34,676	15.5	13.9	18.1
노화가 시작되지 않음(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189,096	84.5	86.1	81.9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56〉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 성별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성별		
			남성	여성	
흡연 문제	다소 있거나 매우 많음	8,822	3.9	5.9	0.8
	전 체	223,772	100.0	100.0	100.0
음주 문제	다소 있거나 매우 많음	5,444	2.4	3.6	0.5
	전 체	223,772	100.0	100.0	100.0
약물 중독 문제	다소 있거나 매우 많음	1,278	0.6	0.6	0.5
	전 체	223,772	100.0	100.0	100.0
스마트폰, 게임 중독 문제	다소 있거나 매우 많음	19,214	8.6	10.9	4.8
	전 체	223,772	100.0	100.0	100.0
과체중(비만) 문제	다소 있거나 매우 많음	43,338	19.4	20.0	18.3
	전 체	223,772	100.0	100.0	100.0
성적(性的) 문제	다소 있거나 매우 많음	7,677	3.4	4.7	1.3
	전 체	223,772	100.0	100.0	100.0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	다소 있거나 매우 많음	49,064	21.9	22.8	20.5
	전 체	223,772	100.0	100.0	100.0

주: 각 항목별로 '다소 있거나 매우 많다'고 응답한 경우만 제시

〈부표 2-1-57〉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및 필요 수준 - 성별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성별	
			남성	여성
필요함	154,609	69.1	68.3	70.5
일과시간의 대부분 필요함(12시간 이상)	44,055	28.5	27.2	30.5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34,383	22.2	22.8	21.4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4,988	29.1	29.4	28.6
2시간 미만	31,184	20.2	20.6	19.5
소 계 (추정 수)	154,609	100.0	100.0	100.0
			(94,736)	(59,874)
필요하지 않음	69,163	30.9	31.7	29.5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00.0
			(138,787)	(84,985)

〈부표 2-1-58〉 하루 일과에 대한 만족도 - 성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이렇게 일과를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3.61	3.64	3.56
응답 추정 수	223,439	138,716	84,724
당사자의 하루 일과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	3.35	3.36	3.33
응답 추정 수	223,772	138,787	84,985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좋아하는 정도와 만족 정도가 높음

〈부표 2-1-59〉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3,529	1.6	1.6	1.5
(장애인)복지관	26,403	11.8	11.4	12.4
관련 시설, 센터, 협회	27,995	12.5	13.3	11.3
기타	2,105	0.9	1.3	0.4
특별히 없음	163,741	73.2	72.4	74.5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60〉 여가시간에 집 밖에서의 활동을 좋아하는 정도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임	132,762	59.3	56.2	64.4
집 밖 활동을 좋아하는 편임	90,379	40.4	43.5	35.3
모름/응답거절	631	0.3	0.3	0.3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61〉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 성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평균	2.76	2.77	2.75
응답 추정 수	223,516	138,666	84,850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가 높음

〈부표 2-1-62〉 거주지 주변 주요 시설 이용 여건 - 성별

(단위: 3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등)	2.19	2.25	2.11
생활편의시설(관공서, 병원, 공원, 마트 등)	2.17	2.22	2.10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복지관, 센터, 시설·협회·단체 등)	2.03	2.07	1.97
응답 추정 수	223,772	138,787	84,985

주: 점수가 높을수록 거주지 주변 주요 시설 이용 여건이 좋음을 의미

〈부표 2-1-63〉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 정도 - 성별

(단위: 4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재난이나 위급상황을 인지할 수 있음	2.49	2.54	2.40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음	2.27	2.34	2.15
스스로 대피할 수 있음	2.46	2.52	2.35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2.35	2.42	2.24
응답 추정 수	223,772	138,787	84,985

주: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이나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 정도가 높음을 의미

〈부표 2-1-64〉 평소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정도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경험한 적 없음	127,689	57.1	55.9	58.9
드물게 경험함	82,659	36.9	38.1	35.0
자주 경험함	13,099	5.9	5.8	6.0
모름/응답거절	326	0.1	0.2	0.1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65〉 최근 1년 폭력, 학대, 방치 등 경험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경험한 적 없음	207,540	92.7	92.6	93.0
경험한 적 있음	16,077	7.2	7.3	7.0
모름/응답거절	155	0.1	0.1	0.0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66〉 작년(2023년 6월) 대비 일상생활 변화 정도 평균 - 성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성 별			
			남성		여성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건강관리 활동(운동, 치료, 재활 등)	2.99	215,920	3.00	133,288	2.99	82,632
취업활동(일 관련 활동 전반 - 구직 활동 포함)	3.00	181,194	3.01	114,078	3.00	67,116
학업 및 자기 개발 활동	2.99	174,105	3.00	108,106	2.99	65,999
보호자(가족)로부터 돌봄(보호)를 받는 시간	3.00	219,463	3.01	135,737	2.98	83,725
디지털 기기(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	3.08	220,326	3.08	136,411	3.07	83,915
복지관 등 기관, 시설 이용 시간	3.01	178,481	3.00	110,731	3.01	67,750
친지, 친구 등 모임 참석 활동	2.99	190,212	3.00	118,038	2.98	72,175
취미활동(집 밖)	3.00	203,599	3.00	126,625	3.00	76,974
그냥 집에서 보낸 시간(특별히 한 것 없이)	3.04	221,640	3.05	137,147	3.03	84,493
도전적(문제) 행동의 발생 빈도	3.01	212,129	3.01	132,006	3.01	80,123
식사량	3.03	223,009	3.04	138,198	3.01	84,811
일상생활 수행능력	3.00	223,009	3.00	138,198	2.98	84,811

주 1) 3점(변화없음)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감소함을, 점수가 높을수록 증가했음을 의미
2) 원래 하지 않았다고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2-1-67〉 작년(2023년 6월) 대비 당사자의 삶의 질 변화 정도 - 성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평 균	3.06	3.06	3.05
응답 추정 수	223,772	138,787	84,985

주: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아짐을 의미

〈부표 2-1-68〉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와 보호자의 일상생활 만족 정도 - 성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일상생활 만족 정도	3.36	3.38	3.35
응답 추정 수	223,545	138,632	84,913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	3.18	3.19	3.18
응답 추정 수	223,744	138,759	84,985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정도가 높음

〈부표 2-1-69〉 당사자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1+2순위)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경제적, 소득 지원	134,410	60.1	58.6	62.5
의료, 재활, 건강 지원	77,425	34.6	33.0	37.2
취업 및 취업 유지 지원	59,438	26.6	29.1	22.4
돌봄, 보호, 휴식 지원	67,164	30.0	29.5	30.8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40,169	18.0	18.9	16.4
심리, 사회, 정서적 지원	31,872	14.2	14.8	13.4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18,006	8.0	7.5	8.9
기타	45	0.0	0.0	0.0
특별히 없음	17,464	7.8	8.1	7.3
전 체 (추정 수)	223,772	-	(138,787)	(84,985)

주: 비율은 전체 발달장애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부표 2-1-70〉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1+2순위)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경제적, 소득 지원	148,301	66.3	64.7	68.8
의료, 재활, 건강 지원	88,157	39.4	37.8	42.0
취업 및 취업 유지 지원	41,917	18.7	20.8	15.4
휴식 지원	41,759	18.7	18.7	18.6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35,284	15.8	16.3	15.0
심리, 사회, 정서적 지원	39,199	17.5	17.7	17.2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27,995	12.5	13.3	11.3
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4,838	2.2	2.4	1.7
기타	313	0.1	0.2	0.1
특별히 없음	19,170	8.6	8.1	9.3
전 체 (추정 수)	223,772	-	(138,787)	(84,985)

주: 비율은 전체 발달장애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아. 자립 및 미래 계획

〈부표 2-1-71〉 당사자의 향후 희망 거주 유형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보호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살기	127,101	56.8	52.2	64.3
자립(독립)하여 살기	62,953	28.1	31.8	22.1
단기거주형 시설(그룹홈, 단기보호 등)에서 살기	7,765	3.5	3.7	3.1
장기거주형 시설에서 살기	14,209	6.3	6.4	6.3
발달장애인 공동체 마을(캠프힐 등)에서 살기	11,744	5.2	5.9	4.3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72〉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가능 정도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52,345	23.4	24.5	21.7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157,118	70.2	69.2	71.8
이미 혼자 힘으로 살고 있음	14,309	6.4	6.3	6.5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73〉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의지 - 성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평균	2.26	2.30	2.18
응답 추정 수	223,557	138,572	84,985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당사자의 자립 의지가 강함을 의미

〈부표 2-1-74〉 자립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립을 시도할 의향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전혀 의향이 없다	39,102	17.5	16.0	19.9
의향이 없는 편이다	53,877	24.1	22.8	26.1
보통이다	57,269	25.6	24.9	26.7
의향이 있는 편이다	59,318	26.5	29.1	22.3
의향이 매우 많다	14,206	6.3	7.3	4.9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75〉 당사자의 미래 계획 수립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재정적 계획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음	155,799	69.6	70.4	68.4
	일부만(대략적으로만) 세워져 있음	57,775	25.8	24.9	27.2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음	10,197	4.6	4.7	4.3
주거 계획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음	157,480	70.4	70.9	69.4
	일부만(대략적으로만) 세워져 있음	54,096	24.2	23.7	25.0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음	12,196	5.4	5.4	5.6
법적 계획 (후견인 지명 등)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음	160,396	71.7	72.2	70.9
	일부만(대략적으로만) 세워져 있음	52,821	23.6	23.2	24.3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음	10,555	4.7	4.7	4.8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주: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음'에는 이미 해결된 경우를 포함

〈부표 2-1-76〉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1+2순위)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필요함	53,384	23.9	24.9	22.2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거나 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줘야 함	31,565	14.1	15.6	11.6
살 집을 구하거나 집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줘야 함	33,862	15.1	15.9	13.8
일을 하거나 낮에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줘야 함	38,550	17.2	17.3	17.1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쥐야 함	68,331	30.5	29.6	32.0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	68,095	30.4	30.0	31.1
가족이 없더라도 보호자처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함	121,022	54.1	54.8	53.0
동네 사람들이 가깝게 대해주고 필요할 때 도와줘야 함	6,482	2.9	2.5	3.6
기타	350	0.2	0.1	0.3
특별히 없음	15,532	6.9	5.7	8.9
전 체 (추정 수)	223,772	-	- (138,787)	- (84,985)

주: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자. 가구 및 보호자

〈부표 2-1-77〉 가구원 수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1명	19,756	8.8	9.3	8.1
2명	55,771	24.9	22.4	29.0
3명	76,288	34.1	35.3	32.1
4명	51,358	23.0	24.0	21.3
5명 이상	20,598	9.2	9.0	9.5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78〉 가구의 가구주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부모	151,641	67.8	72.3	60.3
당사자	33,939	15.2	16.0	13.7
기타	38,191	17.1	11.7	25.9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79〉 가구원 중 장애인 유무(당사자 제외) - 성별

(단위: 명, %)

구 분	구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 유무	있음	34,354	15.4	14.1	17.4
	없음	189,418	84.6	85.9	82.6
가구원 중 발달장애인 유무	있음	21,704	9.7	9.1	10.7
	없음	202,068	90.3	90.9	89.3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80〉 가구 월평균 소득 - 성별

(단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월평균 가구소득	295만원	307.7만원	274.2만원
응답 추정 수	215,149	133,754	81,395

주: 월평균 가구소득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2-1-81〉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임	90,213	40.3	37.0	45.7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 아님	133,559	59.7	63.0	54.3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82〉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아버지	33,581	15.0	17.9	10.3
어머니	127,099	56.8	59.1	53.0
형제자매	21,035	9.4	10.4	7.8
조부모	3,073	1.4	1.0	2.1
배우자	18,020	8.1	5.0	13.1
자녀	7,352	3.3	0.9	7.2
그 외 가족 및 친인척	6,731	3.0	2.6	3.7
가족 및 친인척이 아닌 보호자	6,880	3.1	3.2	2.9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83〉 발달장애인의 부 보호자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있음	174,835	78.1	79.4	76.1
없음	48,937	21.9	20.6	23.9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38,787)	100.0 (84,985)

〈부표 2-1-84〉 주 보호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 성별

(단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평균 돌봄 시간	5.1시간	5시간	5.4시간
응답 추정 수	223,772	138,787	84,985

〈부표 2-1-85〉 전반적인 돌봄 부담 정도 - 성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성 별	
		남성	여성
평 균	2.53	2.53	2.53
응답 추정 수	223,772	138,787	84,985

주: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부담 정도가 낮음을 의미

2. 당사자(PL, ER 그룹) 조사 결과

가. 취업과 일자리 - 취업자 조사 결과

〈부표 2-2-1〉 일을 하는 이유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돈을 벌고 싶다	41,740	73.7	74.8	71.2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	7,190	12.7	11.7	15.1
나는 일을 배우고 싶다	4,110	7.3	7.1	7.5
집에만 있기 싫다	1,498	2.6	2.6	2.8
다른 사람이(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일하라고 한다	1,964	3.5	3.5	3.3
기타	104	0.2	0.3	0.0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40,075)	100.0 (16,532)

〈부표 2-2-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일한다	9,638	17.0	14.7	22.6
나는 사무실에서 일한다	15,169	26.8	25.8	29.3
나는 공장에서 일한다	18,895	33.4	34.6	30.4
나는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키운다	2,120	3.7	3.7	3.9
나는 배달을 한다	1,336	2.4	2.9	1.1
나는 다른 일을 한다	9,449	16.7	18.4	12.6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40,075)	100.0 (16,532)

〈부표 2-2-3〉 일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일 다니는 것이 좋다	43,473	76.8	75.8	79.2
그냥 그렇다	12,319	21.8	22.4	20.2
나는 일 다니는 것이 싫다	815	1.4	1.8	0.5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40,075)	100.0 (16,532)

〈부표 2-2-4〉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지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다	38,954	68.8	67.1	72.9
그냥 그렇다	14,185	25.1	27.7	18.6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싫다	1,049	1.9	1.5	2.8
나는 혼자 일한다	2,420	4.3	3.7	5.7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40,075)	100.0 (16,532)

〈부표 2-2-5〉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는지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하는 일이 재미있다	36,882	65.2	62.8	71.0
그냥 그렇다	17,447	30.8	32.9	25.8
나는 하는 일이 재미없다	2,278	4.0	4.4	3.2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40,075)	100.0 (16,532)

〈부표 2-2-6〉 하는 일 다칠 수 있는지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내가 하는 일은 다칠 수 없다	39,494	69.8	69.4	70.7
내가 하는 일은 다칠 수 있다	17,113	30.2	30.6	29.3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40,075)	100.0 (16,532)

〈부표 2-2-7〉 일자리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41,203	72.8	74.0	69.8
나는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15,404	27.2	26.0	30.2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40,075)	100.0 (16,532)

〈부표 2-2-8〉 일자리에서 불이 나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스스로 갈 수 있다	50,589	89.4	92.2	82.5
나는 스스로 갈 수 없다	6,018	10.6	7.8	17.5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40,075)	100.0 (16,532)

〈부표 2-2-9〉 일자리를 계속 다니고 싶은지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계속 다니고 싶다	48,320	85.4	84.6	87.2
나는 다른 일자리에 가고 싶다	5,869	10.4	11.0	8.9
나는 일하기 싫다	2,418	4.3	4.4	3.9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40,075)	100.0 (16,532)

나. 취업과 일자리(미취업자 조사 결과)

〈부표 2-2-10〉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취업 희망	40,571	50.7	53.8	47.0
취업 비희망	38,374	47.9	44.5	52.1
모름/응답거절	1,096	1.4	1.7	1.0
전 체 (추정 수)	80,042	100.0	100.0 (43,545)	100.0 (36,497)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취업 희망’으로 합산

〈부표 2-2-11〉 당장 내일부터 일할 의향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네, 일할래요	18,458	45.5	43.0	48.9
아니요, 안할래요	22,113	54.5	57.0	51.1
전 체 (추정 수)	40,571	100.0	100.0 (23,434)	100.0 (17,137)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부표 2-2-12〉 일하고 싶은 이유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돈을 벌고 싶다	23,968	59.1	61.6	55.6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	3,392	8.4	7.8	9.2
나는 일을 배우고 싶다	6,658	16.4	18.0	14.3
집에만 있기 싫다	4,338	10.7	7.4	15.2
다른 사람이(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일하라고 한다	1,420	3.5	4.0	2.8
기타	795	2.0	1.2	3.0
전 체 (추정 수)	40,571	100.0	100.0 (23,434)	100.0 (17,137)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부표 2-2-13〉 희망하는 일의 종류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일하고 싶다	14,374	35.4	29.1	44.1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	10,312	25.4	26.7	23.7
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	7,917	19.5	22.1	16.0
나는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키우고 싶다	1,988	4.9	3.6	6.7
나는 배달을 하고 싶다	1,649	4.1	6.6	0.7
나는 다른 일 하고 싶다	4,331	10.7	12.0	8.9
전 체 (추정 수)	40,571	100.0	100.0 (23,434)	100.0 (17,137)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부표 2-2-14〉 장애인들과 모여서 일하고 싶은지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혼자서 일하고 싶다	11,465	28.3	31.0	24.5
나는 장애인이 모여서 일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12,481	30.8	28.3	34.2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16,625	41.0	40.7	41.4
전 체 (추정 수)	40,571	100.0	100.0 (23,434)	100.0 (17,137)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부표 2-2-15〉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일하는 것이 싫다	13,173	34.3	35.6	33.0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	2,357	6.1	7.0	5.3
나를 안 뽑아 줄 것 같다	1,835	4.8	5.3	4.2
나는 몸이 아파서(장애 때문에) 일하기 싫다	11,368	29.6	31.4	27.8
나는 일해본 적이 없어서 일하기 싫다	3,007	7.8	6.1	9.6
나는 일이 힘들어서 일하기 싫다	6,503	16.9	13.8	20.1
기타	132	0.3	0.7	0.0
전 체 (추정 수)	38,374	100.0	100.0 (19,365)	100.0 (19,009)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다. 공통조사 결과

〈부표 2-2-16〉 요즘 행복한지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매우 그렇다	71,443	52.3	53.3	50.7
그냥 그렇다	55,402	40.5	40.8	40.1
전혀 아니다	9,362	6.9	5.6	8.8
모름/응답거절	441	0.3	0.3	0.4
전 체 (추정 수)	136,649	100.0	100.0 (83,620)	100.0 (53,019)

〈부표 2-2-17〉 세 가지 중 제일 하고 싶은 활동(ER 그룹)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	27,015	45.4	40.1	52.9
나는 복지관이나 센터에 가고 싶다	10,746	18.0	17.2	19.3
나는 일해서 돈 벌고 싶다	20,926	35.1	41.9	25.5
모름/응답거절	853	1.4	0.9	2.3
전 체 (추정 수)	59,539	100.0	100.0 (34,886)	100.0 (24,654)

주: ER 그룹에게 질문함

〈부표 2-2-18〉 세 가지 중 제일 하고 싶은 활동(1순위)(PL 그룹)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	25,654	33.3	32.5	34.5
나는 복지관이나 센터에 가고 싶다	9,831	12.7	11.2	15.4
나는 일해서 돈 벌고 싶다	41,625	54.0	56.3	50.0
전 체 (추정 수)	77,109	100.0	100.0 (48,734)	100.0 (28,375)

주: PL 그룹에게 질문함

〈부표 2-2-19〉 배우고 싶은 것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글 읽고 쓰기, 숫자 계산을 배우고 싶다	8,381	6.1	5.8	6.7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20,932	15.3	18.7	9.9
돈 관리, 지하철 타기 등 사는데 필요한 방법을 배우고 싶다	10,988	8.0	9.2	6.2
요리, 운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즐기는 활동을 배우고 싶다	40,820	29.9	26.6	35.0
나는 다른 것을 배우고 싶다	2,702	2.0	2.3	1.4
배우고 싶은 것이 없다	52,420	38.4	36.9	40.7
모름/응답거절	406	0.3	0.5	0.0
전 체 (추정 수)	136,649	100.0	100.0 (83,620)	100.0 (53,019)

〈부표 2-2-20〉 친구 유무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친구가 있다	67,159	49.1	50.3	47.4
나는 친구가 없다	69,356	50.8	49.7	52.4
모름/응답거절	133	0.1	0.0	0.2
전 체 (추정 수)	136,649	100.0	100.0 (83,620)	100.0 (53,019)

〈부표 2-2-21〉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카드) 유무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돈이나 카드가 있다	102,181	74.8	76.7	71.7
나는 돈이나 카드가 없다	34,325	25.1	23.2	28.1
모름/응답거절	143	0.1	0.1	0.2
전 체 (추정 수)	136,649	100.0	100.0 (83,620)	100.0 (53,019)

〈부표 2-2-22〉 평소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26,832	19.6	17.2	23.5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	69,769	51.1	50.9	51.3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39,686	29.0	31.7	24.9
모름/응답거절	362	0.3	0.3	0.3
전 체 (추정 수)	136,649	100.0	100.0 (83,620)	100.0 (53,019)

〈부표 2-2-23〉 장애로 인해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 있는지 여부(PL 그룹)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장애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이 있다	42,175	54.7	55.0	54.2
나는 장애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이 없다	34,716	45.0	44.6	45.8
모름/응답거절	218	0.3	0.4	0.0
전 체 (추정 수)	77,109	100.0	100.0 (48,734)	100.0 (28,375)

주: PL 그룹에게 질문함

〈부표 2-2-24〉 나중에(또는 어른이 되면) 살고 싶은 방식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가족(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	71,205	52.1	48.2	58.3
나는 결혼해서 아내(남편)와 살고 싶다	32,490	23.8	27.5	17.8
나는 친구와 살고 싶다	3,489	2.6	2.2	3.2
나는 혼자서 살고 싶다	28,453	20.8	21.1	20.3
모름/응답거절	1,012	0.7	1.0	0.4
전 체 (추정 수)	136,649	100.0	100.0 (83,620)	100.0 (53,019)

〈부표 2-2-25〉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PL 그룹)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40,758	52.9	55.1	49.0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없다	36,279	47.0	44.8	51.0
모름/응답거절	73	0.1	0.1	0.0
전 체 (추정 수)	77,109	100.0	100.0 (48,734)	100.0 (28,375)

주: PL 그룹에게 질문함

〈부표 2-2-26〉 자신에 대한 생각(PL 그룹) - 성별

(단위: 3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성 별			
			남성		여성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1.90	76,265	1.87	48,405	1.93	27,860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2.09	76,231	2.08	48,286	2.09	27,945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78	75,990	1.79	48,206	1.76	27,784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63	76,254	1.65	48,230	1.59	28,024

주 1) PL 그룹에게 질문함

2) 자아존중감 척도의 항목 중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함

3)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

〈부표 2-2-27〉 집에 불이 나면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는지 여부 - 성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성 별	
			남성	여성
나는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다	94,147	68.9	74.1	60.7
나는 소방서에 연락할 수 없다	42,502	31.1	25.9	39.3
전 체 (추정 수)	136,649	100.0	100.0 (83,620)	100.0 (53,019)

[부록3] 연령별 주요 통계표

1. 전체 조사 결과

가. 인적사항 및 장애특성

〈부표 3-1-1〉 발달장애인의 성별, 혼인상태, 지역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성별	남성	138,787	62.0	68.5	63.8	54.9
	여성	84,985	38.0	31.5	36.2	45.1
혼인상태	미혼	183,825	82.1	100.0	93.5	45.6
	결혼/동거	22,695	10.1	0.0	4.7	28.3
	이혼/사별/별거	17,252	7.7	0.0	1.8	26.2
지역	서울	29,419	13.1	10.4	14.5	10.8
	경기	48,366	21.6	26.7	23.6	14.4
	광역시도	53,391	23.9	23.0	25.4	20.4
	기타시도	92,596	41.4	39.9	36.5	54.5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주: "지역"에서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함

〈부표 3-1-2〉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중복장애 유무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장애유형	지적장애	202,265	90.4	77.6	88.8	99.8
	자폐성장애	21,507	9.6	22.4	11.2	0.2
장애등급 (2019년 6월 기준)	1급	52,340	23.4	22.7	25.8	17.4
	2급	83,986	37.5	36.7	36.7	40.1
	3급	81,346	36.4	33.4	35.0	41.1
	2019년 7월 이후 등록	6,100	2.7	7.2	2.5	1.4
중복장애	중복장애 있음	20,771	9.3	7.8	8.8	11.2
	중복장애 없음	203,001	90.7	92.2	91.2	88.8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주: "장애등급"에서는 장애등급제는 폐지됐지만 통계적 활용을 위한 질문임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함

〈부표 3-1-3〉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두 문장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함	116,582	52.1	57.4	52.8	48.1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62,917	28.1	23.6	26.6	33.9
단어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28,492	12.7	11.3	12.9	12.9
다른 사람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함	15,781	7.1	7.7	7.7	5.1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4〉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함	125,826	56.2	59.0	56.2	55.2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47,943	21.4	18.1	20.5	25.1
불명료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23,963	10.7	11.0	10.3	11.6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함	16,506	7.4	7.5	8.1	5.4
소리 등으로도 전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음	9,534	4.3	4.5	4.8	2.7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5〉 인지능력 수준 평균 - 연령별

(단위: 3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문자에 대한 인지 - 한글 읽기	2.14	223,534	2.33	23,460	2.26	144,072	1.73	56,002
문자에 대한 인지 - 한글 쓰기	2.09	223,432	2.27	23,460	2.21	143,970	1.68	56,002
숫자에 대한 인지(수 개념)	1.98	223,432	2.12	23,460	2.07	143,970	1.69	56,002
날짜, 요일에 대한 인지	2.06	223,432	2.16	23,460	2.14	143,970	1.80	56,002
위치, 장소에 대한 인지	2.13	223,404	2.22	23,460	2.19	143,942	1.94	56,002
주위 사람에 대한 인지	2.21	223,323	2.30	23,460	2.27	143,942	2.03	55,921
상황에 대한 인지	2.11	223,374	2.16	23,439	2.17	143,934	1.93	56,002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가 가능한 수준이 높음

〈부표 3-1-6〉 도전적 행동의 발생 정도 평균 - 연령별

(단위: 3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자신을 해치는 행동	1.25	223,639	1.38	23,460	1.29	144,072	1.11	56,107
타인을 해치는 행동	1.16	223,639	1.25	23,460	1.17	144,072	1.08	56,107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	1.19	223,639	1.31	23,460	1.21	144,072	1.11	56,107
방해하는 행동	1.20	223,485	1.35	23,460	1.20	143,918	1.12	56,107
특이한 반복적인 습관	1.32	223,320	1.53	23,460	1.36	143,827	1.16	56,033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1.20	223,474	1.29	23,460	1.22	143,906	1.13	56,107
위축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	1.27	223,362	1.34	23,460	1.29	143,794	1.21	56,107
비협조적인 행동	1.28	223,462	1.40	23,460	1.30	143,895	1.16	56,107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발생 정도가 많음

〈부표 3-1-7〉 현재 장애상태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명	명	명
점점 개선되고 있음	39,813	17.8	25.9	20.9	6.3
특별히 개선되거나 악화되지 않음	155,028	69.3	65.5	66.9	77.1
점점 악화하고 있음	28,843	12.9	8.6	12.2	16.4
모름/응답거절	88	0.0	0.0	0.0	0.2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8〉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평균 점수 - 연령별

(단위: 4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옷 갈아입기	3.39	223,772	3.29	23,460	3.33	144,072	3.56	56,240
세수나 양치, 머리 감기	3.33	223,772	3.21	23,460	3.29	144,072	3.50	56,240
목욕하기	3.22	223,772	3.12	23,460	3.18	144,072	3.34	56,240
차려놓으면 식사하기	3.48	223,585	3.39	23,460	3.45	143,885	3.59	56,240
건기	3.57	223,453	3.57	23,440	3.54	143,772	3.63	56,240
배변 및 배뇨	3.44	223,749	3.36	23,460	3.40	144,049	3.58	56,240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이 높음

〈부표 3-1-9〉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평균 점수 - 연령별
(단위: 4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머리 빗기, 손발톱 깎기, 화장(여자) 또는 면도(남자)	3.05	223,772	2.89	23,460	3.01	144,072	3.23	56,240
청소하기	2.75	222,668	2.60	23,348	2.73	143,166	2.87	56,154
식사 준비하기	2.51	222,763	2.32	23,348	2.49	143,251	2.63	56,165
빨래하기	2.50	221,962	2.22	23,159	2.48	142,638	2.67	56,165
가까운 곳 외출하기	2.84	223,505	2.68	23,446	2.86	143,819	2.87	56,240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2.63	223,304	2.46	23,307	2.69	143,757	2.54	56,240
물건 구입하기	2.61	223,604	2.49	23,446	2.66	143,918	2.53	56,240
돈 관리하기	2.31	223,599	2.17	23,441	2.34	143,918	2.28	56,240
전화 사용하기	2.81	223,256	2.78	23,460	2.87	143,556	2.69	56,240
약 챙겨먹기	2.82	222,438	2.67	23,170	2.85	143,028	2.83	56,240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이 높음

나. 교육

〈부표 3-1-10〉 최종학력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명	명	명
무학	30,411	13.6	0.3	5.1	40.9
초등학교 졸업	25,890	11.6	17.9	4.2	27.8
중학교 졸업	31,161	13.9	56.8	7.0	13.8
고등학교 졸업	123,527	55.2	25.1	75.3	16.3
대학교 이상 졸업	12,782	5.7	0.0	8.4	1.2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11〉 학교 교육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미친 도움 정도(졸업/중퇴)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명	명	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7,464	3.9	1.8	3.5	5.6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23,229	12.2	5.9	10.5	18.2
그저 그랬다	55,028	28.8	18.0	25.7	40.2
도움이 된 편이다	77,924	40.8	55.0	43.8	29.8
큰 도움이 되었다	26,624	14.0	19.2	16.3	6.0
모름/응답거절	509	0.3	0.0	0.3	0.2
전 체 (추정 수)	190,778	100.0	100.0 (6,155)	100.0 (139,943)	100.0 (44,680)

주: 최종학력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하거나 대학교 이상인 경우에 질문함

〈부표 3-1-12〉 학교 이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최근 3년						
학교 이외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있음	29,447	14.4	23.9	17.7	5.0
	없음	175,732	85.6	76.1	82.3	95.0
향후 참여할 의향이 있는	있음	92,057	44.9	74.9	52.0	24.0
	없음	112,911	55.0	25.1	47.9	75.8
학교 이외 교육프로그램 유무	모름/응답거절	212	0.1	0.0	0.1	0.2
전 체 (추정 수)		205,179	100.0	100.0	100.0	100.0
			(4,867)	(144,072)	(56,240)	

주: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질문함

다. 취업상태 확인

〈부표 3-1-13〉 발달장애인의 취업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취업하여 일하고 있음	68,230	30.5	9.3	41.2	12.0
일하고 있지 않음	155,542	69.5	90.7	58.8	88.0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100.0	100.0
			(23,460)	(144,072)	(56,240)

주: 취업 여부에 대한 판단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의 기준을 준용함

〈부표 3-1-14〉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임금근로자	64,524	94.6	97.2	96.9	73.5
자영업자	1,427	2.1	2.8	1.1	10.3
무급가족종사자	2,279	3.3	0.0	2.0	16.3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100.0	100.0
			(2,177)	(59,296)	(6,756)

주: "발달장애인의 취업 여부"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음'을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라. 취업자 특성

〈부표 3-1-15〉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돈을 벌기 위해서(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22,529	33.0	306	14.1	17360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려고	24,599	36.1	1091	50.1	22594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11,630	17.0	342	15.7	10954
장애인 본인이 일하고 싶어해서	3,408	5.0	296	13.6	2974
낮 시간을 보내려고(돌봄의 일환)	5,254	7.7	22	1.0	4928
작업기술, 기능 등을 배우려고	469	0.7	119	5.5	349
기타	341	0.5	0	0.0	138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2,177)	100.0 (59,296)	100.0 (6,756)

〈부표 3-1-16〉 현재 직장(사업체)의 유형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15,400	22.6	26.0	23.3	14.7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9,179	13.5	16.9	14.3	4.8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	9,130	13.4	18.5	13.1	14.0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27,335	40.1	35.3	40.2	40.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자리	3,873	5.7	3.3	6.1	2.9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3,314	4.9	0.0	2.9	23.3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2,177)	100.0 (59,296)	100.0 (6,756)

〈부표 3-1-17〉 현재 직장(사업체)의 종사상 규모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1~4인	10,972	16.1	21.7	13.0	40.9
5~9인	10,845	15.9	22.0	15.4	18.5
10~49인	29,934	43.9	31.2	46.1	28.5
50~99인	5,800	8.5	5.4	8.9	5.6
100인 이상	9,352	13.7	12.2	14.6	6.4
모름/응답거절	1,328	1.9	7.5	2.0	0.0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2,177)	100.0 (59,296)	100.0 (6,756)

〈부표 3-1-18〉 현재 직장(사업체)의 다른 발달장애인 규모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없음	15,793	23.1	19.2	19.6	55.5
1~4명	19,752	28.9	35.7	29.2	24.3
5명 이상	31,196	45.7	44.1	48.7	20.3
모름/응답거절	1,490	2.2	1.0	2.5	0.0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2,177)	100.0 (59,296)	100.0 (6,756)

〈부표 3-1-19〉 현재 직장(사업체)에서의 근속기간 - 연령별

(단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균 근속기간	5년	8개월	4년 5개월	11년 11개월
응답 추정 수	68,230	2,177	59,296	6,756

주: 입사 월에 대해 모름/응답거절인 경우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응답받았으며, 봄은 4월, 여름은 7월 (2024년은 6월로 처리), 가을은 10월, 겨울은 1월로 산정하여 계산함

〈부표 3-1-20〉 현재 직장(사업체) 선택 이유(임금근로자)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업무가 장애인의 능력 수준에 맞아서	23,282	36.1	20.3	34.9	56.6
발달장애인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	5,528	8.6	0.9	8.9	7.7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잘되어 있어서	11,918	18.5	26.7	19.2	6.6
근로조건이 좋아서(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근로환경 등)	9,050	14.0	11.6	14.4	10.8
출퇴근이 가깝거나 용이해서	2,450	3.8	10.8	3.4	5.9
평소 장애인이 하고 싶어했던 일이라서(적성, 취향)	2,879	4.5	10.2	4.5	1.8
직장(사업체)에서 채용해줘서(이 일자리 말고 대안이 없어서)	8,895	13.8	19.4	13.8	10.7
기타	523	0.8	0.0	0.9	0.0
전 체 (추정 수)	64,524	100.0	100.0 (2,116)	100.0 (57,445)	100.0 (4,963)

주: 임금근로자에게 질문함

〈부표 3-1-21〉 주로 수행하는 업무 종류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	11,704	17.2	34.9	17.3	10.1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	22,337	32.7	19.1	34.6	21.2
사무(사무지원, 사서, 우체국 등)	5,661	8.3	6.0	9.3	0.3
음식(바리스타, 제빵, 재료 준비, 설거지 등)	5,199	7.6	8.4	8.3	1.4
청소·세탁(실내·외 청소, 세차, 세탁 등)	13,536	19.8	18.0	18.1	35.8
농림어업(채소·화초 재배, 모종 삼기, 버섯 재배, 물고기 잡기 등)	2,436	3.6	0.0	1.6	22.4
예술스포츠(음악, 미술, 스포츠 등)	5,372	7.9	13.6	8.6	0.0
기타	1,985	2.9	0.0	2.3	8.8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2,177)	100.0 (59,296)	100.0 (6,756)

〈부표 3-1-22〉 현재 업무 적응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완전히 적응했음	47,555	69.7	44.8	69.8	76.9
일부 적응했음	20,235	29.7	55.2	29.6	21.8
전혀 적응하지 못했음	440	0.6	0.0	0.6	1.3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2,177)	100.0 (59,296)	100.0 (6,756)

〈부표 3-1-23〉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현재 업무를 좋아하는 정도 - 연령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현재 업무를 좋아하는 정도	3.72	3.75	3.73	3.59
응답 추정 수	68,230	2,177	59,296	6,756

주: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업무를 좋아하는 수준이 높음

〈부표 3-1-24〉 근로계약 상태(임금근로자)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상용직(1년 이상 계약 또는 정년)	32,000	49.6	28.7	50.8	44.8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	30,385	47.1	56.7	46.3	51.6
일용직(1개월 미만)	2,020	3.1	8.9	2.9	3.6
모름/응답거절	119	0.2	5.6	0.0	0.0
전 체 (추정 수)	64,524	100.0	100.0 (2,116)	100.0 (57,445)	100.0 (4,963)

주: 임금근로자에게 질문함

〈부표 3-1-25〉 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 연령별

(단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	4.9일	4.7일	4.9일	5일
응답 추정 수	68,109	2,177	59,175	6,756
하루 평균 근로시간	5.5시간	4.6시간	5.5시간	5.7시간
응답 추정 수	68,136	2,177	59,203	6,756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3-1-26〉 월평균 임금(순수입) - 연령별

(단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균 임금(순수입)	108.7만원	91.1만원	110만원	102.2만원
응답 추정 수	65,345	2,058	57,630	5,657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질문함(무급가족종사자 제외)

〈부표 3-1-27〉 혼자 출퇴근 가능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있음	17,321	25.4	34.1	26.7	10.7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혼자서 하고 있음	4,677	6.9	2.8	7.1	5.9
혼자서 할 수 있으며 혼자서 하고 있음	46,085	67.5	63.0	65.9	83.3
모름/응답거절	147	0.2	0.0	0.2	0.0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2,177)	100.0 (59,296)	100.0 (6,756)

〈부표 3-1-28〉 직장(사업체)에서 다친 경험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사고를 당하거나 다친 적 없음	62,434	91.5	95.4	92.5	81.6
사고를 당하거나 다친 적 있음	5,796	8.5	4.6	7.5	18.4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2,177)	100.0 (59,296)	100.0 (6,756)

〈부표 3-1-29〉 직장(사업체) 사람(고용주, 직장동료)의 이해와 배려 정도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매우 부족하다	43	0.1	0.7	0.0	0.0
부족한 편이다	1,923	2.8	0.0	2.6	6.0
보통이다	13,992	20.5	15.3	19.8	28.4
많은 편이다	34,458	50.5	52.5	51.0	45.9
매우 많다	16,799	24.6	31.5	25.5	14.7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다	878	1.3	0.0	0.9	4.9
모름/응답거절	138	0.2	0.0	0.2	0.0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2,177)	100.0 (59,296)	100.0 (6,756)

〈부표 3-1-30〉 장애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	55,578	81.5	84.0	83.2	65.3
	전 체	68,230	100.0	100.0 (2,177)	100.0 (59,296)	100.0 (6,756)
업무시간 조정(단축)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	50,745	74.4	77.4	75.4	64.8
	전 체	68,230	100.0	100.0 (2,177)	100.0 (59,296)	100.0 (6,756)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	49,662	72.8	76.6	74.7	54.5
	전 체	68,230	100.0	100.0 (2,177)	100.0 (59,296)	100.0 (6,756)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	38,569	56.5	60.7	57.0	51.2
	전 체	68,230	100.0	100.0 (2,177)	100.0 (59,296)	100.0 (6,756)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	44,837	65.7	68.5	67.7	47.4
	전 체	68,230	100.0	100.0 (2,177)	100.0 (59,296)	100.0 (6,756)

주: 각 항목별로 '이미 받고 있거나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제시

〈부표 3-1-31〉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일을 하려는 의지를 높여야 함	6,104	8.9	8.1	9.2	7.2
근로능력, 기술을 키워야 함	9,419	13.8	20.7	13.9	10.6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10,287	15.1	16.9	15.9	7.1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	10,626	15.6	25.4	15.8	10.8
책임감, 시간 업무 등 직업태도를 갖춰야 함	4,976	7.3	9.6	7.8	2.4
자기관리(신변처리 등)를 잘해야 함	2,450	3.6	0.0	3.6	4.9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잘 관리해야 함	4,675	6.9	0.0	6.8	9.1
특별히 없음	19,694	28.9	19.3	27.0	48.0
전 체 (추정 수)	68,230	100.0	100.0 (2,177)	100.0 (59,296)	100.0 (6,756)

〈부표 3-1-32〉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을 좋아하는 정도 및 보호자의 만족 정도 - 연령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현재 직장(사업체)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3.88	4.16	3.88	3.83
응답 추정 수	68,230	2,177	59,296	6,756
현재 직장(사업체)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	3.89	4.08	3.90	3.78
응답 추정 수	68,230	2,177	59,296	6,756

주: 점수가 높을수록 좋아하는 정도와 만족 정도가 높음

마. 미취업자 특성

〈부표 3-1-33〉 취업 경험 및 일자리 개수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있음	31,142	20.0	2.3	20.5	26.7
1개	21,563	69.2	84.5	66.2	72.7
2개	4,038	13.0	0.0	14.7	11.1
3개	3,578	11.5	15.5	13.4	8.8
4개 이상	1,964	6.3	0.0	5.7	7.3
소 계 (추정 수)	31,142	100.0	100.0 (500)	100.0 (17,415)	100.0 (13,227)
없음	124,400	80.0	97.7	79.5	73.3
전 체 (추정 수)	155,542	100.0	100.0 (21,283)	100.0 (84,776)	100.0 (49,484)

〈부표 3-1-34〉 당사자가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어했는지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계속 다니기를 원했음	10,021	32.2	41.4	37.2	25.2
계속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음	21,033	67.5	58.6	62.8	74.1
모름/응답거절	88	0.3	0.0	0.0	0.7
전 체 (추정 수)	31,142	100.0	100.0 (500)	100.0 (17,415)	100.0 (13,227)

주: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부표 3-1-35〉 마지막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의 미취업기간 - 연령별
(단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균 미취업기간	9년 6개월	4개월	5년 4개월	15년 4개월
응답 추정 수	31,142	500	17,415	13,227

주 1)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질문함

2) 월에 대해 모름/응답거절인 경우 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응답받았으며, 봄은 4월, 여름은 7월 (2024년은 6월로 처리), 가을은 10월, 겨울은 1월로 산정하여 계산함

〈부표 3-1-36〉 보호자의 발달장애인 취업 희망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지금 당장 일하기를 원함	7,694	4.9	2.3	6.9	2.7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일하기를 원함	43,007	27.6	73.0	28.4	6.9
일하기를 원하지 않음	104,840	67.4	24.7	64.7	90.3
전 체 (추정 수)	155,542	100.0	100.0 (21,283)	100.0 (84,776)	100.0 (49,484)

〈부표 3-1-37〉 보호자가 판단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희망함(희망하는 것 같음)	37,541	24.1	60.1	25.2	6.9
희망하지 않음(희망하지 않는 것 같음)	118,001	75.9	39.9	74.8	93.1
전 체 (추정 수)	155,542	100.0	100.0 (21,283)	100.0 (84,776)	100.0 (49,484)

〈부표 3-1-38〉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음	17,907	33.3	2995	17.8	12730
바로 취업해서 일하기 어려움	35,718	66.5	13741	81.7	18999
모름/응답거절	91	0.2	91	0.5	0
전 체 (추정 수)	53,716	100.0	100.0 (16,828)	100.0 (31,729)	100.0 (5,16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부표 3-1-39〉 희망하는 업무 종류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	8,525	15.9	13.6	17.4	13.7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	19,414	36.1	28.2	39.6	41.0
사무(사무지원, 사서, 우체국 등)	8,883	16.5	24.4	13.7	8.3
음식(바리스타, 제빵, 재료 준비, 설거지 등)	6,872	12.8	17.9	12.2	0.0
청소·세탁(실내·외 청소, 세차, 세탁 등)	4,643	8.6	3.7	8.0	28.8
농림어업재소화초 재배 모종 삼기 버섯 재배 물고기 잡기 등)	1,520	2.8	2.8	2.2	6.7
예술스포츠(음악, 미술, 스포츠 등)	3,616	6.7	9.2	6.5	0.0
기타	244	0.5	0.2	0.4	1.4
전 체 (추정 수)	53,716	100.0	100.0 (16,828)	100.0 (31,729)	100.0 (5,16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부표 3-1-40〉 희망하는 일자리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	1,339	2.5	0.9	3.1	3.8
일이 쉽고, 힘들지 않은 일자리	9,628	17.9	14.9	16.1	38.9
안정적인 일자리(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10,547	19.6	22.8	19.4	10.5
장애인 당사자의 적성, 취향에 맞는 일자리	12,512	23.3	25.3	24.2	10.8
장애인 당사자의 능력수준에 적합한 일자리	11,612	21.6	16.6	24.1	22.8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잘 되어 있는 일자리	5,642	10.5	11.8	10.5	6.4
출퇴근이 가깝거나 용이한 일자리	1,462	2.7	3.4	2.5	2.2
안전하고 쾌적한 일자리	976	1.8	4.2	0.1	4.8
전 체 (추정 수)	53,716	100.0	100.0 (16,828)	100.0 (31,729)	100.0 (5,16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부표 3-1-41〉 희망하는 취업 시기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지금 즉시	9,492	17.7	2.2	26.0	16.8
6개월 내	10,106	18.8	5.3	23.3	35.3
1년 내	9,711	18.1	14.3	18.1	30.4
3년 내	9,968	18.6	23.8	17.4	8.2
3년 이후	14,241	26.5	54.4	14.5	9.2
모름/응답거절	199	0.4	0.0	0.6	0.0
전 체 (추정 수)	53,716	100.0	100.0 (16,828)	100.0 (31,729)	100.0 (5,16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부표 3-1-42〉 취업 시 장애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39,539	73.6	70.7	75.4	71.8
업무시간 조정(단축)	23,421	43.6	43.9	41.4	56.0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20,692	38.5	35.6	38.6	47.5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5,391	10.0	10.6	10.0	8.3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17,289	32.2	37.3	31.0	22.6
기타	124	0.2	0.2	0.3	0.0
전 체 (추정 수)	53,716	-	- (16,828)	- (31,729)	- (5,160)

주 1)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2)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부표 3-1-43〉 최근 3년 내 일자리를 구해본 경험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있음	5,278	9.8	2.7	13.6	9.8
없음	48,438	90.2	97.3	86.4	90.2
전 체 (추정 수)	53,716	100.0	100.0 (16,828)	100.0 (31,729)	100.0 (5,16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부표 3-1-44〉 취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1순위)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일을 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야 함	18,708	34.8	30.7	36.9	35.3
당사자의 진로 및 적성을 탐색하고 개발해야 함	7,818	14.6	20.3	12.2	10.6
직업 및 취업 정보를 확보해야 함	5,695	10.6	7.1	11.5	16.4
근로능력, 기술을 키워야 함	8,203	15.3	11.6	17.9	11.0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5,677	10.6	14.7	8.1	12.3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	3,444	6.4	9.0	5.3	4.7
책임감, 시간 업무 등 직업태도를 갖춰야 함	832	1.5	2.4	1.4	0.0
자기관리(신변처리 등)를 잘해야 함	1,499	2.8	0.9	3.8	2.5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잘 관리해야 함	1,827	3.4	3.2	2.9	7.1
모름/응답거절	14	0.0	0.1	0.0	0.0
전 체 (추정 수)	53,716	100.0	100.0 (16,828)	100.0 (31,729)	100.0 (5,160)

주: 당사자(보호자 판단)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질문함

바.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부표 3-1-45〉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잘 이해하고 있음	63,586	28.4	24.2	32.4	20.1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편임	54,712	24.4	22.9	24.3	25.4
조금은 이해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편임	44,167	19.7	25.2	16.2	26.5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함	61,307	27.4	27.7	27.1	28.0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46〉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평균적인 능력 수준(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 - 연령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힘(근력), 체력	2.54	223,772	2.65 23,460	2.62 144,072	2.31 56,240
이동, 빠르게 움직이기	2.34	223,772	2.50 23,460	2.40 144,072	2.12 56,240
서있기, 불편한 자세 유지하기	2.38	223,647	2.54 23,460	2.43 144,072	2.20 56,115
미세한 손동작으로 작업하기	2.13	223,423	2.34 23,460	2.18 143,723	1.91 56,240
주어진 지시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2.04	223,772	2.23 23,460	2.08 144,072	1.85 56,240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기	1.88	223,658	2.06 23,346	1.94 144,072	1.64 56,240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작업 후 정리하기	1.95	223,658	2.12 23,346	2.01 144,072	1.74 56,240
높은 집중력과 주의 유지하기	1.87	223,750	2.02 23,460	1.92 144,050	1.68 56,240
동일한 일을 일정시간 이상(2시간) 반복하기	1.99	223,664	2.13 23,460	2.04 143,964	1.81 56,240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1.94	223,772	2.06 23,460	1.99 144,072	1.78 56,240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1.97	223,772	2.13 23,460	2.02 144,072	1.78 56,240
문제 발생 시 완인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1.79	223,772	1.87 23,460	1.82 144,072	1.68 56,240
동료나 상사와 협력, 의사소통하기	1.86	223,572	1.99 23,346	1.89 144,055	1.73 56,171
새로운 상황과 장소에 적응하기	1.86	223,772	2.01 23,460	1.89 144,072	1.71 56,240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적인 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

〈부표 3-1-47〉 주관적 근로능력 수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근로가 가능	30,526	13.6	15.8	17.1	3.9
단시간 또는 단순한 수준의 근로가 가능	85,466	38.2	45.8	42.6	23.7
집안일 수행 정도만 가능(돈을 벌 수 있는 수준이 아님)	45,693	20.4	14.9	14.0	39.1
집안일 자체도 수행 불가능	62,086	27.7	23.5	26.2	33.4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48〉 컴퓨터 활용 가능 정도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 게임 등 두루 활용 가능	40,714	18.2	28.9	22.6	2.3
일부 기능만 활용 가능	72,823	32.5	39.8	38.9	13.2
활용할 수 없음	110,236	49.3	31.3	38.5	84.5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49〉 스마트폰 활용 가능 정도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93,245	41.7	22.3	33.2	71.5
보통이다	51,832	23.2	27.5	24.4	18.3
사용할 수 있다	78,696	35.2	50.2	42.5	10.2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와 '사용할 수 없는 편이다'의 합산이며,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와 '매우 잘 사용한다'의 합산임

〈부표 3-1-50〉 최근 3년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있음	35,381	15.8	21.2	20.1	2.5
없음	188,391	84.2	78.8	79.9	97.5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51〉 필요한 고용서비스(중복응답)(전체 발달장애인)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진로상담, 설계(진로설계 컨설팅)	19,589	8.8	26.8	8.9	0.8
직업탐색, 직업정보 제공	28,212	12.6	27.2	14.3	2.1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27,643	12.4	25.5	13.7	3.5
직업능력평가	9,817	4.4	8.4	5.2	0.5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역량 강화	7,838	3.5	8.3	4.0	0.2
직업기술 교육, 훈련	28,075	12.5	24.9	14.4	2.7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	30,303	13.5	25.7	15.7	3.0
현장실습(훈련)(지원고용 등)	22,328	10.0	24.9	10.7	1.9
취업알선(구직상담, 동행면접 등)	27,188	12.1	21.0	14.0	3.7
취업 전후 인력 지원(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	14,153	6.3	15.5	7.0	0.8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	3,477	1.6	4.3	1.6	0.3
출퇴근 지원(차량, 비용, 인력 등)	16,825	7.5	16.1	8.4	1.8
직업생활 상담 및 고충 처리(인권 보호)	16,363	7.3	12.5	8.5	2.0
발달장애인 취업 관련 부모(보호자) 교육	5,532	2.5	8.0	2.5	0.0
전 체 (추정 수)	223,772	-	- (23,460)	- (144,072)	- (56,240)

주: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와 현재 취업자에게 질문하였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한 고용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부표 3-1-52〉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의사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현재 이용할 의사가 있음	15,522	6.9	9.4	7.8	3.6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음	37,034	16.5	36.5	18.6	3.0
이용 여부를 추후 고려해보겠음	41,596	18.6	28.3	20.3	10.1
이용하지 않을 것임	129,595	57.9	25.8	53.3	83.3
모름/응답거절	25	0.0	0.0	0.0	0.0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사. 일상생활

〈부표 3-1-53〉 전반적인 건강상태 - 연령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균	3.10	3.44	3.25	2.59
응답 추정 수	223,772	23,460	144,072	56,240

주: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음

〈부표 3-1-54〉 만성질병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있음	88,005	39.3	22.7	32.8	62.9
없음	135,650	60.6	77.3	67.1	37.1
모름/응답거절	117	0.1	0.0	0.1	0.0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55〉 (조기)노화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조기)노화가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음	34,676	15.5	1.4	7.8	41.1
노화가 시작되지 않음(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189,096	84.5	98.6	92.2	58.9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56〉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흡연 문제	다소 있거나 매우 많음	8,822	3.9	0.6	3.7	5.9
	전 체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음주 문제	다소 있거나 매우 많음	5,444	2.4	0.3	2.3	3.7
	전 체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약물 중독 문제	다소 있거나 매우 많음	1,278	0.6	0.3	0.4	1.0
	전 체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스마트폰, 게임 중독 문제	다소 있거나 매우 많음	19,214	8.6	20.8	9.7	0.8
	전 체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과체중(비만) 문제	다소 있거나 매우 많음	43,338	19.4	21.6	22.1	11.3
	전 체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성적(性的) 문제	다소 있거나 매우 많음	7,677	3.4	1.9	4.3	1.8
	전 체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	다소 있거나 매우 많음	49,064	21.9	17.5	23.2	20.4
	전 체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주: 각 항목별로 '다소 있거나 매우 많다고 응답한 경우만 제시

〈부표 3-1-57〉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및 필요 수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필요함	154,609	69.1	77.4	68.0	68.3
일과시간의 대부분 필요함(12시간 이상)	44,055	28.5	25.9	30.8	23.8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34,383	22.2	29.3	21.8	20.0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4,988	29.1	29.7	25.8	37.2
2시간 미만	31,184	20.2	15.1	21.6	19.0
소 계 (추정 수)	154,609	100.0	100.0 (18,154)	100.0 (98,035)	100.0 (38,420)
필요하지 않음	69,163	30.9	22.6	32.0	31.7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58〉 하루 일과에 대한 만족도 - 연령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가 이렇게 일과를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3.61	3.75	3.67	3.39
응답 추정 수	223,439	23,439	143,871	56,129
당사자의 하루 일과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	3.35	3.44	3.38	3.23
응답 추정 수	223,772	23,460	144,072	56,240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좋아하는 정도와 만족 정도가 높음

〈부표 3-1-59〉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3,529	1.6	3.0	1.3	1.6
(장애인)복지관	26,403	11.8	13.6	13.7	6.3
관련 시설, 센터, 협회	27,995	12.5	24.3	13.2	5.8
기타	2,105	0.9	2.1	0.9	0.5
특별히 없음	163,741	73.2	57.0	70.9	85.8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60〉 여가시간에 집 밖에서의 활동을 좋아하는 정도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임	132,762	59.3	60.0	56.3	66.9
집 밖 활동을 좋아하는 편임	90,379	40.4	39.9	43.4	32.9
모름/응답거절	631	0.3	0.1	0.3	0.2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61〉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 연령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균	2.76	2.85	2.79	2.67
응답 추정 수	223,516	23,460	143,879	56,177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가 높음

〈부표 3-1-62〉 거주지 주변 주요 시설 이용 여건 - 연령별

(단위: 3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등)	2.19	2.29	2.26	1.99
생활편의시설(관공서, 병원, 공원, 마트 등)	2.17	2.30	2.24	1.95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복지관, 센터, 시설·협회·단체 등)	2.03	2.11	2.07	1.88
응답 추정 수	223,772	23,460	144,072	56,240

주: 점수가 높을수록 거주지 주변 주요 시설 이용 여건이 좋음을 의미

〈부표 3-1-63〉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 정도 - 연령별

(단위: 4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재난이나 위급상황을 인지할 수 있음	2.49	2.60	2.54	2.32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음	2.27	2.39	2.35	2.01
스스로 대처할 수 있음	2.46	2.49	2.51	2.32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2.35	2.44	2.40	2.17
응답 추정 수	223,772	23,460	144,072	56,240

주: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이나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처 가능 정도가 높음을 의미

〈부표 3-1-64〉 평소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정도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경험한 적 없음	127,689	57.1	54.4	56.5	59.5
드물게 경험함	82,659	36.9	37.3	37.3	35.9
자주 경험함	13,099	5.9	7.8	6.0	4.6
모름/응답거절	326	0.1	0.5	0.1	0.0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65〉 최근 1년 폭력, 학대, 방치 등 경험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경험한 적 없음	207,540	92.7	90.3	93.4	92.1
경험한 적 있음	16,077	7.2	9.6	6.5	7.9
모름/응답거절	155	0.1	0.1	0.1	0.0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66〉 작년(2023년 6월) 대비 일상생활 변화 정도 평균 - 연령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건강관리 활동(운동, 치료, 재활 등)	2.99	215,920	3.05	23,214	3.00	139,385	2.95	53,320
취업활동(일 관련 활동 전반 - 구직 활동 포함)	3.00	181,194	3.08	19,675	3.02	121,541	2.93	39,978
학업 및 자기 개발 활동	2.99	174,105	3.09	23,231	2.99	113,781	2.93	37,093
보호자(가족)로부터 돌봄(보호)를 받는 시간	3.00	219,463	2.98	23,388	2.99	141,444	3.02	54,631
디지털 기기(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	3.08	220,326	3.15	23,413	3.08	141,733	3.05	55,180
복지관 등 기관, 시설 이용 시간	3.01	178,481	3.04	19,925	3.01	118,403	3.00	40,154
친지, 친구 등 모임 참석 활동	2.99	190,212	3.01	22,194	2.99	123,576	2.98	44,442
취미활동(집 밖)	3.00	203,599	3.06	22,968	3.01	133,601	2.95	47,029
그냥 집에서 보낸 시간(특별히 한 것 없이)	3.04	221,640	3.07	23,408	3.04	142,739	3.05	55,493
도전적(문제) 행동의 발생 빈도	3.01	212,129	3.07	22,826	3.01	137,774	2.98	51,529
식사량	3.03	223,009	3.12	23,460	3.04	143,422	2.97	56,126
일상생활 수행능력	3.00	223,009	3.09	23,460	3.01	143,422	2.93	56,126

주 1) 3점(변화없음)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감소함을, 점수가 높을수록 증가했음을 의미
2) 원래 하지 않았다고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3-1-67〉 작년(2023년 6월) 대비 당사자의 삶의 질 변화 정도 - 연령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 균	응답 수	평 균
평 균	3.06	3.17	3.09	2.94
응답 추정 수	223,772	23,460	144,072	56,240

주: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아짐을 의미

〈부표 3-1-68〉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와 보호자의 일상생활 만족 정도 - 연령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 균	응답 수	평 균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일상생활 만족 정도	3.36	3.50	3.41	3.19
응답 추정 수	223,545	23,439	143,866	56,240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 정도	3.18	3.29	3.21	3.07
응답 추정 수	223,744	23,460	144,044	56,240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정도가 높음

〈부표 3-1-69〉 당사자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1+2순위)-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경제적, 소득 지원	134,410	60.1	45.3	55.7	77.4
의료, 재활, 건강 지원	77,425	34.6	23.7	29.1	53.3
취업 및 취업 유지 지원	59,438	26.6	33.2	33.1	7.1
돌봄, 보호, 휴식 지원	67,164	30.0	33.1	28.9	31.6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40,169	18.0	31.4	20.5	5.8
심리, 사회, 정서적 지원	31,872	14.2	19.3	16.0	7.6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18,006	8.0	8.7	8.3	7.1
기타	45	0.0	0.0	0.0	0.0
특별히 없음	17,464	7.8	4.0	8.1	8.7
전 체 (추정 수)	223,772	-	(23,460)	(144,072)	(56,240)

주: 비율은 전체 발달장애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부표 3-1-70〉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1+2순위)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경제적, 소득 지원	148,301	66.3	55.1	63.2	78.8
의료, 재활, 건강 지원	88,157	39.4	22.3	36.0	55.1
취업 및 취업 유지 지원	41,917	18.7	22.5	23.1	5.9
휴식 지원	41,759	18.7	22.8	19.2	15.6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35,284	15.8	23.2	17.3	8.6
심리, 사회, 정서적 지원	39,199	17.5	26.5	17.5	13.7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27,995	12.5	18.8	12.8	9.1
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4,838	2.2	3.1	2.5	0.9
기타	313	0.1	0.0	0.2	0.0
특별히 없음	19,170	8.6	5.7	8.0	11.2
전 체 (추정 수)	223,772	-	(23,460)	(144,072)	(56,240)

주: 비율은 전체 발달장애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아. 자립 및 미래 계획

〈부표 3-1-71〉 당사자의 향후 희망 거주 유형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보호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살기	127,101	56.8	51.7	55.4	62.6
자립(독립)하여 살기	62,953	28.1	33.6	29.7	21.8
단기거주형 시설(그룹홈, 단기보호 등)에서 살기	7,765	3.5	4.7	3.3	3.3
장기거주형 시설에서 살기	14,209	6.3	5.1	5.6	8.8
발달장애인 공동체 마을(캠프힐 등)에서 살기	11,744	5.2	4.9	6.0	3.4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72〉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가능 정도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52,345	23.4	29.6	25.0	16.7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157,118	70.2	70.4	71.2	67.7
이미 혼자 힘으로 살고 있음	14,309	6.4	0.0	3.8	15.6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73〉 보호자가 판단하는 당사자의 자립 의지 - 연령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균	2.26	2.30	2.26	2.25
응답 추정 수	223,557	23,417	143,900	56,240

주: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당사자의 자립 의지가 강함을 의미

〈부표 2-1-74〉 자립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립을 시도할 의향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전혀 의향이 없다	39,102	17.5	15.7	16.6	20.4
의향이 없는 편이다	53,877	24.1	19.7	22.0	31.2
보통이다	57,269	25.6	22.9	25.7	26.4
의향이 있는 편이다	59,318	26.5	32.6	28.5	18.9
의향이 매우 많다	14,206	6.3	9.0	7.2	3.1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75〉 당사자의 미래 계획 수립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재정적 계획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음	155,799	69.6	78.3	70.1	64.9
	일부만(대략적으로만) 세워져 있음	57,775	25.8	18.8	26.3	27.6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음	10,197	4.6	2.8	3.7	7.5
주거 계획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음	157,480	70.4	82.0	72.3	60.7
	일부만(대략적으로만) 세워져 있음	54,096	24.2	15.4	23.8	28.8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음	12,196	5.4	2.6	4.0	10.4
법적 계획 (후견인 지명 등)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음	160,396	71.7	80.4	71.7	67.9
	일부만(대략적으로만) 세워져 있음	52,821	23.6	17.0	24.3	24.7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음	10,555	4.7	2.6	4.0	7.4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주: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음'에는 이미 해결된 경우를 포함

〈부표 3-1-76〉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1+2순위)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필요함	53,384	23.9	27.4	25.1	19.1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거나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줘야 함	31,565	14.1	21.9	15.4	7.4
살 집을 구하거나 집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줘야 함	33,862	15.1	14.5	16.7	11.4
일을 하거나 낮에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줘야 함	38,550	17.2	26.6	19.5	7.5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줘야 함	68,331	30.5	21.2	28.3	40.2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	68,095	30.4	25.4	28.0	38.8
가족이 없더라도 보호자처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함	121,022	54.1	56.0	54.0	53.4
동네 사람들이 가깝게 대해주고 필요할 때 도와줘야 함	6,482	2.9	0.9	2.8	3.9
기타	350	0.2	0.0	0.2	0.0
특별히 없음	15,532	6.9	3.3	6.1	10.6
전 체 (추정 수)	223,772	-	- (23,460)	- (144,072)	- (56,240)

주: 중복응답 문항으로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자. 가구 및 보호자

〈부표 3-1-77〉 가구원 수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1명	19,756	8.8	0.1	5.0	22.3
2명	55,771	24.9	8.6	20.4	43.3
3명	76,288	34.1	27.8	40.2	21.0
4명	51,358	23.0	40.9	26.1	7.4
5명 이상	20,598	9.2	22.6	8.2	6.1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78〉 가구의 가구주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부모	151,641	67.8	98.3	81.5	19.8
당사자	33,939	15.2	0.1	9.3	36.5
기타	38,191	17.1	1.6	9.2	43.7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79〉 가구원 중 장애인 유무(당사자 제외)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 유무	있음 없음	34,354 189,418	15.4 84.6	12.9 87.1	13.2 86.8	22.0 78.0
가구원 중 발달장애인 유무	있음 없음	21,704 202,068	9.7 90.3	9.7 90.3	7.7 92.3	15.0 85.0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80〉 가구 월평균 소득 - 연령별

(단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295만원	410.5만원	323.4만원	174.2만원
응답 추정 수	215,149	22,499	138,565	54,085

주: 월평균 가구소득은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부표 3-1-81〉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임	90,213	40.3	16.1	33.4	68.2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 아님	133,559	59.7	83.9	66.6	31.8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82〉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아버지	33,581	15.0	21.6	18.2	4.1
어머니	127,099	56.8	75.4	68.1	20.1
형제자매	21,035	9.4	0.5	3.7	27.7
조부모	3,073	1.4	1.8	1.8	0.0
배우자	18,020	8.1	0.0	3.9	22.0
자녀	7,352	3.3	0.0	0.3	12.3
그 외 가족 및 친인척	6,731	3.0	0.7	2.3	5.8
가족 및 친인척이 아닌 보호자	6,880	3.1	0.0	1.6	8.0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83〉 발달장애인의 부 보호자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있음	174,835	78.1	92.6	83.0	59.6
없음	48,937	21.9	7.4	17.0	40.4
전 체 (추정 수)	223,772	100.0	100.0 (23,460)	100.0 (144,072)	100.0 (56,240)

〈부표 3-1-84〉 주 보호자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 - 연령별

(단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균 돌봄 시간	5.1시간	5.5시간	5.2시간	4.8시간
응답 추정 수	223,772	23,460	144,072	56,240

〈부표 3-1-85〉 전반적인 돌봄 부담 정도 - 연령별

(단위: 5점 척도, 명)

구 분	전 체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 균	2.53	2.48	2.53	2.56
응답 추정 수	223,772	23,460	144,072	56,240

주: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부담 정도가 낮음을 의미

2. 당사자(PL, ER 그룹) 조사 결과

가. 취업과 일자리 - 취업자 조사 결과

〈부표 3-2-1〉 일을 하는 이유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돈을 벌고 싶다	41,740	73.7	67.2	72.1	91.0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	7,190	12.7	14.7	13.8	2.0
나는 일을 배우고 싶다	4,110	7.3	11.7	7.7	1.7
집에만 있기 싫다	1,498	2.6	6.4	2.6	1.4
다른 사람이(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일하라고 한다	1,964	3.5	0.0	3.5	3.9
기타	104	0.2	0.0	0.2	0.0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1,829)	100.0 (49,353)	100.0 (5,425)

〈부표 3-2-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일한다	9,638	17.0	29.9	17.2	11.0
나는 사무실에서 일한다	15,169	26.8	22.0	28.0	17.3
나는 공장에서 일한다	18,895	33.4	23.9	34.4	27.2
나는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키운다	2,120	3.7	0.0	1.9	21.4
나는 배달을 한다	1,336	2.4	6.3	2.2	2.5
나는 다른 일을 한다	9,449	16.7	17.8	16.2	20.7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1,829)	100.0 (49,353)	100.0 (5,425)

〈부표 3-2-3〉 일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일 다니는 것이 좋다	43,473	76.8	90.2	75.6	83.4
그냥 그렇다	12,319	21.8	9.8	23.1	13.8
나는 일 다니는 것이 싫다	815	1.4	0.0	1.3	2.9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1,829)	100.0 (49,353)	100.0 (5,425)

〈부표 3-2-4〉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지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다	38,954	68.8	73.3	69.8	58.5
그냥 그렇다	14,185	25.1	12.6	25.8	22.8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싫다	1,049	1.9	0.8	1.4	6.3
나는 혼자 일한다	2,420	4.3	13.3	3.0	12.4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1,829)	100.0 (49,353)	100.0 (5,425)

〈부표 3-2-5〉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는지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하는 일이 재미있다	36,882	65.2	89.0	64.3	64.8
그냥 그렇다	17,447	30.8	11.0	31.8	28.5
나는 하는 일이 재미없다	2,278	4.0	0.0	3.9	6.7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1,829)	100.0 (49,353)	100.0 (5,425)

〈부표 3-2-6〉 하는 일 다칠 수 있는지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내가 하는 일은 다칠 수 없다	39,494	69.8	55.9	72.1	53.4
내가 하는 일은 다칠 수 있다	17,113	30.2	44.1	27.9	46.6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1,829)	100.0 (49,353)	100.0 (5,425)

〈부표 3-2-7〉 일자리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41,203	72.8	79.3	74.0	59.4
나는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15,404	27.2	20.7	26.0	40.6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1,829)	100.0 (49,353)	100.0 (5,425)

〈부표 3-2-8〉 일자리에서 불이 나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스스로 갈 수 있다	50,589	89.4	97.8	88.6	93.7
나는 스스로 갈 수 없다	6,018	10.6	2.2	11.4	6.3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1,829)	100.0 (49,353)	100.0 (5,425)

〈부표 3-2-9〉 일자리를 계속 다니고 싶은지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계속 다니고 싶다	48,320	85.4	79.4	85.1	90.1
나는 다른 일자리에 가고 싶다	5,869	10.4	17.9	11.0	1.8
나는 일하기 싫다	2,418	4.3	2.7	3.9	8.0
전 체 (추정 수)	56,607	100.0	100.0 (1,829)	100.0 (49,353)	100.0 (5,425)

나. 취업과 일자리(미취업자 조사 결과)

〈부표 3-2-10〉 당사자의 취업 희망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취업 희망	40,571	50.7	86.4	57.3	23.5
취업 비희망	38,374	47.9	13.3	40.6	75.7
모름/응답거절	1,096	1.4	0.3	2.1	0.8
전 체 (추정 수)	80,042	100.0	100.0 (12,479)	100.0 (41,126)	100.0 (26,437)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 ‘취업 희망’으로 합산

〈부표 3-2-11〉 당장 내일부터 일할 의향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네, 일할래요	18,458	45.5	24.8	53.1	52.4
아니요, 안할래요	22,113	54.5	75.2	46.9	47.6
전 체 (추정 수)	40,571	100.0	100.0 (10,776)	100.0 (23,583)	100.0 (6,212)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부표 3-2-12〉 일하고 싶은 이유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돈을 벌고 싶다	23,968	59.1	58.6	58.6	61.9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	3,392	8.4	6.9	9.8	5.6
나는 일을 배우고 싶다	6,658	16.4	23.7	15.4	7.8
집에만 있기 싫다	4,338	10.7	5.5	10.7	19.8
다른 사람이(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일하라고 한다	1,420	3.5	2.6	4.4	1.6
기타	795	2.0	2.8	1.2	3.4
전 체 (추정 수)	40,571	100.0	100.0 (10,776)	100.0 (23,583)	100.0 (6,212)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부표 3-2-13〉 희망하는 일의 종류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일하고 싶다	14,374	35.4	47.2	35.0	16.6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	10,312	25.4	23.1	27.8	20.6
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	7,917	19.5	14.7	19.1	29.4
나는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키우고 싶다	1,988	4.9	3.5	3.6	12.4
나는 배달을 하고 싶다	1,649	4.1	3.0	5.0	2.5
나는 다른 일 하고 싶다	4,331	10.7	8.5	9.6	18.6
전 체 (추정 수)	40,571	100.0	100.0 (10,776)	100.0 (23,583)	100.0 (6,212)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부표 3-2-14〉 장애인들과 모여서 일하고 싶은지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혼자서 일하고 싶다	11,465	28.3	27.8	28.3	29.1
나는 장애인이 모여서 일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12,481	30.8	32.4	30.1	30.4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16,625	41.0	39.8	41.6	40.5
전 체 (추정 수)	40,571	100.0	100.0 (10,776)	100.0 (23,583)	100.0 (6,212)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 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부표 3-2-15〉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일하는 것이 싫다	13,173	34.3	25.0	38.2	31.8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	2,357	6.1	8.7	8.6	3.9
나를 안 뽑아 줄 것 같다	1,835	4.8	0.0	6.0	4.2
나는 몸이 아파서(장애 때문에) 일하기 싫다	11,368	29.6	21.6	22.1	36.6
나는 일해본 적이 없어서 일하기 싫다	3,007	7.8	17.9	9.3	5.8
나는 일이 힘들어서 일하기 싫다	6,503	16.9	25.8	15.8	17.2
기타	132	0.3	1.1	0.0	0.6
전 체 (추정 수)	38,374	100.0	100.0 (1,660)	100.0 (16,695)	100.0 (20,020)

주: “일하고 싶은지 여부”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하고 싶은지 여부”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 질문함

다. 공통조사 결과

〈부표 3-2-16〉 요즘 행복한지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매우 그렇다	71,443	52.3	9149	63.9	49134
그냥 그렇다	55,402	40.5	4651	32.5	36334
전혀 아니다	9,362	6.9	508	3.6	4907
모름/응답거절	441	0.3	0	0.0	104
전 체 (추정 수)	136,649	100.0	100.0 (14,308)	100.0 (90,479)	100.0 (31,862)

〈부표 3-2-17〉 세 가지 중 제일 하고 싶은 활동(ER 그룹)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	27,015	45.4	2430	43.3	11806
나는 복지관이나 센터에 가고 싶다	10,746	18.0	1082	19.3	7287
나는 일해서 돈 벌고 싶다	20,926	35.1	2101	37.4	14982
모름/응답거절	853	1.4	0	0.0	442
전 체 (추정 수)	59,539	100.0	100.0 (5,613)	100.0 (34,517)	100.0 (19,409)

주: ER 그룹에게 질문함

〈부표 3-2-18〉 세 가지 중 제일 하고 싶은 활동(1순위)(PL 그룹)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	25,654	33.3	37.0	27.0	58.8
나는 복지관이나 센터에 가고 싶다	9,831	12.7	13.6	12.9	11.6
나는 일해서 돈 벌고 싶다	41,625	54.0	49.3	60.1	29.6
전 체 (추정 수)	77,109	100.0	100.0 (8,695)	100.0 (55,962)	100.0 (12,453)

주: PL 그룹에게 질문함

〈부표 3-2-19〉 배우고 싶은 것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글 읽고 쓰기, 숫자 계산을 배우고 싶다	8,381	6.1	4.8	6.2	6.5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20,932	15.3	23.2	17.8	4.9
돈 관리, 지하철 타기 등 시는데 필요한 방법을 배우고 싶다	10,988	8.0	10.5	8.9	4.5
요리 운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즐기는 활동을 배우고 싶다	40,820	29.9	41.6	32.4	17.4
나는 다른 것을 배우고 싶다	2,702	2.0	4.8	1.8	1.3
배우고 싶은 것이 없다	52,420	38.4	13.8	32.8	65.3
모름/응답거절	406	0.3	1.3	0.2	0.2
전 체 (추정 수)	136,649	100.0	100.0 (14,308)	100.0 (90,479)	100.0 (31,862)

〈부표 3-2-20〉 친구 유무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친구가 있다	67,159	49.1	75.6	51.9	29.5
나는 친구가 없다	69,356	50.8	24.4	48.0	70.5
모름/응답거절	133	0.1	0.1	0.1	0.0
전 체 (추정 수)	136,649	100.0	100.0 (14,308)	100.0 (90,479)	100.0 (31,862)

〈부표 3-2-21〉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카드) 유무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돈이나 카드가 있다	102,181	74.8	65.2	76.8	73.3
나는 돈이나 카드가 없다	34,325	25.1	34.8	23.0	26.7
모름/응답거절	143	0.1	0.0	0.2	0.0
전 체 (추정 수)	136,649	100.0	100.0 (14,308)	100.0 (90,479)	100.0 (31,862)

〈부표 3-2-22〉 평소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26,832	19.6	17.3	18.6	23.7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	69,769	51.1	56.7	49.7	52.4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39,686	29.0	25.8	31.5	23.5
모름/응답거절	362	0.3	0.2	0.2	0.4
전 체 (추정 수)	136,649	100.0	100.0 (14,308)	100.0 (90,479)	100.0 (31,862)

〈부표 3-2-23〉 장애로 인해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 있는지 여부(PL 그룹)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장애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이 있다	42,175	54.7	44.1	53.6	66.9
나는 장애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이 없다	34,716	45.0	55.6	46.0	33.1
모름/응답거절	218	0.3	0.3	0.3	0.0
전 체 (추정 수)	77,109	100.0	100.0 (8,695)	100.0 (55,962)	100.0 (12,453)

주: PL 그룹에게 질문함

〈부표 3-2-24〉 나중에(또는 어른이 되면) 살고 싶은 방식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가족(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	71,205	52.1	55.9	52.1	50.4
나는 결혼해서 아내(남편)와 살고 싶다	32,490	23.8	19.7	26.8	17.1
나는 친구와 살고 싶다	3,489	2.6	4.1	2.8	1.2
나는 혼자서 살고 싶다	28,453	20.8	19.6	17.5	30.8
모름/응답거절	1,012	0.7	0.7	0.8	0.6
전 체 (추정 수)	136,649	100.0	100.0 (14,308)	100.0 (90,479)	100.0 (31,862)

〈부표 3-2-25〉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PL 그룹)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40,758	52.9	56.6	52.8	50.3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없다	36,279	47.0	43.1	47.1	49.7
모름/응답거절	73	0.1	0.3	0.1	0.0
전 체 (추정 수)	77,109	100.0	100.0 (8,695)	100.0 (55,962)	100.0 (12,453)

주: PL 그룹에게 질문함

〈부표 3-2-26〉 자신에 대한 생각(PL 그룹) - 연령별

(단위: 3점 척도, 명)

구 분	평 균	응답 수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평 균	응답 수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1.90	76,265	1.84	8,655	1.84	55,454	2.18	12,156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2.09	76,231	1.92	8,636	2.06	55,355	2.31	12,240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78	75,990	1.66	8,598	1.74	55,151	2.00	12,240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63	76,254	1.54	8,667	1.61	55,267	1.78	12,320

주 1) PL 그룹에게 질문함

2) 자아존중감 척도의 항목 중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함

3) 모름/응답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

〈부표 3-2-27〉 집에 불이 나면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는지 여부 - 연령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연 령		
			15~19세	20~49세	50세 이상
나는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다	94,147	68.9	77.1	71.9	56.7
나는 소방서에 연락할 수 없다	42,502	31.1	22.9	28.1	43.3
전 체 (추정 수)	136,649	100.0	100.0 (14,308)	100.0 (90,479)	100.0 (31,862)

[부록4] 주요 용어 정의

▶ 가구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상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말함

▶ 가사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한 사람의 경우 해당됨

▶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함을 뜻함

☞ 수입이 있더라도 다음의 활동은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음

- ①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예: 도박, 매춘 등)
- ②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 ③ 경매,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

▶ 구직활동(Job-searching)

조사대상기간에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의미함.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화, 방문, 구인광고 응모, 원서접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구직활동으로 보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 도전적 행동(Challenging Behavior)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기가 어려운 행동으로, 당사자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동을 일컫는 단어임.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감각처리의 문제,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의 문제행동이 아닌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요인이 존재함

▶ 돌봄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지원 활동의 총체를 의미하며 신체적인 돌봄부터 정서적 안정, 심리적지지, 사회활동 참여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

▶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함

☞ 무급으로 비혈연가구원의 일을 돕거나,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일을 돕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 미혼

혼인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함. 사실혼 관계는 기혼으로 판단함

▶ 비임금근로자(Non-salaried worker)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기업의 경영주나 또는 자기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동일가구 내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무보수로 18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이 속함(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사별

혼인을 한 사람으로서 배우자의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 독신으로 있는 경우를 말함. 사망신고 여부를 불문하며, 해방전 또는 한국동란 당시 배우자가 납치, 실종된 사람은 사망으로 간주함

▶ 산업(Industry)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 내용을 말함
- 산업분류는 2018년 개정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 상용근로자(Permanent employee)

임금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 생년월일

생년월일에는 양력, 음력이 있고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생년월일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파악

▶ 이혼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현재 독신으로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도 이혼으로 간주함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일반학교 내에 설치된 특수교육 학급으로, 통합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일부 시간은 특수학급에서, 일부 시간은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부분 통합 형태로도 운영하기도 하며, 일반 교육과정 내에서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별도의 특수교육 지원을 받는 형태임

▶ 일상생활 수행능력

개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활동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개인위생 관리, 식사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가기 등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금전 관리, 약물 복용관리 등의 수단적(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용근로자(Daily worker)

-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임
- ☞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대가를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로 받는 경우(파출부 등)
- 사업체에서 제공한 원료 및 반제품을 받아다가 가정에서 하청작업하는 형태
- ☞ 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

▶ 일하였음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과 가족(동일 가구내에 거주하는 혈연, 혼인 또는 양자에 의한 혈연관계)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한 경우도 포함됨

▶ 임금근로자(Wages & Salary worker)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임시근로자(Temporary employee)

임금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고용계약 미설정자 중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자립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자립이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인식하고 요청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

▶ 자영업자(Self-employed worker)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임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정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함

▶ 재학·수강 등

조사대상기간에 공사립학교, 학원 및 직업훈련학원(사업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제외)에서 주로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됨. 중고등학생이 방학 중에 있거나 일시적인 병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함

▶ 전공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성인기 전환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등에 추가로 설치, 운영되는 1~3년 과정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함. 전공과는 장애 학생들의 취업 준비와 자립생활 역량 강화가 주 목적이며, 직업기술 훈련, 사회적응훈련,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등 실질적인 직업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

▶ 조기노화

생물학적 연령보다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상태로, 노인에게서 볼 수 있는 건강문제가 40대 이상부터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며 다운증후군 등 발달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흔하게 발견되는 양상

▶ 종사상의 지위(Status of worker)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과 같이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상태를 말함

▶ 지적장애

지적장애는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말함. 지적장애는 보통 지능지수를 통해 판단하는데 70 이하인 경우를 말함

▶ 직업(Occupation)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종사한 일의 기능별 종류를 말함
- 직업분류는 2018년 개정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따름

▶ 직업재활시설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과 직업생활을 제공하는 시설로,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의 형태로 운영되며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

▶ 총 가구원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가구에 상주하는 0세 이상 모든 사람을 말함.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라도 생활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

▶ 최중증 발달장애인

중증의 발달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현저히 제한되어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

▶ 취업시간

조사대상기간 중 실제 일한 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여기서 실제 일한 시간이란 자기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보낸 시간으로 초과근무시간도 포함. 점심시간이나 사적인 용무로 일에서 떠난 시간 등은 제외함

▶ 취업자(Employed person)

- 조사대상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 일시휴직자도 취업자에 포함

▶ 특수학교

장애 특성에 따라 특화된 교육과정과 시설을 갖춘 독립된 학교로 장애 유형별로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임. 전교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구성되어 있고, 특수교육 전문 교사가 전담하는 형태이며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특수 교구 등 전문적인 교육이 학교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

▶ 평생교육

발달장애인이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함.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주로 일상생활 기술,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직업능력 개발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교육 제공

▶ 표준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며, 중증장애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적 환경에서의 고용을 실현하고자 설립된 사업체로 직업재활시설보다 더 통합적인 환경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고용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학력

최종학교, 졸업 여부로 구분되며, 학력은 정규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이 해당됨

▶ 혼인상태

호주 또는 주민등록과는 관계없는 사실상의 현재 배우관계를 말함.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등이 있음

▶ 후견인

법원으로부터 선임되어 의사결정능력에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의료적 결정, 복지서비스 이용, 법률 행위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리

[부록5]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조사표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보호자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그리고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른 국가승인 통계조사(제383005호)로 국가의 발달장애인 고용·복지정책의 수립·평가 및 그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생업 등으로 바쁘시고, 조사참여에 대한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부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님께도 직접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호자님께서 국가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설문지 다소 길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좋은 정책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오직 통계목적에만 활용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화한 후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응답하셔도 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행히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 6.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 향 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조 윤 경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031-728-7143 (이메일: survey@kead.or.kr)
http://www.kead.or.kr

조사기관



Hankook Research

☎ 02-3014-1056 (이메일: kimbrm@hrc.co.kr)
http://www.hrc.co.kr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PID		조사대상자 이름	
보호자 연락처			
최종 면접일시		면접원 성명	

A8.(★) 현재 ○○○님의 주된 장애유형은 무엇입니까?

1. 지적장애
2. 자폐성장애

A9.(★) 장애등급제 폐지 전 시점(2019년 6월)에 ○○○님의 장애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 2019년 7월 이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으나, 통계적 목적으로 장애등급을 확인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1급
2. 2급
3. 3급
4. 2019년 7월 이후 등록

A10.(★) 앞서 말씀해주신 주된 장애 외에도 등록되어 있는 다른 장애가 있습니까?

1. 중복장애 있음
2. 중복장애 없음 → A12로 이동

A11.(★) ○○○님의 등록된 중복장애는 무엇입니까?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지적장애
7. 자폐성장애
8. 정신장애
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루요루장애
15. 뇌전증장애

※ 지금부터 ○○○님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장애특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A12. ○○○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항 목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
	1	2	3	4
1. 옷 갈아입기				
2. 세수나 양치, 머리 감기				
3. 목욕하기				
4. 차려놓으면 식사하기				
5. 걷기				
6. 배변 및 배뇨				

A13. ○○○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 평소 해당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말씀해주세요)

항 목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
	1	2	3	4
1. 머리 빗기, 손발톱 깎기, 화장(여자) 또는 면도(남자)				
2. 청소하기				
3. 식사 준비하기				
4. 빨래하기				
5. 가까운 곳 외출하기				
6.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7. 물건 구입하기				
8. 돈 관리하기				
9. 전화 사용하기				
10. 약 챙겨먹기				

A14. ○○○님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은 어떠합니까?

1. 두 문장 이상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함
(예시: 어제 엄마가 사 온 노란색 가방을 줄까?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파란 곰돌이 가방으로 줄까?)
2.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예시: 가방 쥐? 밥 먹을래? 물 줄까?)
3. 단어 수준으로 제시해야 이해함
(예시: 가방? 밥? 물?)
4. 다른 사람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함

A15. ○○○님이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은 어떠합니까?

1.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함 (예시: 엄마가 주스 쥐)
2.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예시: 엄마, 주스)
3. 불명료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함 (예시: 어어(엄마), 두드(주스))
4.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함 (예시: 으으, 아아아)
5. 소리 등으로도 전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음

A16. ○○○님은 상대방의 제스처나 표정, 억양 등 언어가 아닌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1. 이해할 수 있음
2.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3. 이해할 수 없음

A17. ○○○님은 의사소통 시 제스처나 표정, 억양 등 언어가 아닌 표현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1. 활용할 수 있음
2.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활용할 수 없음

A18. 다음 각 항목별로 ○○○님의 능력이나 인지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불가능하다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다
	1	2	3
1. 한글 읽기			
2. 한글 쓰기			
3. 숫자에 대한 인지(수 개념)			
4. 날짜, 요일, 시간에 대한 인지			
5. 위치, 장소에 대한 인지			
6. 주위 사람에 대한 인지			
7. 상황에 대한 인지(안전, 위생 등)			

A19. ○○○님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나?
 (*현재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항 목	발생 빈도		
	전혀 안함	가끔 함	자주 함
	1	2	3
1) 자신을 해치는 행동 (자신을 때리기, 머리 부딪치기, 핥기, 베거나 찌르기, 물어뜯기, 피부 문지르기, 머리카락 뽑기, 피부 뜯기, 손톱 물어뜯기, 자신을 꼬집기, 음식 거부 등)			
2) 타인을 해치는 행동 (때리기, 발로 차기, 물기, 꼬집기, 핥기, 머리카락 뽑기, 물건으로 때리기 등)			
3)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 (때리기, 찢기, 자르기, 집어 던지기, 태우기, 흠집내기, 핥기 등)			
4) 방해하는 행동 (귀찮게 매달리기,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기, 시비 걸거나 불평하기, 싸움 걸기, 이유 없이 웃거나 울기, 방해하기, 고함치거나 악쓰기 등)			
5) 특이한 반복적인 습관 (서성이기, 흔들거리기, 손가락 흔들기, 손이나 물건 빨기, 경련과 같은 움직임(틱), 반항어, 혼자 중얼거리기, 이빨 갈기, 더러운 것이나 물건 삼키기, 지나친 과식이나 소식, 물건이나 허공 응시하기, 기이한 표정, 소리지르기 등)			
6)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큰소리로 말하기, 욕이나 저속한 말하기, 거짓말하기, 타인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하거나 만지는 행동, 위협하기, 허튼 소리하기, 차도에 갑자기 뛰어들기, 타인에게 침 뱉기, 코 후비기, (의도적인) 트림, 방귀, 성기 만지기, 부적절한 곳에서 소변보기 등)			
7) 위축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특이한 공포감 표현, 활동에 대한 관심의 결여, 슬픔이나 근심스러운 표정, 과제에 대한 집중력 결여, 너무 많이 잠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기 등)			
8) 비협조적인 행동 (집안일을 하지 않음, 규칙에 따르지 않음, 반항적이거나 빠지는 행동, 등교나 출근 거부, 학교나 직장에 (무단으로) 지각하기, 차례 지키지 않거나 공유해야 하는 것의 거부, 속이기, 훔치기, 법의 위반 등)			

A20. ○○○님의 장애는 현재 어떠한 상태입니까?

1. 점점 개선되고 있음
2. 특별히 개선되거나 악화되지 않음
3. 점점 악화되고 있음



B. 교육

이제부터는 ○○○님의 교육 내역, 학교에서의 진로·직업교육, 학교 이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님의 현재까지의 교육 이수 내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B1.(★) ○○○님께서는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지막까지 다닌 학교에 응답해 주세요)

1. 안 받았음(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4년제 미만)
 6. 대학(교)(4년제 이상)
 7. 대학원 석사 과정
 8. 대학원 박사 과정
- 무학(B1=1)이고 만19세 이상은 B15로 이동
→ 무학(B1=1)이고 만19세 미만은 C파트로 이동

B2.(★) ○○○님께서는 다니신 학교를 졸업하였습니까?

1. 재학(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음)
2. 중퇴(학업을 중단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음)
3. 휴학(유예)(학업을 잠시 중단하였으나 학교에 다닐 예정)
4. 수료(과정을 완료했으나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함)
5. 졸업(정규 과정의 학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함)

B3.(★) ○○○님께서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학교의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특수학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일반학교 내 일반학급	대안학교 등 기타 (적을 갖)
	1	2	3	4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 초·중·고등학교 재학 및 휴학(유예)의 경우(B1=2,3,4 & B2=1,3) B8로 이동

[최종학력이 초·중고 졸업/중퇴, 대학(교) 이상인 경우]

B4. 학교에 다녔던 것이 ○○○님의 학습이나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랬다	도움이 된 편이다	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 초·중·고등학교 졸업/중퇴(B1=2,3 & B2=2,5) 및 고등학교 중퇴(B1=4 & B2=2) 중 만19세 이상은 B15로 이동
→ 초·중·고등학교 졸업/중퇴(B1=2,3 & B2=2,5) 및 고등학교 중퇴(B1=4 & B2=2) 중 만19세 미만은 C파트로 이동
→ 고졸 이상(B1=4 & B2=5 또는 B1=5,6,7,8)은 B5로 이동

[최종학력이 고졸, 대학(교) 이상인 경우]

B5.(★) ○○○님은 현재 전공과를 다니고 있거나, 과거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후 심층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받고 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1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의미합니다.

- | | |
|-------------------------|-----------------------------------|
| 1. 전공과를 다니지 않았음 | → 만19세 이상은 B15로, 만19세 미만은 C파트로 이동 |
| 2. 전공과를 다닌 적이 있거나 졸업하였음 | → B6로 이동 |
| 3. 현재 전공과에 재학(휴학) 중임 | → B7로 이동 |

[전공과를 다닌 적이 있는 경우][B5=2]

B6. 전공과를 다녔던 것이 ○○○님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거나 원활하게 취업하는 데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된 편이다	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B7.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공과에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 발달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관련 교육과정 확대
 2. 개인의 장애상태 및 특성 등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 및 코칭
 3. 발달장애인 교육 전문인력 확보
 4. 기자재, 보조기기, 편의시설 등 지원 필요
 5. 교내 현장실습을 위한 다양한 시설 마련
 6. 현장실습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체 확보
 7. 지역사회 산업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8. 취업 연계 등 장애인 고용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9. 취업 후 사후관리 강화
 10. 기타(적을 것: _____)
- 만19세 이상은 B15로, 만19세 미만은 C파트로 이동

[B8부터 B14까지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휴학(유예) 중인 경우만 응답]

※ ○○○님의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B8. 현재 ○○○님은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습니까?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잘 적응하고 있다
1	2	3	4	5

B9. 학교에 다니는 것이 ○○○님의 학습이나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큰 도움이 된다
1	2	3	4	5

B10. ○○○님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 심한 장애로 인해서, 장애가 심해져서 학교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짐
2. 장애인 당사자가 다니기 싫어함
3. 수업내용이나 수준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적절하지 않음
4. 학교에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음
5. 발달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 부족
6. 학교에 보내기가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움
7. 등하교 하기(교통수단 이용 등)가 불편함
8.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등에 대한 지원(편의제공 등)이 부족
9. 주위의 시선이나 편견, 장애로 인한 따돌림 등
10. 기타(적을 것: _____)
11. 특별히 없음

**B11. 현재 또는 향후에 ○○○님이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진로·직업교육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진로 및 직업교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순위	2순위
-----	-----

1. 진로설계(진로·직업 상담)
2. 직업탐색(직업 종류, 직무 내용 등)
3. 직업평가
4. 직업훈련
5. 현장실습, 지원고용
6. 취업준비훈련(구직 활동, 이력서 작성, 면접 등)
7. 취업지원
8. 취업 후 사후관리
9.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신변처리, 대인관계, 금전 관리, 대중교통 이용 등)
10. 기타(적을 것: _____)
11. 특별히 없음(1순위 응답 불가)

B12. 학교에서 진로·직업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님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충분한 진로·직업 상담과 평가
2. 개인의 장애상태 및 특성 등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 및 코칭
3. 발달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관련 교육과정 확대
4. 진로·직업교육 시간 확대
5. 발달장애인 교육 전문인력 확보
6. 기자재, 보조기기, 편의시설 등 지원 필요
7. 현장실습, 인턴 등 일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8. 장애인 취업알선기관, 사업체 등과의 연계프로그램 확대
9. 기타(적을 것: _____)

B13.(★) ○○○님의 졸업 이후 진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1. 상급학교 진학(전공과 포함)
2. 취업
3. 취업 관련 훈련 또는 교육 참여
4. 취업 이외 훈련 또는 교육 참여
5. 가정 내 생활
6. 보호시설 입소
7. 기타(적을 것: _____)
8.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음

B14. ○○○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및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 전공과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후 심층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받고 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1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의미합니다.

1. 진학할 의사가 있음
 2. 진학할 의사가 없음
 3. 아직 모르겠음
- 만19세 이상은 B15로, 만19세 미만은 C파트로 이동

[만19세 이상]

B15. 최근 3년 동안 ○○○님은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B16로 이동

B15-1. ○○○님이 최근 3년 동안 참여한(또는 참여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말씀해주세요.

1. 생활기술교육(위생관리, 정리, 안전, 가족 돕기, 전화, 성 인식, 교통 이용, 지역사회 이용, 소득과 지출 등)
2. 기초문해교육(한글 읽고 쓰기, 수 계산 등)
3. 학력보완교육(검정고시 대비 강좌, 학점은행제 등)
4. 직업능력교육(기초작업능력, 직장예절, 직업준비, 자격증 취득 등)
5. 문화예술교육(요리, 노래, 영화, 전시회, 스포츠, 여행 등)
6. 인문교양교육(수준 높은 자립 달성을 위한 사회재활, 생활소양, 문학/역사/철학 등의 인문학적 교양 등)
7. 시민참여교육(투표 참여, 봉사활동, 자기결정 기술, 인권 교육 등)
8. 기타(적을 것: _____)

B16. 보호자님은 ○○○님이 향후 참여했으면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1. 생활기술교육(위생관리, 정리, 안전, 가족 돕기, 전화, 성 인식, 교통 이용, 지역사회 이용, 소득과 지출 등)
2. 기초문해교육(한글 읽고 쓰기, 수 계산 등)
3. 학력보완교육(검정고시 대비 강좌, 학점은행제 등)
4. 직업능력교육(기초작업능력, 직장예절, 직업준비, 자격증 취득 등)
5. 문화예술교육(요리, 노래, 영화, 전시회, 스포츠, 여행 등)
6. 인문교양교육(수준 높은 자립 달성을 위한 사회재활, 생활소양, 문학/역사/철학 등의 인문학적 교양 등)
7. 시민참여교육(투표 참여, 봉사활동, 자기결정 기술, 인권 교육 등)
8. 기타(적을 것: _____)
9. 특별히 없음



C. 취업상태 확인

이제부터는 ○○○님의 취업 상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C1.(★) ○○○님은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거나(임금, 자영업), 가족의 일을 무급으로 돕는 등 취업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 질병, 휴가 등으로 인한 일시휴직(일자리 복귀 가능),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일하는 것에 포함합니다.)

1. 취업하여 일하고 있음
2. 일하고 있지 않음 → E파트로 이동

C2.(★) ○○○님의 종사상 지위(주된 일자리 기준)는 무엇입니까?

1. 회사, 공장, 가게, 음식점 등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근로자
2. 직접 사업체(회사, 가게, 음식점, 농림어업 등)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3.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D. 취업자 특성

이제부터는 ○○○님의 주된 일자리 특성 및 직업생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D1. ○○○님이 일(취업)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돈을 벌기 위해서(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2.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려고(일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3.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4. 장애인 본인이 일하고 싶어해서(장애인 본인이 평소 하고 싶었던 것을 하려고)
5. 낯 시간을 보내려고(돌봄의 일환)
6. 직업기술, 기능 등을 배우려고
7. 기타(적을 것: _____)

D2. ○○○님이 일하기로(취업을 하기로) 결심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장애인 당사자
2. 부모 및 가족
3. 학교 교사
4. 전문 취업알선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종사자
5. 복지관, 시설 등 종사자
6. 친구, 이웃 등 지인
7. 기타(적을 것: _____)

※ ○○○님이 일하는 일자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D3.(★) ○○○님이 지금 일하는 직장(사업체)은 어디입니까?

■ 직장(사업체)명 _____

D4.(★) ○○○님이 일하는 직장(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산업 분류 면접원이 직접 입력)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 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D5. ○○○님이 근무하는 직장(사업체)의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1.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일자리
3.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4.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일자리
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자리
6.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D6. ○○○님이 근무하는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1. 1~4명 | 2. 5~9명 |
| 3. 10~29명 | 4. 30~49명 |
| 5. 50~99명 | 6. 100~199명 |
| 7. 200~299명 | 8. 300~499명 |
| 9. 500~999명 | 10. 1,000명 이상 |

D7. ○○○님의 직장(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다른 발달장애인은 얼마나 됩니까?

1. 없음
2. 1~4명
3. 5명 이상

D8.(★) ○○○님이 이 직장(사업체)에 근무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 년 월

• 동일한 일자리(직장)에 계약을 여러 번 반복하여 훈련 또는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가장 처음에 일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

D8-1.(★) (D8 '월'에서 '모름' 응답 시) 만약, 정확한 월을 모르신다면, 계절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91. 봄(3~5월) 92. 여름(6~8월) 93. 가을(9~11월) 94. 겨울(12~2월)

→ 비임금근로자(C2=2,3)는 D12로 이동

[임금근로자(C2=1)]

D9. 이 직장(사업체)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업무가 장애인의 능력 수준에 맞아서
2. 발달장애인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
3.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잘되어 있어서
4. 근로조건이 좋아서(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근로환경 등)
5. 출퇴근이 가깝거나 용이해서
6. 평소 장애인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이라서(적성, 취향)
7. 직장(사업체)에서 채용해줘서(이 일자리 말고 대안이 없어서)
8. 기타(적을 것: _____)

D10. ○○○님은 직장(사업체)에 어떻게 해서 취업하게 되었습니까?

1. 직접 채용 관련 정보를 습득하여 지원
2. 공공, 민간 취업알선기관, 직업훈련기관의 소개, 알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자체(행정복지센터 등), 직업소개소 등)
3.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단체/협회 등의 소개, 알선
4. 학교, 전공과 등의 소개 및 추천
5. 가족, 친구, 선후배, 일자리 동료 등 주변 지인의 소개 및 추천
6. 기타(적을 것: _____)

D11. ○○○님이 이 직장(사업체)에 취업하기까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1. 장애인 당사자의 취업의지가 적음
2. 장애인 당사자의 직업훈련, 이력서 작성, 면접대비 등 취업준비가 어려웠음
3. 발달장애인 채용정보나 사업체의 특성 정보를 알기 어려웠음
4.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체 자체가 없거나 부족했음
5. 취업알선기관 등 주변의 도움이 부족했음
6. 서류나 면접 과정에서 탈락을 많이 경험함
7. 취업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
8. 기타(적을 것: _____)
9. 특별히 없었음

→ D13로 이동

[비임금근로자(C2=2, 3)]

D12. ○○○님은 어떻게 해서 이 직장(사업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까?

1. 이 직장(사업체)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2. 임금근로 등 다른 일을 할 수는 있으나 이 일이 좋아서(해야 해서, 필요해서)

※ ○○○님의 현재 주된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D13.(★) 이 일자리에서 ○○○님이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주로 하는 일(직업) - (적을 것: _____)

D14.(★) 하고 있는 업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보기 중에 없으면 "8. 기타"에 응답해 주세요.

1.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
2.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
3. 사무(사무지원, 사서, 우체국 등)
4. 음식(바리스타, 제빵, 재료 준비, 설거지 등)
5. 청소·세탁(실내·외청소, 세차, 세탁 등)
6. 농림어업(채소 및 화초 재배, 모종 심기, 버섯 재배, 물고기 잡기 등)
7. 예술스포츠(음악, 미술, 스포츠 등)
8. 기타

D15.(★)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님의 직업(직종)은 무엇입니까? (* 면접원이 직접 입력)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D16. 이 업무는 ○○○님에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나 어렵습니까?

매우 쉽다	쉬운 편이다	적당하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1	2	3	4	5

D17. 이 업무는 ○○○님에게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힘들습니까?

전혀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은 편이다	적당하다	힘든 편이다	매우 힘들다
1	2	3	4	5

D18. ○○○님은 현재 이 업무에 어느 정도나 적응한 상태입니까?

1. 완전히 적응했음
2. 일부 적응했음
3. 전혀 적응하지 못했음

D19. ○○○님 본인은 이 업무를 어느 정도 좋아하고 있습니까?

매우 싫어한다	싫어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좋아하는 편이다	매우 좋아한다
1	2	3	4	5

※ ○○○님의 이 직장(사업체)에서의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임금근로자인 경우만 응답][C2=1]

D20. ○○○님의 근로계약 상태는 어떻습니까?

1. 1년 이상 계약 또는 정년 등(상용직)
2.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임시직)
3. 1개월 미만(일용직)

D21. 이 직장(사업체)에서 ○○○님은 주 평균 며칠 일합니까?

- 일주일 평균 약 일

· 직장(사업체)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는 근무일이 아닌, 실제 직장(사업체)에 나가는 근무일수를 응답합니다.

D22. 이 직장(사업체)에서 ○○○님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일합니까? 교육훈련 등의 시간은 제외하고 말씀해주세요.

- 하루 평균 약 시간

D23. 보호자님은 ○○○님이 이 직장(사업체)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길 원합니까?

1. 현재보다 더 긴 시간 일하면 좋겠음
 2. 현재처럼 일하면 좋음
 3. 현재보다 더 짧은 시간 일하면 좋겠음
- 무급가족종사자(C2=3)는 D25로 이동

D24. ○○○님이 이 직장(사업체)에서 일하고 받는 한 달 평균 임금(세금공제 전)은 얼마입니까?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 포함, 자영업의 경우 순수입)

- 한 달 평균 만원

D24-1. (월평균 임금 모름) 월평균 임금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1. 20만원 미만
2. 20~49만원
3. 50~99만원
4. 100~149만원
5. 150~199만원
6. 200~249만원
7. 250~299만원
8. 300~499만원
9. 500만원 이상

D25. ○○○님이 이 직장(사업체)에서 일하고 받는 임금(소득)은 주로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1. 장애인 본인이 직접 관리
 2. 부모 등 가족이 관리
 3. 제3자가 관리
- 자영업자(C2=2)는 D27로 이동

D34. 이 직장(사업체)의 사람(고용주 또는 직장동료 등)들은 ○○○님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다	보통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다
1	2	3	4	5	8

D35. ○○○님은 이 직장(사업체)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 폭력, 학대 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경험한 적이 없음 → D36로 이동
- 경험한 적이 있음 → D35-1로 이동

D35-1. (D35=2 응답자만) 보호자님은 ○○○님이 차별, 폭력, 학대 등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 가해자 또는 직장(사업체)에 직접 항의하였음
- 장애인 당사자에게 대처방안을 알려주었음
- 관련 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음
-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음(못했음)

D36.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직장(사업체)은 ○○○님이 일하기에 적절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까?

- 적절한 환경임
- 적절한 환경이 아님

D37. ○○○님은 이 직장(사업체)에 근로할 때 장애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이나 배려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지원이나 배려가 필요합니까?

항 목	D37-1.(★) 지원 여부		(D37-1. 2 응답 시) D37-2. 필요 여부	
	받음	받지 않음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1	2	1	2
1.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업무재배치, 업무난이도 조정 등)				
2. 업무시간 조정(단축) (적은 시간 근로, 출퇴근 시간 및 근무요일 조정, 별도 휴식시간 부여 등)				
3.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작업 지도, 의사소통 지원, 고충상담 등)				
4.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높낮이 조절 테이블, 대면용 포스기, 휴게시설 등)				
5.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 '3.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을 받고 있거나 필요하다고 한 경우(D37-1-3=1 또는 D37-2-3=1) D38로 이동
→ '3.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을 받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경우(D37-1-3=2 and D37-2-3=2) D39로 이동

D38.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을 받고 있거나 필요하다고 한 경우)

○○○님의 업무 수행을 도와줄 근로지원인 등 외부인(직장동료 등 제외)을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근로지원인'은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도와주는 지원 인력입니다.
 ※ 직장 내에서 보호자 및 옹호자, 직무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 인력입니다.

1. 무료라면 이용하겠음
2. 유료라도 이용하겠음
3. 이용하고 싶지만 일자리 상황이나 업무특성 상 이용할 수 없음
4. 이용하지 않겠음
5. 이미 외부인을 이용하고 있음

D39. ○○○님이 이 직장(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 출퇴근의 어려움
2.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의 근태관리(지각, 결근, 근무지 이탈 등)의 어려움
3. 자기관리(위생, 화장실 이용, 신변처리 등)의 어려움
4.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
5.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
6. 근로조건의 문제(저임금, 계약 만료 등)
7. 근무환경의 열악함
8. 대인관계의 어려움(의사소통 포함)
9. 도와줄 사람이 없음
10. 장애상태 악화
11.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12. 사업체 영업 부진
13. 기타(적을 것: _____)
14. 특별히 없음

D40. 보호자님과 함께 사는 가족이 ○○○님이 직장(사업체)을 나가는 데 출근 전 준비, 출퇴근 동행, 직업생활 상담 및 금전 관리 등 ○○○님의 원활한 직업생활 수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1.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도와주고 있음
 2.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나 도와주지 못하고 있음
 3.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하고 있어 도와줄 필요가 없음
-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C2=2,3)는 D42로 이동

[임금근로자인 경우만 응답][C2=1]

D41. 보호자님은 ○○○님의 직장생활에 대해 고용주나 인사담당자, 직장상사 등과 얼마나 자주 소통(상담, 교류, 연락 등)을 하고 있습니까? 입사 당시가 아닌 요즘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1. 자주 하고 있음(일주일에 1~2번 이상)
2. 드물게 하고 있음(한 달에 1~2번 이하)
3. 한 적 없음

D42.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님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일을 하려는 의지를 높여야 함
2. 근로능력, 기술을 키워야 함
3.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4.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
5. 책임감, 시간 업무 등 직업태도를 갖춰야 함
6. 자기관리(신변처리 등)를 잘해야 함
7.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잘 관리해야 함
8. 기타(적을 것: _____)
9. 특별히 없음

D43. ○○○님 본인은 이 직장(사업체)을 다니는 것을 어느 정도 좋아하고 있습니까?

매우 싫어한다	싫어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좋아하는 편이다	매우 좋아한다
1	2	3	4	5

D44. 보호자님은 ○○○님이 다니고 있는 이 직장(사업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D45. ○○○님 본인은 이 직장(사업체)에 계속 다니고 싶어 합니까?

1. 이 직장(사업체)에 계속 다니고 싶어함
2. 다른 직장(사업체)에 다니고 싶어함
3. 일 자체를 그만두고 싶어함

D46. 보호자님은 ○○○님이 이 직장(사업체)에 계속 다니길 원하십니까?

1. 직장(사업체)에 계속 다니길 원함
2. 다른 직장(사업체)에 다니길 원함
3. 일 자체를 그만하길 원함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근로장애인인 경우만 응답][D5=1]

D47. 보호자님은 ○○○님이 일반 사업체 일자리로 전환하길 희망합니까? 또 전환이 가능합니까?

1. 전환을 희망하며, 향후 가능하다고 생각함 → D47-1로 이동
2. 전환을 희망하나,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함 → D47-1로 이동
3. 전환을 희망하지 않음 → D48로 이동
4. 생각해본 적 없음 → D48로 이동

D47-1. ○○○님이 일반 사업체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입니까?

1.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역량강화 지원
2. 전환코디네이터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 지원
3.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반 사업체 직업영역 개발·확대
4. 전환 성공 수당 등 장려금 지원(사업체 또는 장애인)
5. 일반 사업체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일자리의 중간 단계 일자리 개발
6. 직업재활시설의 경쟁력 강화(사회적기업, 표준사업장 등) 지원
7. 기타(적을 것: _____)

- '2. 전환코디네이터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 지원은 전문 인력이 개인별 능력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경쟁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5. 일반 사업체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일자리의 중간 단계 일자리 개발은 바로 일반사업체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장애인화적 환경을 구축한 일반 사업체를 중간 단계로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님의 이전 취업 경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D48.(★) ○○○님은 이 직장(사업체)에서 일하기 전에 다른 일자리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영업이나 무급으로 다른 가족의 일을 도왔거나, 지자체의 복지일자리 경험 등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해주세요
(훈련이 주된 목적이어도 임금 성격의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포함됩니다).

1. 있음
2. 없음

-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연계(자원고용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자리에 출근한 경험도 모두 포함합니다.

응답 후 "F.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파트로 갈 것



E. 미취업자 특성

이제부터는 ○○○님의 취업 및 구직 경험, 취업 희망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님의 이전 취업 경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E1.(★) ○○○님은 이전에 일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영업이나 무급으로 다른 가족의 일을 도왔거나, 지자체의 복지일자리 경험 등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해주세요(훈련이 주된 목적이어도 임금 성격의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포함됩니다).

1. 있음
2. 없음 → E6으로 이동

•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연계(지원고용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자리에 출근한 경험도 모두 포함

E2. ○○○님은 모두 몇 개의 일자리에서 일해 보았습니까?

- 총 개 일자리

E3. 지금부터 ○○○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다니신 일자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기준시점은 그 일자리를 그만두기 전 시점입니다.

E3-1. ○○○님이 마지막으로 다니신 일자리는 어디입니까?

- 직장명(사업체가 하는 일) _____

E3-2. ○○○님이 다니셨던 직장(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산업분류 면접원이 직접 기입)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 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E3-3. ○○○님이 그 직장(사업체)에서 주로 했던 일(업무)은 무엇입니까?

1.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
2.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
3. 사무(사무지원, 사서, 우체국 등)
4. 음식(바리스타, 제빵, 재료 준비, 설거지 등)
5. 청소·세탁(실내·외청소, 세차, 세탁 등)
6. 농림어업(채소 및 화초 재배, 모종 심기, 버섯 재배, 물고기 잡기 등)
7. 예술스포츠(음악, 미술, 스포츠 등)
8. 기타(적을 것: _____)

E3-4. ○○○님이 다니셨던 직장(사업체)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1.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일자리
3.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4.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일자리
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자리
6.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음

E3-5.(★) 당시 그 직장(사업체)에서 ○○○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1. 임금근로 2. 자영업 3. 무급가족종사

E3-6.(★) ○○○님은 그 직장(사업체)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였습니까?

- 입직 시기 년 월부터
- 퇴직 시기 년 월까지

· 동일한 직장(사업체)에 계약을 여러 번 반복하여 훈련 또는 취업을 했던 경우 입직시기는 가장 처음에 일하기 시작한 시점 기준

E3-6-1.(★) (입퇴직 월을 모르는 경우) 만약 정확한 월을 모르신다면, 계절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91. 봄(3~5월) 92. 여름(6~8월) 93. 가을(9~11월) 94. 겨울(12~2월)

E4. ○○○님은 가장 마지막으로 일한 직장(사업체)을 왜 그만두었습니까? 가장 주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1. 낮은 임금 수준
2. 열악한 근무환경
3. 계약기간 만료
4. 영업부진, 폐업 등
5.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6.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
7. 직장(사업체)에서의 부적응(근태 및 대인관계 문제 등)
8. 장애인 당사자가 근로의지 부족(흥미를 갖지 못함 등)
9.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능력 부족, 업무성과 미흡
10. 도와줄 사람이 없음
11. 출퇴근의 어려움
12. 장애상태, 건강 등의 악화
13. 가사, 돌봄, 이사 등 가족적 사유
14. 다른(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하기 위해
15. 기타(적을 것: _____)

E5. ○○○님 본인은 그만 둘 당시 그 직장(사업체)을 계속 다니고 싶어했습니까?

1. 계속 다니기를 원했음
2. 계속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음

※ ○○○님의 향후 취업 희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E6.(★) 보호자님은 ○○○님이 지금 또는 향후에 취업하여 일하기를 원합니까?

1. 지금 당장 일하기를 원함 → E6-1로 이동
2.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일하기를 원함 → E6-1로 이동
3. 일하기를 원하지 않음 → E6-2로 이동

E6-1. 보호자님께서 ○○○님이 일하기를 원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돈을 벌었으면 해서(생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2.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길 원해서
3.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4. 장애인 당사자가 일하고 싶어 해서(장애인 당사자가 평소 하고 싶었던 것을 하게 하려고)
5. 낮 시간을 보내게 하려고(돌봄의 일환)
6. 직업기술, 기능 등을 배우길 원해서
7. 기타(적을 것: _____)

→ E7로 이동

E6-2. 보호자님께서 ○○○님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장애인 본인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2.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일자리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3. 나이, 학력, 경력, 기술 등 장애 이외의 취업 조건 문제로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4. 발달장애인이 일할 만한 일자리(업무)가 없어서
5. 굳이 일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경제적 부양 가능 등)
6. 이전에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 포기해서
7.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문제 등 개인적 이유로
8. 장애인 당사자의 가사, 돌봄 참여 등 가족적 이유로
9. 기타(적을 것: _____)

E7.(★) ○○○님 본인은 지금 또는 향후에 일하기를 희망합니까(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1. 희망함(희망하는 것 같음)
2. 희망하지 않음(희망하지 않는 것 같음) → E6=3 & E7=2 응답자는 F파트로 이동

※ 보호자와 본인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F파트로 이동합니다.

※ 보호자 또는 본인이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나머지 E파트를 응답합니다.

E8. ○○○님은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1. 바로 취업해서 일할 수 있음 → E9로 이동
2. 바로 취업해서 일하기 어려움 → E8-1로 이동

E8-1. ○○○님이 바로 일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장애인 본인이 지금은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E7=1 응답자는 비활성화)
2. 통학, 훈련, 재할 등 다른 활동 때문에
3. 기술 습득 등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4. 출퇴근 등 일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5. 건강문제 등 개인적인 이유로
6. 장애인 당사자의 가사, 돌봄 참여 등 가족적 이유로
7. 기타(적을 것: _____)

**E9. “보호자님”은 ○○○님이 어떠한 일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님이 희망하는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E9-1. 희망 종사상 지위

1. 임금근로
2. 자영업
3. 무급가족종사

E9-2. 희망 일자리 유형

1.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일자리
3.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4. 일반 민간사업체(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일자리
5.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자리
6.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E10. 보호자님께서 ○○○님이 어떤 업무를 하길 희망하십니까?

1. 서비스(배송, 주유, 미용, 판매, 진열, 서빙, 돌봄 등)
2. 제조(조립, 포장, 운반, 수리 등)
3. 사무(사무지원, 사서, 우체국 등)
4. 음식(바리스타, 제빵, 재료 준비, 설거지 등)
5. 청소·세탁(실내·외청소, 세차, 세탁 등)
6. 농림어업(채소 및 화초 재배, 모종 심기, 버섯 재배, 물고기 잡기 등)
7. 예술스�포츠(음악, 미술, 스포츠 등)
8. 기타(적을 것: _____)

※ 보호자님께서 ○○○님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기를 원합니까?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님이 희망하는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E11. 희망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 E11-1.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 일
- E11-2. 하루 평균 근로시간 시간

E12. 최소 희망 임금(소득) 수준

- 월 평균: 만원

E13. 보호자님께서는 ○○○님이 어떤 일자리에서 일하기를 희망합니까?

1.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
2. 일이 쉽고, 힘들지 않은 일자리
3. 안정적인 일자리(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4. 장애인 당사자의 적성, 취향에 맞는 일자리
5. 장애인 당사자의 능력수준에 적합한 일자리
6.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잘 되어 있는 일자리
7. 출퇴근이 가깝거나 용이한 일자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일자리
9. 기타(적을 것: _____)

E14. 보호자님께서는 ○○○님이 언제 취업하기를 희망합니까?

1. 지금 즉시
2. 6개월 내
3. 1년 내
4. 3년 내
5. 3년 이후

E15. ○○○님이 향후 일을 하게 되면 장애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이나 배려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신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 (예. 업무재배치, 업무난이도 조정 등)
2. 업무시간 조정(단축) (예. 적은 시간 근로, 출퇴근 시간 및 근무요일 조정, 별도 휴식시간 부여 등)
3.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 (예. 작업 지도, 의사소통 지원, 고충상담 등)
4.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등 설치 (예. 높낮이 조절 테이블, 대면용 포스기, 휴게시설 등)
5. 맞춤형 업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6. 기타 ()

→ E15=3 응답자는 E16으로 이동

→ E15에서 3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E17로 이동

E16.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이 필요하다면)

○○○님이 일을 한다면 업무 수행을 도와줄 근로지원인 등 외부인(직장동료 등 제외)을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근로지원인'은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도와주는 지원 인력입니다.
※ 직장 내에서 보호자 및 옹호자, 직무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 인력입니다.

1. 무료라면 이용하겠음
2. 유료라도 이용하겠음
3. 이용하지 않겠음

E17.(★) ○○○님의 취업을 위해 보호자님과 ○○○님은 최근 3년 내 일자리 탐색(취업 요청, 사업체 문의 등), 구직 등록, 이력서 제출, 면접 등 일자리를 구해보 경험 있습니까? 있다면 마지막으로 구해 본 시기는 언제입니까?

1. 있음 → 년 월
2. 없음 → E20로 이동

E18. ○○○님은 최근 3년 동안 실제로 일자리(사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본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소개를 받아 일자리(사업체)에 가서 인사 정도를 한 것도 면접에 해당됩니다.

1.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본 적이 없음
2. 1~4회
3. 5~9회
4. 10회 이상
5. 창업활동 등 자영업만 구직하였음

E19. 일자리를 구하면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 발달장애인 취업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움
2.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일자리(사업체) 자체가 없거나 부족함
3.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과정에서 자주 탈락함
4. 임금, 근로시간, 계약조건 등이 맞지 않음
5. 장애인 당사자의 취업 의지가 없거나 부족함
6.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능력, 기술, 경력 등이 부족함
7.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관리, 사회 적응 등의 준비가 부족함
8. 구직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함(기관 통학 등으로 인해)
9. 기타(적을 것: _____)
10. 특별히 없음

E20. ○○○님은 현재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1. 직업교육훈련 참여 등 준비를 하고 있음
2.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없음

E21. ○○○님이 취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1. 일을 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야 함
2. 당사자의 진로 및 적성을 탐색하고 개발해야 함
3. 직업 및 취업 정보를 확보해야 함
4. 근로능력, 기술을 키워야 함
5.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6.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함
7. 책임감, 시간 업무 등 직업태도를 갖춰야 함
8. 자기관리(신변처리 등)를 잘해야 함
9. 장애로 인한 행동특성을 잘 관리해야 함
10. 기타(적을 것: _____)
11. 특별히 없음 (1순위 응답 불가)

응답 후 "F.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파트로 갈 것



F. 직업적 능력과 고용서비스 이용

이제부터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고용서비스 경험 및 욕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취업을 하였거나 취업할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취업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F1. ○○○님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1. 잘 이해하고 있음
2.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편임
3. 조금은 이해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편임
4.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함

F2. 다음은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들입니다.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님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별로 말씀해주세요.

항 목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1	2	3	4	5
1) 힘(근력), 체력					
2) 이동, 빠르게 움직이기					
3) 서있기, 불편한 자세 유지하기					
4) 미세한 손동작으로 작업하기					
5) 주어진 지시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6)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기					
7)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작업 후 정리하기					
8) 높은 집중력과 주의 유지하기					
9) 동일한 일을 일정시간 이상(2시간) 반복하기					
10)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11)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12)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13) 동료나 상사와 협력, 의사소통하기					
14) 새로운 상황과 장소에 적응하기					

F3. ○○○님은 일반적인 일자리(사업체)로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기술이나 자격 등을 갖고 있습니까?

1. 갖고 있음
2. 갖고 있지 않음

- 자격증으로 반드시 취득하지 않더라도 직업훈련 시 특별히 배웠던 기술이 있다면 응답 (예: 정리수납, 바리스타, 목공 기술 등)
- 발달장애인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은 바리스타, 발달행정정보조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정리수납 자격 등이 있습니다.

F4.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님은 일자리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근로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업의사, 다른 취업방해 요인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능력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1. 통상적인 수준의 근로가 가능
2. 단시간 또는 단순한 수준의 근로가 가능
3. 집안일 수행 정도만 가능(돈을 벌 수 있는 수준이 아님) → 미취업자는 F4-1로 이동
4. 집안일 자체도 수행이 불가능 → 미취업자는 F4-1로 이동

[미취업자이면서 F4에서 집안일 수행 정도만 가능, 집안일 자체도 수행 불가능한 경우만 응답][C1=2 and F4=3,4]

F4-1. 최종증 발달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을만한 직무가 개발되고, 출퇴근이나 편의시설 등이 지원된다면 ○○○님은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직무 예: 기관 방문객 인사하기, 화단 물주기, 스티커 붙이기 등)

1. 예
2. 아니오

F5. 보호자님을 포함하여 가족은 ○○○님이 취업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나 지지하고 있습니까?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1	2	3	4	5

[미취업자만 응답][C1=2]

F6. ○○○님이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을 지지하고 교육훈련, 정보제공, 취업알선, 동행(면접, 일자리 등), 취업비용 지원 등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은 모두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지인에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기준이며, 친지, 이웃, 학교나 시설 등의 관계자 등을 포함합니다.)

1. 10명 이상
2. 5명~9명
3. 1명~4명
4. 전혀 없음

F7. ○○○님의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 능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F7-1. ○○○님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1.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 게임 등 두루 활용할 수 있음
2. 일부 기능만 활용할 수 있음
3. 활용할 수 없음

F7-2. ○○○님의 스마트폰 활용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응답 부탁드립니다.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할 수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사용한다
1	2	3	4	5

F8. ○○○님이 최근 3년 동안 일자리를 갖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복지관, 사설·협화·단체 등을 통해 이용한 고용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일자리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이용한 것도 포함하여 이용하신 서비스를 모두 골라주세요.

F8-1.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 ○○○님이 이용하신 고용서비스는 취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항 목	F8. 최근 3년 내 이용한 고용서비스	(서비스 이용경험 있는 경우) F8-1. 취업에 도움 정도		
		도움되지 않았다	그저 그랬다	도움이 되었다
1) 진로상담, 설계(진로설계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1	2	3
2) 직업탐색, 직업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1	2	3
3)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input type="checkbox"/>	1	2	3
4) 직업능력평가	<input type="checkbox"/>	1	2	3
5)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역량 강화	<input type="checkbox"/>	1	2	3
6) 직업기술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1	2	3
7)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1	2	3
8) 현장실습(훈련) (지원고용 등)	<input type="checkbox"/>	1	2	3
9) 취업알선(구직상담, 동행면접 등)	<input type="checkbox"/>	1	2	3
10) 취업 전후 인력 지원(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	<input type="checkbox"/>	1	2	3
11)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	<input type="checkbox"/>	1	2	3
12) 출퇴근 지원(차량, 비용, 인력 등)	<input type="checkbox"/>	1	2	3
13) 직업생활 상담 및 고충 처리(인권 보호)	<input type="checkbox"/>	1	2	3
14) 발달장애인 취업 관련 부모(보호자) 교육	<input type="checkbox"/>	1	2	3
15) 3년 동안 이용한 고용서비스 없음	<input type="checkbox"/>			

→ 취업자(C1=1) 또는 미취업자 중 보호자나 본인이 일하기 원하는 경우(E6=1,2 또는 E7=1) F8-2로 이동

→ 미취업자 중 보호자나 본인이 모두 취업을 원하지 않으면(E6=3 and E7=2) F9로 이동

F8-2. 현재의 취업을 유지하거나 향후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골라주세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응답해 주세요.

1. 진로상담, 설계(진로설계 컨설팅)
2. 직업탐색, 직업정보 제공
3.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4. 직업능력평가
5.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역량 강화
6. 직업기술 교육, 훈련
7.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
8. 현장실습(훈련) (지원고용 등)
9. 취업알선(구직상담, 동행면접 등)
10. 취업 전후 인력 지원(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등)
11. 작업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
12. 출퇴근 지원(차량, 비용, 인력 등)
13. 직업생활 상담 및 고충 처리(인권 보호)
14. 발달장애인 취업 관련 부모(보호자) 교육
15. 필요한 고용서비스 없음

F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국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해당 훈련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현재 서울(동대문구), 서울남부(영등포구), 부산(부산진구), 인천(남동구), 대구(달서구), 광주(서구), 대전(서구), 울산(남구), 세종(세종시), 경기(수원시), 경기북부(의정부시), 강원(원주시), 충북(청주시), 충남(아산시), 전북(전주시), 전남(순천시), 경북(구미시), 경남(창원시), 제주(제주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 현재 이용할 의사가 있음
2.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음
3. 이용 여부를 추후 고려해보겠음
4. 이용하지 않을 것임



G. 일상생활

○○○님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G1. 현재 ○○○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1	2	3	4	5

G1-1. 현재 ○○○님의 건강상태를 작년 이때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1. 더 좋아진 편임
2. 달라진 것이 없음
3. 더 나빠진 편임

G1-2. 현재 ○○○님의 건강상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1. 전혀 지장이 없음
2. 지장이 있는 편임
3. 매우 지장이 있음

G2. ○○○님은 현재 장애 이외 만성질환이 있습니까? 모두 말씀해주세요.

0. 만성질환 없음
1. 암
2.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3.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4. 만성간염, 간경변
5. 당뇨병
6. 갑상선질환
7. 고혈압, 저혈압
8. 중풍, 뇌혈관질환
9. 심근경색증, 협심증
10. 만성기관지염(심한가래, 기침), 천식
11. 백내장, 녹내장
12.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13. 골다공증
14.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15. 뇌전증(장애평등)
16. 신경경신과 질환
17. 기타(적을 것: _____)

G3. ○○○님은 (조기)노화가 시작하였거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님이 몇 세 때부터 노화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 체력 감소 등 신체활동능력 제한, 청력시력의 저하 등 감각기관의 변화, 뼈가 약해지는 골근육계 변화, 알츠하이머당뇨병 등 노인성 질병 발생 등

1. (조기)노화가 시작하여 진행되고 있음 → 관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연령 세
2. 노화가 시작되지 않음(그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G4. ○○○님은 평소 체력관리 등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1. 하고 있음 → 하루 평균 시간 분
2. 하지 않음

G5. ○○○님은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항 목	전혀 없다	다소 있다	매우 많다
	1	2	3
1. 흡연 문제			
2. 음주 문제			
3. 약물 중독			
4. 스마트폰, 게임 중독 문제			
5. 과체중(비만) 문제			
6. 성적(性的) 문제			
7.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			

※ ○○○님이 일상생활 수행 시 실제로 받고 있는 도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G6.(★) ○○○님은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시간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수면시간 및 학교, 센터, 일자리(사업체) 등 외부 기관에서 필요한 시간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세요.)

1. 일과시간의 대부분 필요함(12시간 이상)
2.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3.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 2시간 미만
5.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음 → G7로 이동

G6-1. ○○○님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도움 받고 있습니까?

전혀 못 받고 있다	별로 못 받고 있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받고 있다	충분히 받고 있다
1	2	3	4	5

G6-2. ○○○님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 3. 형제자매 5. 친인척 7. 공공후견인 9. 친구 및 이웃 11. 특별히 없음(1순위 응답 불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조부모 4. 배우자 및 자녀 6. 활동지원사 8. 기관 종사자(복지관, 시설·센터·협회 등) 10. 기타(적을 것: _____) |
|---------------------------------------------------------------------------------------------------------------------------------------------------------------|------------------------------------------------------------------------------------------------------------------------------------------------------------------|

※ ○○○님이 주로 하는 일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G7.(★) ○○○님이 수면과 식사, 신변처리 등을 제외하고, 주로 하시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주로 시간을 보내는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 평일(월~금)

1순위	2순위	3순위
-----	-----	-----

2) 주말(토, 일)

1순위	2순위	3순위
-----	-----	-----

1. 근로(돈을 벌기 위한 활동)
2. 통학(학교 수업 듣기)
3. 기관의 돌봄,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복지관, 시설·센터·협회 등) - 단순 방문 포함
4. 휴식하기(그냥 쉬기)
5. 외출(지인 만나기, 마트(쇼핑) 가기 등)
6. 운동하기
7. TV 보기
8.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하기
9. 집에서 하는 개인·가족 취미 활동
10. 집 밖에서 하는 개인·가족 취미 활동
11. 가사(집안일) 및 돌봄
12. 병원이나 치료센터 방문
13. 종교활동
14. 기타(적을 것: _____)

G8. ○○○님 본인은 이렇게 일과를 보내는 것을 어느 정도 좋아하고 있습니까?

매우 싫어한다	싫어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좋아하는 편이다	매우 좋아한다
1	2	3	4	5

G9. 보호자님은 ○○○님이 이렇게 일과를 보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 ○○○님의 복지관, 센터 등 기관 이용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G10. 학교, 일자리를 제외하고 ○○○님이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1. 지방자치단체(시청, 도청, 시군구청, 동사무소)
2. 공공기관(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개발원 등)
3. (장애인)복지관
4. 관련 시설·센터·협회
5. 기타
6. 특별히 없음 → G14로 이동

G11. 000님이 그 기관을 이용하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1. 단기보호(주간, 야간 돌봄 등)
2. 거주, 생활
3.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재활, 치료
4. 직업재활 훈련, 취업
5. 취미, 여가활동
6. 기타(적을 것: _____)

G12. 000님은 그 기관을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십니까?

- 일주일 평균 이용일: 일
-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용 시): 시간

G13. 000님은 그 기관을 계속 이용하고 싶어하십니까?

1. 계속 이용하고 싶어함
2. 이용하고 싶어하지 않음

※ 000님의 사회 참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G14. 000님은 여가 시간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1.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임
2. 집 밖 활동을 좋아하는 편임

G15. 000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매우 싫어한다	싫어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좋아하는 편이다	매우 좋아한다
1	2	3	4	5

G16. 000님은 평소 교류하고 있는 친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1. 10명 이상
2. 5명~9명
3. 1명~4명
4. 전혀 없음

[일상생활에서 차별, 폭력, 학대를 경험한 경우만 응답][G19=2,3 또는 G20=2]

G21. 보호자님은 ○○○님이 차별, 폭력, 학대, 방치 등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하였음
2. 장애인 당사자에게 대처방안을 알려주었음
3. 관련 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음
4.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음(못했음)

※ ○○○님의 일상생활 내 재난 및 위급상황 대응 가능 수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G22. 재난이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음 각 사안에 대해서 ○○○님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습니까?

항 목	전혀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할수있는 편이다	충분히 할수있다
	1	2	3	4
1. 재난이나 위급상황을 인지할 수 있음				
2.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음				
3. 스스로 대피할 수 있음				
4.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님과 보호자님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G23. 보호자님이 생각하기에 ○○○님은 현재 일상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 것 같습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G24. 보호자님은 ○○○님의 현재 일상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합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 ○○○님과 보호자님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G25. 이미 받고 있는 서비스와 상관없이 ○○○님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1. 경제적, 소득 지원
2. 의료, 재활, 건강 지원
3. 취업 및 취업 유지 지원
4. 돌봄, 보호, 휴식 지원
5.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6. 심리, 사회, 정서적 지원
7.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8. 기타(적을 것: _____)
9. 특별히 없음(1순위 응답 불가)

- 돌봄, 보호, 휴식 지원에는 주간활동, 돌봄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심리, 사회, 정서적 지원에는 자조모임, 권리옹호, 심리-정서적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G25-1. 이미 받고 있는 서비스와 상관없이 보호자님 또는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장애 관련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1. 경제적, 소득 지원
2. 의료, 재활, 건강 지원
3. 취업 및 취업 유지 지원
4. 휴식 지원
5.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6. 심리, 사회, 정서적 지원
7.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8. 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9. 기타(적을 것: _____)
10. 특별히 없음(1순위 응답 불가)

※ 마지막으로 ○○○님의 작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변화한 일상생활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G26. 작년(2023년 6월)과 비교했을 때 ○○○님의 일상생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항 목	크게 줄어들었다	다소 줄어들었다	변화 없다	다소 늘어났다	크게 늘어났다	원래 하지 않았다
	1	2	3	4	5	
1) 건강관리(운동, 치료, 재활 등) 활동						
2) 취업활동(일 관련 활동 전반 - 구직 및 취업준비 활동 포함)						
3) 학업 및 자기 개발 활동						
4) 보호자(가족)의 돌봄(보호) 시간						
5) 디지털 기기(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						
6) 복지관 등 기관 시설 이용 시간						
7) 친지, 친구 등 모임 참석 활동						
8) 취미활동(집 밖)						
9) 그냥 집에서 보낸 시간(특별히 한 것 없이)						
10) 도전적(문제) 행동의 발생 빈도						
11) 식사량						
12) 일상생활 수행능력						

• 도전적(문제) 행동: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 방해하는 행동, 특이한 반복적인 습관,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위촉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 비협조적인 행동 등

※ '2) 취업활동'과 '10) 도전적(문제) 행동의 발생 빈도' 등은 '원래 하지 않았다' 응답 시 기존 응답 결과와 확인 필요

G27. 작년(2023년 6월)의 일상과 비교했을 때 현재 ○○○님의 삶의 질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매우 나빠졌다	나빠진 편이다	변화 없다	좋아진 편이다	매우 좋아졌다
1	2	3	4	5



H. 자립 및 미래 계획

○○○님의 자립 및 미래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님과 보호자(가족)의 자립 의사나 자립 의지 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H1.(★) 보호자님은 ○○○님이 향후에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1. 보호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살기
2. 자립(독립)하여 살기
3. 단기거주형 시설(그룹홈, 단기보호 등)에서 살기
4. 장기거주형 시설에서 살기
5. 발달장애인 공동체 마을(캠프힐 등)에서 살기
6. 기타(적을 갖: _____)

- 단기거주형 시설(그룹홈, 단기보호 등)은 30일 내 이용이 기본이지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사군구의 허가를 받아 연장하여 머무를 수 있습니다.
- 장기거주형 시설은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대규모 시설이며,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발달장애인 공동체 마을(캠프힐 등)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돕고 사는 삶을 지향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낮 시간에 직업 활동이나 교육, 치료 프로그램 등 바깥 활동에 참여하며 주변 이웃과 친구, 가족과 교류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도 희망에코마을, 조력공동체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H2.(★) 보호자님이 생각하기에 ○○○님이 나중에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2.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3. 이미 혼자 힘으로 살고 있음

H3. 보호자님이 생각하기에 ○○○님의 자립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매우 약하다	약한 편이다	보통이다	강한 편이다	매우 강하다
1	2	3	4	5

※ ○○○님의 의사표현과 자기결정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H4. ○○○님은 평소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이다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1	2	3	4	5

H5.(★) 일상생활에서 ○○○님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주된 주체(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1. 장애인 본인
2. 보호자
3. 그 외 사람

※ 다음은 ○○○님의 자립준비 상황과 관련된 문항으로 현재의 준비 수준에 대해서 질문드리려 합니다.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질문드리는 사항으로, 실제 자립 의향이 없거나 자립이 어렵더라도
질문드리는 부분에 대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H6. 자립하기 위해 ○○○님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1. 자립 관련 정보 습득
2. 본인에게 맞는 자립 계획 수립
3.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직장
4. 자립해서 살 집
5. 자립했을 때 도와줄 사람
6. 자립생활 체험(다양한 주거 체험 활동 참여 등)
7. 기타(적을 갖: _____)
8. 특별히 없음(1순위 응답 불가)

H7. 자립하기 위해 ○○○님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자립생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1. 자립하려는 의지와 태도
2. 자기관리 능력(개인위생 관리, 계절에 맞는 옷 입기 등)
3. 일상생활 수행능력(식사 준비, 빨래, 청소, 금전 관리 등)
4. 건강관리 능력(약 챙겨먹기, 질환(병) 관리, 운동 등)
5. 대인관계 능력(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 등)
6. 위험 상황 대처 능력(화재 대피, 사고 대처 등)
7. 자기결정 능력
8. 기타(적을 갖: _____)
9. 특별히 없음(1순위 응답 불가)

H8. 보호자님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님이 자립할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됐다	준비가 안된 편이다	보통이다	준비가 된 편이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
1	2	3	4	5

H9. 보호자님은 자립체험형 지원주택 제공을 통한 독립거주 등 ○○○님이 자립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님의 자립을 시도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의향이 없다	의향이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의향이 있는 편이다	의향이 매우 많다
1	2	3	4	5

※ ○○○님이 혼자 힘으로 살거나, 가족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래 계획을 수립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H10. 귀댁은 ○○○님이 향후(가구원 등 주된 보호자로부터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항 목	전혀 세워져 있지 않다	일부만 (대략적으로만) 세워져 있다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다 (이미 해결된 경우 포함)
	1	2	3
1) "무슨 돈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 - 재정적 계획으로 소득보장, 자산관리, 직업재활 등이 포함됩니다.			
2)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 - 주거계획으로 어디에서 거주하면서 보호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3)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 - 법적 계획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줄 수 있는 후견인 지명 등이 포함됩니다.			

• 단순히 고민 정도만 한 것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다"에 해당됩니다.
• 이미 진행, 해결된 상태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다'에 해당됩니다.

H11. ○○○님은 장애인 전용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 등의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적보험은 제외합니다.)

1. 가입되어 있음
2. 가입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 전용보험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실비보험을 의미합니다. 태아보험, 암보험 등 일반적인 의료실비보험은 제외합니다.
• 장애인 전용보험으로는 우체국 여객동무 연금보험이 대표적입니다.

H12. ○○○님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는 가족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1.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필요함
2.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거나 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줘야 함
3. 살 집을 구하거나 집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줘야 함
4. 일을 하거나 낮에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줘야 함
5.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줘야 함
6.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
7. 가족이 없더라도 보호자처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함
8. 동네 사람들이 가깝게 대해주고 필요할 때 도와줘야 함
9. 기타(적을 것: _____)
10. 특별히 없음(1순위 응답 가능)



I. 가구 및 보호자

○○○님 가구와 보호자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님의 가구 정보를 질문드리겠습니다.

11.(★) ○○○님 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님과 보호자님을 포함해서 말씀해주세요.

▪ 총 명

12.(★) ○○○님 데의 가구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아버지 1. 있음 2. 없음
- 어머니 1. 있음 2. 없음
- 형제자매 명
- 조부모 명
- 배우자 명
- 자녀 명
- 그 외 가족 명

13.(★) ○○○님의 출생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1. 첫째(또는 외동) 2. 둘째 3. 셋째 4. 넷째 이상

14.(★) (장애인 당사자 및 12의 가구원 중) 가구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가구주는 누구입니까?

1. 아버지
2. 어머니
3. 장애인 당사자
4. 형제자매
5. 조부모
6. 배우자
7. 자녀
8. 기타(적을 것: _____)

15.(★) 가구원 중 ○○○님 외에도 등록장애인인 분이 계십니까?

1. 있음
2. 없음 → 16으로 이동

15-1.(★) (15=1만 응답) 다른 가구원 중 (※주된장애 기준)

- 발달장애인 명
- 발달장애 외 등록장애인 명

16. ○○○님 닥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가구의 근로소득, 임대소득, 친인척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나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전소득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 한 달 평균 만원

16-1. (월평균 가구소득 모름) 월평균 가구소득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1. 50만원 미만
2. 50~100만원 미만
3. 100~150만원 미만
4. 150~200만원 미만
5. 200~300만원 미만
6. 300~400만원 미만
7. 400~500만원 미만
8. 500~600만원 미만
9. 600~700만원 미만
10. 700~1,000만원 미만
11. 1,000만원 이상

17.(★) ○○○님 닥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입니까?

1. 예
2. 아니오(해당없음)

18.(★) ○○○님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18-1. 주 보호자	18-2. 부 보호자
1. 아버지	1. 아버지
2. 어머니	2. 어머니
3. 형제자매	3. 형제자매
4. 조부모	4. 조부모
5. 배우자	5. 배우자
6. 자녀	6. 자녀
7. 그 외 가족 및 친인척 (적을 곳: _____)	7. 그 외 가족 및 친인척 (적을 곳: _____)
8. 가족 및 친인척이 아닌 보호자 (적을 곳: _____)	8. 가족 및 친인척이 아닌 보호자 (적을 곳: _____)
	9. 없음

※ (18-1에서 응답하신) 주 보호자님에 대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1~19-9)

19-1.(★) 주 보호자 성별

1. 남성
2. 여성

19-2.(★) 주 보호자 연령 (※주민등록상 만 나이)

만 세

19-3.(★) 주 보호자의 학력

19-3-1. 주 보호자님은 정규 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지막까지 다닌 학교에 응답해 주세요)

1. 안 받았음(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4년제 미만)
6. 대학교(4년제 이상)
7. 대학원 석사 과정
8. 대학원 박사 과정

19-3-2. 주 보호자님은 다니신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1. 재학(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음)
2. 중퇴(학업을 중단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음)
3. 휴학(유예)(학업을 잠시 중단하였으나 학교에 다닐 예정)
4. 수료(과정을 완료했으나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함)
5. 졸업(정규 과정의 학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함)

19-4.(★) 주 보호자 취업상태 (※조사일 기준)

1. 취업
2. 미취업

[부보호자가 있는 경우(18-2=1~8)]

19-4-1. 부 보호자 취업상태 (※조사일 기준)

1. 취업
2. 미취업
9. 모름

19-5.(★) 주 보호자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1	2	3	4	5

19-6.(★) 주 보호자님께서 ○○님을 일주일 평균 며칠 돌보십니까?

일주일 일

19-7.(★) 주 보호자님께서 ○○님을 하루 평균 몇 시간 돌보십니까?

하루 시간

[이미 혼자 살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응답][H2=1, 2]

19-8.(★) 평일에 보호자나 돌봐주는 분 없이 ○○님이 혼자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까?

하루 시간

[이미 혼자 살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응답][H2=1, 2]

19-9.(★) 보호자님 또는 가족이 ○○○님과 일정 시간 떨어져 있어야 할 때 ○○○님을 돌보거나 보호하기 위해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1. 충분히 혼자 있을 수 있어 특별히 조치하지 않음
2. 친척이나 이웃 등 지인의 도움을 받음
3. 활동지원사, 긴급돌봄서비스, 센터 등 기관의 도움을 받음
4. 도움이 필요하나 별다른 방법이 없어 혼자 있게 함

※ 보호자님이 ○○○님을 돌보거나 보호하면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10.(★) 보호자님 가구에서 ○○○님을 돌보거나 보호할 때 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1. 보호자(또는 가족)의 일(직업활동) 지장
2. 보호자(또는 가족)의 육체적인 피로, 건강 악화
3. 보호자(또는 가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4. 집안 모임이나 친구 모임 등 사회활동 지장
5. 보호자(또는 가족)의 여가, 휴식 제한
6. 돌봄, 보호 관련 가족 간의 다툼, 불화
7. 보호자(또는 가족) 이외 돌봐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음
8.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상태 악화
9. 발달장애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
10. 돌봄이나 보호 비용 부담
11. 장애인 당사자의 미래에 대한 걱정
12. 기타(적을 것: _____)
13. 특별히 없음(1순위 응답 가능)

[주보호자 취업 여부에서 "취업"으로 응답한 경우만 응답][I9-4=1]

111.(★) 보호자님이 현재 일을 하면서 예정에 없던 일로 인해 ○○○님을 돌봐주는 사람(또는 기관)을 추가로 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 달 평균 몇 시간 정도입니까?

1. 추가로 구해본 경험 있음 → 한 달 평균 시간
2. 추가로 구해본 경험 없음

•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초과 근무(이른 시간 출근, 늦은 퇴근 등), 야간 또는 주말(휴일) 근무, 업무 관련 출장 등으로 인해 평소에 이용하는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기관 돌봄 등) 외에 급하게 별도의 돌봄 제공자를 구해야 했던 경험을 질문함

112.(★) 보호자님은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①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②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가 높아 통합돌봄이 필요한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2. 내용 중 일부를 알고 있음
3. 그러한 취지의 사업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음
4. 그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름

112-1.(★) ○○○님과 보호자님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 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주간 그룹형 지원)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에서 전문인력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주간 개별 지원)
3. 주중 지역사회 낮 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24시간 개별 지원)
4.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113.(★) 보호자님이 ○○○님을 돌보거나 보호하면서 느끼는 전반적 부담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매우 부담된다	부담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	2	3	4	5

114. 보호자님은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합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보호자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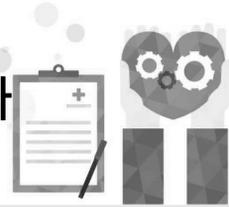
※ 이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PL/ER 읽기쉬운 조사표)



안녕하세요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당신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해 주세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해 주세요.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말해 주세요.

당신은 편안하게 이야기 하면 됩니다.
당신이 이야기 해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와 당신만 아는 비밀입니다.
비밀이란 당신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부모님
직장 사람들
그 외 모든 사람들

당신이 이야기를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2024. 6.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 향 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조 윤 경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31-728-7143 (이메일: survey@kead.or.kr)
http://www.kead.or.kr

조사기관

 Hankook Research
☎ 02-3014-1056 (이메일: kimbrm@hrc.co.kr)
http://www.hrc.co.kr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PID	조사대상자 이름



QA. 취업과 일자리 : 취업자 조사(보호자 조사표 C1=1)

지금부터 000님의 취업과 일자리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은 000님이 직접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 000님이 다니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 물어볼게요.

QA1. 000님은 왜 일을 하나요? 한 개만 골라주세요.

1. 나는 돈을 벌고 싶다
2.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
3. 나는 일을 배우고 싶다
4. 나는 집에만 있기 싫다
5. 다른 사람이(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일하라고 한다
6. 기타(적을 것:)

QA2. ○○○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한 개만 골라주세요.

	<p>1. 나는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일한다 (예: 바리스타, 제빵, 사장, 점주)</p>
	<p>2. 나는 사무실에서 일한다 (예: 문서정리, 복사, 청소, 도서대출 등)</p>
	<p>3. 나는 공장에서 일한다 (예: 기계작동, 포장, 조립, 재료 씻기 등)</p>
	<p>4. 나는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키운다</p>
	<p>5. 나는 배달을 한다 (예: 택배 배달, 도서 운반)</p>
	<p>6. 나는 다른 일을 한다 (적을 것: _____)</p>

QA3. ○○○님은 일 다니는 것이 어때요?

1. 나는 일 다니는 것이 좋다
2. 그냥 그렇다
3. 나는 일 다니는 것이 싫다

QA4. ○○○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1.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다
2. 그냥 그렇다
3.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싫다
4. 나는 혼자 일한다

QA5. ○○○님은 하는 일이 재미있어요?

1. 나는 하는 일이 재미있다
2. 그냥 그렇다
3. 나는 하는 일이 재미없다

QA6. ○○○님은 하는 일이 힘들어요?

1. 나는 하는 일이 힘들다
 2. 그냥 그렇다
 3. 나는 하는 일이 힘들지 않다
- ER은 QA8로

QA7. [PL만 응답] ○○○님은 하루에 일하는 시간보다 더 길게 일하고 싶어요?

1. 지금보다 더 길게 일하고 싶다
2. 지금이 좋다
3. 지금보다 더 짧게 일하고 싶다

QA8. ○○○님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교육받고 싶어요?

1. 나는 교육을 받고 싶다
 2. 나는 교육을 받기 싫다
- ER은 QA11로

QA9. [PL만 응답] ○○○님은 일하고 돈을 얼마 받는지 알아요?

1. 나는 내가 얼마 받는지 알고 있다 → QA10으로
2. 나는 내가 얼마 받는지 모른다 → QA11로

QA10. [PL만 응답] ○○○님은 일하고 받는 돈이 적당해요?

1. 적당하다
2. 돈이 적다

QA11. ○○○님은 일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모두 골라주세요.

	<p>1. 나는 일하러 갈 때와 일이 끝나고 집으로 갈 때 도움이 필요하다</p>
	<p>2. 나는 식사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p>
	<p>3. 나는 화장실 갈 때 도움이 필요하다</p>
	<p>4. 나는 다른 사람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현재 기준)</p>
	<p>5.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p>	<p>6. 나는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 (적을 것:)</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3em;">X</p>	<p>7.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p>

QA12. ○○○님이 하는 일은 다칠 수 있어요?

1. 내가 하는 일은 다칠 수 없다
2. 내가 하는 일은 다칠 수 있다

QA13. 안전교육은 일할 때 다치지 않기 위해 받는 교육입니다. ○○○님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1. 나는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2. 나는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QA14. 일을 하다가 불이 나면, ○○○님은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1. 나는 스스로 갈 수 있다 → QA15로
2. 나는 스스로 갈 수 없다 → QA14-1로

QA14-1. 일을 하다가 불이 나면, ○○○님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사람이 있나요?

1. 나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줄 사람이 있다
2. 나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

QA15. ○○○님이 일할 때 사람들이 놀리거나, 때리거나, 아프게 한 적이 있나요?

1. 장애인이라고 놀리거나 아프게 한 적이 있다
2. 장애인이라고 놀리거나 아프게 한 적이 없다

QA16. ○○○님은 일하다가 힘들거나 화날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1. 나는 혼자서 쉬고 싶다(혼자 있고 싶다)
2. 나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
3. 나는 집에 가고 싶다
4. 나는 다른 것을 하고 싶다(적을 것:)

QA17. ○○○님은 지금 일하는 곳을 계속 다니고 싶어요?

1. 나는 계속 다니고 싶다
 2. 나는 다른 일자리에 가고 싶다
 3. 나는 일하기 싫다
- ER은 QB1로
→ PL이고 QA17=1,3은 QB1로



QA. 취업과 일자리 : 미취업자 조사(보호자 조사표 C1=2)

지금부터 000님의 취업과 일자리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은 000님이 직접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 사람들은 회사나 마트에서 일하고 돈을 벌니다.

○○○님도 다른 사람처럼 일하고 싶는지 물어볼게요.

QA19. ○○○님은 일하고 싶어요?

1. 나는 일하고 싶다 → QA21로
2. 나는 일하고 싶지 않다 → QA20로

QA20. 지금 말고 나중에는(또는 어른이 되면) 일하고 싶어요?

1. 나중에는(또는 어른이 되면) 일하고 싶다 → QA21로
2. 나중에도(또는 어른이 돼도) 일하고 싶지 않다 → QA26로

QA21. 당장 내일부터 바로 일할래요?

1. 네, 일할래요
2. 아니요, 안할래요

QA22. ○○○님은 왜 일을 하고 싶은가요? 한 개만 골라주세요.

1. 나는 돈을 벌고 싶다
2. 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
3. 나는 일을 배우고 싶다
4. 집에만 있기 싫다
5. 다른 사람이(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일하라고 한다
6. 기타(적을 것:)

QA23. ○○○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한 개만 골라주세요.

	<p>1. 나는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일하고 싶다 (예: 바리스타, 제빵, 사장, 점주)</p>
	<p>2.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 (예: 문서정리, 복사, 청소, 도서대출 등)</p>
	<p>3. 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 (예: 기계작동, 포장, 조립, 재료 씻기 등)</p>
	<p>4. 나는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키우고 싶다</p>
	<p>5. 나는 배달을 하고 싶다 (예: 택배 배달, 도서 운반)</p>
	<p>6. 나는 다른 일 하고 싶다 (적을 것:)</p>

QA24. ○○○님은 누구와 일하고 싶어요? 한 개만 골라주세요.

1. 나는 혼자서 일하고 싶다
2. 나는 장애인이 모여서 일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3. 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QA25. ○○○님은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1. 나는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2. 나는 일하는 방법을 배우기 싫다

→ QB1로

[QA20=2. 일하고 싶지 않은 경우만 응답]

QA26. ○○○님은 왜 일하기 싫어요? 한 개만 골라주세요.

1. 나는 일하는 게 싫다
2.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
3. 나를 안 뽑아 줄 것 같다
4. 나는 몸이 아파서(장애 때문에) 일하기 싫다
5. 나는 일해 본 적이 없어서 일하기 싫다
6. 나는 일이 힘들어서 일하기 싫다
7. 기타(적을 것: _____)

→ QB1로

• 보기 설명

- '1. 나는 일하는 게 싫다'는 취업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을 의미합니다.
- '6. 나는 일이 힘들어서 일하기 싫다'는 과거 경험 또는 현재 예측 시 육체적, 정신적, 기능적으로 일하기가 어려워서 하기 싫은 것입니다.



QB. 공통조사

지금부터 000님의 일상생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은 000님이 직접 말해주셔야 합니다.

※ 000님의 건강과 기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QB1. 000님은 요즘 건강해요?

1. 나는 건강하다
2. 그냥 그렇다
3. 나는 건강하지 않다

QB2-1. 000님은 요즘 생활이 행복해요?

		
매우 그렇다	그냥 그렇다	전혀 아니다
1	2	3

→ ER은 QB3-1로

QB2-2. [PL만 응답] 000님은 요즘 가족들과는 잘 지내요?

		
매우 그렇다	그냥 그렇다	전혀 아니다
1	2	3

→ 응답 후 QB3-2로

※ ○○○님이 무엇을 하고 싶는지 물어보겠습니다.

QB3-1. **[ER만 응답]** ○○○님이 다음 세 가지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을 한 개만 골라주세요.

1.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
2. 나는 복지관이나 센터에 가고 싶다
3. 나는 일해서 돈 벌고 싶다

→ 응답 후 QB4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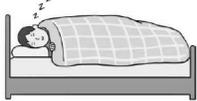
QB3-2. **[PL만 응답]** ○○○님이 다음 세 가지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을 순서대로 골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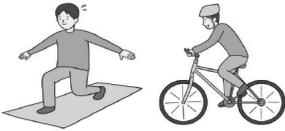
1등		2등		3등	
----	--	----	--	----	--

1.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
2. 나는 복지관이나 센터에 가고 싶다
3. 나는 일해서 돈 벌고 싶다

QB4. ○○○님은 시간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어요? 두 개씩 골라주세요.

QB4-1. 집 안 활동

	1. TV 보기
	2. 인터넷, 게임하기
	3. 운동하기
	4. 자거나 그냥 쉬기
	5. 청소하기
	6. 음식 만들기
	7.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8. 개, 고양이와 지내기
	9. 나는 다른 것을 하고 싶다 (적을 것:)

QB4-2. 집 밖 활동	
	1. 친구나 다른 사람 만나기
	2. 여행가기
	3. 운동하기
	4. 영화관, 노래방, PC방 등 가기
	5. 쇼핑하기(마트, 백화점 등)
	6. 맛있는 것 먹으러 가기
	7. 교회, 성당, 절 가기
	8. 나는 다른 것을 하고 싶다 (적을 것:)

※ ○○○님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겠습니다.

QB5. ○○○님은 친구가 있나요?

1. 나는 친구가 있다
2. 나는 친구가 없다

→ PL은 QB6-2로

QB6-1. [ER만 응답] ○○○님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할 수 있나요?

1. 나는 인사할 수 있다
2. 나는 인사할 수 없다

→ 응답 후 QB7로

QB6-2. [PL만 응답] ○○○님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기 전에 먼저 말을 걸 수 있나요?

1. 먼저 말을 걸 수 있다
2. 먼저 말을 걸 수 없다

QB7. ○○○님은 화가 나면 화났다고 말할 수 있나요?

1. 나는 화가 났다고 말할 수 있다
2. 나는 화가 났다고 말할 수 없다

※ ○○○님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겠습니다.

QB8. ○○○님은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카드)이 있나요?

1. 나는 돈이나 카드가 있다
2. 나는 돈이나 카드가 없다

※ ○○○님이 장애로 인해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QB9. ○○○님은 평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1.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2.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
3.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 ER은 QB11로

QB10. [PL만 응답] ○○○님은 장애가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이 있나요?

1. 나는 장애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이 있다
2. 나는 장애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한 적이 없다

QB11. ○○○님은 장애 때문에 놀림이나 따돌림(왕따)을 받은 적이 있나요?

1. 놀림이나 따돌림(왕따)을 받은 적이 있다
2. 놀림이나 따돌림(왕따)을 받은 적이 없다

QB12. 다른 사람이 ○○○님을 때리거나 아프게 한 적이 있나요?

1. 때리거나 아프게 한 적이 있다
2. 때리거나 아프게 한 적이 없다

※ ○○○님이 나중에(또는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물어보겠습니다.

QB13. ○○○님은 나중에(또는 어른이 되면) 누구와 살고 싶어요? 한 개만 골라주세요.

1. 나는 가족(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
2. 나는 결혼해서 아내(남편)과 살고 싶다
3. 나는 친구와 살고 싶다
4. 나는 혼자서 살고 싶다

→ ER은 QB15로

QB14. [PL만 응답] ○○○님은 하고 싶은 것을 ○○○님이 직접 결정할 수 있나요?

1.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2.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하기 어렵다

QB15. ○○○님은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한 개만 골라주세요.

1. 나는 글 읽고 쓰기, 숫자 계산을 배우고 싶다
2. 나는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3. 나는 돈 계산, 지하철 타기 등 사는데 필요한 방법을 배우고 싶다
4. 나는 요리, 운동,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즐기는 활동을 배우고 싶다
5. 나는 다른 것을 배우고 싶다 (적을 것:)
6. 배우고 싶은 것이 없다

→ 현재 초·중·고에 재학/휴학 중인 경우는 QB16로

→ 그 외 PL은 QB18로

→ 그 외 ER은 QB19으로

[현재 초·중·고에 재학/휴학 중인 경우인 경우만 응답]

※ ○○○님의 학교생활을 물어보겠습니다.

QB16. ○○○님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아요?

1. 나는 학교 다니는 것이 좋다
2. 그냥 그렇다
3. 나는 학교 다니는 것이 싫다

QB17. ○○○님은 학교를 졸업하면 뭐하고 싶어요? 한 개만 골라주세요.

1. 나는 고등학교(또는 대학교)에 가고 싶다
2. 나는 일해서 돈 벌고 싶다
3. 나는 일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전공과 포함)
4. 나는 집에서 쉬고 싶다
5. 나는 복지관, 센터에 다니고 싶다
6. 나는 다른 것을 하고 싶다 (적을 것:)

→ ER은 QB19로

QB18. [PL만 응답] ○○○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냥 그렇다	전혀 아니다
	1	2	3
1.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2.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3.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4.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QB19. ○○○님은 집에 불이 나면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어요?

1. 나는 소방서에 연락할 수 있다
2. 나는 소방서에 연락할 수 없다

◎ PL / ER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사통계 2025-02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발행일 2025년 4월

발행인 조윤경

발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주소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구미동)

전화 (031) 728-7143

팩스 (050) 3470-0904

홈페이지 <http://edi.kead.or.kr>

전자우편 survey@kead.or.kr

인쇄 (주)한국척수장애인협회 디지털사업단 ☎ (053) 965-7277

*비매품

EDI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구미동)

Tel. 031-728-7143 Fax. 050-3470-0904

<https://edi.kead.or.kr>

